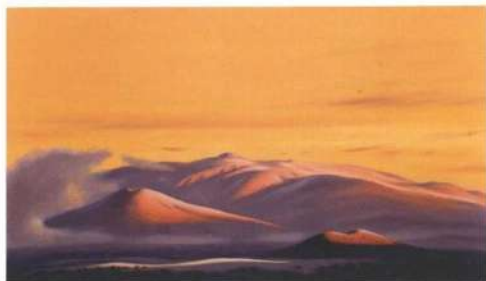


한라산총서 개정증보판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3-01

한라산총서 5

한라산의
구비전승·
지명·풍수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2020)

채기선 | 蔡基善, Chae Ki-seon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논문: 한라산 형상의 심상표현연구)

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像-한라산'(국립현대미술관)

주요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라의 봄, 100호)

수원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서울지법 고양지원 (한라산, 300호)

제주도 문화진흥원(법성, 20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산, 1000호)

제주KCTV방송국 (일출봉, 200호)

한라병원(섬지코지의 아침, 1000호)

서울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150호)

한라일보사 (한라산, 300호)

기당미술관 (한라산 영원의 빛, 50호)

KBS 제주방송총국 (한라산 영원의 빛, 500호)

제주도립미술관 (마음의 풍경-한라산, 300호)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100호 한라산)

MONO12023000004034

915.1985 -23-7

한라산총서 5

한라산의
구비전승·
지명·풍수

0002959383



2023.02.13(기증)

인쇄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디자인·인쇄 디자인리더제주 (064-746-0775)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3-01

ISBN 979-11-977355-4-7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자료 중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복제할 경우 사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064-710-2752)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064-757-1008)

목 차

제1장 한라산의 구비전승

1. 신화, 본풀이	11
원초적 대모신-설문대할망	14
한라산의 남성신들	18
2. 전설	48
백록담	50
영주산의 백록	53
영실기암	54
용진각과 탐라계곡	57
물장오리	58
아흔아홉골	62
개미목 명당자리	63
고려장	66
3. 민요	69
산	70
오름	88
한라산	93
꽃	99

제2장 한라산과 지명

1. 들머리	105
2. 탐라산(耽羅山)과 한라산(漢拏山·漢羅山·漢拿山), 나악(拏岳) ...	107
3. 한라산의 별칭 및 이칭	109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안의 여러 지명	119
5.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지명	142

제3장 한라산의 풍수

1. 한라산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 풍수의 관념적 특성.....	167
2. 한라산과 연계된 제주 풍수의 내재성(內在性)	177
3. 한라산으로부터 이어진 지맥과 이에 따른 단혈(斷穴) 전설	206
4. 한라산과 오름의 지세로 본 비보(裨補)·압승(壓勝)의 풍수관	217
5. 제주 풍수의 모체(母體)인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 관계	236

6. 한라산으로부터 이어진 제주의 풍수적 지맥(地脈)	253
7. 한라산과 오름의 풍수적 상징성	262
8. 한라산이 품은 제주 오름의 풍수적 가치	273
9. 한라산의 산세와 오름을 통한 제주의 형기론 풍수	298
10. 한라산이 품은 오름의 묘지풍수(墓地風水) 특징	304
11. 제주 풍수의 자연환경 접근과 가치	306
12. 맺음말	312

한라산
구비전승서
5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제 1 장

한라산의 구비전승



여 백

구비전승(口碑傳承)이란 문자가 아닌 입으로의 전승, 곧 구연(口演)형식으로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고정화된 장르를 말한다. 이러한 장르로는 민요, 무가, 판소리 장르를 들 수 있다. 구비전승은 문자로 정착되었을 때는 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고도 한다.

제주 사람들의 구연형식으로 생산된 한라산과 관련한 구비전승 장르로는 신화, 전설, 민요, 속담으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한라산을 제재로 해서 흔히 문자보다는 구술 형태로 전해져 온 구비물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은 이를 채록하여 고정화했다. 대체로 이러한 구비장르 유형은 민속학이나 인류학적인 방법론을 차용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한라산과 관련된 신화로는 산신 계열의 신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지형이나 장소에 얽힌 전설, 그리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노래인



그림 1-1. 한라산 백록계곡(2019, 제주학아카이브)

민요, 그리고 간단한 언술 형식의 속담 등과 같은 장르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라산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난 사고방식이나 인식, 정서 등은 구비전승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타난다.

대부분 구비전승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작이면서도 지속적인 전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층(積層)성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한라산을 소재로 하거나 한라산 계열이라고 하는 신화, 전설, 민요, 속담 등에 나타난 제주민의 정서와 인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신화, 본풀이

한라산 관련 신화는 설문대 신화와 한라산계 본풀이를 들 수 있다. 제주를 창조한 거녀 여신인 설문대 신화와 한라산 태생의 수렵적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 남성신들에 대한 본풀이¹⁾다.

문헌상에 나타난 설문대에 대한 기록은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에서 찾을 수 있다. 장한철은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고(洗麻姑) 신에게 절하며 축원했다”(영조 46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면 당시 백록을 탄 신선이 한라산을 주름잡고 있다는 도교적 신선 사상과 더불어 여신성을 가진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의 여산신으로 좌정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산신에 대한 기원은 한국 본토에서는 신라 시대로 소급될 수 있는데, 당시 산신제는 국행제인 경우 영산(靈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라의 산천제에서 산신은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신봉하는 호(虎)산신이나, 국행제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등장한다. 설문대할망은 강원도의 마고할미, 북한산 노적봉의 미륵할미와 비교해 볼 때 창조형 거인 여신이며 여산신으로서의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신앙의식은 성모여산신의 도교적 성격과 관련되면서 호국신(護國神)이며 성모신(聖母神)의 성격도 다분히 첨가되고 있다.

성모여산신에 대해 손진태는 《조선민족문화의 연구》〈朝鮮 古代의 山神의 性에 就하여〉에서 《三國遺事》감통(感通) 제7에 나오는 선도성모는 중국의 제실지녀(帝室之女)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사람에게 의심을 받자, 배를 타고 진한(辰韓)에 와서 해동의 신라시조(新羅始祖)인 혁거세를 낳은 여산신으로 보고 있다. 이 여신은 신라

1) 제주의 무속신화를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에 대한 뿌리 혹은 근본을 풀어서 구연한다는 뜻이다.

남해왕(南解王)의 비, 운제(雲帝) 부인인 운제성모(雲梯聖母), 혹은 가야산성모(伽倻山聖母), 지리산(智異山), 치술령(踐述嶺) 신모(神母)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초기의 여산신의 출현은 “원시사회에 있어서 모권이 강했고, 원시 종교에서 여무(女巫)가 주재자였다”는 사실에서 비롯했다.

곧, 선도산 성모 신화는 혁거세 신화보다 앞선 것이므로 신적 속성은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신 관념으로 표상이 가능한데, 그 역할은 지모신, 생산신으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설을 대입하여 한라산과 관련한 설문대 신화나 한라산계 당 신화와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여성성을 지닌 설문대계와 남신인 한라산계 신화 중 설문대계 신화인 여신 신화가 그 시대적인 면에서는 우선하고 있다고 보는 점이 설득력이 있다.

오줌 줄기가 힘이 세고 양이 많다는 것은 생식력과 다산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문대 할망은 다른 지역의 성모신이나 마고할미와도 유사하고, 이러한 신격들은 세계창조의 대모신으로, 건국신화에는 편입되지 못한 채 국가적인 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고유한 창조행위를 담당한 생산신으로 숭앙되던 원초적인 신격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제러미 테일러는³⁾ 설문대할망 신화 의례는 전 인류에 되풀이되어 등장하는 ‘위대한 여신’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 원형이라는 것은 여성적인 측면, 여신원형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고 지역과 지구 생태계 생명의 도래와 파멸, 그리고 모든 유기체의 위대한 그물망이 조화롭도록 관장하는 ‘어머니이신 자연’(Mother Nature)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정의한다.

또한 거녀인 설문대 전설에서는 치마에 흙을 담아서 봉우리를 만든다거나, 배설

2) 김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3)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사, 2010, 6쪽.

한 대소변으로 산천을 만드는 등 신화적 속성을 창조행위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원초적인 신격으로 세계창조 행위와 자연물의 내부를 질서화한 여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설문대가 대모신(the great mother)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설문대 여신에 대한 신앙은 이후 한라산 태생의 남성신들인 당신(堂神)으로 대치하게 된다. 아마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계 남성신에 대한 본풀이는 제주민들의 마을 설촌이나 제주민의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그러면 한라산계 당신본풀이를 들여다보자.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남성신 아홉 형제가 태어난다. 이들은 제석천왕, 하로백관 등의 신명으로 나타나며, 제석천왕은 천신적(天神的) 성격을 지니고, 하로백관은 산신(山神) 혹은 수렵 주종의 목축신의 성격을 지닌다. 또 하로백관에서 ‘하로’는 ‘한라산’에 해당되고, ‘백관’은 특정한 영역을 관리하는 신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출현은 한라산에서 ‘솟아났다’란 점에서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의 삼을라가 모흥혈에서 솟아났다는 점과 일치한다. 손진태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남성신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고대국가 이전의 원초적 관념의 성격을 띤 거녀류인 여산신의 우세권에서 단군신화(檀君神話)의 주인공 단군(檀君)이 남성성을 띤 남신(男神)이 된 것처럼 여성신에서 남성신으로 성이 바뀌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라 시대 이후 고려 통일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계급 또는 지식계급 사이에 중국 전래의 부권(父權) 본위의 사상이나 필연적인 사회사상에 의하여 점차로 여신이었던 산신이 남성신으로 화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한라산계 설문대 여신 신화는 고려기를 거치면서 바로 ‘부름웃도’와 같은 남신(男神)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초적 대모신-설문대할망

사실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설문대신화의 전설적인 모티프를 통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신화적 상징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옛날 제주도에 고, 양, 부 삼을라가 태어난 시대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설문대라는 이름 외에도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 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창조한 창조적 대모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지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빨래를 할 때는 왼쪽 발은 한라산에, 오른쪽 발은 산방산(山房山)을 딛고 서서 태평양 물에서 자신의 옷을 빨기도 하고,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다른 한쪽은 소섬을 딛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고도 하며, 또 왼쪽 발은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에 딛고 오른쪽 발은 마라도(馬羅島)에, 옷은 남원을 위미리 앞쪽에 있는 지귀섬(남원을 위미리)에 놓고 했다고도 한다. 또 북쪽 바다를 향해서 빨래를 하려고 하면, 추자도(楸子島)와 완도에 발을 딛고서 보길도(甫吉島)에 옷을 놓고 했다.

설문대할망은 비록 여자지만 제주도를 통치할 야욕을 품고 제주 지형을 차례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제주도에 360여 개나 되는 산(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마폭에 흙을 넣고 다니다가 센 것이 오름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삼으로 흙을 나르면서 한 줍씩 집어넣은 것이라고도 한다. 구좌읍(舊左邑) 경에 있는 다랑쉬 오름은 움푹하게 패어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넣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서 덜었더니 그러한 형상이 된 것이다.

성산리(城山邑)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설문대할망이 외출을 했는데, 바짝 오줌이 마려웠다. 그래서 한쪽

밭은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의 식산봉(食山峯)을 디디고, 한쪽 밭은 일출봉에 놓고 앉아 오즘을 썼다.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파이며 오즘은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나갔고, 제주 섬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떨어져 나갔다. 이 섬이 바로 소섬, 우도다. 그때 흘러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워낙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고래나 물개 따위가 살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때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배가 난파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그 형체를 찾을 수 없었다.

오즘뿐만 아니라 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찐 똥이 산이 된다. 한라산을 베개 삼으면, 밭이 바닷가에 잠기며, 밭을 잘못 뺏어 쉼섬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오즘 놀 때,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들이 할망의 성기를 굴로 착각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자, 할망이 간지러워 오즘을 짜서 오즘은 바로 내(川)가 되었다. 성산일출봉에는 할미가 길쌈할 때 쓰던 접시 불인 등경돌이 있다.

거인인 할망은 남의 옷은 해주면서도 자신의 속옷조차 제대로 해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은 부지런히 명주 100통을 모았고, 할머니는 부지런히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런데, 속옷은 명주 백통이 필요했으나 제주 사람들은 아무리 모아도 99통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은 만들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아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바다로 뺏어 나간 것이 그 흔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 땅은 영원한 섬일 수밖에 없었다.

키가 큰 자신을 늘 자랑하던 할머니는 제주도에 있는 깊은 물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용담동에 있는 용연에 들어가 보니 물이 밭등에 찼고, 서귀포의 서흥리 홍리물은 무릎까지 왔다. 할망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한라

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알아보기 위하여 그 속에 몸을 담갔는데,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도 한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한없이 깊은 물인 줄을 몰랐다.⁴⁾

제주민들이 구연하고 있는 설문대할망 전설에 나타나는 신화적 상징성을 모티프로 분석하여 해석한 고혜경 박사의 신화 해석은 경청할 만하다. 그녀는 전설의 증거물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출봉의 등경돌은 제주민의 의식을 밝히는 등불이며, 바느질이라는 것은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실을 자아내어 밤과 낮, 어두움과 밝음, 물과 불, 바다와 물, 밀물과 썰물, 달과 해, 잠과 깨어남, 죽음과 탄생, 소리와 빛, 자연과 문명의 씨실과 날실로 생명의 그물망을 짜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림 1-2. 설문대의 등경돌(2015, 제주학아카이브)

4)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설문대 신화 모티프를 맥락에 의해 통합 정리함.

특히 등경들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행위인 설문대할망의 길쌈은 새로운 판을 짜고, 새 시작을 예고하고, 새 세상을 여는 행위와 관련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설문대와 제주 사람들과의 약속에서 ‘속옷 만들기’와 ‘다리 놓기’ 두 개의 모티프는 강한 화합과 연결의 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속옷은 여성들의 생명력과 생생력의 근원적인 힘을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젖가슴과 엉덩이를 가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힘이 집중된 곳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할머니의 속옷은 지역민의 능력 부족으로 완성될 수 없었고, 할망이 제주에서 육지와와 다리를 놓아가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세계창조의 대모신의 한계이면서 이는 되돌려 제주민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설문대할망 전설에 나타나는 거녀신의 창조신적인 면모는 다양하다. 고혜경은 제주의 오름을 창조하기 위해 흙을 날랐다는가, 수수범벅을 먹고 똥이 오름이 되었다는 것은 신화학에서의 ‘항문출산’(anal birth)으로 보고 있다. 거대한 할망의 원초적이고 강렬한 동력이 똥바다를 만들어 내고 360개의 오름을 탄생시켜 세상을 그득 채우게 되었고, 할망은 강한 오줌줄기로 인해 깊은 바다와 할망의 땅을 잘라 떠밀어낸다.

전설과 민담에 나타나는 거녀의 성기에 대한 서술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거기가 너무 커서 사슴과 같은 짐승들이 굴인 줄 알고 들어가자, 간지러워 오줌을 누고 제주의 하천이 형성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설문대 하르방이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물고기가 많아 할멈에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물아가겠다고 해서 하르방이 물고기를 그 속으로 몰아가 많이 잡았다는 민담이 있다. 이와 같은 구전 민담은 신화가 신성성이 사라지고 회화화되면서 민담 차원으로 장르 변이를 가져온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한라산의 남성신들

제주의 본풀이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 강정식은 한라산계 당신 본풀이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창천리 고창학 심방에 의해서 구연된 본풀이 자료를 예로 들어 아홉이나 되는 형제들의 탄생을 종지용출과 서차, 신의 출자나 특성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로 영주삼신산 상상 고고리 셋어깨 을축 삼월 열사흘날 유시 아홉형제 솟아 나니, 아홉성제 각기 분홀 때 큰 성님은 정의 수산 올웨믄루 하로산, 둘째 물미제석 천왕 하로산, 세차는 예촌 고병석도 하로산, 니차는 동서흥리 고산국 하로산, 다섯차는 중문이 동백자 하로산, 여섯차 하열리 동백자 하로산, 일곱차 날웨 제석천왕 하로산, 여덟차 통천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 하로산, 아홉차 색달리 제석천왕 하로산, 각 마을에 분겨뒀는디...”⁵⁾에서처럼 그 태생의 순서가 있고 분포 지역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고 있다.

특히 그는 한라산계 본풀이를 송당계, 예래계, 금악계 본풀이로 분류하고 각 본풀이의 연계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⁶⁾ 그런데 한라산계 본풀이 중 송당 본향당신 아들 중 다섯째 아들인 성산읍 수산2리에 좌정한 ‘수산하로산’은 한라산계 아홉 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이 되는데, 송당계와 한라산계는 서로 유명신당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의 명칭이 넘나뒀음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라산계와 예래계와의 관계는 부녀기간이 되어 여성신 계보를 형성하기도 한다. 아버지 ‘하로하로산’과 ‘족다리대서부인’ 사이에서 딸 일곱을 낳았는데, 이 딸들은 안덕면 창천리, 통천리, 감산리 등의 당신으로 좌정한다. 이러한 당신의 전파는 이 지역 여성들의 혼인에 따른 신앙 분리와 마을 설촌에 의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509-510쪽.

6) 강정식, 〈濟州島 당신 본풀이의 傳承과 變異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그림 1-3. 서귀포시 감산본향당(2020, 좌혜경)

또 한라산계와 금악계의 관계는 한라산계의 서귀포시 ‘호근본향당’의 본풀이를 논거로 삼을 수 있다. 한라산 신의 딸이 부모로부터 쫓겨난 뒤 대정으로 이동하면서 곳곳마다 일월당을 설립하고 있어서, 이들 당신들의 계보는 실제로 단골들의 혈연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서귀본향당 신화의 남 주인공 ‘벼름웃도’,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의 ‘천자또’, 송당본풀이의 본향신인 ‘백주또’의 남편 ‘소로소천국’, 금악리 본향당 본풀이의 ‘황서국서’ 등도 한라산 태생의 신들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당신본풀이에는 좌정 경위담 혹은 제향 경위담이 들어 있다. 또한 한라산 태생의 남성신들은 외방에서 온 여신들과 더불어 갈등을 일으켜 분가하고, 한라산을 떠돌며 생활하던 수렵 생활에서 일정지역에 정착하여 농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신화에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라산 신을 만들고 마을마다 가지를 뻗으면서 전도적으로 분포하는 과정이 잘 서술되고 있다. 신들은 외부의 여성을 만나서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하거나 투쟁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본풀이 속의 전개 양상은 바로 제주인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다.

브로못도—서귀본향당신

남신 브로못도는 서귀본향당에 좌정한 남신으로 ‘바람’인 자연을 인격화하여 ‘바람 위에 좌정해 있는 신’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도 해석한다. 그는 홍토나라 여행 중 절세미인인 지산국을 만나고 한눈에 반한다. 그는 피를 써서 그 집에 머물고, 사위가 되겠다고 청혼을 했는데 허혼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보니, 신부는 그 미인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추녀 고산국이다. 실망한 브로못도는 며칠을 지내며 동생인 지산국과 사귀고 끝내는 둘이서 제주도의 한라산으로 도망쳤다. 이것을 안 언니는 곧 뒤쫓아 달려와서 다툼을 벌였으나 남편 브로못도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어, ‘뽕개질’을 해서 좌정할 영역을 나누기로 했다.

뽕개가 떨어지는 곳에 마을을 차지하여 당신이 되고, 두 자매는 서로 인연을 끊기로 했다. 고산국은 뽕개질을 하니 돌맹이가 서흥리 흑담에 가서 떨어지고 브로못도는 뽕개질을 하자 돌맹이가 서귀포 문섬에 떨어졌다.

그 결과 고산국은 서흥리를 차지하게 되고, 브로못도와 지산국은 동흥리와 서귀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서로 갈라설 때 고산국이 선언했다.

“너희의 원수는 이루 다 갚을 수가 없다. 이제는 땅과 물을 갈라라. 너희 지경 사람은 우리 지경 사람과 혼인도 못 한다. 너희 지경 마소도 우리 지경에 못 온다. 너희 지경 사람도 못 온다. 우리 지경의 것은 산의 나무도 다 내 권리이니 손 못 댄다. 나도 너희 지경의 것은 탐내지 않겠다.” 이렇게 갈라섰기 때문에 양쪽 마을 사이에는 서로 혼인이나 마소의 매매 등 일체의 교제를 끊게 되었다는 것이 본풀이 전체의 대강이다.

여기 서귀본향당은 우리 제주도의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신하면, 송당에 ‘백주또’, ‘소로소천국’ 거기 자식들이 마을마다 본향당의 당주로서 토지관으로서 안주하면서, 이제 본향당이 생기고 했는데, 서귀본향당은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란 말은 천신입니다.

여기에 신화의 말미 첫 소절에도 나와 있지만 홍토나라, 홍토나라는 풍토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의 나라죠. 바람 나라의 왕하고 비우천리 비우나라라는 비의 나라입니다. 비우나라의 여왕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자식이, 큰 아들이 되는 ‘브로못도’ 님이 우리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유람을 하게 되는데 유람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고산국이란 나라에서 하룻밤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게 되는데 그 고산국은 과연 어디냐 고산국은 우리 고조선사에 보면 일흔여덟 개의 촌·읍 중에서 고산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고산국에서 기거를 하다가 마침 거기에는 딸을, 어떤 대감의 딸을 보고 반해서 마음속으로 점지를 했지만, 함부로 딸을 달라고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 다음 날이 돼서야, 주인장 되는 대감님한테 혹 이제 따님을 저한테 시집오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한 것이, 그러면 옛날에도 장기바둑을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바둑을 두어서 이기면 내가 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장기를 뒀는데 세 번 다 이겼어요. 초 판 이 판 삼 판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삼세 번에 승부를 하는 하나의 관례인데 세 번 다 이기니까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부랴부랴 서둘러 결혼을 하는 데 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 놓고 첫날밤에 대감님 집에서 서로 인연을 맺으려고 해서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가 봤던 아녀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신부는 얼굴에 너울을 쓰고 했는가 봐요. 방안에 들어와서 너울을 걷어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곰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사내라고 봐야지 여자라고 볼 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뒤돌아 앉아서 핑계 삼아 책을 읽습네 해서 책을 읽고, 그러다 날이 밝아서 아침에 시녀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데 대야에다 세숫물을 가져오자 시녀한테 살그머니 물었어요.

이 집에 딸이 몇이나 되느냐 했더니

“딸이 둘인데요”, “아 그럼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어디계시냐” 했더니, 따님이 방에 있는데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글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구요. 그래서 이 분이 큰 부인이 되는 신부하고 인연을 맺을 마음이 없어서 그로부터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칩간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 행여나 만나진 않을까, 자기가 반했던 아녀자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칩간을 왕래하다 보니 작은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딸도 자기 언니하고 결혼했으나 처음에 남자를 봤을 적에는 남자에게 반했던 거죠. 마음에 심중에는 그렇게 연을 짝을 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본부인 모르게 밀회를 했는데,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자, 그래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이 어디냐 했더니 천상에서는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경치 좋고 좋은 곳을 다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같은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하는데, 예의 바른 나라에 보고 싶다 해서 내려왔던 길에 고산국에서 인연을 맺었는데 작은딸하고, 그럼 보고 싶지 않은 곳에 몰래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삼신산 중에 방장산, 금강산을 찾아옵니다.

금강산을 찾아오고 나서 금강산을 두루 보니 산세 수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람이 살기엔 너무 각박하다. 이곳엔 짐승들이 살기엔 천상이지만, 인간이 살기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온 것이 방장산에 이릅니다.

방장산에 와서 지리산에 와서 보니까 지리산 세가 너무나 완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뱀굴이 많아요. 아 여기는 그렇게 흉칙한 동물하고는 같이 기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영주산을 한번 보자, 그래서 물 건너 온 것이 한라산에 이릅니다.

천상의 신의 자식이니까, 모든 조화를 부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조화를 부려서 구름도 타고 한라산에 당도하니까 마침 한라산이 밤이었어요. 밤이 되가지고 우리 무속에는 ‘일목공’이라 그러는데 밤이 되고 안개가 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라산 백록담 절벽에 걸터앉아 가지고 동생 되는 분하고 그니까 처제하고 손을 잡고서 앉아있다가 날이 빨리 밝아야 되겠다, 안개도 걷혀야겠다 해서 주문을 외고 자기가 가졌던 부채로 한 세 번 주문을 외고 걷으니까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습니다.

그걸 뭐 ‘동경개문’ 열린다 하는 식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 다음 날이 밝으니까 절벽 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 돌아보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다. 너른 들판이 보이고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만한 곳이다 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이 지금의 미악산에 이릅니다.

솔오름, 솔오름에 와서 동창막 서막이여 동막이여 천으로 하지만, 아마 그때 자기네가 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하나의 바람 의지하는 곳에 안주했겠죠. 안주해서 앉아있으려니까 어느 인간이 곁에 와서 멀리서 넘죽이 절을 하면서 신전님이 내려왔으니까 제가 감히 인사를 드립니다. 한 것이 ‘김봉태’라는 할아버지가 돼요.

김봉태는 그때 당시에는 사냥꾼이죠. 한라산의 짐승이나 잡고 가족감태 쓰고 해가지고 했던 김봉태 할아버지인데, 김봉태 할아버지를 이 ‘부로못도’님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곳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 하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느 쪽이냐면 지금 현재 지형으로는 ‘굴왓디’가 됩니다. 동홍동 굴왓디. 동홍동 굴왓디에 이제 오니까 자기 집에 오

니까 이 ‘보름웃도’ 신전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인간 냄새가 더럽고 또 연기 피우고 밥해 먹고 하니까 끔찍내가 나고 냄새가 독해서 여기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안내해라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면 ‘서흥리 안카름’ 이에요.

서흥리 안카름에는 지금도 시냇물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일부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소, 닭, 개 소리로 시끄러우니까 여기도 와서 좌정 안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하면 ‘가시믄루’로 갑니다. ‘가시믄루’는 지금 현재의 호근동 있는 ‘가시믄루’에요. ‘가시믄루’로 갔는데 그때 마침 큰 부인이 동생하고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내 동생하고 도망쳤으니, 정말 신의 자식이라 하면서도 신의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사회에 나와서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큰 부인이 옥황상제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어떤 결말을 내고 살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신신당부를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큰딸에게 무예기공을 줍니다.

구름을 탈 수 있고 축지법을 할 수 있고 활과 칼을 쓸 수 있는 무도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가져서 본 부인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한라산에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 이제 상제님께 얘기를 기도를 하니까, 내가 준 자그마한 부채로 너 소원을 빌라, 그래서 부채를 비니까 부채로 하여금 안개를 걷히고 어둠을 걷히고 해서 보니까, 한라산에서 보니까 ‘가시믄루’에 두 남녀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내달음을 쳐서 ‘가시믄루’ 당도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보니, 그래도 녹본인정이라 하룻밤이든 이틀 밤이든 정분은 나누지 않아도 혼례를 치렀던 녹본인정이라 죽일 수 없고 동생을 봐도 동생은 피를 나눈 형제니 차마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다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죽으리라 마음먹고 왔는데, 그런 인정과 정분으로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하니 곱을 갈라서 지경을 가르자 해서 자기가 지고 온 활, 그니까 우리 고양부 할 적에 삼사석에 하듯이 활로 지경을 가릅니다. 그래서 브름웃도님이 먼저 활을 쏘니까 문섬 뒤로 떨어지고 본부인이 자기도 활을 쏘아버리면 동생 갈 데 올 데 없을 거 같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신화에서 나오는 뽕개!

끈에 돌맹이를 해가지고 돌려서 던져서 돌이 떨어진 곳에 자기가 점지했는데 그 돌이 서흥리 흑담에 떨어집니다. 서흥리 흑담이 어디냐 하면 ‘지장샘’ 있는 곳이에요. 지장샘 있는 곳이고, 떨어져서 하니까 이로부터는 서귀포 쪽을 남편한테 하고,

자기는 서흥리를 해서 지경을 가르고 거기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전부 다 곱을 가르자 해서 곱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뉘우치고 해서 “저는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는 성을 바꿔라” 했죠. 그래서 성을 ‘지가’로 바꾸죠. 지가로 바꾸니까 너가 성을 바꿔서 하니까 동흥리를 너가 가져라 해서 동흥리에 가서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산국은 큰 부인이 돼서 서흥리를 점지해서 하고 하는데 큰 부인이 되다보니까 자기는 서흥리에 하고, 그 다음부터 서흥리 위로는 산으로도 올라가면 나무니 뭐라도 전부 지경을 가르니까 범접할 수가 없고 인연을 맺을 수도 없어요.

서로 결혼할 수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 지산국은 동흥리를 해서 동흥리 소나무까지 알로 해서 좌정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에 온 브름웃도님은 이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할 적에 동흥리와 서귀포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씨·이씨·김씨·현씨·박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별초당을 짓죠. 별초당을 지어서 여기 안주하게

됩니다. 저기 후박나무가 원래 두 그루였어요.

두 그루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한 그루 있어서 꼭 부부 나무처럼 두 그루였는데 그때부터 여기 안주해서 좌정했는데, 좌정한 이후에 서귀본향당에 이 분들이 ‘브름웃도’ 하고 ‘지산국’ 님이 좌정함으로 인해서 동흥리 주민과 서귀포 주민이 여기와 기원을 하고 축원을 다 하죠. 하고 서흥리는 일절 축원을 여기도 오지 않고 서흥리 거기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서흥간에 왕래가 없고 서흥리와 서귀포 간에 왕래가 없었죠.

없어서 혼인도 없고 어떤 인연도 두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가 이제 저희 백부가 원래 22대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115살 될 겁니다. 그런데 서귀본향당을 지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초대에 매인심방이 누구냐 하면, 고씨 성을 가진 분이예요 제주 고씨. 고씨 성을 가진 분이 이제 했는데 그분은 원래는 모슬포 신평리 사람이예요. 모슬포 신평리 분이 여기 와서 매인 심방이 됐죠. 그 후에는 다른 성을 가지신 분이 별초당을 지으신 분들의 자손들이나, 그분들이 매인 심방 노릇을 돌아가면서 해왔던 거죠.

해오다가 우리 백부까지 온 것이 22대가 돼요. 22대가 되고 여기 신당은 사라호 태풍 때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돼서 이 신낭(목)을 자를 적에 5일 동안 자르는데, 그때 큰 제사를 지내고 잘랐죠. 그렇게 안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거라 그랬는데 서귀포의 본향에 여긴 천신의 자손으로서, 여기 좌정하면서 뭐냐하면 바람과 비를, 풍우를 일으켜 주고 해주던 분이어서 서귀포에는 다른 데보다 곡식도 잘 되고 상당히 풍족했어요.

풍족해서 하는데 이 분 밑에 그래서 하위 신, 네 개의 하위 신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가는 물론 바다에서 오는 배를 다스리고 해녀를 다스리고 잠수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요왕의 딸인데, 그 요왕의 딸은 ‘중앙황제국’ 이라 하면 요왕의 다섯 그니까 동서남북 말고 중앙에 있는 황제 요왕의 따님이예요.

그분이 서귀포에 상륙해서 여기 와서 본향신에게 오니까 본향신이 그럼 오고

가는 배와 잠수들을 다 거느리라 해서 했고, 그리고 서귀포 진성이 생기니까 서귀포 원래 진성이 어디냐면 서흥리에 있었죠.

지형으로 하면, 지금의 어디냐면 솜반내 아시죠, 솜반내 다리 지나서 우측에 가 거기가 소위 얘기하면 옛날 서귀진성이었어요. 역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서귀진성이 본래의 서귀포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서귀포진성이 서귀포로 내려오면서 그 관청을 다스리고 관청의 일을 돌보게 했던 관청의 신이 있었는데 그 관청신을 하위신으로 두고.

그리고 솔동산과 여기 이중섭 거리하고 만나는 네거리인데, 동쪽으로는 서귀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목. 삼거리, 글로부터 서쪽으로는 서귀포 천주교회 지나서 매일 시장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밭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솔동산 길 한가운데를 터있는 곳에 거기에 거북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북바위가 농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고 했던 거북바위예요. 원래가 농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봉태 할아버지한테는 브름웃도님이 너는 이제부터 산신으로 들어앉아서 모든 사냥한 것을 해서 제일 때마다 바치라.

그래서 산신으로 들어앉은 거죠. 해서 하위신이 어느 마을에든 간에 본향신 밑으로 하위 신을 거느린 데는 서귀포 밖에 없어요.⁷⁾

이 각편은 기존에 전해지는 본풀이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고, 구연자의 의도가 많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남신인 ‘브름웃도’와 자매 고산국과 지산국의 삼각관계와 두 자매가 연적(戀敵)이 된 것 등 대부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 남성과 두 자매와의 사랑의 삼각관계는 이 신화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모티프가 된다. 고산국과 지산국에 얹힌 사랑과 증오 그리고 복수 등, 이루지 못한 욕망

7) 박정석 구연(서귀본향당 매인심방, 2017. 03. 27). 이 자료는 기존 채록된 자료들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 계열의 ‘브름웃도’에 대한 개념이 천신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연자의 의도가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慾望)의 삼각관계를 형성한 이 본풀이는 그동안 문학적·신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두 자매는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뽕개질’로 동흥리와 서흥리에 거처할 영역을 정해서 각각 좌정한다.

이러한 본풀이는 마을 중심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형성하였는데, 그 결과 실제로 두 마을 사이에는 소나 말을 매매하거나 사람들의 혼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곧 가족이나 부락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며 생활의 헌장(憲章)이 된 것이었다.⁸⁾

이 본풀이의 의미는 선과 악, 올바름과 부정, 남성과 여성들의 사랑과 욕망의 현실대립과 갈등, 분노, 금기를 형성했다. 삼각관계로 빚어진 혼돈의 세계를 질서화하기 위해 지경(地境) 가르는 행위는 우주 공간, 자연영역의 형성과 당의 분파를 의미하며, 욕망으로 빚어낸 무질서한 지상계 정돈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본풀이는 인간의 삶 못지않게 현실감이 있고 사실적이다. 그것은 신화를 창조하고 구연, 전승하는 민중 집단의 솔직한 삶의 고백이며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귀포의 신앙민들은 한라산 신인 ‘브름웃도’와 ‘지산국’에게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신에게 과세(세배)를 올리는 ‘신과세제’를 올리고, 2월 14일 영등할망을 송신하여 ‘영등제’를 치르고, 7월 14일에는 신의(神衣)에 핀 장마 때의 마(곰팡이류)를 햇빛에 말리거나 우마를 증식한다는 의미인 ‘마불림제’를 치르고, 11월(동짓달) 14일에는 본향 생신일에 ‘본향제’를 올리면서 지역민들은 신을 의지하여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복을 기원한다.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38-741쪽.

소로소천국 - 송당본향당 남신

송당본향당에 좌정한 본향신은 백주여신으로 ‘백주또’ 혹은 ‘백주할망’이라고도 한다. 그녀는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나 15~16세가 되자 천기를 짚어보고서 자신의 배필이 될 배우자를 찾아 제주도 송당으로 오게 되는데, 배우자는 바로 한라산 태생의 ‘소로소천국’이다.

본풀이의 구조는 백주와 소로소천국인 부모대의 송당본풀이와 아들 궤네기장수에 대한 구좌읍 김녕리 ‘궤네깃당’ 본풀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본풀이의 전반부는 백주할망인 외방신의 도래, 한라산 태생의 남신 소로소천국과의 결합으로 사는 과정에 수렵만을 고집하는 남편과 농신인 여신의 갈등으로 이혼이 중심이 된다. 후반부는 두신의 결합으로 아들이 탄생했으나 자식의 행동이 불손하다고 해서 버리는 기아(棄兒), 그리고 바다로 던져진 아들 궤네기신의 용왕국의 셋째 딸과의 결혼, 강남천자국의 세변을 막아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어서 환고향



그림 1-4. 송당본향당 마불림제(2019, 작혜경)

(環故郷), 그리고 자식을 버린 부모들은 도망쳐 당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백주의 아들 궤네키당신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육식을 즐기는 대식가여서 결국은 셋째 딸과 함께 용왕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후 강남천자국의 '세변도원수'를 물리쳐 영웅이 되고 신으로 좌정하는 일대기를 전반부에 이어서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옛날 제주도는 대부분 사냥을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노루 사냥, 꿩 사냥, 이렇게 해서 많이 살았는데, 옛날 그 소천국 할아버지도 제주도 할로산 오작교 위에서 태어나가지고, 할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글도 활도 못하니까 테역장오리, 물장우리 어승생 당골머리 동남어께 서남어께 송당 오면 한마음 곳으로 이렇게 꿩사냥 노루사냥 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서정심파님애기. 파님애기가 탄생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몸에 팔이 났다는 건 너무나 이 애기가 버릇이 굿었어 이 딸애기가. 버릇이 굿어 난 전배독선현 제주더레 귀향을 보내볼켄 현 귀향을 보내부난, 서정승 파님애기가 종달리 두문개로 들어오란 아끈선창 한선창 아끈다랑쉬 한다랑쉬로 현 송당마을을 들어오란 땡기단, 알손당 거리를 근당하난 소천국 하르버님을 만난. 아버님을 만난 부부간 살게 되난 사농을 해서 사는디, 애기들은 아들들은 여러 형제 탄생하난 배 고팡 살 수가 웃곡, 볏아가민 밥 줍서 물 줍서 행 옮겨가난 부부간 의논하기를,

우리가 할마님이 백주할마님이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우리가 사농 행은 저 애기들 어떻 맥영 살리쿠가, 읍서,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니, 우리 농사나 살게 마썸 현난, 경 현젠 현연. 집도 절도 으시난 돌아땡기당보난 송당 들어산 보난 '오봉이굴왓' 가보난 거기가 완전 맛이 좋아지난 거기서 움막을 짓어서 할아버지하고 농사를 짓영 살아가는디.

흙을 낚은 할아버지가 밭 갈레 밭 잡대 짚어지고 밭 갈레 간 밭을 가는디 할머

니가 점심을 행 간, 요 하르방아 점심이나 먹엉 흡썸 허난, 저 작벽 웃디 가보민
강 우장 씨왕 놔두민, 그거를 나 밧갈당 점심먹켄 허난. 경헤 똥 할머니 와 부난
할아버지는 밧 가노렌 허난, 넘어가는 대사중이 아이고 넘어가는 대사중인데
배고프고 시장허난 점심이나 먹단 거 있건 호썸 쭈센허난,

하르바님은 마음 좋으난 저 작벽 우티 간, 작벽이엔 허건, 돌 우티 주게, 게난
작벽 우티 강 보면은 우장 견어보면 점심 있덴 허난, 대사중은 우장 견어보난 점
심이시난 그걸 문딱 먹엉 가부렀어. 다 먹엉 가부난 하르바님은 밧갈당 점심먹켄
작벽 우티 간 보난 점심은 다 먹엉 가부난 시장도 허고 배고프고, 고만히 앉안 밧
가는 쉼을 바라보난 괴기도 바싹 기립고, 아이고 저 쉼나 잡앙 먹주 헨 조꼳디 바
싹 마른 삭달이 허여단 불 와랑와랑 살란 익어시나 한 점 설어시나 한 점 하는게
쉼헌머릴 다 먹언 아이 앉안 조꼳디 밧엔 바라보난 조꼳디도 남의 쉼 한 마리가
이시난 에 저 쉼까지 이젠 잡아먹켄 헨, 하르바님은 놈이 쉼까지 잡아먹어 똥.

이젠 밧 잠대로 행 밧은 갈아 있곡 허난 배때기로 이녁양으로 어르썸썸 어르
썸썸 허명 이젠 이레저레 밧 가노렌 허난 날은 어느 동안 저무난, 할머니은 아
이고 어뎡허난 하르방은 영 날 조물아도 안왓신고 허연 가단보난 얘기들 손 심
고 엽는 애긴 엽고 걸른 애긴 걸런 밧더레 가단보난 작벽 우티 벌정게 무신거시
널려져시난, 할머니은 아이고 탈이나 타 먹엉 하영 탕 아기들 주주, 해연 강 보
난 쇠가죽이 벌경하게 널어져시난 아이고 낭군님아 저거 무신거파 허난, 아이
넘어가는 대사중 밥 문딱 먹어가부난 시장허연 바싹 배고프고 밧갈당 쉼다리
보난 꿰기도 기립고 잡앙먹언, 조꼳디 쉼 한 마리까지 먹어부렀주 허난,

아이고 요 설운 낭군님아 집으로 혼저 읍썸, 집으로 들어간 설운 낭군님아 이
녁 쉼만 잡아먹어도 할디 놈의 쉼까지 어뎡 잡아먹은디 쉼괴쟁이영 어뎡 샅니
까, 혼저 나고갑서 나영 못삽니다. 겐 하르방님을 그길로 그냥 내쫓아부렀어,
부정서정 허텐 내쫓아 부난 할아버님은 저 알손당 ‘정동갈체 똥님애기’ 허연
살았주게, 사는디 이젠 하르바님이신 때 벤 애길 나난 죽은 아들 탄생해서 죽은

아들 탄생하난 하도 이 얘기가 버릇이 굿어노난 백주할마님이 이놈이 새끼 저, “설 때 버릇 굿인 애기 나도 버릇이 굿엄꾸나,” 혼저 아방신디나 돌앙강 버릇을 그리치주 헨”

“아방신디 강 이 애기 말앙 삼센” 아방신디 강 맡겨부난, 하도 이 소천국 족은 아들이 하도 버릇이 굿어지난 에이 요것도 귀양정배나 보내볼젠 헨, 귀양정배 이젠 보내부난, 흐를 낳은 요왕황제국이 바깳디 나왕보난 무에낭상가지에 선비같은 도령이 앉아시난, 귀신이나 생인이나 하난. “아이고 난 제주 소천국 족은 아들 인디 아방눈에 꺾이나곡 어멍눈에 시찌난 귀양정배 오랴스헨” 하난 경 하난.

참 아람 가득 붓이요 일천장에 베릿돌 삼천장에 먹을 갈고 영 하여시난, 그냥 훌륭한 선비 같구나,

큰꿀애기 느려오렌 하난 눈도 거둑 아니뜬다, 셋꿀애기 강 느려오렌 해보라 아이고 저 하늘에 별이 송송 잇쑤다. 족은 꿀애기 느려오렌 하난 허우덩씩 헨 느려오란, 큰꿀애기 족은 꿀애기도 방 덜에 아니들고 족은 꿀애기 방으로 들렌 하난, 서른여덜 잇바디를 허우덩씩 하명 방문을 열어 들어간

사위의 먹성이 좋아 돼지도 전마리 소도 전마리 먹는데, 게무로 사우하나 못 맥이리야, 동창고 서창고 남창고 열안 석덜열흘 맥여가난 국도장군 밥도장군 꿔기도장군 해가는 게 동서남창고 다 비게 되어 가난 그때에는 아이고 요거 사우이선 하나 쓸 곳 웃다. 어서 나고 가라, 게건 배나 한 척 짓어줍서 져 배 한 척 짓어 아전, 양도 부부간이 강남천자국을 들어간 백물레앗디 배를 세워시난,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난리국이 난거라 져 이젠 도원수를 막아두고 “땅 한 척을 가지겠느냐, 물 한척을 가지겠느냐” 하난

“난 제주도 들어가켄” 헨, 부부간이 제주도 들어오란 어머니 저 올레에 앉아서난 콩불질을 험시난, 이제 신청풍쌀 내어낸 삼십원 묶으난 어머니가 눈이 펴롱하게 턴.

그때에는 어머니아 읊써 우리 다 모두 앓앙 살 수 으시난, 우리가 각각이 다

호터정 살게마썸,

큰아들은 거멸 문국성, 셋아들은 시선당, 이제 세번 체는 덕천, 네 번 체는 노
늘(회천), 다섯번 체는 시에, 일곱번 체가 이제 김녕궐네깃또. 경 살아온 그 역산
디, 지금도 큰 제일 날은 가면 할머니는 제라하게 위패를 영 딱 앓지고. 또 그 안
네 이제 여냥 상괘상이렌 흐는 거주게, 궐 안네 할머니가 참 서울 할머니난 연
반물 치매에 진녹색 저고리 이제 영영 물색으로 할머니한테 바치고, 할아버지
는 쇠 잡아먹엿덴 흐연 부정서정흐덴 흐연, 군문 베궐딜로 정월 둘엔 우리가 강
멸찍어니 상을 놓니다.

할아버지, 상을 놔, 상을 낳 하는디 지금도 거기 가젠 하면 정월 둘에 어느 때
나 우리가 이 마을에서도 경 허곡, 뜯디는 돼지고기 올리는 디도 있고 소고기
먹영 가도 아무통도 안하는디 소고기는 높은 제에 올리는 거니까 부정을 안타
는디, 첫째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주마는 그 정월 나가 초흔를 부터 딱 명절
해서 소고기 적갈을 먹어나민, 열사흘날까지는 소고기를 일절 이 집사관은 먹
지 말아야 되마썸. 먹으민 안 되어. 나가 죄니까.⁹⁾

본풀이에 나타난 각 신 중에서 백주는 농경의 신으로 쌀을 상징하는 흰 미곡의
여신이며, 상대적으로 남편인 소천국은 농경문화에 아직 접어들지 않은 수렵문화
적인 속성을 지닌 신이다. 남신 수렵의 신과 여신 농경의 신이 따로 좌정해서 별거하
게 되는 원인을 이혼이라는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남성신은 수렵, 채취로 삶을 이
끌어가며 소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반면, 여신은 소를 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농
지를 개간하는 두 사회적 성격을 대표하는데, 사유 재산 형성과 마을 분리 과정을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¹⁰⁾

9) 이승준 인터뷰(송당본향당 매인심방, 2017. 06. 07.)

10)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62쪽.

또한 이 신화는 남성 수렵의 신과 농경의 여신이 따로 좌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곧, 송당 당본풀이는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신화이고, 농경 정착 사회를 건설하여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도민의 이상과 사냥과 육식으로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려는 현실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천자또-세화본향당신

구좌읍 세화본향당에는 천자또, 백주또, 금상님이 좌정하고 있다고 본풀이에서 전한다. 천자또는 할로영산 백록담에서 저절로 솟아난 신이고, 백주또는 서울 사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의 따님아기인데, 천자또의 외손녀가 되며, 용왕천자국의 황제는 백주또의 외삼촌이다. 신들의 계보가 인간들처럼 친분관계를 형성하면서 전해지고 있다.



그림 1-5. 구좌읍 세화본향당(2018, 제주학아카이브)

천자또는 백록담에서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나, 일곱 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무릇 사물에 통달했다. 열다섯 살이 되자 흰 망건에 흰 장삼을 입고 흰 띠를 두른 어엿한 선비 모습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한 아름이 넘는 서책(書冊)을 받아 앉고, 일천장의 벼루에 삼천장의 먹을 갈고 한 줌이 넘는 붓을 들어 문부(文簿)를 정리한다. 이처럼 문장이 뛰어나니, 이 신은 하늘에 가면 옥황의 일을, 땅에 내려오면 지하의 소임을 맡아 척척 해냈다.

그러다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현재 구좌읍 세화리의 '손드랑마루' 라는 곳에 내려와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천자또는 세화리 민의 출생, 사망, 생업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하여 수호한다. 천자또의 외손녀인 백주또는 임정국의 따님으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자, 부모님 눈에 거슬려 쫓겨났다. 갈 데가 없으므로 용왕천자국 대왕인 외삼촌한테 수청부인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주술을 배우고 돌아와 부모님께 사죄했으나 받아 주지 않았다.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세화리에 당신으로 계신 외할아버지를 찾아서 같이 좌정하게 되었다.

한편,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의 명장이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위태롭게 되자 조정에 뜻을 버리고 천정배필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천정배필이 제주도 세화리에 좌정해 있는 백주또임을 알고 멀리서 찾아 왔다. 그는 천자또의 허락을 받고 백주또와 부부가 되어 같이 좌정하게 되었다.

세화본향당신의 이야기에서 한라산 신 천자또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된다. 한라산의 수렵신으로 봉(鳳)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三角鬚)를 거스른 무장(武將)의 얼굴을 하고 직량포를 입은 늙은 모습이다. 수렵 생활로써 노루, 사슴, 산돼지들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며 잡아 시원석석하게 잔회를 내어 먹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¹¹⁾

11) 제주도, 앞의 책, 1985, 42~43쪽, 이하 한라산에서 태어난 신들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전설지』를 인용함.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통천본향당신

한라 영주 삼신산 봉우리 서쪽 어깨 쪽에서 을축년 팔월 열사흘 날 아홉 시에 아홉 형제가 태어났다. 곧, 한라산의 산신들이 솟아난 것이다. 한라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라산’ 혹은 ‘한라산또’라고 부르는 아홉 형제는 산을 돌아다니고 활을 들고 사슴의 뜨거운 피를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신들 이름의 큰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가장 큰 형은 ‘울뢰마루하로산’이다. 온 천지를 울릴 정도로 큰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아주 웅맹스러운 신이다. 둘째는 제주도 전 지역에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는 이름을 지닌 ‘제석천왕하로산’이고, 셋째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뱅석도하로산’이고, 넷째는 동·서·흥·동에 좌정하고 산·국·지·산·국 두 자매의 사랑의 삼각관계에서 헤매는 ‘벽로못도’라고도 하는 ‘고산국하로산’이고, 다섯째는 ‘동백자하로산’ 등이다.

어느 날 이들 아홉 형제는 부른 배를 이끌고 휴식을 취하려고 높은 곳에 이르러 쉬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와서 그런지 마음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 널리 바라보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상서로운 구름이 앞을 가리던 것을 제치고 다시 눈을 비비고 쳐다보자 지금까지 알아왔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내려와서 보니 바다를 따라 쪽 인근 마을이 있었다. 형제는 갑자기 각각 눈이 커지고 휘둥그레지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일 큰 형이 우선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 우리 각자가 알아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살기로 하자.”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다. 그래서 형제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산에서 내려온 아홉 형제는 자신이 마음에 든 곳을 찾아 안식처를 정하고 자신들이 좌정할 땅을 차지하여 당신(堂神)이 된 것이다.

큰형은 성산읍 수산리 당신으로,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로, 셋째는 남원읍 예

촌으로, 넷째는 서귀포시 동·서흥동 당신으로, 다섯째는 대정읍 일과리로,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로, 아홉째 막내는 서귀포시 종달리에 좌정했다.

아홉 형제의 신들은 8월 열사흘날에 각기 자기가 차지할 마을을 골라 내려가게 되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라는 기다란 이름을 가진 여덟째 동생은, 형들은 다 떠나가는데 자기가 갈 곳은 막연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서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후 한라산 서쪽 등성이를 어슬렁거리다가 절터였던 이 땅으로 내려섰다.

‘안수뭇’, ‘밧수뭇’을 거쳐 ‘불그니오름’에 오르고, 다시 단숨에 ‘한세빅베기’를 치달아 올랐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다. 높은 데서 육소장을 휘 둘러보니 ‘생새물’이 있으므로 곧 내려가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내달아 ‘당오름’을 거쳐 ‘밝은오름’에 당도했다.

이때, 안덕면 동광리 당신 ‘황서국서’가 억만 군병을 거느려 나서는 길을 막 버티고 서 있었다. 두 신은 서로 길 다툼을 하고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언쟁이 벌어졌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가 누가 힘이 세냐 내기를 하자고 했다.

“너는 화살 하나로 백 명의 군사를 쏘아 눕히고, 그 누운 군사를 다시 화살 하나로 쏘아서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좋다. 그것은 문제없다. 백 명 군사를 눕히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두 신의 다툼은 화살로 군사를 눕히고 일으키기 기능 경쟁으로 바뀌어 벌어졌다.

우선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놓았다. 화살이 날아감과 동시에 백 명의 군사가 와르르 쓰러졌다. 다시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겼다. 쓰러졌던 군사들이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꼼짝하지 않고 쓰러진 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은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차례다. 화살 하나를 당겨 놓았다. 백 명 군사가 와르르 쓰러졌다. 다시 화살 하나 당겨 터뜨리니 백 명 군사가 일시에 살아 벌떡 일어났다. 다시 화살을 놓으면 와르르 쓰러지고, 다시 화살을 놓

으면 벌떡 일어나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승부는 결판이 났다. 어쩔 수 없이 ‘황서국서’는 자신이 항복을 하고 시종(侍從)이 되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을 대장으로 모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황서국서’의 안내를 받으면서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논오름’으로 ‘팽풍그정’으로 하여 ‘척동산’에 다다랐다.

“으음, 여기가 좌정할 만한 곳이군.”

그곳은 바로 당동산이었다.

당동산으로 행차하여 수백 군사를 복병해서 앉아있되 어느 누구도 위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변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여 꿈틀꿈틀하고 있었다.

이때 상창리 통천의 유포수, 김포수, 강포수가 사냥을 나가다가 큰 뱀이 길을 가로막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뱀은 칠성으로 잘 우대하면 부를 가져다주고 그렇지 않고 잘 모시지 않을 때는 흉험을 주는 신이라는 것을 세 포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뱀이 신이며 이처럼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임을 곧 알아냈다. 세 포수는 뱀을 팽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갔다.

“저희들이 위할 신이시거든 이쪽으로 좌정하십시오. 정성껏 위하겠습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큰 팽나무 아래로 모셔졌다. 정월 열나흔 날과 팔월 열나흔 날을 대제일로 하여 신을 위하기로 하고, 유포수는 상단골, 김포수는 중단골, 강포수는 하단골이 되어 신앙민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상창리의 본향당신이 되고 한라산 자락에 있는 상창리민들의 건강과 부, 안녕을 돌봐주는 신이 된 것이다.

안덕면 화순리 통천리 본향당신인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과 한림읍 금악본향당 신인 ‘황서국서’와의 경합은 제주 신화에서 세력다툼으로 인한 좌정의 모티프 중에서 남성 장수신들이 전쟁과도 같은 투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당신으로 좌

정해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대표적인 예이다. 서로의 능력 겨루기와 경합으로 이긴 세력에 대한 당신 위력의 위용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무신적 성격을 띤 장수신의 늙은 모습을 나타낸다.

수렵사회에서는 활을 잘 부리는 자가 장수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수렵을 통해 먹고 살아가고 부족을 거느리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신화의 주인공인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고주몽’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수렵적 특성을 지닌 한라산계 남성신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경합을 통해 좌정은 했으나, 자신을 위해 신앙해 줄 신앙민이 없다면 신의 좌정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민을 찾기 위하여 무속의 상징성이 강한 신인 뱀으로 둔갑하여 신앙민들을 끌어들이었다.

단골을 지정하기 위해 수명(壽命)과 부(富)를 관장하는 칠성신인 사신(蛇神)으로 둔갑하는 내용은 제주의 당 신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뱀은 신화에서 가장 무속적 상징성이 강한 동물로서 잘 우대하면 부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흉험을 주기 때문에, 신앙민들은 뱀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동물적 상상력과 외경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뱀으로의 변신과 관련해서는 일반신 본풀이인 칠성본풀이를 들 수 있다. 이 본풀이에서는 뱀신에 대한 좌정처가 잘 나타난다. ‘안칠성’은 주로 고팡에 모시고, 밖에 모시는 ‘밧칠성’은 농사풍요를 기원하는 농신(農神)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해의 풍요와 집안의 부(富)를 기원했다. 또한 한경면 고산리 차귀당이나 표선면 토산본향당에서는 마을 공동제의에서 신앙민들이 공동으로 기원하거나, 유·김·강씨 집안의 포수들에 의탁하여 단골을 지정한 가정의례에서 농경 혹은 수렵의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의례를 지낸다.

본풀이에서 한라산 신의 이미지는 굿 의례 중 본향당신들이 의례에 참석하여 자리에 들었을 때 좌정할 자리를 정하는 ‘정대우’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풀찌거리는 벗어다가 삼천병마기데레”하면서 무가를 창하는 한라산의 수렵신적인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고, ‘차사영기’와 ‘차사맹감기’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자리를 고르는 모회는 처신들의 좌정처 지정과 신앙민들의 선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황서국서- 금악하르방당신

한림읍 금악리의 하르방당에는 ‘황서국서’라는 당신이 좌정해 있다. 상창하르방당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과 활쏘기로 밀려나 온 들판을 헤매던 ‘황서국서’는 금악리로 좌정하게 된다. 본풀이는 ‘황서국서’가 좌정하게 된 연유를 풀고 있다. ‘정좌수’와 ‘황서국서’는 화살을 잘 쏘아서 짐승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수렵의 신이다. 정좌수는 죽을 때까지도 사슴의 각목을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수렵으로 삶을 영위했다. 아버지의 원을 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딸은 ‘황서국서’를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그러나 딸은 수렵을 하는 남편 황서국서가 싫어져서 결국 이혼으로 좌정처를 달리해 나간다. 현재 한림읍 금악본향당에 좌정하게 된 것이다.

‘황서국서’는 ‘정좌수’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둘은 서로 사냥을 같이 다녔는데, 황서국서가 산 위에서 사슴을 몰면 정좌수가 쏘아서 맞히고, 아래쪽에서 맞히지 못하여 산 위로 몰면 황서국서가 쏘아 맞히며 서로 사냥을 즐겨했다.

그런데 정좌수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린 딸을 불러 놓고 말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제 잡은 각목의 간이라도 시원석석하게 먹고 싶구나.”

딸은 아차 하면서 “어제 횃감을 썰다가 간 한 점을 떨어뜨렸는데, 줍지 않아 아마도 다른 짐승들이 다 먹어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자, 아버지 ‘정좌수’는 실망한 듯 알았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각목의 간은 영약이나 다름없는데, 그만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말았구나. 눈 위에서 각목을 잡는 것은 산신이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 늙은 내가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정좌수’ 딸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신 후 사슴의 고기로라도 꼬지를 해서 제를 올리려고 정좌수가 사냥하던 곳을 찾아 사슴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랐다. 얼마쯤 올랐을까. 흑심한 눈보라로 인한 추위와 며칠 간의 굶주림으로 앞은 보이지 않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안돼. 각록을 잡아서 아버지의 제상에 올려야 하는데…”

딸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연기가 나는 곳이 있어서 바라보니 그곳은 ‘황서국서’가 거처하는 바위굴인 것이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힐 여유도 없이 ‘황서국서’ 바로 앞에 쓰러진 ‘정좌수’ 딸은 몇 시간이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자신이 ‘정좌수’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 ‘황서국서’는 흔쾌히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동안 ‘정좌수’와 사냥하면서 쌓은 옛정을 딸에게 온전히 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딸과 ‘황서국서’는 혼인을 하고 산을 내려와 ‘금악오름’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금악오름은 너무 높아서 자손들의 제물 공연을 받기 어려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오름 아래로 좌정했다.

그런데 정좌수 딸은 언제부턴가 사냥을 하는 황서국서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날땃내가 온천지를 진동하고,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함으로 곳곳마다 짐승의 뼈가 있어 상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정좌수 딸은 남편을 두고 자신은 따뜻한 머들(머신머들)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별거를 하며 축일한집으로 좌정했다. 그동안 국서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아들딸 송이송이 벌어져서 여러 곳에 좌정해 단골들을 보살피는 당신들이 된 것이다.

이 신화는 수렵과 농경, 두 문화적 속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서국서’와 ‘정좌수’ 딸은 결혼을 통해 ‘동당동좌형식’으로 마을의 당신이 되었으나, 식성이 달라 부부의 인연을 가르게 된다. 이 본풀이는 수렵 이동 생활에서 농경 정착 생

활로 전이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좌수 딸은 원래는 수렵신인 부친의 뒤를 이어서 부친을 살리고 그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수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 ‘간 한 점’을 떨어뜨려 부친은 자신의 뜻과 함께 영면하게 된다.

정좌수 딸은 수렵신 ‘황서국서’를 만나 정착은 하게 되었으나, 남편의 수렵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헤어진 후 농경신이 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내포한다. 이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한 유형으로 여신들이 지닌 농경신으로의 좌정과 더불어 금악계의 계보를 형성하는 모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치 송당본풀이의 수렵신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와의 갈등과 유사한 전개다. 대체적으로 여성 신은 농지를 개간하고, 소를 이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하며 육식을 금기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렵 목축신인 남신과 농경, 산육의 여신이 부부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의 형성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애비국하로산또 - 호근본향당신

서귀포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애비국하로산또’다. 한라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하로산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애비국’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없는 높은 신의 호칭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라산계 신들처럼 할로영산에서 을축삼월(乙丑三月) 열사흘날(十三日)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난 것이다. 솟아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자시인지라 천지는 칠혹같이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 하늘을 향해 천황닭(天皇雞)이 울어대고 땅을 향해 지황닭(地皇雞)이 울어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밤과 낮이 구분되어 방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한라산을 출발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문면 도순리



그림 1-6. 서귀포시 호근본향당(2020, 좌혜경)

경에 있는 시오름 상봉에 내려와 좌정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마침 사슴 떼가 줄을 지어 달리는 것이 보였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어느 한 놈이라도 잡아서 요기하기로 작정하여, 앞에 달리는 놈은 놓아두고 맨 뒤엎 놈을 하나 쏘았다. 쓰러진 놈을 등에다 지고 다시 내려오다 서귀포시 호근동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둘레넷도’에 이르렀다.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을 한 후 사슴을 잡아 간회를 시원석석하게 먹었다. 다시 길을 나선 ‘애비국하로산또’는 서호동에 있는 고공산에 치달아보니, 세 신선이 앉아 바둑을 한가롭게 두고 있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신선들에게 물었다.

“이 앞에 보이는 마을이 어디가 됩니까? ”

“호근리가 되어진다.”

“나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신인데, 여기에 좌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지경을 차지한 신이 없으니 괜찮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이미 좌정한 신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좌정할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돌혹기’라는 곳이 산수(山水)가 가장 좋아 보였다. 바로 거기 좌정하여 호근동을 차지하고 당신이 되었다.

본풀이에서 한라산에서 태어난 ‘애비국하로산또’의 서귀포 호근본향당신의 좌정담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본풀이 ‘천지왕본풀이’에서처럼 밤과 낮의 구분이 지황담과 천황담의 울음소리로 분간할 수가 있었다. 산신이어서 먹이는 사슴의 간과 내장이다. 당신이 좌정처를 찾는 도중에 신선들이 길을 안내하는데, 그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떠한 장애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라산 산신의 좌정담이 수렵생활을 영위하던 산간마을 주민들에서 중산간 마을을 거쳐 해안 마을에 이르기까지 마을 설촌 과정을 당본풀이 형식을 빌려 전개하고 있다.

동백자하로산-중문본향당신

서귀포시 중문동에는 <도람지궤>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인 두 개의 당이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본향당신은 ‘동백자하로산’이다. 이 신 역시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을축삼월(乙丑三月) 열사흘날(十三日) 유시(酉時)에 솟아난, 아홉 형제의 신 중 다섯째이다.

동백자하로산은 한라산을 떠나 차츰 차츰 내려오다가 중문동에 이르러 당신으로 좌정한 후 ‘진궁하늘 진궁부인’이란 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두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아들은 때때로 어린지라 어머니 젖

가슴을 뜯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곤했다. 이것이 부모의 눈에 거슬렸다.

두 부부는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고 “불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돌함 속에 아들을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는 곧 바다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밀물에도 둥둥, 썰물에도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동해 용왕국 대문 앞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파도가 칠 때마다 쿵쿵하고 문을 치자, 동해 용왕국의 개가 쿵쿵 내달아 짚어대었다.

동해용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세 딸들에게 지시했다.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별만 송송하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둘째딸은 나가 보고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음 셋째딸이 나가자,

“산호나무 윗가지에 어떤 돌함이 걸려 있습니다.”

“큰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니다.”

“둘째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니다.”

“막내딸아기 내리워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산호나무를 툭툭 차니 돌함이 저절로 설설 내려왔다.

“큰딸아기 열어 보아라.”

“둘째딸아기 열어 보아라.”

큰딸과 둘째딸은 돌함 뚜껑을 열어 낼 방법이 없었다.

“막내딸아기 열어 보아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돌함을 툭툭 차니 자물쇠가 저절로 설강 열려졌다. 돌함 속에는 셋별 같은 동자가 앉아 있었다.

“너는 귀신이나? 생인이나?”

“귀신이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세상 사람으로, 아버지는 하로백관이고 어머니는 진궁하늘 진궁부인인데,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바다에 띄워 버리기에 여기 왔습니다.”

동해용왕은 천하명장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둘째딸 방으로 들라.”

역시 마찬가지다.

“막내딸 방으로 들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서른여덟 이빨을 허우덩썩 열어 웃으며 들어간다. 곧 동해용왕의 막내딸 사위로 삼고, 용왕국에서는 사위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별별 음식을 차려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될 셋째딸은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다.

“조선국 장수님아, 음식이 좋지 못하여 잡수지 않는 겁니까?”

“너희들 용왕국은 대국이라면서도 우리 소국만도 못하구나.”

“조선국에서는 무엇을 잡수었습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내 기세를 가지고 사위 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하고, 그날부터 풍악을 치면서, 술이니 안주니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석달 열흘 백일이 되어 가자,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이 생각해 보니,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어서 남편 따라 나가거라.”

이들 부부는 물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고서, 일곱 살에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니 한편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아름다운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니 반갑기가 이를 데 없었다.

부모는 아들 부부를 맞아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시부모의 시중드는 생활은 한두 달이 좋지, 오래가면 괴로운 법이다. 동백자하로산은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어 탄살림을 내주기로 했다. 중문동에 ‘불목당’이라는 다른당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좌정하여 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먹도록 해주었다.

이 본풀이에 나타나는 상주표류담(箱舟漂流譚)의 화소는 신라의 ‘석탈해신화’나 가야의 ‘허왕후신화’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송당신 백주또의 아들인 ‘괘네깃당신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용궁의 공주와 결혼하는 화소는 반농 반어업의 생활을 하였다는 어촌생활을 반영하는데, 이때 요왕은 바다의 신, 그리고 요왕의 막내 딸은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으로 이 둘의 만남은 어촌 마을의 형성과 반농, 반어의 어촌의 생산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문무병은 원래 한라산계 신화는 수렵신으로서 쫓김을 당하고, 해신계의 여신과 만나 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 여신은 ‘요왕국의 말젓딸’로, 물으로 올라오면서 7일에 제를 지내는 ‘일뫼할망’계열로 바뀌어서 그 여신의 직능도 해안마을에서는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 피부병신(皮膚病神), 산간이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농경(農耕), 산육(產育), 치병(治病)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전설

한라산 관련 전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설문대할망’처럼 신화적인 색채가 강한 구전물이 지역의 지형물과 연결되면서 전설이나 민담으로 장르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곧 신화적 속성을 지닌 이야기가 구체적인 증거물과 연결되어 전설화되는데 예를 들면 설문대 관련 신화가 증거물에 이야기가 생겨나 전설화하거나 또 구전되는 과정에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다시 신성성이 부가되어 신화적 요소가 첨가되기도 한다.

영실의 오백나한 전설은 불교적 요소가 첨가되어 이루어져서 구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 신화는 할망의 아들들을 영실기암인 오백나한과 연결하면서 창조적 여신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설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설문대할망을 희화한 민담에서도 신화에 나타난 신성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신화가 전설이나 민담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장르적 전이가 일어나, 신성성은 사라지고 속세화(俗世化)되거나 희화(戲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담으로 또는 전설로 구전되던 ‘할망’에 내포된 잠재력이 제주민들에게는 더욱 삶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 등 제주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은 사람 삶에서 ‘모자람’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이 ‘모자람’을 합리화하여 못사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기도 했다. 설문대할망이 속옷을 만들 명주가 99통으로 다리 놓기에 실패했다고 하고, 한 개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는 신선이 사는 땅이 온전한 수 100이 아닌 99 계곡으로 나타나는 등 하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전설들이 많다. 이는 태초부터 생긴 모자람과 가난한 삶을 합리화 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보다는 불

모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세적이며 수동적인 삶의 반영이다.

또 지형의 형성과정을 전설로 나타낸 제주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지형지물의 형상에 대한 인식으로 백록담의 분화구와 산방산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유추하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기도 하고 변이 형태로 묘사된다.

인간의 실수로 신의 노여움을 받았고,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사람들의 욕망으로 부질없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교훈으로 담기도 했는데, 자연의 질서는 하늘의 소관이지 인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형물에 대한 인식 역시 인간의 실수, 신의 노여움에 따라서 넉넉하고 흡족한 지형이 아닌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록담에 대한 전설에서는 한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고 활을 메고 돌아다니다가 한라산 정상에 이르렀다. 그는 마침 사슴을 발견해서 급히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화살은 빗나가서 하늘에 앉아있는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쏘고 말았다. 상제는 분해서 한라산 꼭대기를 한 손으로 뽑아 던지자, 지금의 산방산이 있는 안덕면 화순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라산에는 분화구가 생겨나 백록담이 되고 산방산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흔아홉 계곡 역시 모자람의 모티프를 동원하고 있는데, 온전한 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장군이나 임금과 같은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다른 이본(異本)에서는 원래 100개의 계곡에 많은 맹수가 날뛰자 한 스님이 맹수를 없애기 위해 ‘대국 동물입도(入島)’라고 크게 소리쳤다. 불경을 한참 외고 나자 호랑이, 사자, 곰이 있던 골짜기가 사라지고 사나운 동물은 살지 않게 된다.

세 번째의 특징으로 한라산과 더불어 관련된 전설에는 신선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선 사상은 전국시대 때 해도선향(海島仙鄉), 곧 신선의 고향인 바다 섬을 찾아 나서게 했고, 진나라 때 시황제는 오백의 동남동녀를 이곳에 보내 어 불사약을 구하려 하였으며, 후한(後漢)대에는 인생무상의 염세적인 인생관과 더불어 더욱 진전을 보게 되며, 도가자(道家者)들의 출현과 함께 문학 속에도 등장하

게도 된다.

해도선향의 오산신설 중 삼신산은 발해(渤海)의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를 삼신산으로 여겼다.(이은상의 한라산 등반기 중) 그리고 산은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라고 했다. 영주산을 오르는 방선문은 한라산을 오르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하고 신선의 경지 속에서 예술적인 차원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

백록담에는 신들이 살고 있다. 범인들도 백록담에 오르면 바로 신이 되고 백록을 탄 신선이 된다. 아름다운 진달래의 향기에 취하고, 나이든 백양나무의 자태에 놀라기도 한다. 그때 저쪽에서 사슴 한 마리라도 뛰어온다면 바로 그 곁에서 하얀 나래 옷을 입은 선녀라도 서 있을 것만 같다.

무속의 산신 사상에 기초하여, 거기에 신선의 도교 사상이 습합된 성격을 띤 전설들은 조선조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록담에서 백록을 탄 신선들이 살고 있던 평화스러운 이미지의 전설이 구성된 후, 전국적으로 광포되어 전해지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을 차용, 다른 유형을 재생산하거나 동화적인 이미지의 전설을 만들어 전승하기도 했다.

백록담

전설은 유사한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이는 전설의 증거물이 된다. 백록담의 분화구 크기와 맞먹는 산방산의 규모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냈을 것이다. 주로 수렵 생활을 바탕으로 생활하던 사냥꾼의 실수는 그만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옥황상제는 도교적인 신이면서 무속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의 신이다. 이 각 편은 백록담의 자연 지형과 더불어, 그 명칭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하얀 사슴인 백록은 평화스러운 이미지가 있다.



그림 1-7. 백록담(2018, 제주학아카이브)

[각편 1]

옛날 한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다. 활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슴은 잡히지 않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한라산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했다.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여 급히 활을 치켜들고 쫓았다. 그때, 아차 실수하여 사냥꾼은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히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벌컥 났다. 그래서 곧 한라산 봉우리를 잡히는 대로 잡아 뽑고는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 봉우리는 날아와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떨어지니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 지금의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산방산은 기암괴석의 둥그스름한 바위산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기괴한 산이다. 그러니, 이러한 설명이 제격이 아닐 수

없다. 옥황상제가 그 봉우리를 뽑아 던짐으로써 백록담이 이루어지자, 경승은 점차 갖추어져 갔다.

한라산의 절경을 맨 먼저 즐긴 이는 신선들이었다. 의식주 걱정 없이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은 이 한라산을 무대로 생을 즐겼다.

한라산 가운데서도 특히 신선들이 즐겨 산 곳은 백록담이다. 여기의 신선들은 백록을 타 다니며 백록을 기른다. 백록들은 그저 놓아두면 한라산의 풀을 뜯어먹어 살이 쥘다. 물은 그 정상의 못에 와서 먹는데, 백록이 먹는 물이라 하여 백록담이라 이름이 붙게 되었다.¹²⁾

[각편 2]

옛날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이 실통치 않았다. 온종일 산을 뒤져도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새 한 마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 맞은 편 바위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활의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좀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버렸다. 사냥꾼은 다시 한 발의 활을 더 쏘았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그 화살은 새를 맞히지 못하고 낮잠 자는 해님의 배를 맞히고 말았다. 화가 난 해님은 벌떡 일어나면서 사냥꾼이 서 있는 한라산 정상을 걷어찼다. 그 바람에 산꼭대기가 휘 갈려 나가 앞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것이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가 버렸다.¹³⁾

12) 제주도, 앞의 책, 1985, 36~37쪽..

13)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91쪽.

이 이야기에서는 화살을 맞은 대상이 가장 높은 신격으로 추앙되던 옥황상제가 해님으로 바뀌어 전해지는데, 자연물의 형성에 대한 전설적 요소보다는 동화적인 성격이 더욱 짙다.

영주산의 백록

옛날에 한라산에는 신선만 살고 있었다. 사람이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히 내려서, 길을 분간할 수가 없고, 특히 고성(高聲)을 지르거나 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이었다. 이런 기상 변화는仙境(仙境)에 속세의 인간이 올라갈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린 때문이라 한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신비한 절경에 취하여 서 있었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몰아닥쳐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록담 가에 조용히 었디어 있었다. 운무(雲霧)가 자욱한 못 가에 우수수 소리가 나더니, 몇천몇백의 사슴 떼가 숲속에서 한가히 모여 오는 것이었다. 그중에 한 사슴은 백설같이 흰 놈이었는데, 그 등엔 백발노인이 타고 있었다.

활을 겨누고 있던 사냥꾼은 차마 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정신이 났다. 백록에 탔던 노인과 사슴 떼는 홀연히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백록에 탄 노인은 신선이었음에 틀림없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것이어서 사냥꾼이 잡지 아니한다. 만일 백록을 쏘았다고 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된다고 전해진다.

옛날 조천면 교래리에 살던 한 포수가 이런 백록을 쏜 일이 있었다. 그는 짐승이 보였다 하면 백발백중 맞혀 잡았다.

어느 날 한라산 속을 돌며 짐승을 찾는데, 저쪽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내달는 것을 얼른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본 포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팽하고 총을 놓

았다. 적중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느 때처럼 달려가서 사슴 위를 덮치며 순간 칼을 빼어 사슴의 배를 찔렀다.

“이젠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들어 짐승을 보니 이견 백록이 아닌가. 포수는 정신이 아찔했다. 자신도 모르게 칼을 뽑으며 한 10보 물러나 엎드렸다.

“과연 몰라뵈었습니다. 잘못 보아서 이런 대죄를 범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다. 그는 104세까지 살았는데, 일생을 경건하게 포수로서 살았다.

영실기암

한라산 영실의 기암과 관련한 전설은 두 편이 전한다. 각편 2는 변이형 혹은 확대형으로도 볼 수 있다. 각편 1은 설문대 전설로 전해지고 있으며, 각편 2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설문대할망은 거녀이기 때문에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한편 전설에서는 영실의 오백의 상징 수인 499개의 영실기암과 함께 차귀섬에 있는 유사한 바위를 연결시키고 있다. 완전한 수를 채우지 못하고 이탈된 그 형상물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제주민의 삶의 한계를 합리화했다.

[각편 1]

설문대 할머니에게는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외출한 아들들이 먹을 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다. 가루에 나물을 잔뜩 넣은 죽을 끓이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긴 주걱으로 오백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일 죽을 젓다가 그만 발을 헛디더가마솥에 빠져 죽게 된다.

저녁이 되어 형제들이 돌아와서 죽을 먹었다. 유난히도 죽이 맛이 있었다. 막



그림 1-8. 영실기암 (2018, 제주학아카이브)

내아들은 숲 밑에 가라앉은 어머니의 뼈를 발견하고 울었다.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형들과는 살 수가 없어.”

형들도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연유를 묻고서 같이 따라서 울다가 죽어 바위가 되었다. 막내는 울며 따라가다 보니, 고산리 차귀섬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영실에 솟아오른 499개의 바위들은 영실을 경승지로 만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어머니의 자식사랑과 함께 구슬픈 일화를 전하는 것이다.

[각편 2]

아득한 옛날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 5백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은데 집이 가난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게 아니냐.”고 타일렀다. 오백 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솥 전위를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 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냇동생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젖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잘 저으며 살펴보니 사람의 뼈다귀임이 틀림없었다.

막냇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었음을 예감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의 형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리가 한없이 올라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 버렸다. 그래서 영실에는 499장군이, 차귀섬에 막냇동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

차귀섬의 오백장군은 대정읍의 바굼지오름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 어떤 지관이 바굼지오름에서 뗏자리를 보게 되었다. 지관은 뗏자리를 하나 고르고서 “이 뗏자리는 좋긴 좋은데 차귀섬 오백장군이 보이는 게 하나 흠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뗏자리만 좋으면 그것쯤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곧 도끼로 그 바위를 찍기 시작했으나 워낙 큰 바위라 없애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귀섬의 오백장군에는 도끼로 찍어 턱이 진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¹⁴⁾

14) 제주도, 앞의 책, 1985, 38~39쪽.

용진각과 탐라계곡

이 전설은 지상의 필부인 나무꾼과 천상 선녀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창작한 전설이다. 천상세계의 신인 옥황상제와 신선의 다툼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용진각과 탐라계곡을 설명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에는 아름답고 이상한 향기를 지닌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꽃이 피는 봄이면 진달래 밭은 마치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사이를 하얀 사슴이 거닐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던 신선들은 백록담과 그 아래 한라산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놀았다.

그런데 한라산 정상에는 푸른 물이 있고,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으나, 큰 물장 오리라 하는 백록담에는 날개옷을 입은 아름다운 선녀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내려왔다. 그래서 신선들은 달 밝은 백록담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을 상상했고, 맑고 푸른 물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고 싶었다.

어느 보름날이었다. 신선들이 한라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한 신선이 혼자 남아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로 작정하고 선녀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위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자, 이윽고 동편에서는 둥그런 달이 둥실 떠올랐다. 분향기가 온 산에 나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선녀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은 날개옷을 훨훨 벗고 나무 위에다 걸치고서 백록담의 맑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참 목욕을 하던 선녀가 사람의 거동과 인간의 냄새, 그리고 인기척에 놀라서 성급히 날개옷을 걸쳐 하늘로 서둘러 올라갔다.

“빨리 돌아가야만 해.”

한 선녀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자 옥황상제가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신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훑쳐봐서 그만.”

하고 소리를 내어 흑흑 울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옥황상제는 크게 화를 내어 소동이 불거졌다.

“당장 음탕한 생각을 가진 신선을 잡아오도록 해.”

이 사실을 안 신선은 겁을 먹고 산 아래쪽으로 도망쳐 뛰어 내려갔다. 힘찬 동작으로 달려가자 땅이 패이기 시작했다. 움푹 패인 곳이 바로 용진각이 된 것이다.

또 신선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산 아래로 마구 달음질 쳤는데, 그 자리마다 깊게 패어 계곡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탐라계곡이다.¹⁵⁾

물장오리

물장오리에 대한 전설은 풍수를 모티프로 한 각편으로 흑룡과 황룡의 싸움은 흑백 혹은 악과 선적인 존재의 싸움이다. 용은 물과 관련이 깊고, 물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흑룡이 악한 존재로 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자. 이찰방은 산신의 도움으로 흑룡을 물리쳐 세상의 평화를 기구(祈求)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논리에 의해, 선함이 쌓여서 가능하다는 전승민의 인식이 드러난다. 물장오리는 거녀인 설문대할망이 빠져서 죽을 만큼 심연을 알지 못할 정도로 수심이 깊다.

물장오리는 한라산 북동쪽 중턱에 있는 못이다. 그 못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전한다. 설문대할망은 용연이 깊다고 해서 물에 발을 담갔더니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고, 물장오리가 얼마나 깊은가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영영 나

15) 제주도, 앞의 책, 1985, 36~37쪽.



그림 1-9. 물장오리 (2018, 제주학아카이브)

오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이 이 물에 빠져죽어서, 언젠가 물이 넘치는 날이면, 제주도 온 섬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못 속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나타나고, 가뭄에 제를 지내면 즉시 효험을 발휘해서 비가 오기도 했다. 한편, 그 속에 있는 용은 이무기가 변한 것으로, 언젠간 틈을 봐서 하늘로 올라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라산 중턱 애월읍 어도리에 살고있는 이찰방이 찰방 벼슬을 얻기 전에 목장 밭인 ‘번데왓’에 종종 사냥을 나가곤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이찰방은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한라산 중턱 봉우

리에 있는 ‘물장오리’라는 큰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장오리의 물에 목을 축이고 더운 여름날의 땀 냄새를 물을 떠서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난 후에, 날은 따뜻하고 다리도 아파서 덩석 풀숲에 드러누워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비몽사몽간에 몇 자만 한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쇠지팡이를 짚은 백발노인이 나타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너는 왜 여기서 잠만 자느냐. 내일 사시에 저 작은 물장오리에 가면 은 황룡과 흑룡이 싸우고 있는데, 그 흑룡을 쏘아서 죽이면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참 기특한 꿈도 있군. 황룡 흑룡이 싸우다니. 꿈에 현몽을 주니 한번 보자.”

이찰방은 곧바로 물장오리로 올라갔다. 길은 멀어서 꼬박 하룻밤을 지내고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물장오리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어, 이게 내가 꿈을 잘못 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자 하얀 거품이 일면서 한 십 미터 길이의 흑룡이 한고비를 틀면서 일어나고 황룡이 다시 한고비를 틀었다. 마치 흑룡과 황룡이 빛나는 여의주를 다투는 것도 같았다.

이찰방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 이게 용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흑룡이 물 위로 올라와서 이찰방을 잡아먹을 기세였다.

‘쏘자.’

이찰방은 흑룡이 물 위로 올라 올 쯤해서 방아쇠를 탁 당겼다. 흑룡이 물 위로 오르면서 피를 토해내는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것과 같았다. 온 천지가 피로 범벅이 되고, 때마침 황룡이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갈 기세였다.

이찰방은 꿈을 꾸었던 장소인 번데ատ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파왔다.

“허, 배가 고프고 괴롭고, 우선 여기 누웠다가 가야겠다.”

다시 백발 노인이 나타나

“흑룡을 죽이노라고 수고했다. 여기서 죽 내려가다 보면, ‘말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삼십 년 부자가 있다. 그 곁에다 꼭 30년만 집을 짓고 살아라.”

“예.”

“삼십 년 후에는 꼭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한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말팻이라면 마전동(馬田洞)인데, 아무래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이찰방은 명월에 있는 풍수를 보는 지관을 찾아가기로 했다.

“삼십 년 부자지라 그건 알 수 없는데, 위로 내려오는 내는 원체 급하게 살(煞)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땅이 야무치니까 한 대가 살 수 있을지, 앓을는지, 아, 생각이 나.”

지관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툭 치면서 일어났다.

“정혈을 찾아 집자리나 뒹자리의 위치와 방위를 전해 주십시오.”

이찰방은 지관이 정해진 자리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홍수가 나던 곳에 콩과 팥 등의 곡식을 뿌렸더니 풍년이 되어 곡식을 관가에 바쳐서, 찰방의 벼슬을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살다 보니, 30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머물게 된 것이다. 30년이 지나자 찰방의 화살에 맞은 흑룡의 운이 당도한 것이다. 찰방은 어느 해처럼 오백 바리의 보리를 베어다, 타작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때마침 하얀 강아지가 환히 비친 달빛에 어른거리면서 산 쪽으로 도망을 갔다.

노복이 말했다.

“주인님, 괴이한 일도 다 있습니다. 백 강아지가 산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잡아라.”

그러나 하얀 강아지는 명월지경의 만호네 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마치 닭 쫓던 강아지 격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찰방의 집이며 밭이며 모든 것이 다 쓸어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물장오리 흑룡의 조화였던 것이다.¹⁶⁾

아흔아홉골

아흔아홉골 전설은 제주가 왕후지지의 땅이 단혈로 인해 황폐한 땅으로 변해 맹수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 모자람의 모티프로 해석이 가능하며, 맹수로 상징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주섬이 축복받은 땅이지만 현실적,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자연의 불모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웅과 같은 훌륭한 인물의 부재를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득한 옛날, 한라산 골짜기는 본래 백골이었다. 그때에는 많은 맹수가 나와 날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 중국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를 없애 줄 터이니 “대국 동물대왕 입도(入島)”라고 큰소리로 외치도록 했다. 호랑이나 사자 따위 무서운 짐승을 없애 준다고 하니, 백성들은 좋아해서 모두 모여들어 큰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백골에 모여들었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맹수를 향해 소리치자, 호랑이·사자·곰 할 것 없이 골짜기로 사라지고,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 버렸다. 그 후 이 산은 아흔아

16)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53-662쪽.

홑골의 골짜기밖에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사자와 같은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왕도 큰 인물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온전한 수, 백 개의 골짜기라야 하는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아홑골밖에 안 되어 맹수도 나지 않고, 훌륭한 인물도 나지 않는 것이다.

단혈에 의해 인물이 나지 않고, 스님이 불경을 외어서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한 인식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¹⁷⁾

개미목 명당자리

이 전설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 유형과 풍수전설 두 유형이 합쳐서 이루어진 각편이다. 명당 발복은 사람의 역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다. 풍수가 사람의 흥망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소인 즉 관이나 인간에 의해 운명이 파기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제주에서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역시 장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힘을 써보지도 못해 패배하는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는 바로 제주민의 삶의 반영이다. 제주사람들은 고난을 신비적인 힘에 의해 극복하려고 하나,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순응성의 양면을 잘 보여준다.

한라산 정북쪽 1,500m 고지는 가파른 경사지인데, 옆으로는 탐라계곡, 개미계곡 등을 끼고 있다. 보통 이곳을 통과하여 한라산 백록담으로 오르게 된다. ‘개미목’이라는 이름은 개미의 목처럼 가늘게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사람들은 이곳을 후손들이 장사가 날 명당자리라고 했다.

이 개미목에 부친의 무덤을 써서 장수가 된 문사령이라는 인물 전설이 있다.

17) 제주도, 앞의 책 1985, 39쪽.

풍수지리에 능한 제주목사가 부임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의 사령 중에는 문사령이라는 자가 있었다. 목사는 늘 한라산을 오르면서 개미목에 가서 “어, 참 좋은 곳이로고.” 하고 감탄을 했다. 문사령은 목사가 감탄하는 곳을 보니 지기(地氣)가 아주 좋고 장군형이었다.

그래서 문사령은 목사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목사님, 저 땅을 제게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땅이라는 것은 다 임자가 있는 법이다. 상놈은 그곳에 산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무도 간절하게 아버지의 구산을 원했으므로 목사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명심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산을 쓴 후 삼 년 안에는 절대로 움직이거나 이장 하지 않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문사령 부친의 묘를 쓰고 사람들 모두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려 홍수가 터졌다. 물이 불어 산 위에서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사령은 아버지의 무덤을 치산하면서 이상한 징후를 느꼈다. 온몸에서 엄청난 힘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문사령은 사람들 손을 잡고서 냇가 두둑으로 펑펑 던지기 시작했다. 몸에는 힘이 불끈 솟을 뿐만 아니라 날개가 돋기 시작한 것이다.

땅의 기운이 솟아올라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생기고 날아다니게 된 것이다. 문사령은 날개를 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 남아도는 힘을 쓰기 위해서 서울로 가려고 걱정했다. 몇 차례 퍼덕거린 날갯짓으로 문사령은 경복궁에 도달했다. 나막신을 신은 사람이 경복궁 위를 가로로 세로로 날아다니게 되자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임금님,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자세히 살펴보니 날개가 돋아 궁궐 위를 가로세로 훌쩍 훌쩍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늙은 황새가 날갯짓을 하며 무거운 몸을 겨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분명 날개가 돋았으나 나막신을 신은 인간 도적임이 틀림이 없었다.

“이 도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울 안에는 이상한 도적을 잡는 자에게 큰상을 내리겠다는 방이 붙었다. 이때 한 신하가 다가와서 임금님에게 아뢰었다.

“도서관에 불을 넣어서 불을 끄는 자에게 천금상(千金賞) 만호(萬戶)를 주겠다고 방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바보스런 문사령은 바닷물을 떠다 도서관에 난 화재를 진압했다. 도서관 지붕만 타고 나머지 장성들은 날개 달린 문사령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전부 밖으로 이동해 임금은 문사령의 공력에 크게 칭찬을 하였다.

문사령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자 모여든 사람들이 큰 그물을 들고 와서, 예워싸고 덮쳐 문사령은 그만 잡히고 말았다.

“너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의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지?”

임금은 큰소리로 물었다. 아기장수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역적은 바로 산천 정기가 센 한라산이 있는 탐라에서 나온다고 늘 들어왔던 처지였기 때문에,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한라산 개미목 밭입니다.”

문사령이 포승을 차고 제주도로 와서 개미목 밭으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갔다.

“여기를 파라.”

곡괭이를 든 신하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큰 소가 거기에 무릎을 굽히고 땅 밖으로 나오려고 막 버둥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원래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갈 비룡상천(飛龍上天)의 땅이었다. 그런 장군지(將軍地)가 3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용이 못 되고 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신하들이 칼로 그 소의 머리를 참수하자, 문사령에게 솟아나던 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그 자리에 쓰

러져 버린 것이다.¹⁸⁾

고려장

이 전설은 조선조 제주인들의 장례풍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전설은 조선조 기건(奇虔) 목사의 인물에도 초점을 맞추어 전해지는 역사 인물전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후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분묘를 만들어 묻고 치산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나이 든 노인을 한라산에 가서 버리고 오는 고려장 풍습은 조선조 때까지 내려왔다 한다. 세종 때 기건(奇虔) 목사(牧使)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에게 아뢰었다.

“내일은 아버님이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선이 된다는 말이고?”

70세가 된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여러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아버님을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모셔갔다 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고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음,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님께 전달해 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넘기며 아버님의 가슴에 꼭 품게 해서 소중히 가지고 가서 넘기도록 했다.

이방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에 올라가 작별했다.

18)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앞의 책, 1985, 653~662쪽.

이튿날 이방이 등청하자, 목사는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그러면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보게. 아버님이 신선이 되어 잘 오르셨는지.”

이번엔 이방을 따라 목사도 같이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얹혀 둔 자리에 가 보니, 거기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는 그 뱀을 잡아 배를 갈라 보도록 했다. 배속에는 이방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 잘 보게. 내 옥황상제에게 보낸다는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독약이었는데. 이래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을 믿을 건가?”

그 후로부터 70세가 된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다고 한다.

안무사 기건의 본관은 행주, 호는 청파, 시호 정무, 학행으로 이름이 높아, 세종 때 포의로 발탁되어 지평에 제수되고, 1443(세종 25년)에 제주에 도임해서 선정을 베풀다가 1445년 12월에 첨지중추로 전출되어 제주섬을 떠난다.

기건 목사 관련 일화는 많은데, 《남환박물(南宦博物)》의 명환(名宦)조 本朝.....按撫使兼牧使奇虔 性執而廉勤 州產鰻魚 一不近口曰 民害之此 吾 忍食諸(본조...안무사 겸 목사 기건(奇虔)은 성품이 고집이 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제주에서 나는 전복을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고, 말하기를 “백성의 해가 이에 이르렀는데 내가 차마 먹을 수 있겠나?”라고 하였다.

또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추(秋)권3, 제주, 기문(奇聞)조에는 土俗 不知葬埋之禮 委諸溝壑者多 奇虔委牧使時 教之以棺槨 斂葬之法 一日夢見三百餘人拜謝于前 曰 賴公陰德 得免暴露 使公必生玄孫 克昌家聲 先是 公之三子 皆無嗣 是歲子掌令軸生子攢 官至應教 攢生五子曰 迺適遠進 進之子 大升以文學名世(제주의 풍습이 원래 매장하는 예법을 몰라 여러 골짜기와 도랑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중추부(中樞府) 기건(奇虔)이 목사로 왔을 때 관곽(棺槨)으로 시체를 염습하여 장사지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300여 명이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공의 음덕을 입어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으니, 공으로 하여금 반드시 어진 후손을 얻게 하고 극히 성하여 집안의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公)의 세 아들에게 모두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이 해에 아들 장령(掌令) 축(軸)은 아들 찬(欽)을 낳았는데 벼슬이 응교(應敎)에까지 이르고, 찬은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형(迥), 괘(适), 원(遠), 진(進), 준(遵)이라 했다. 진의 아들 대승(大升)은 문학으로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조선조 관리 기건 목사의 현명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 등이 잘 나타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19)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이야기유산》, 2018, 128-129쪽.

3. 민요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을 품고 그 자락에 자리하고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노래에는 종종 산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한라산은 신성한 장소이며 제주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거대한 장소적 이미지를 가지는데, 노래 속에는 한라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삶이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제주민요 사설을 들여다보면 산, 오름, 한라산이나 꽃, 물 등의 소재가 종종 등장한다. 노래 사설 속에 나타난 산의 의미를 통해 다양한 인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특히 한라산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 ‘넓다’ 혹은 넘어서기 힘든 대상, 신선



그림 1-10. 성음민요 공개행사(2020, 좌혜경)

의 땅인 낙원, 자원공급처로 나타난다. 또 산은 물과 함께 육지부 혹은 다른 영역과의 차단(遮斷)을 의미하는 대상물이다.

특히 제주도 전역에 산재하는 고유명사로서 한라산 이외에도 차귀당산, 녹남봉, 산방산, 영주산, 삼각산(서울), 태산(중국), 망오름, চে오름, 성산망, 지미망 등이 있으며, 한라산과 연결된 선흘곶, 가락곶물, 산짓물, 물장오리, 지장새미와 같은 물을 제재로 한 노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0) 자료를 중심으로 인용하여 산, 한라산, 꽃자왈을 소재로 한 제주민요 각 편을 정리하고자 한다.

산

산 속희도 사름이 살곡	(산 속에도 사람이 살고
물 속희도 사름이 산다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사름 못 살 어느 섬 서니	사람 못 살 어느 섬 있더냐)

노래 속의 산은 물과 대응된 소재로서, 아주 깊숙하고 거리가 먼 장소이며 지역적으로 소외된 장소를 가리킨다. 그래도 그러한 곳에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본디 전싱 굿어렌 몸은	(본데 전생 나쁘다는 운명을 지닌 몸은
산 넘어서도 즈들메 난다	산 넘어서도 걱정거리가 생긴다.
물 넘어서도 즈들메 난다	물 넘어서도 걱정거리 생긴다.
산도 물도 넘지나 말라	부디 산도 물도 넘지 말라)

애초에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신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중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믿고, 스스로 태어난 복으로 굴레를 넘어서려고 집을 나가서 결국은 마 파는 마통(맛둥)이를 남편으로 만나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전생이 나빠서 좋지 않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는 곳이야 어떠하겠는가. 어디에 가서도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화자는 차라리 물도 산도 넘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 한다.

제주민요에서는 넘어야 할 대상으로 종종 산과 물을 설정했다. 이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배경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비록 아주 높고 험한 고통을 견디면서 운명의 고개를 넘더라도, 넘어서기가 어려우므로 체념하라는 교훈적 성격의 노래다.

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울곡 가는 건 울곡산이여	울고 가는 건 곡산이네)

상(喪) 의례 중 슬퍼서 우는 것을 ‘곡하다’라고 한다. 울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곡산’이라 표현했다. 인생의 곡절은 불쑥불쑥 솟아있는 많은 산봉우리만큼이나 종종 다가오고, 이 산, 저 산은 이승과 저승이며 자신은 상여의 뒤를 쫓는 상주처럼 울고 사는 모습이 된 것이다.

청산에랑 집을 짓영	(청산에랑 집을 지어
녹산에도 집을 짓영	녹산에도 집을 지어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내 눈물이라라	불어나는 건 내 눈물이더라)

청산에랴고 어멍을 묻곡	(청산일랑 어머닐 묻고
녹산에랴고 아방을 묻곡	녹산에는 아버질 묻고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눈물이라라	불어나는 건 눈물이더라

두 오름 새에 댕이멍	(두 오름 새에 다니며
흐르는 건 눈물이라라	흐르는 건 눈물이더라
흔백상을 가운데 놓곡	흔백상을 가운데 놓고
불리는 건 나 눈물이여	불리는 건 내 눈물이네)

이 노래에서 산에 집을 지었다는 표현은 돌아가신 부모를 장사 지내서 묘를 만든 것에 종종 비유된다. 청산에는 어머니를 묻고, 녹산에는 아버지를 모셨다. 부모를 여의고 우는 자식의 눈물은 산에 흐르는 하천이 되었다. 죽은 부모를 그리워서 슬퍼 우는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저 산으로 일어난 불은	(저 산으로 일어난 불은
산지기가 끼와나 준다	산지기가 불을 꺼준다
저 바닷에 일어난 절은	저 바다에 일어난 물결은
여로나 재와나 준다	여(바위)에 부딪쳐서 재워진다
나 가슴에 일어난 불은	내 가슴에 일어난 불은
어느 누가 끼와나 주리	어느 누가 꺼주리)

이 노래에서는 산에 일어난 불과 화자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을 대조하면서, 자신도 가슴속의 불, 화병이 들어 어찌하지 못하는 심정을 한탄하기도 했다. 또 대조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절)를 잠재우는 바위(여)를 객관적 상관물로 끌어들여 표현했다.

나 설론 말 들을 이 시문	(내 쉼은 말을 들어 줄 사람 있다면
돌아 오는 돌을 만났	돌아 오는 달을 만나
고단고단 다 곁아 두었	차근차근 다 말해 두어
저 산 고지 얼음석 7찌	저 산수풀 얼음덩이 같이
소르릉이 나 녹아가마	소르르 내 녹아가마
나 가슴의 얼음광 쟁피	내 가슴의 얼음과 선혈
어느 벤틀 녹아나 지리	어느 별에 녹아나 지리)

화자는 자신의 한탄을 들어 줄 사람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하늘에 뜬 달에라도 차근차근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라산 위의 시원한 숲속의 얼음처럼 가슴 속의 얼음과 같은 선혈이 녹아가지 않을까 한다.

‘곶’이라고도 하는, ‘고지’는 대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기온이 낮은 편이다. 이곳을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더욱 시원하다. 말을 하면 가슴속의 한이 녹겠지만,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한스러움은 녹을 수가 없다고 여긴다.

산엔 가민 개 울림 소리	(산엔 가면 개 짖는 소리
꽃밭엔 가민 봄 비둘기 소리	꽃밭엔 가면 봄 비둘기 소리
아방 죽국 어멍 죽국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지집 죽국 죽국 죽국	계집 죽고 자식 죽고
죽국 죽국 소리한다	죽국 죽국 소리한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의인화해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친근한 대상으로 ‘산’과 ‘꽃밭’을 끌어들여서 화자가 외롭지만은 않다.

저 산 돌런 난 지젠 허난	(저 산을 둘러서 나는 등짐으로 지려 하니
----------------	-------------------------

짐패 졸란 못 지듯
부뭇 공은 가프젠 헉난
멩이 졸란 못 가파라

짐베²⁰⁾ 째아 못 지듯
부모 공은 갇으려 하니
멩이 째아 못 갇더라)

공든 이로 세아려 보라
어멍 만이 공들ersi라
동지 선들 진 진 밤의도
젇인 자리 여에여 주곡
여이단 목 즈늘와 주영

(공든 이로 헤아려 보라
어머니만큼 공들었으랴
동지 선달 긴 긴 밤에도
젇은 자리 갈아 주고
마르던 목 축이어 주어

산에 ㄴ는 가마귀덜토
부뭇 은공 지극헉는디
우리 ㄱ쁜 귀훈 인생
부뭇 은공 어기호라

산에 나는 까마귀도
부모 은공 지극한데
우리 같은 귀한 인생
부모 은공 어떠하리)

노래의 화자는 부모의 은공을 산에 비유하였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상인 산을 등에 지고 옮길 수 없듯이, 부모님의 은공을 갚으려 했으나 부모가 살아있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고 노래한다. 부모 중에서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는 더욱 높고 깊다. 까마귀와 같은 반포보은(反哺報恩)을 상징하는 새에 빗대어 한갓 짐승인 새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되묻는다.

20) 등에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베(바)인데, 짚으로 엮어서 만들거나 헝겊 조각을 꼬아서 줄을 만들어 대바구니나 땀감을 등을 지고 다녔음.

신국 신산 아여산 고개
히곡 간덜 나 부뭇 시랴

(신국 신산 아여산 고개
헤엄쳐 간들 내 부모 있으랴)

“신국(神國), 신산(神山) 아여산”은 화자가 산을 신성시해서 설정해 놓은 이상향으로,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헤엄쳐 간들 돌아간 부모는 만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저승으로 간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없으므로,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 할 수 있다.

저 산이랑 가운데 들엉
그랑 좁쌀 양식을 쌍
제주 삼 읍 다 돌멍 봐도
날만 전성 곳인 이 서나
좋은 전성 골리단 날에
어멍 어디 가 오라서니

(저 산 가운데 들어
자잘한 좁쌀 양식을 싸서
제주 삼 읍 다 돌며 봐도
나만큼 전성 곳은 이 있더냐
좋은 전성 가리던 날에
어머니 어디 갔다 왔더냐)

산이 중첩 되어 있는 곳,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공간적인 배경을 ‘산 가운데 들었다’라고 표현했다. 이곳저곳을 헤매었다는 것은 방황하며 살아온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러한 삶의 원인을 비참한 운명을 준 어머니에게로 돌리고 있다.

부몬 죽으난 청산이 뉘곡
아긴 죽으난 황산이 뉘다

(부모는 돌아가서 청산이 되고
아기는 죽어서 황산이 된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부모의 공덕은 지대하다. 그리고 부모가 지닌 자식들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성장하여 늘 푸른 청산이 되기를 바란다. 대조적으로 태어나 얼마 되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의 무덤은 골총(冢)이 되었다.

산도 설 곡 물도 선 요 질	(산도 낮설고 물도 낮선 이길
누겔 보안 온 질이라니	누구를 보아 찾아온 길이더나
임을 보아 온 질이라라	임을 찾아 온 길이더라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저 돌 지도록 놀당 가마	저 달 지도록 놀다가마)

제주민요에는 산과 내(물)를 매개로 하여 차단(遮斷)된 지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님을 찾아왔으나 모든 것이 낮설고 어설프기만 하다. 그러나 만단정회(萬端情懷)를 베풀면서 밤이 새도록 놀고픈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

인간에 귀물은 각씨광 서방	(인간의 귀물은 마누라와 서방
산중에 귀물은 멀뤼광 드레	산중에 귀물은 머루와 다래
나를 버리영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마의정당 췌정당 줄에	마의정당 췌정당 줄기에
발을 걸련 유울엄서라	발이 걸려 이울고 있더라)

산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 ‘머루’와 ‘다래’다. 그리고 인륜(人倫)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夫婦之間)이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가는 님은 산기슭에 얹혀 있는 땡땡이덩굴에 발이 걸려서 꼼짝없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해 말라비틀어졌으면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에 병이 난다”와 같은 근대기 아리랑 가사를 연상시킨다.

울멍 돌물 애기도 웃다	(울며 따를 아기도 없다
노피 받줄 부모도 웃다	높이 받들 부모도 없다
저 산 뒤에 할배로 가도	저 산 뒤에 활개치며 가지만

가시 위에 걸릴 배 웃다

가시 외에 거칠 바 없다)

이 노래는 부모와 자식이 인연 없이 홀가분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노래다. 산으로 오르면서 활개를 치지만 가시밖에는 거칠 바가 없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사의 이치인지도 모를 일이다. 홀로 된 자신의 고독감을 이기기 위한 노래로 볼 수 있다.

간지나다 초나다 말라

(지나치다 별나다 말라

상산 고개 중산 고개

상산 고개 중산 고개

노닐당도 지서명 뉘다

노닐다가도 조강지처 뉘다

간지나다 초나다 말라

지나치다 별나다 말라

즈른 적삼 진 치매 입언

짧은 적삼 긴 치마 입어

한질 구둣 찢리 배 웃다

대로의 먼지를 쓸어 낸 바 없다)

노래 속에서 화자는 “자신을 넘보며 별나다”는 평에 속상한 심정을 여성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다.

상산, 중산이란 산의 크기와 높이를 상, 중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이 산에 올라 놀았다고 해서 착실한 아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은 없다. 또 이보다 더 대놓고 남보다 별나게 성장(盛裝)해서 대로(한길)에 나가 논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래 속의 산은 유흥지 혹은 남녀가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씨앗이엔 튼으렌 가난

(시앗이라고 싸우러 가니

산을 넘언 튼으렌 가난

산을 넘어 싸우러 가니

동산 밧디 메마꽃 ㄱ찌

동산 밧에 핀 메꽃처럼

휘번듯이 나앉아시난

번듯이 내앉았으니

나 눈에도 저만흔 각시

내 눈에도 저만한 색시

임의 눈에서 아니들리야	임의 눈에야 들지 않으랴
한라산의 고지 단풍	한라산의 꽃의 단풍
무정한 남자가 브레여 보라	무정한 남자가 쳐다보라)

남편은 산을 건너 다른 마을에 첩을 두고 시종 다녔다. 이를 안 아내의 자신이 가슴에 품은 분함을 풀려고 첩을 찾아갔으나, 그녀의 미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체념하게 된다. 그러나 동산에 핀 매꽃보다는 오히려 한라산의 단풍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고 스스로 위로하며 묻는 노래다.

서월 각신 씨앗이 굿어	(서울 마누란 시앗이 굿어
물을 넘어 뜰으레 간다	물을 넘어 싸우러 간다
직주 각신 씨앗이 좋앙	제주 마누란 시앗이 좋아
산을 넘어 살리레 온다	산을 넘어 살리러 온다)

처첩에 대한 관념과 첩살이의 풍속이 육지부와 서로 다름을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다. 육지부에서는 처와 첩의 신분 차가 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였다. 제주의 속담에 “씨앗은 고팡(깡)을 맡겨서 다니고 동서는 못 맡겨 다닌다.”라는 말이 있다. 한 남자를 중심으로 처와 첩이 공동으로 집안 살림을 같이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속담이다.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언	(미운 사람 보기 싫어
산성에 간 집 짓언 사난	산에 올라서 집을 지어사니
들어오는 이 흥나히 웃고	들어오는 이 한 사람도 없고
노리 사심 발어름 소리	노루 사슴 발자국 소리)

사람 하나 살 집이 웃언	(사람 하나 살 집이 없어
산 솥희 간 집으랑 짓언	산 속에 가서 집을 지어
노리 사슴 소리만 난다	노루 사슴 소리만 난다
이런 고단 뉘 들어오리	이런 곳에 뉘 들어오리)

두 노래는 동일한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래 속에서 산에 가서 살게 되는 이유를 미운 사람이 있어 보기 싫어 가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산촌에 외롭게 혼자서 집을 지어 살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벗이라고는 노루와 사슴과 같은 짐승뿐이다.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이 더욱 고독감을 자아내고 있다.

산 솥희도 사람이 산다	(산 속에도 사람이 산다
물 솥희도 사람이 산다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나무 돌 끄 사람이 사는데	나무 돌 틈에도 사람이 사는데
이 내 몸은 의지할 곳 웃구나	이 내 몸은 의지할 곳 없구나)

사람들은 산과 나무, 물과 같은 자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신세는 고독한 처지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낭도 늪영 노목이 돼민	(나무도 늪어 고목이 되면
놀단 생이 환고향하곡	놀던 새가 환고향하고
산도 늪영 곡산이 돼민	산도 늪어 곡산이 되면
놀단 평도 환고향하곡	날던 평도 환고향하고
꽃이 늪영 낙화가 돼민	꽃이 늪어 낙화가 되면
놀단 나비 환고향하곡	놀던 나비 환고향하고
이내 몸이 영 늪어지난	이 내 몸이 영 늪어지니

오단 님도 돌아나 가네

오던 임도 돌아나 가네)

화자는 늙어가는가는 자신을 자연물인 산과 나무, 꽃에 비유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한탄한다. 자신의 몸이 늙어서 초라해진 모습을 자연 속에서 소재를 끌어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고목의 새, 산의 꿩, 꽃의 나비도 환고향하는데, 대조적으로 늙은 자신에게는 오던 님도 돌아가게 된다.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적으로 표현했다.

산도 설고 물도 선 디

(산도 설고 물도 선 데

어디란 일로 와시니

어디라고 이리로 왔나

돈일러라 돈일러라

돈일러라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돈의 전체곳 아니민

돈의 까닭 아니면

내가 요디 무사 오리

내가 여기 어찌 오리)

해녀들의 노래인 ‘해녀노젓는소리’의 일부분이다. 출가(出稼) 물질에서 느끼는 삶의 정서를 노래에 실어서 표현했다. 산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간적 요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질로 돈을 벌기 위해 육지부로 출가를 떠난 해녀들이 낯선 장소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기만 하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왜 이렇게 멀고 먼 타향까지 오겠느냐고 한탄한다.

산도 찻지 물도 찻지

(산도 차지 물도 차지

우리 조선 총독부 찻지

우리 조선 총독부 차지

저레 가는 저 총각은

저리 가는 저 총각은

내 찻지여 내 찻지여

내 차지네 내 차지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부른 노래로 볼 수 있다. 산과 물은 국토의 일부
 분이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둔 사랑하는 남성이야
 뺏기겠느냐고 다짐한다.

노푼 산에 눈 놀리듯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야푼 산에 재 놀리듯	낮은 산에 재 날리듯
억수장마 비복롬 치듯	억수장마 비바람 치듯
대천바당 물결 놀듯	대천바다 물결 놀듯
흔저흔저 매여 가게	어서어서 매어 가자)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의 일절이다. 산 정상에 하얗게 쌓인 눈과, 낮은
 산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장맛비가 내릴 때 비바람 치는 모습과 같이, 큰 바다에 파
 도가 이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김을 매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다.

산엔 가민 살장귀 소리	(산엔 가면 살장구 소리
고진 가민 우김새 소리	숲엔 가면 새우는 소리
저 드르헨 푸습새 소리	저 들에는 풀잎 소리
밭엔 들민 굴강쉐 소리	밭엔 들면 호미 소리
집원 들민 정그레 소리	집엔 들면 땃돌 소리
배엔 가민 뱃방귀 소리	배엔 가면 뱃고동 소리
물엔 들민 숨비질 소리	물엔 들면 숨비질 소리)

이 노래는 ‘소리’를 활용한 어휘적 성격이 강한 노래다. 산과 밭, 들, 집, 바다 등을
 제재로 취해서 제주의 정서가 물씬 풍긴다. 산에 가면 장구 소리가 들린다는 야유
 (野遊), 혹은 한라산 화유(花遊)의 모티프를 상상하기도 했다.

하영 먹젠 산전에 올랑	(많이 먹으려 산전에 올라
마의정당 췌정당 줄에	마의정당 췌정당 줄기에
발을 걸련 유울엄서라	발이 걸려 이울고 있더라
덥고 더운 이 오놀이여	덥고 더운 이 오놀이네
어느 때민 저 지경 가리	어느 때면 저 지경 가리
얼른 똥땅 메어나 놓게	얼른 매어나 놓자)

제주도 내 중산촌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 잘살아보려고 산전(山田) 밭을 개간하였으나, 막상 그 작업은 쉽지가 않다. 굶고 가는 ‘땡땡이땡굴’은 온통 밭에 얽혀 있고, 작업하는 사람의 밭에 걸려서 헤어나기가 어려웠다. 더운 여름 날의 김매기 하는 모습을 표현한 노래다.

저 산 앞의 놀단 ㅁ시덜	(저 산 앞에 놀던 마소들
어느 제 보쟁 췌주멍기나	어느 때 보려고 쇠주머니나
한부종 때 보쟁 췌주멍기다	한부종 때 보려고 쇠주머니다
요 ㅁ시덜 혼저 불르라	이 마소들 어서 밟아라)

사람들은 제주 10소장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소나 말을 방목했다. 방목했던 마소들을 음력 6월절 경, 좁씨 파종 시기인 부종(付種)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와 밭을 밟는 데에 이용했다. ‘쇠로 만든 주머니’의 의미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보물을 담는 주머니라는 뜻이라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 낭 저 낭 팔제 좋은 낭	(이 나무 저 나무 팔자 좋은 나무
요 산중에 태어나근	이 산중에 태어나선
풍우대작 적관ㅎ단	풍우대작 꺾다가

이내 어깨 맛을 보난	이내 어깨 맛을 보니
좋은 좋은 방안으로	좋고 좋은 방안으로
만년 부귀 흥실로구나	만년 부귀 하시겠구나
대국 땅에 태어나시민	중국 땅에 태어났으면
아방궁을 짓일 적의	아방궁을 지을 적에
대들포나 매어지컬	대들보나 매어질걸
제주산에 낫기 따문	제주산에 낫기 때문
이 내 어깨 맛을 본다.	이 내 어깨 맛을 본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소나 말, 짐승이나 혹은 사람의 힘을 이용해 마을로 내리면
서 부르는 ‘임업노동요’의 일부다. 대화체를 이용하여 나무가 집을 짓는 목재로써의
이용 가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애정 등을 표현한다.

이 산 앞원 당 오백 못곡	(이 산 앞엔 당 오백 베풀고
저 산 앞원 절 오백 못곡	저 산 앞엔 절 오백 베풀고
절 오백광 당 오백 새에	절 오백과 당 오백 새에
오백장군 절 귀경 간다	오백장군 절 구경 간다)

제주에서는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마다 곳곳에 무속신앙인 ‘당’
을 설연하고 불사를 창건했다. 그중에서 한라산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은 그 바위
모양이 기이하고 색색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불사 중에서 한라산이
있던 ‘존자암’은 유명하다.

저 산 뒤에 난 굽언 보난	(저 산 뒤쪽을 굽어 보니
아흔 아홉 골이라라	아흔 아홉 골이더라

흔 골 시민 백 골이킬	한 골 있으면 백 골일걸
백 골이민 범도 나걸	백 골이면 범도 날걸
이 몸 지체 어려워라	이 몸 처리 어렵더라)

한라산의 ‘아흔아홉계곡’ 전설을 차용하여 노래 가사로 활용하고 있다. 한라산의 골짜기가 온전한 수인 백을 채우지 못해서, 제주에는 맹수가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원래 한라산에는 100개의 계곡이 있어 맹수가 날뛰자 중국의 스님들이 섬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국동물대왕입도’라고 외치도록 했다. 그러자 맹수들이 모였는데, 스님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자, 그 순간 한 개의 골짜기가 사라지고 맹수들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부족함의 모티프를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한계를 표현했는데, 노래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자신의 신세를 전설적인 이미지를 끌어다가 자아화하고 있다.

산엔 가민 멀뤼광 드레	(산엔 가면 머루와 다래
연드레로 해 지암서라	연다래로 해 지우더라)

한라산의 명물인 머루와 다래를 따서 먹는 즐거움을 노래했다.

산 뛰는 건 웅매로다	(산 뛰는 건 웅마로다
여 뛰는 건 베로구나	여 뛰는 건 배로구나
요 바당에 은광 금이	요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끌려서도	번질번질 끌렸어도
노끈 낭기 올매로다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산에 달리는 말을 섬 사이를 오고 가는 배와 비유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바닷속

에 있는 은과 금처럼 귀한 전복과 소라와 같은 해산물을 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였다.

태산 마놓아 매운 양 말라	(중국 마늘아 매운 양 말라
늪어 가민 세우리 된다	늪어가면 부추 된다
꽃이라도 시들어지난	꽃이라도 시들어지니
앉단 나뭇도 다 돌아간다	앉던 나비도 다 돌아간다
낭이라도 노목이 돼난	나무라도 노목이 되니
놀단 생이도 아니나 앓나	놀던 새도 아니나 앓는다
산도 보난 고렷적 산이여	산도 보니 고려적 산이네
물도 보난 고렷적 물이여	물도 보니 고려적 물이네)

늪고 초라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중국 태산의 마늘과 부추 그리고 꽃, 늪은 나무에 비유하였다. 산천은 의구하나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거나 늪어진다.

삼각산에 치돌안 보난	(삼각산에 치달아 보니
늦이 같은 모뭇광 산뒤	늦게 같은 메밀과 밭벼
선 때 비연 애돌암서라	설익은 때 베어 애달파하네)

삼각산은 노래 속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로,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일정 지역을 일컫는다. 어떤 일을 너무 서둘러 행해 실패한 후 후회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산방산 굴절이 켜난	(산방산 굴의 절사가 세어서
------------	-----------------

못내 높은 송악산이라라 못 높은 송악산이더라)

산방산과 송악산은 안덕면 화순리와 대정읍 모슬포에 있다. 특히 산방산은 종상(鐘狀)화산으로 산허리에는 산방굴사가 전설을 간직한 채 묵묵히 바다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산방산은 사찰이 있어 그 영력이 강해 유명하지만, 곁에 있는 송악산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

강한 힘을 가진 것 곁에 위치하면, 그보다 못한 작은 힘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두 개의 산을 끌어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산은 첩첩 곤륜산아	(산은 첩첩 곤륜산아
물은 출랑 황해수라	물은 출렁 황해수라)

제주민요에서 중국의 곤륜산과 황해수는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영주산에 즈렌 나무	(영주산에 자란 나무
오늘날은 지와 간다	오늘날은 늙혀 간다
금도치로 지와 간다	금도끼로 늙혀 간다
버국이랑 놀고 가라	지저깨빌랑 날고 가라
천리만리 놀고 가라	천리만리 날고 가라
함박만씩 놀고 가라	함박만큼 날고 가라
물박만씩 놀고 가라	물박만큼 날고 가라
산도 물도 넘영 가라	산도 물도 넘어서 가라)

영주산은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데, 과거에는 한라산도 영주산이라 일컬었다. 노래 속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곳은 아니고 나무가 많은 산을 지칭한다. 이 노래는 나

무를 베어다 집이나 배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깎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특히 귀자귀를 이용하여 나무를 다듬는 장면이 잘 표현되고 있다.

콩 입 닳은 우리 성님	(콩 입 닳은 우리 형님
속 입 닳은 나를 두영	속 입 닳은 나를 두어
복성귀 낭 배를 탄에	복숭아 나무 배를 타선
직주 섬을 돌단 보난	제주 섬을 돌다 보면
허궁산에 지는 비는	허궁산에 내리는 비는
우리 성제 눈물이어	우리 형제 눈물이네)

모든 허물을 감싸주는 형님, 속있처럼 세상의 풍파를 모르는 나는 배를 타고 제주섬을 돌면서 바다 어업을 했는데, 허궁산에서는 형제의 눈물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삶의 어려움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석 섬 쏘은 서 말에 능경	(석 섬 짚은 서 말에 능거
서 말 쏘은 석 뒤편에 능경	서 말 짚은 서 뒤편에 능거
석 뒤편 쏘은 서 흙에 능경	서 뒤편 짚은 서 흙에 능거
차귀 당산 당산메 지영	차귀 당산 당산메 지어
느네 상전 눈에나 들라	너의 상전 눈에나 들어라)

‘차귀당산’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고산악(높이 148m)을 별칭으로 이렇게 부른다. 고산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논농사가 가능했다. 이를 ‘밭벼’ 혹은 ‘산뒤편’이라고 했다. 고산악 부근에 펼쳐진 넓은 평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벼농사는 제주도에서는 강정지역과 더불어 벼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당산메’는 당산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이나, 무속의 신에 올리는 밥으로 <서천노기 당산메> <서천강 노기메> <노기메>

라고도 한다. 집안에서 굿을 할 때는, 메가 한 그릇이 되도록 늦그릇에 물과 쌀을 알맞게 넣은 후 이를 솥 안에 담가서 정성껏 지었다고 한다.

산아 산아 수영도산아	(산아 산아 수영도산아
어서 상산 길이나 나라	어서 상산 길이나 나라
산중 귀물 오미즈 중의	산중 귀물 오미자 중에
드레만이 맛좋아서냐	다래만큼 맛 좋았더냐)

여기서 지칭하는 수영도산은 '수양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산서성(山西省)과 황해도 해주에도 있다고 전해진다. 수양산은 주 무왕 때 백이숙제(伯夷叔齊)가 고사리를 캐어 먹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오미자는 한라산의 명물로, 따서 술에 담가 오미자술을 만든다. 한라산에는 오미자와 더불어 아주 귀중한 것으로 다래가 있다. 화자는 오미자보다 다래가 더 맛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름

오름에 돌광 지세어명은	(오름에 돌과 지세어명은
둥글어 땡기당도 살을 메 난다	굴러 다니다도 살 바가 있다
놈의 첩광 소낭기 브름은	남의 첩과 소나무에 이는 바람은
소린 나도 살을 메 웃다	소린 나도 살 도리가 없다
버룩버룩 살마꽃은	번듯번듯 반하꽃은
흐를 피영 웃어나 진다	하루 피고 없어나 진다)

모진 풍파에도 견뎌낸 지세어명, 곧 온갖 삶의 고난을 치른 조강지처를 오름에 굴

러다니고 발에 채는 돌에 비유했다. 그리고 한순간의 첩살이와 같은 덧없는 사랑은 소나무에 이는 바람처럼 한갓 시원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 또 반하(半夏) 꽃은 피었을 적에는 번듯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바로 떨어져서 허무하기만 하다.

이 오름 넘어 저 오름 가난	(이 오름 넘어 저 오름가니
더욱 노픈 천칭 오름	더욱 높은 천층 오름
하영 먹젠 상상봉 가난	많이 먹으려고 상상봉 가니
가시덤불에 발을 비연	가시덤불에 발을 베어
가기 오기 곤란이여	가고 오기 곤란하네
설롭다 벗님네야	서럽다 벗님네야
그늘이 먹곡 그늘이 썩	가늘게 먹고 가늘게 써서
심신 편안 지일이여	심신이 편안한 게 제일이네)

오름을 인간의 욕망에 비유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상상 속의 다른 오름 '상상봉'으로 치달았으나, 그곳에서 무성한 가시덤불에 발목이 걸린 자신을 발견한 후,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어조로 경세(警世)의 노래를 하게 된 것이다.

큰 오름은 아방을 삼곡	(큰 오름은 아버지질 삼고
죽은 오름은 어명을 삼안	작은 오름은 어머니질 삼아
선계 먹을 근심 안혹곡	현씨 먹을 근심 앓고
이내 몸 살 근심이라라	이내 몸이 살 근심이더라)

해녀들은 바다에서 작업할 때 오름을 기점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지경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오름을 부모로 삼는다는 것은 더불어 삶을 영위해 가는 친근한 대

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은 다른 이를 염려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해결이 앞서해야 할 근심이라고 한다.

ㄷ리 손당 큰애기덜은	(교래 송당 큰아기들은
피 방에 찢기 일수로다	피 방아 찢기가 일상이로다
가시오롬 큰애기덜은	가시리 큰아기들은
담배 피기 일수이곡	담배 피우는 것이 일상이고
정꿀에 큰애기덜은	성읍리의 큰아기들은
화토치기 일수로다	화투놀이 일상이다)

이 노래는 ‘큰애기풀이’의 일부분으로 어희요의 일종이다. 중산간 지역의 특산물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노래로 잘 나타내었다. ‘ㄷ리’는 조천읍 교래마을로 중산간 지대여서 산물은 조나, 피, 메밀 등이다. 그녀들은 피방아 찢기에 바쁘다.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의 아가씨들은 담배를 피우고 화투놀이를 즐길 정도로 여유가 있으며 한가하다.

가시오롬 강당장 칩의	(가시리 강당장 집에
시콜방에 새 글럼서라	세콜방아 새 안 맞더라
요내 몸은 비 잡아 사난	이내 몸은 비 잡아 서니
다섯콜도 새 맛암서라	다섯콜방아도 새 맞고 있더라
우리 성제 삼 성제 드난	우리 형제 삼 형제 드니
다섯콜도 새 맛암서라	다섯콜방아도 새 맞고 있더라
각단 밧디 우리통 박듯	각단 밧에 우리통 박듯이
팔제 굷인 요내 몸 가난	팔자 굷은 이 내 몸 가니
짚는 방에 돌음을 돈나	짚는 방아가 달려간다)

가시오름은 표선면 가시리에 있다. 이곳에는 부호였다고 일컬어지는 ‘강당장’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강당장 집에는 보통 세 사람이 짙는 ‘세콜방아’로 곡식을 짖어 작업하곤 했다. 방아를 짖을 때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를 ‘새글른다’(사이가 어긋나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다섯 사람이 짖는 다섯콜방아도 척척 잘 맞게 짖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팔자가 굽은 화자는 방아가 서툴고 맞지 않아 작업의 어려운 상황을 노래로 표현했다.

드리 손당 큰애기덜은	(교래 송당 큰아이들은
피 방에 집에 다 나가고	피 방아 짖기에 다 나가고
청수 닥ㅁ를 큰애기덜은	청수 저지 큰아이들은
지름 장사 다 나가고	기름 장사 다 나가고
죽성 ㄱ다시 큰애기덜은	<죽성><ㄱ다시>큰아이들은
틀 드래 타래 다 나가고	산딸기, 다래 따러 다 나가고
조수 낙천 큰애기덜은	조수 낙천 큰아이들은
석은 땔 풀레 다 나가고	부식된 땔치 팔러 다 나가고)

‘큰애기풀이’의 일부분이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산촌지역인 구좌읍 교래리, 한경면 청수리와 저지리, 제주시 오등동 죽성, 한경면 조수리와 낙천리의 지역적 특성과 큰애기들의 일감을 나열하여 지역색을 표출하고 있다.

망오름만이 피라	(망오름만큼 피어라
체오름만이 피라	체오름만큼 피어라)
성산망에 불싸라	(성산망에 불켜라
지미망에 불싸라	지미망에 불켜라)

원당오름 불싸라

(원당봉 불켜라

망오름 불싸라

망오름 불켜라)

위의 노래들은 아이들이 쇠비름 뿌리를 가지고 손바닥을 치면서 붙어지는 모습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이웃해 있는 오름 정상에 있는 봉수대에 불이 켜지는 것에 비유해서 부른 노래다. 산과 오름은 자신들과 이웃한 것처럼 가장 친근한 대상이었다.

농남봉에 녹남괴 방에

(녹남봉에 녹나무 방아

노각 7튼 나 어깨 들렁

녹각 같은 내 어깨 들어

뜨려 드난 핑지가 된다

때려 놓으니 핑지가 된다)

대정을 신도리에 있는 녹남봉은 약 100m나 되는 높은 봉이다. 여기서 나는 녹나무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 대정 사람들은 방아를 만들었다. 사슴의 마른 뿔인 녹각처럼 단단한 자신의 어깨로 방아질을 하면 어떠한 곡물도 다 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한라산

산댕 허나 못 산댕 허나

(산다고 하든 못 산다고 하든

저 양지에 지미나 보라

저 얼굴에 기미나 보라

한락산의 전 섬잇 브름

한라산의 온 섬엿 바람

아저다가 나 섬의 두라

가저다가 내 섬에 뒤라)

화자는 바람에 의해 얼굴에 기미가 생겼다고 여긴다. 바람은 온 섬을 휩쓸고 지나

간다. 아마도 그 바람을 모아 일정한 지역에 가두었다면, 섬에 바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바람으로 인해 자신의 얼굴 피부가 곱지 않은 것에 대해 비탄했다.

할로산으로 느리는 물은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은
베릿내로나 느리는건마는	별도천으로 내리건만
나 눈으로 느리는 물은	내 눈으로 내리는 물은
어딜로나 다 흘러 가리	어디로나 다 흘러서 가리)

‘베릿내’는 제주시 화북동의 ‘화북천’을 뜻한다. 한라산의 물이 시내를 따라 흐르는 것을 자신의 눈에서 내리는 물과 동일시했다. 자연의 이치를 자아화하여 서정적인 시상을 획득했다.

한라산으로 느리는 물에	(한라산으로 내리는 물에
곤쌀 씻어 밥을 흐난	흰쌀 씻어 밥을 하니
늑도 하곡 돌도 하곡	늑도 많고 돌도 많고
늑이 웃인 탓이로고나	임이 없는 탓이로구나)

제주에는 한라산의 지하수가 바닷가 근처로 와서 샘을 형성한 곳에 마을 촌락들이 구성되었다. 이 맑은 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었으나, 늑이 없는 까닭으로 밥맛이 좋을 리가 없다.

한라산에 쌓인 눈은	(한라산에 쌓인 눈은
봄철 나민 쳐지쥬만	봄철 나면 쳐지지만
요 내 가슴에 쌓인 시름	이 내 가슴에 쌓인 시름

쳐질 날도 시리야한다

쳐질 날이 있을까 한다)

늘 바라보는 한라산의 눈과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시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물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민요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우리 배는 잼도 재다

(우리 배는 재기도 재다

놈의 배는 땀도 뜨다

남의 배는 뜨기도 뜨다

썩은 낭의 덕더린가

썩은 나무 덕더리가

요 몽고지 부러지민

요 노손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가시낭이

한라산의 가시나무가

엇일 말가

없을 말이나)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의 일부분이다. 한라산의 가시나무를 이용하여 배와 노를 만들었다. 한라산은 제주민들에게 나무 목재 등 많은 자원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장소였다.

나 놀레랑 산 넘영 가라

(나의 노래랑 산 넘어가라

나 놀레랑 물 넘영 가라

나의 노래랑 물 넘어가라

물도 산도 지 넘지 말앙

물도 산도 넘지 말고

이딴서 도놀당 가라

여기서 노닐다 가라

저 산 뒤에 나 어명 싯당

저 산 뒤에 내 어머니 있다가

설문 아기 소리령 흥게

젊은 아기 소리라 하계

흥를 해원 불르당 봐도

하루종일 부르다 봐도

부를 놀레 수하영 싯저

부를 노래 수가 많다

한라산이 내 집이 돼민	한라산이 내 집이 되면
부를 놀레 다 불러 보카	부를 노래 다 불러 볼까)

제주는 섬이어서 섬과 육지를 가르는 차단된 공간으로 산과 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고단한 삶의 노래는 이 세상 끝이 없다. 때로는 노랫소리가 산을 넘어 저쪽에서 들리면, 친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우는 설움이라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닫힌 공간으로 한라산처럼 큰 집이 있다면, 외부세계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노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쥐주산은 악산이여	(제주 산은 악산이네
보리 밥을 밥이엥 먹엉	보리 밥을 밥이라 먹어
쥐주 난 일이 칭원하다	제주 난 일이 원통하다)

노래 속의 제주산은 곧 한라산을 의미한다. 풍수적으로 한라산이 ‘악산’이므로, 사람들 삶이 어렵다고들 한다. 제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다.

한로산을 등에 지곡	(한라산을 등에 지고
대천바당을 집을 삼앙	대천 바다를 집을 삼아
부모 동생 이벨홀 적원	부모 동생 이별할 적엔
손수건인덜 아니 젓이라	손수건인들 아니 젓으랴)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오름은 자신들의 작업 위치를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 노래 속에서는 한라산을 뒤로하여 육지부로 출가 물질을 떠날 때 부모, 형제와 이별하는 모습을 노래로 표현했다.

한로산 허리엔
시러미 익은승 만승
서귀포 해녀는
바당에 든승 만승

(한라산 허리엔
시로미 익은 듯 만 듯
서귀포 해녀는
바다에 든 듯 만 듯)

제주야 한로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축항 끝
벧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제주야 한라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항구 끝
벧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한로산 상상봉
노프곡 노픈 봉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어

(한라산 상상봉
높고 높은 봉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네)

꺾실엔 감줄 빗
한로산 새 소리
신선의 나라여

(가을엔 감귤 빗
한라산 새 소리
신선의 나라네)

산에를 가든
목동의 노래곡
바당에 오든
좁네의 노래여
한로산 들판엔
물덜이 솔치고
뜨뜻한 나라여

(산에를 가면은
목동의 노래요
바다에 오면은
해녀의 노래네
한라산 들판엔
말들이 살찌고
따뜻한 나라네)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등 창민요에는 ‘산’과 ‘한라산’이 자주 등장한다. 제주의 풍광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신선의 땅,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자신들이 태어나 자라서 살아가는 향토에 대한 애정이 노래 속에 듬뿍 담겨 있다.

동박꽃은 피엿는디	(동백꽃은 피었는데
흰 눈은 왜 느리나	흰 눈은 왜 내리나
한로산 선녀덜이	한라산 선녀들이
춤을 추멍 느려온다	춤을 추며 내려온다
고랑부 삼성혈 찾아 가난	고랑부 삼성혈 찾아 가니
까마귀 까옥까옥	까마귀는 까옥까옥
소낭만 푸르고나	소나무만 푸르구나)

이 노래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소복이 내려 쌓이는 하얀 눈을 배경으로 핀 빨간 동백꽃, 거기에 한라산의 선녀들이 춤추고 내려온다. 삼성혈에는 푸른 소나무 위에 새까만 까마귀만 까옥까옥 울고 있다. 빨강고, 하얀, 푸르고, 검은 색상이 대조적으로 펼쳐진다.

저 산 둘러 난 지쟁 허난	(저 산 둘러 난 지려 하니
짐배 졸란 못 질로고나	짐배 째아 못 지겠구나
한라산이 돈이라도	한라산이 돈이라도
상속자 웃언 못 쓸로다	상속자 없어 못 쓰겠구나
바닷물이 술이라도	바닷물이 술이라도
부랑자 웃언 못 먹을로다	부랑자 없어 못 먹겠구나)

노래 속에서는 대구를 활용하여 산과 한라산의 속성을 ‘크고 많음’으로, 상징적

으로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제주 속담에서는 「한락(로)산이 덩이라도 쓸 놈 엇(웃)으(이)민 못 쓴다.」(한라산이 덩어리라도 쓸 놈 없으면 못 쓴다) 「한락(로)산이 돈이라도 질 뺑(짐배/짐패) 엇(웃)으(이)민 못 지국, 바당물이 꽃죽이라도 솟(수)까락 엇(웃)으(이)민 못 먹나.」(한라산이 돈이라도 짐지는 배가 없으면 등에 지지 못하고, 바닷물이 팔죽이라도 솟가락 없으면 못 먹는다) 등으로도 나타난다.

암뽕은 앞의 사곡	암뽕은 앞에 서고
장뽕은 뒤에 사곡	수뽕은 뒤에 서고
이침저침 걸어가난	주춤주춤 걸어가니
백 멩지 저고리에	백 명주 저고리에
흰 비단 동전에	흰비단 동정에
얼룩배기 관디에	얼룩배기 관대에
울통절통 돌러 입곡	울통불통 돌러 입고
머들만이 아자시난	돌무더기처럼 앉았더니
넬매 7튼 도적놈은	넬매같은 도적놈은
곳곳마다 여삼더라	곳곳마다 지키고 있더라
이만흐민 어떻흐리	이만하면 어떠하리
저만흐민 어떻흐리	저만하면 어떠하리
수풀왓디 기여들언	수풀밭에 기여들어
어기야똥땅 주워먹언	얼렁똥땅 주워먹어
한라산에 간 보난	한라산에 가 보니
아들아긴 장기 두곡	아들아긴 장기 두고
딸아긴 노념헛더라	딸아기는 놀이하고 있더라.)

이 각편은 뽕노래의 일부분이다. 남편을 ‘총쟁이’(사냥꾼)에게 잃은 까투리가, 자신

의 종족인 장끼와 결혼하고 도적놈이 있는 현실을 피해서 도피한 곳은 바로 한라산이었다. 한라산이 마치 낙원처럼 보인다.

꽃

요 네 상착 부러지라	(요 노 상책 부러져라
고지 낭끼 엇일 말가	고지에 나무가 없을 것인가
서늘꽃 서낭은 애기씨 서낭	선흘꽃 서낭은 아기씨 서낭
때밋꽃 서낭은 영감의 서낭	위미꽃 서낭은 영감의 서낭)

조천읍 선흘꽃과 남원면 위미꽃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배와 노를 만들었다. 배에는 선왕에 대한 신앙이 있으므로, 모시는 신의 특성과 연관하여 꽃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모관 이방 영리방 각시	(모관 이방 영리방 부인
무심 것이 상덕이라니	무엇이 상덕이더냐
서늘꽃되 도아낭 마깨	선흘꽃에 복숭아나무 방망이
손에 이가 상덕이라라	손에 못이 상덕이더라)

서늘꽃되 낭지레 가난	(선흘꽃에 나무지러 가니
짐배 졸란 못 지엄서라	짐배 째아 못 지고 있더라)

꽃자왈은 고지, 꽃밭이라고도 하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조천읍 교래, 선흘, 송당 등과 구좌읍 일대, 안덕면 화순, 한경면 저지 등지로 광범위하게 숲과 초지를 이룬다. '서늘꽃'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꽃자왈을 말한다. 이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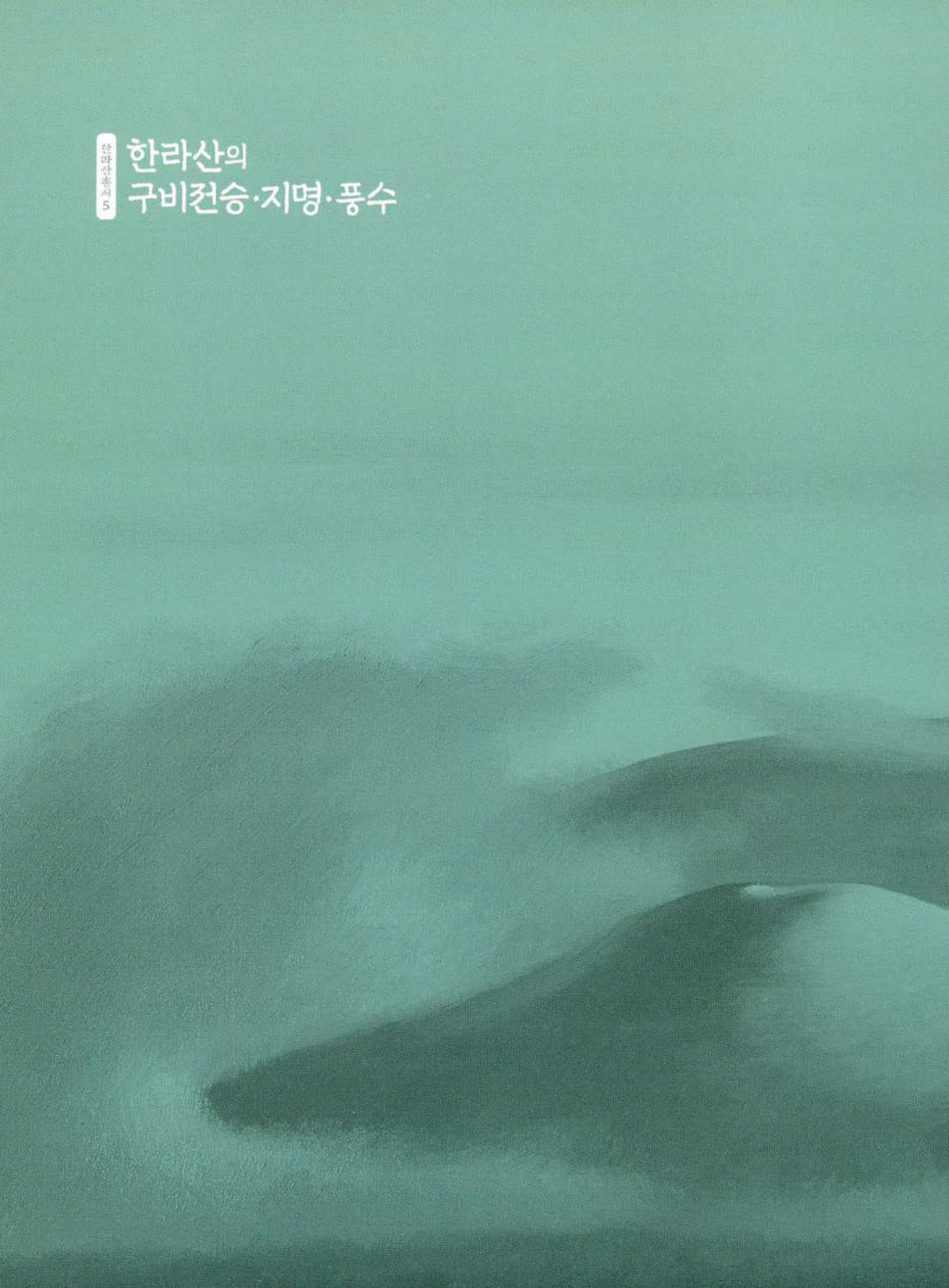
에는 희귀식물인 개가시나무, 녹나무, 육박나무, 백서향 등의 나무와 제주고사리
삼, 천량금, 큰개관중, 창일엽 등 미기록 식물이 자라고 있다

참고 문헌

- 강정식, <濟州島 당신 본풀이의 傳承과 變異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 일조각, 1960.
-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사, 2010.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설화>, 《제주도연구》6, 제주학회, 1989.
- 제주도, 《濟州島傳說誌》濟州道편, 1985.
- 제주대 국어교육과, <송당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1997.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길언, 《제주도 장수설화》, 홍성사, 1981.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현용준 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제주도의 신화》, 서문당, 1977.
- 현용준, 《제주도의 전설》, 서문당, 1977.

한라산
후서
5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제 2 장

한라산과 지명



여 백



1. 들머리

이 글은 주로 한라산과 주변 지역의 지명,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안, 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의 여러 지명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한라산’이라는 용어를 한정해야 할 것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과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두산동아, 2004), 《과스칼백과사전》(동서문화사, 2004),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 등에서 ‘한라산’ 항목을 찾으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3항목이다.

‘한라산’ 항목에서는,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솟아있는 화산”이라 하고, “한라산은 제주도의 전역을 지배하며, 동심원상의 등고선을 나타내어 순상화산(楯狀

火山)에 속한다. 한라산에는 약 360개의 측화산(側火山)과 정상부의 백록담, 해안지대의 폭포와 주상절리(柱狀節理) 등의 화산지형과 난대성기후의 희귀식물 및 고도에 따른 식생대(植生帶)의 변화 등 남국적(南國的)인 정취를 짙게 품”긴다고 했다. 특히 지질·지형과 생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라산은 곧 제주도(濟州島)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라산은 곧 제주도라는 인식에서 글을 쓰려고 한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항목을 보면,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 면적 약 149km². 동서 길이 약 17km로 제주시 57.50km², 남제주군 20.1km², 북제주군 21.2km², 서귀포시 34.2km²에 걸쳐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어 1970년 국립공원 제7호로 지정되었다.”라고 하여, 해발 1,800m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상화산체(鐘狀火山體)는 물론이고, 해발 600m 이상의 산악지대 대부분을 포함시켜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한라산국립공원’을 한정하여 한라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항목을 보면, “제주도 일원의 천연보호구역. 면적 83km². 천연기념물 제182-1호. 이 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발 800~1,300m 이상의 구역을 비롯하여, 일부 계곡 및 특수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는 몇 개의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이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한정하여 한라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한라산총서》의 ‘한라산’이라는 말은 제주도(濟州島) 전체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고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한라산 전체, 곧 제주도 전체의 지명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분량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한라산’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한정하고, 먼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지명을 언급하고,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지명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2. 탐라산(耽羅山)과 한라산(漢拏山·漢羅山·漢拿山), 나악(拏岳)

‘한라’ 또는 ‘한라산(漢拏山)’이란 말이 최초로 확인되는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와 조선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1412), 3월 무신(24일)’ 기록인 듯하다.

《고려사(高麗史)》 ‘지(地), 권11, 탐라현(耽羅縣)’ 조에 진산(鎭山)이 한라(漢拏)라는 것,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권113 ‘열전 권26, 제신(諸臣), 최영(崔瑩)’ 조에 “…… 여러 장수들이 한라산(漢拏山) 아래에 주둔하면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고, 당시 우리 군사들이 적의 말을 많이 획득하여 모두 기병으로 삼았다. ……”라는 구절 등에서 한라(漢拏)와 한라산(漢拏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1412), 3월 무신(24일)’ 조에, 태종이 당시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인 고충언(高忠彦)이 제주 도사수(濟州都司守)로 제주에 돌아갈 때, 향(香)을 내려 주면서 한라(漢拏) 산천(山川)의 신(神)에게 제사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1417) 5월 갑진(19일)’ 조에, 漢拿山(한라산)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漢拏山(한라산)을 漢羅山(한라산)으로도 썼는데, 이 기록은 조선 《太祖實錄(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1397) 3월 신유(8일) 조에 ‘耽羅山(탐라산)’이라 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중국 황제에게 입조(入朝)하러 간 권근(權近)이 명에 응하여 지은 시 〈탐라(耽羅)〉에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蒼蒼一點漢羅山]……”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이 뒤에도 조선 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까지 종종 漢羅山(한라산)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한라(漢拏) 또는 한라산(漢拏山·漢羅山)이라는 말은 고려 시대 중반 이후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려사(高麗史)》 권55 ‘지(志) 권9, 오행(五行) 3, 토(土)’ 조에, “목종 5년

(1002) 6월에 탐라산(耽羅山)에 4개의 구멍이 열리더니 붉은물[赤水]이 솟아나왔다. ……”라는 기록에서 ‘탐라산(耽羅山)’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는 ‘한라산(漢拏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에는 민간에서 ‘두미오름>두무오름’ 정도로 부르고 그것을 한자를 빌려 쓸 때는 頭無岳(두무악) 또는 豆毛岳(두모악), 圓山(원산), 釜岳(부악) 정도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漢拏山)은 고문헌에 따라서 拏岳(나악) 또는 拏峰(나봉) 등으로도 표기하였다. 拏岳(나악)은 漢拏山(한라산)을 漢拏岳(한라악)으로 인식하고 漢(한)을 생략하여 쓴 것이다.

3. 한라산의 별칭 및 이칭

현재 출간된 종이로 된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으로 소개되는 전자 백과사전 등을 통해서 ‘한라산’을 검색하면, 한라산의 별칭 또는 이칭이라 하여 엉뚱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한라산……예로부터 부악(釜岳)·원산(圓山)·진산(鎭山)·선산(仙山)·두무악(頭無岳)·영주산(瀛洲山)·부라산(浮羅山)·혈망봉(穴望峰)·여장군(女將軍)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렸고, 민간 신앙에서는 금강산·지리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로 치기도 한다.

《두산백과》

한라산은 예로부터 부악(釜嶽)·원산(圓山)·진산(鎭山)·선산(仙山)·두무악(頭無嶽)·영주산(瀛洲山)·부라산(浮羅山)·혈망봉(穴望峰)·여장군(女將軍) 등의 많은 이름으로 불려 왔으며, 전설상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라산……예로부터 부악·원산·선산·두무악·영주산·부라산·혈망봉·여장군 등으로도 불려왔다.

〈다음백과〉

한국에서는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려왔다. 예전엔 가마오름(釜岳), 원산(圓山), 진산(鎭山), 선산(仙山), 두무오름(頭無岳), 부라산(浮羅山), 영주산(瀛洲山), 혈망봉(穴望峯)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위키백과-한글판〉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라산이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다. 특히 진산(鎭山)이나 선산(仙山), 혈망봉(穴望峰), 부라산(浮羅山) 등은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진산(鎭山)

진산(鎭山)은 한라산의 별칭도 아니고 이칭도 아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소개한 글을 살펴보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진산(鎭山)이라는 단어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각 도읍지나 고을의 뒤나 앞에 있는 큰 산을 이르던 말로서,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을 이르던 한자어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조선 시대에는 동쪽의 금강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묘향산, 북쪽의 백두산, 중심의 삼각산을 오악(五嶽)이라고 하여 주산(主山)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도 한성부의 진산은 백악(白岳)이고, 구도 개성 유후사의 진산은 송악(松岳)이고, 전라도 나주목의 진산은 금성산(錦城山)이고, 영암군의 진산은 월출산(月出山)이고, 장흥도호부 무진군의 진산은 무등산(無等山)이고, 제주목의 진산은 한라산(漢拏山)이었다.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 ‘탐라현(耽羅縣)’ 조를 보면,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진산(鎭山)은 한라(漢拏)인데, 고을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조를 보면, “제주목(濟州牧)……. 진산(鎭山)은 한라(漢拏)로, 주(州: 제주) 남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 ‘제주목, 산천’ 조에 “한라산(漢拏山)은…….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 확인되는 진산(鎭山)이라는 말은 각 고을을 진호하는 주산이라는 뜻으로 쓴 말이다. 그러므로 한라산의 별칭이거나 이칭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선산(仙山), 영주산(瀛洲山), 삼신산(三神山)

삼신산(三神山)이라는 말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지명으로 쓰인 고유명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산(仙山)이나 영주산(瀛洲山)이란 말도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산이란 말로 쓰인 것으로, 지명으로 쓰인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선산이나 영주산을 한라산의 별칭이라거나 이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열자(列子)》〈탕문(湯問)〉편을 보면, “귀허(歸墟)에 다섯 산이 있는데, 여섯 자라가 떠받치고 있었다. 용백국(龍伯國) 사람이 자라를 낚아버린 뒤에 다섯 산이 위아래로 흩어져버렸다. 대여(岱輿)와 원교(圓嶠) 두 산은 어느 곳으로 흘러갔는지 알지 못했는데, 다만 봉래(蓬萊)와 방장(方丈), 영주(瀛洲) 세 산은 비로소 뿌리내린 곳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세 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방장(方丈)은 지리산(智異山)이요, 영주(瀛洲)는 한라산(漢拏山)이요, 봉래(蓬萊)는 금강산(金剛山)이라 했다.

그래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고적’의 ‘동무소협(東巫小峽)’ 조를 보면,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한라산은 일명 원산(圓山)이라고 했는데, 곧 해중(海中)의 원교산(圓嶠山)이다.(古記云, 漢拏山一名圓山, 卽中海圓嶠山)”라고 했다. 그러나 이수광(李睟光)도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말하기를, <한라산은> 곧 원교산(圓嶠山)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라산은 영주산(瀛洲山)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학작품이나 고문헌, 고문집 등에서는 영주(瀛洲)나 영주산(瀛洲山)이 제주도나 한라산을 일컫는 경우가 있다.

부라산(浮羅山), 부라악(浮羅嶽·浮羅岳)

부라산(浮羅山)도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다. 조선 후기 정조(正祖: 1752~1800)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1, 책문(策問) 4,耽羅’ 조와 조선 후기

에 한치윤(韓致堧)이 쓴 《해동역사(海東繹史)》 ‘속(續), 권제13, 지리고(地理考) 13, 山水 1’ 조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운급(雲笈)》이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부라악(浮羅岳)이 제주도의 한라산을 이르는 것인 듯하다고 언급하였다.

탐라(耽羅)……한퇴지(韓退之)의 ‘친구를 전송하는 서문[送序]’에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꼽으면서 유구(流求)·부남(扶南)·탐부라(耽浮羅) 등속은 동남의 하늘 땅 끝에 있다고 하였으니 『운급(雲笈)』에서 말하는 “태상노군(太上老君)이 부라악(浮羅嶽)에 하강하였다.”라는 것이 혹시 이 섬은 아닐까? …….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1, 책문(策問) 4, 耽羅’〉

한라산(漢拏山)……《수도제강(水道提綱)》……《진서(鎭書)》를 삼가 살펴보건대, 한라산(漢拏山)은 제주(濟州)의 남쪽에 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가 있다. 세속에서는 이 산을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운급서(雲笈書)》에 이르기를, “태상노군(太上老君)이 부라악(浮羅岳)에 내려왔다.”라고 하였고, 한유(韓愈)의 〈송정상서서(送鄭尙書序)〉에, “해외의 여러 나라 가운데 탐부라(耽浮羅), 유구(琉球), 모인(毛人) 등의 나라는 동남쪽으로 천지(天池)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탐부라(耽浮羅)는 지금의 제주이니, 부라악(浮羅岳)은 과연 한라산(漢拏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해동역사(海東繹史)》 ‘속(續), 권제13, 지리고(地理考) 13, 山水 1’〉

《운급(雲笈)》이라는 책은 《운급칠첩(雲笈七籤)》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송나라(북송) 3대 황제인 진종(眞宗: 968~1022) 때 장군방(張君房) 등이 교정하여 120권으로 만든 도가서(道家書)이다. 이 책의 ‘권3, 도교본시부(道教本始部)’조에는 “太上大道君以開皇元年托胎於西方綠那玉國, 寄孕於洪氏之胞, 凝神瓊胎之府三千七百年, 降誕於其國鬱察山浮羅之岳, 丹玄之阿側”이라 하고, ‘권8, 삼동경교부(三洞經教部)·경

석(經釋) 조와 ‘권101, 기전부(紀傳部)·기이(紀二)’ 조에 “《洞真大洞真經》云, 上清高聖太上大道君者……母妊三千七百年, 乃誕於西那天鬱察山浮羅岳丹玄之阿”이라 하고, 또 ‘권101, 기전부(紀傳部)·기이(紀二)’ 조에 “《洞玄本行經》云, 太上道君者, 於西那天鬱察山浮羅之岳”이라 하였다.

위의 ‘태상노군(太上老君)’은 노자(老子)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이 노자가 부라악(浮羅岳)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니, 이 ‘부라악(浮羅岳)’은 상상 속의 선산(仙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라산의 별칭이거나 이칭이라고 할 수가 없다.

《홍재전서(弘齋全書)》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正祖)의 어제(御製)를 모아 엮은 문집(文集)으로, 정조 11년(1787) 규장각에서 편집한 것이다. 《해동역사(海東譯史)》는 조선 말기에 실학자 한치윤(韓致濬: 1765~1814)과 조카 한진서(韓鎭書: 1777~?)가,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한 책이다.

혈망봉(穴望峰)

혈망봉(穴望峰)은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라, 한라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한 봉우리를 이르는 이름이다.

혈망봉(穴望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제주판관을 지낸 김치(金緻: 1577~1625. 1609년에 제주판관으로 제수됨.)가 남긴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와 이증의 《남사일록(南槎日錄)》등에 인용되어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김치(金緻) 일행은 무수내[水鐵川]와 노로오름[獐嶽], 세진굴[三長洞], 볼레오름[浦涯嶽], 존자암(尊者菴), 영실(靈室), 수행굴(修行窟), 칠성대(七星臺) 등을 거쳐서 한라산 정상에 도착하는데, 한라산 정상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 대한 것이 혈망봉(穴望峯)이고 그다음이 백록담(白鹿潭)이다. 여기에서 “日午始到絶頂之上 坐對穴望峯, 峯有一竅 可以通望故名焉”라고 했는데, 이것은 18세기 말(1793년 이후) 기록인 《제주읍지(濟州邑誌)》와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正義邑誌)》(奎17436) ‘제주목, 형승’ 조에도 그대로 쓰여 있다. “혈망봉은 백록담의 남변에 있는 봉우리

로, 구멍이 하나 있어서 통하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穴望峯[在白鹿潭南邊峯有一窟可以通望故名])” 그러므로 혈망봉(穴望峰)은 한라산의 한 봉우리 이름이지,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다.

여장군(女將軍)

여장군(女將軍)도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다. 정상에 백록담이 있어서 여성, 곧 여장군에 빗대어 쓴 것으로 보인다. 문학작품이나 고문헌에서 한라산이나 백록담을 빗대어 일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한라산을 여장군이라 한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원교산(員橋山·圓嶠山)

원교산(圓嶠山)도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 아니다. 원교산(圓嶠山)은 원교지산(圓嶠之山)으로도 표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 제주목, 고적(古跡)’의 ‘동무소협(東巫小峽)’ 조를 보면,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한라산(漢拏山)을 일명 원산(圓山)이라 한다. 곧 중해(中海)의 원교산(圓嶠山)으로, 그 동쪽은 곧 동무소협(東巫小峽)인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또 그 동북쪽에 영주산(瀛洲山)이 있는데, 세속에서 탐라(耽羅)를 영주산(瀛洲山)이라 하기 때문이다.(古記云, 漢拏山一名圓山, 卽中海圓嶠山 其東乃東巫小峽, 神仙所居. 又其東北有瀛洲山, 故世稱耽羅爲瀛洲山也)”라고 하였다.

《열자(列子)》〈탕문(湯問)〉편을 보면, “귀허(歸墟)에 다섯 산이 있는데, 여섯 자라가 떠받치고 있었다. 용백국(龍伯國) 사람이 자라를 낚아버린 뒤에, 다섯 산이 위아래로 흩어져버렸다. 대여(岱輿)와 원교(圓嶠) 두 산은 그 흘러간 곳을 잃어버리고, 다만 봉래(蓬萊)와 방장(方丈), 영주(瀛洲) 등 세 산은 비로소 뿌리내린 곳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삼신산이 있다고 보고, 방장(方丈)은 지리산(智異

山)이고, 영주(瀛洲)는 한라산이고, 봉래(蓬萊)는 금강산(金剛山)이라고 해왔다.

결국 원교산(圓嶠山)도 전설 속에 신선들이 사는 산으로서, 한라산의 별칭이나 이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욱이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이라고 한다면, 원교산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문학작품이나 고문헌, 고문집 등에서는 원교(圓嶠)나 원교산(圓嶠山)이 제주도나 한라산을 일컫는 경우가 있었다.

부악(釜岳)

부악(釜岳)은 ‘두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의 하나이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의 ‘산천, 한라산’ 조를 보면, “한라산(漢拏山)은……. 한편으로 부악(釜岳)이라 하는데, 산의 머리가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두모악(豆毛岳)이라 부른 이유와 부합하는 것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권2에서 ‘한라산’을 설명한 글을 보면, 당시 《지지(地誌)》를 인용하여 “한라산(漢拏山)은……한편으로 두모악(豆毛岳)이라고 하는데, 산이 잇닿아 이어진 것이 하나가 아니고, 봉우리 머리에는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권2에 <9월> 25일 기사를 보면, 이날 새벽에 한라산에 올랐는데, 한라산 꼭대기가 움푹 패 내려간 것이 마치 가마(釜)와 같다고 기록했는데, 앞의 부악(釜岳)의 부(釜)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豆毛岳(두모악)이라는 표기와 釜岳(부악)이라는 표기는 모두 ‘두미오름(두모오름)’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미’는 현대국어의 ‘두멍’과 ‘드므’, 함경도 방언의 ‘두무’의 뜻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釜)는 일부 문헌에서는 구(臼)로도 표현되었다.

두무악(頭無岳)

‘두무악’이라는 말은 한자 차용 표기 頭無岳(두무악)을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제주방언 ‘두미오름’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제주 사람(濟州人)을 頭無岳이라 하고 쓸 때는 頭禿也只(두독야지) 또는 豆禿也只(두독야지로 쓴다고 했다. 頭禿也只(두독야지)와 豆禿也只(두독야지)는 모두 당시 제주방언 ‘두미야기’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 ‘탐라현(耽羅縣)’ 조를 보면,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진산(鎭山)은 한라(漢拏)인데, 고을의 남쪽에 있다.【두무악(頭無岳: 두미오름)이라고도 하고, 또한 원산(圓山)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상에 큰 못(大池)이 있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조를 보면, “제주목(濟州牧)……진산(鎭山)은 한라(漢拏)로, 주(州: 제주) 남쪽에 있다. 일명 두무악(頭無岳: 두미오름) 또는 원산(圓山)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 ‘제주목, 산천’ 조에 “한라산(漢拏山)은……. 한편으로 두무악(頭無岳: 두미오름)이라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권262 ‘성종 23년(1492) 2월 기유(8일)’ 조에 “또 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 두미오름)이 매우 많은데,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拏山)을 혹 頭無岳(두무악: 두미오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頭無岳(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야지(頭禿也只: 두미야기)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충암(沖庵) 김정이가 제주에 유배 와서 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21)을 보면, “세 고을의 땅은 모두 한라산 기슭에 있다(三邑地皆漢拏山之麓).……또한 산봉우리 꼭대기에는 반드시 오목하여 가마와 같이 움푹 패서 진흙물이 고였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그렇다. 그래서 두무악이라 부르고 있다(又山峯之頂必凹如鑊陷成泥潦 峯峯皆然 故謂之頭無岳).…….”라고 하였다.

頭無岳(두무악)은 ‘두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두미[頭無]’는 봉우리 정상 모양이 가마(鑊·釜)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 ‘두미[頭無]’는 현대국어의 ‘두멍’과 ‘드므’, 함경도 방언의 ‘두무’의 뜻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모악(豆毛岳)

두모악(豆毛岳)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관련 기록인 <지지(地誌: 어느 책을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음.)>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내용은 김상헌의 《남사록》등에 인용되었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권2에서 ‘한라산’을 설명한 글을 보면, 당시 <지지(地誌)>를 인용하여 “한라산(漢拏山)은……한편으로 두모악(豆毛岳)이라고 하는데, 산이 잇닿아 이어진 것이 하나가 아니고, 봉우리 머리에는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1653)의 ‘산천, 한라산’ 조를 보면, “한라산(漢拏山)은……. 한편으로 부악(釜岳)이라 하는데, 산의 머리가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豆毛岳(두모악)이라는 표기와 釜岳(부악)이라는 표기는 모두 ‘두미오름(두모오름)’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미’는 현대국어의 ‘두멍’과 ‘드므’, 함경도 방언의 ‘두무’의 뜻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조실록(宣祖實錄)》권85 ‘선조 30년(1597) 2월 신사(20일) 조와 《선조실록(宣祖實錄)》권86 ‘선조 30년(1597) 3월 신갑인(24일) 조에, 사람 이름 앞에 두모악(豆毛岳)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때의 두모악(豆毛岳)도 제주(濟州), 곧 제주출신을 뜻하는 말이다.

두모악(豆毛岳)은 제주방언 ‘두미오름(두모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 가운데 하나로, 한라산 꼭대기에 팬 분화구에 물이 찬 모습이, 물을 저장하는 그릇 ‘두미(두모)’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오늘날 국어사전에서는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와 독을 ‘두멍’(함경도 방언은 ‘두무’)이라 하고, 넓적하게 생긴 독은 ‘드므’라 하는

데, 이 ‘두멍’과 ‘드므’, ‘두무’가 한자 차용 표기 豆毛(두모)로 쓴 것이다.

원산(圓山) 또는 원악(圓岳)

원산(圓山)은 한라산의 본디 이름은 ‘두미오름’을 한자어로 만들어 쓴 것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 ‘탐라현(耽羅縣)’ 조를 보면,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진산(鎭山)은 한라(漢拏)인데, 고을의 남쪽에 있다.【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하고, 또한 원산(圓山)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상에 큰 못[大池]이 있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조를 보면, “제주목(濟州牧)…….진산(鎭山)은 한라(漢拏)로, 주(州: 제주) 남쪽에 있다. 일명 두무악(頭無岳) 또는 원산(圓山)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 권2에서 ‘한라산’을 설명한 글을 보면, 당시 <지지(地誌)>를 인용하여 “한라산(漢拏山)은……한편으로 圓山(원산)이라고 하는데, 산 모양이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둥글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 ‘제주목, 산천’ 조에 “한라산(漢拏山)은……. 한편으로 圓山(원산)이라고 하는데,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둥글다…….”라고 하였다.

한라산을 원산(圓山)이라 한 것은 높고 길게 뻗어서 굽어 있는 모양을 하면서도 둥글다는 데서 한자어로 만들어 쓴 것이다. 원산(圓山)은 김상헌이 쓴 <존자암(尊者庵)>이라는 시에는 ‘원악(圓岳)’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원산(圓山)은 전설 속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산 원교산(圓嶠山)을 줄여서 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안의 여러 지명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600~1,300m 이상의 지역과 일부 계곡 및 특수한 식물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면적 161필지 91,672,346㎡(2011년 변경/182필지 91,654,930㎡)를 1966년 10월 12일에 천연 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었다.

백록담

‘백록담’은 한라산 꼭대기 분화구에 있는 소를 이른다. 이 이익태의 《지영록》〈탐라십경도서(耽羅十景圖序)〉의 〈백록담(白鹿潭)〉조에, 하늘 높이 솟아 돌이 둥그렇게 둘러있는데 주위가 약 10리가 된다고 하고, 그 가운데가 움푹 패 내려가서 마치 가



노란색 부분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붉은색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마술[釜]과 같고, 물이 차면 그 안이 소[潭]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북쪽 모퉁이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단[祈雨壇]이 있다고 했다.

또한 옛날에 사냥꾼이 밤에 소 가에 엎드려 있는데, 천빛백이 되는 사슴 떼가 와서 이 가운데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한 어떤 사슴 한 마리가 우뚝 뛰어나고 색깔이 하얀데 등 위에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사냥꾼이 놀랍고 괴이하여 감히 범접하지를 못하여, 단지 뒤떨어진 사슴 하나를 쫓았다. 조금 있으니까 노인이 사슴 떼를 점검하는 것 같더니, 긴 휘파람을 한 번 불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 소 이름을 백록담(白鹿潭)이라 한 것은 이와 같은 전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백록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 임야 안에 있다. 백록담은 ‘한라산 백록담’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11월 23일에 명승 제90호(면적 210,230㎡)로 지정되어 있다.

혈망봉(穴望峰)

한라산 백록담 남쪽에 솟은 봉우리를 특별하게 혈망봉(穴望峰)이라 한다. 이곳에는 여러 바위가 날카롭게 서 있는데, 일부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쪽을 살필 수 있어서 이 일대 봉우리를 특별히 혈망봉(穴望峰)이라 불려왔다. 혈망봉에 대한 기록은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또는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의 하나로 소개되는 그림 <백록담(白鹿潭)>을 보면, 백록담(白鹿潭) 西岩(서암)에 立岩(립암)으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혈석(穴石)이라 쓴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혈망봉을 한라산의 별칭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사라오름

‘사라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해발 1,324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산장구마(山場駐馬)>와 《제주

삼읍도총지도》,〈제주삼읍전도〉 등에 ‘舍羅岳(사라악: 사라오름)’으로,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紗羅峰(사라봉: 사라오름)’으로,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에 ‘沙羅岳(사라악: 사라오름), サラオルム’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사라오름’으로 표기하고 있다.舍羅·紗羅·沙羅(사라)는 모두 ‘사라’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사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은상(1937:144)은 ‘사라’를 신역(神域)의 뜻인 ‘술’의 표기라 하였으나,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어휘이다. ‘사라오름’ 정상에는 굼부리(분화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 호수를 이룬다.

‘사라오름’은 오늘날 ‘사라오름’이라 하는데, 2011년 10월 13일에 명승 제83호로 지정(면적 62,863㎡)되어 있다.

영실, 영실기암·오백나한·오백장군·천불봉

① 영실, 영실골·영실굴, 오백장군골>오백장군굴, 영실계곡

‘영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간에 있는 ‘실’(계곡)로, 일찍부터 ‘영실’로 부르고 한자를 빌려 靈谷·靈谷(영곡) 또는 靈室·靈室(영실), 瀛室(영실) 등으로 써왔다. 靈谷·靈谷(영곡)은 ‘영실’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영실’의 ‘영’은 신령스럽다는 뜻에서 靈·靈(영)으로 쓴 것이라면 한자어가 들어온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은 골짜기나 계곡을 뜻하는 고유어로, 한자를 빌려 谷(곡)으로 쓴 것이다. 이 靈谷(영곡)은 조선 후기부터 ‘실’을 소리를 반영한 室(실)로 써서 靈室(영실) 또는 靈室(영실)로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瀛室(영실)은 靈室(영실)의 靈(영)을 瀛洲山(영주산)의 瀛(영)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영실’을 靈谷(영곡)으로 표현한 뒤에 다시 ‘골>굴’을 뜻하는 한자어 洞(동)을 덧붙여 靈谷洞(영곡동) 또는 靈室洞(영실동) 등으로 써왔는데, 이것은 ‘영실골>영실굴’을 한자로 쓴 것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주로 靈谷洞(영곡동)으로 표기했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주로 靈室洞(영실동), 瀛室洞(영실동) 등으로 써왔다. 임제(林悌)가 쓴 〈남

명소승(南溟小乘)(1577~1578)과 김성구(金聲久)의 <남천록(南遷錄)>등에는 靈谷洞(영곡동)으로 쓰여 있고,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1609)에는 靈室洞(영실동)으로 쓰여 있고, 18세기 중후반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瀛室洞(영실동)으로 쓰여 있다. 오늘날은 ‘영실’에 ‘계곡’을 덧붙여 ‘영실계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골 둘레에는 화산폭발과 그때 솟아나온 용암 따위로 여러 기의 기암괴석이 서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천 불(佛)이 서서 기도를 드리는 형상이 있는 ‘골>굴[谷]’이라는 데서 한자어로 行道洞(행도동), 또는 한자를 빌려 修行洞(수행동)이라 써 왔다. 민간에서는 ‘수행골>수행굴’로 전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암괴석을 오백이나 되는 장군이라 하여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표현하고, 이 오백장군이 서 있는 ‘골>굴’이라는 데서 ‘오백장군골>오백장군굴’이라 하여 한자로 오백장군동(五百將軍洞)으로 쓰기도 했다.

② 영실기암·오백나한·오백장군·천불봉, 수행골>수행굴(修行洞)

‘영실’ 주변에는 화산폭발과 그때 솟아나온 용암 따위로 이루어진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무더기로 서 있는데, 예로부터 사람에게 따라서 천 불(佛)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천불봉(千佛峯)이라 불려왔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일대는 천 불(佛)이 서서 기도를 드리는 ‘골>굴[谷]’이라는 데서 한자어로 行道洞(행도동), 또는 한자를 빌려 修行洞(수행동)이라 해왔다.

이 ‘영실’ 주변에는 기암괴석 수백 개가 서 있는데, 이것을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하여 이 일대를 ‘오백장군’이라 부르고, 이 오백장군이 있는 골을 오백장군동(五百將軍洞)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오백장군을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 하기도 하고, 영실에 있는 기암이라는 데서 영실기암(瀛室奇巖)이라고도 부른다.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를 보면, 괴석(怪石)이 마치 나한(羅漢)처럼 5백여 개의 모습이 서 있다고 표현한 뒤로 ‘오백나한’이라고도 불렀다.

이곳 일대는 2011년 10월 13일에 명승 제84호(면적 969,914㎡)로 지정되었는데, 공식 이름은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이다. ‘영실기암’을 이르는 별칭이 ‘오백나한’이고, 오백나한을 이르는 별칭이 ‘영실기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이름은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③ 수행굴

‘영실’ 안 바위에 천연굴이 있는데 이 굴을 중이 수행하는 굴이라는 데서 ‘수행굴(修行窟)’이라 불러왔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1602)에 인용되어 있는 <지지(地誌)>를 보면, 수행굴(修行窟) 안은 사람 20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고, 예전에는 고승(高僧) 휴량(休糧)이 들어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수행굴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영실 제2교 남동쪽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약 600m 지점의 숲속에 있다. 2개의 입구가 있으나, 제2 입구는 작아서 사람 출입이 어렵다. 울창한 숲속에 있기 때문에 동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예전에 수행자가 은거했던 굴이라는 데서 ‘수행굴(修行窟)’이라 이름 붙여졌으나 실제로 예전에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닥에 인위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있다. 동굴 중앙부에 낙반이 쌓여 있고, 용암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별한 동굴생성물은 없다. 2002년 10 월경에 ‘한라일보 한라산 대탐사 팀’이 이 동굴을 발견하여 보고하면서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국내 동굴 중 최고 고지대에 위치한 천연동굴인 테다가 존자암과 관련된 수행굴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에 ‘존자암’ 관련 기사 중 ‘수행동(修行洞)’이 나오는데, 이곳이 이 기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굴 이름도 ‘수행굴’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④ 붉은굴·주홍굴

‘영실’ 위쪽(북쪽)에 바위굴이 있는데 이것을 옛 지도에는 朱紅窟(주홍굴)이라 표기했다. 이것은 붉은빛의 용암덩어리가 덮여 있다는 데서 부른 ‘붉은굴’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선작지왓, 탑궐

‘선작지왓’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 윗세오름의 큰오름(붉은오름/표고 1,741m)에서 솟아 나온 용암이 서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바위군을 형성한 것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윗세오름의 셋오름과 죽은오름 남쪽에 있다. ‘선’은 ‘서-’[立]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붙은 말이고, ‘작지’는 자갈 또는 자갈과 같은 많은 돌이 널려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고, ‘왓’은 ‘밭’[田]의 제주방언으로, 모음 뒤에서 ‘왓’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갈 또는 돌덩어리, 바윗덩어리 따위가 넓게 서 있는 밭이라는 데서 ‘선작지왓’이라 불려왔다. 이곳은 2012년 12월 17일에 ‘한라산 선작지왓’(2필지/면적 632,485㎡)이라는 이름으로 명승 제9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선작지왓’에 바위로 이루어진 굴이 있는데, 이 굴을 ‘답궐’ 또는 ‘탑궐’라고 부른다. ‘답’은 탑(塔)을 이르는 제주방언이고, ‘궐’은 그리 깊지 않게, 바위로 이루어진 굴 또는 바윗덩어리가 천장을 덮고 있는 굴 따위를 이르는 제주방언으로, 지역에 따라 ‘궐야’라고도 한다.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이곳 일대에서 용암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상태에서 굳고 틈이 생겨 갈라지면서 마치 돌탑을 쌓아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그곳에 자그마한 ‘궐’이 형성되어 있어서 예전에 이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답궐’ 또는 ‘탑궐’로 부르면서 알려졌다.

물장오리오름

① 물장오리오름

‘물장오리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78-38번지 안에 있다. 해발 938m이다. 예로부터 민간에서 ‘물장오리’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냥 ‘장오리오름’ 또는 ‘장오리’라고도 불려왔다. 그리고 ‘장오리’가 소리가 변하여 ‘장우리’라 하

기 때문에 ‘물장우리오름’ 또는 ‘물장우리’, ‘장우리’, ‘장우리오름’이라고도 한다. 한자를 빌려 쓸 때는 長兀里岳(장울리악) 또는 水長兀里岳(수장울리악), 長兀岳(장울악) 또는 水長兀岳(수장울악) 등으로 써왔다. 水長兀岳(수장울악)을 水長兀(수장울)로 쓴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오름을 ‘물장울’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다.

이 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김정희의 《충암선생문집》(권4, 長兀岳祈雨文),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 김성구의 《남천록》, 《신조선전지》(하편, 전남도읍과 명소) 등에는 長兀岳(장울악: 장오리오름)으로 쓰고, 김상헌의 《남사록》(권4)에는 長兀龍湫(장울용추: 장오리용소), 長兀岳(장울악: 장오리오름), 水長兀(수장울: 물장우리) 등으로 쓰고,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는 長兀里岳(장울리악: 장오리오름), 長兀湫(장울추: 장오리소) 등으로 쓰고,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水長兀岳(수장울악: 물장오리오름)으로 쓰고, <제주삼읍전도>와 <제주지도>,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水嶂兀(수장울: 물장우리)로 쓰고,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에는 ‘水長兀(수장울: 물장우리), ムルチャンオル’로 쓰고, 《증보 탐라지》(산천)에는 ‘水長兀(수장울: 물장우리), 물장우리’로 쓰고, 이 오름 주변 비석에는 水嶂岬伊(수장울이: 물장우리)로 쓰여 있다. 우낙기의 《제주도: 대한지지 1》에는 ‘古山名: 물장우리 / 現山名: 水長兀 / 山高: 924m’라고 하였다.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兀里와 岬伊는 ‘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고, 兀과 岬은 ‘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長兀(장울)·長兀里(장울리)·嶂兀(장울)·嶂岬伊(장울이) 등은 모두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장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장오리’가 ‘둘러서 있는 오름’(김종철, 1995:3권.63), ‘울·오리’가 ‘비탈·高地’(배우리, 1994:1권.215)의 뜻이라 하기도 한다.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살#순#장오리’의 구성으로 보면 ‘장오리’는 특별한 뜻을 가진 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복합명사인지 단일명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쉽게 구명할 수 없는 어휘이다. ‘물장오리오름’은 ‘물이 있는 장오리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龍池(용

지: 용못)’가 있는데, 龍湫(용추) 또는 長兀龍湫(장울용추: 장오리용소) 등으로 썼다.

“장오리오름은 한라산 허리에 있다. 제주에서 36리의 거리에 있다. 오름 정상에 못이 있다(長兀岳, 在漢拏山腰, 距州三十六里, 岳頭有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산천>. “장오리오름은 제주 동남쪽 45리에 있다.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불튼장오리, 험흔장오리’가 있는데, 네 봉우리 중 평평하고 넓은 ‘물장오리’가 가장 높고 크다. 봉우리에는 용못이 있다. 지름이 50보 정도 되고, 깊이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친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 그 주변에 바닷조개 데기가 쌓여 있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바닷새가 물어다 두면서 ‘공공’ 하면서 울어서, 그 새를 ‘공조’라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여러 현지인에게 듣기를, ‘큰비가 내려도 늘지 않고, 크게 가 물어도 줄지 않는다.’고 한다.…….(長兀岳, 在州東南四十五里, 有水長兀, 草長兀, 火長兀, 險長兀, 凡四峯 其中平廣水長兀 最高大. 嶺上有龍池, 徑可五十步, 深不可測. 人喧則雲霧四起, 風雨暴作. 旱則禱雨有驗. 其邊積海蛤殼. 俗傳海鳥啣置 其鳴貢貢, 謂之貢鳥. 余聞諸土人大雨不增, 大旱不減…).” <『남사록』권4>. 1대 5천 지형도에는 ‘물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물장울, 水長兀(수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물장오리, 水長兀(수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 지형도(2015)에는 ‘물장오리(물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더욱이 ‘물장울’은 일제강점기 지형도에는 한자 水長兀을 일본어 가나로 쓴 ムルチャンオル을 우리말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다. 이 오름 가까이에 있는 오름을 ‘테역장오리’와 ‘쌀손장오리’라 쓴다면, 당연히 ‘물장오리’라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나 이른 시기의 고지도에 長兀里岳(장울리악: 장오리오름) 또는 長兀岳(장울악: 장오리오름)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물장오리오름’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장오리오름’은 ‘제주 물장오리오름’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 28일에 천연기념물 제517호(면적 53,813㎡)로 지정되어 있다.

② 테역장오리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해발 845m의 오름을 이른다. ‘물장오름’ 바로 북서쪽에 이웃해 있다. 이 오름은 김상헌의 《남사록》(권4)과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 ‘草長兀(초장울: 테역장오리)’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테역장오리’라고 한다. 草는 ‘떼’의 제주도방언 ‘테역’의 훈독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넓은 테역밭(떼밭)이 있는 장오리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테역장오리, 草長兀(초장울)’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테역장오리, 草長兀(초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 지형도(2015)에는 ‘테역장오리’로 표기되어 있다. ‘떼’의 제주방언이 ‘테역’이라 표기되기 때문에 ‘테역장오리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부 지도에는 ‘테역오름’(테역오름의 잘못)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③ 살손장오리오름·쌀손장오리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해발 913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 가까이에는 ‘물장오리오름’과 ‘테역장오리오름’ 등이 있다. 이 오름은 김상헌의 《남사록》(권4)과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 ‘險長兀(험장울: 험한장오리)’,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沙孫長兀岳(사손장울악: 살손장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에 ‘沙孫長兀(사손장울: 살손장오리)’,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莎嶂兀(사장울: 살손장오리)’ 등으로 표기하였다. 沙·莎(사)는 ‘화살’을 뜻하는 ‘살’ 또는 이의 된소리인 ‘쌀’의 음가자 표기로 말음 ‘ㄹ’이 생략된 표기, 孫(손)은 ‘쏸’의 중세국어인 ‘손’ 또는 제주방언 ‘쏸’의 음가자 표기, 險(험)은 ‘험한>험한’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長兀·嶂兀(장울) 등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오름이 험하다는 데서 ‘험한장오리’ 또는 ‘살(화살)을 쏘던 장오리’라는 데서 ‘살손장오리>쌀손장오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險長兀(험장울)과 沙孫長兀岳(사손장울악)의 대비를 통해 보면, 원래는 험한 장오리오름, 또는 살이 선[立] 장오리오름

이라 하다가, 살이 선 장오리오름이 살을 손[射] 장오리오름으로 소리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쌀손장오리’,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쌀손장오리, 沙孫長兀(사손장울)’로 표기되어 있고, 현대 지형도(2015)에는 ‘살손장오리’로 표기되어 있다.

④ 불칸디오름·불칸장오리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표고 993m의 오름을 이른다. 봉개동과 아라동 월평 마을의 경계에 있다. 이 오름은 김상헌의 <남사록>(권4)과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 ‘火長兀(화장울: 불튼장오리·불칸장오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산장구마>에 ‘佛吞大岳(불탄대악: 불탄데오름·불칸데오름)’, <제주삼읍전도>에 ‘火燒竹(화소죽: 불탄데·불칸데)’,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燒冶(화대: 불탄데·불칸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낙기의 <제주도: 대한지지 I>에는 ‘古山名: 불칸데 / 現山名: 火燒岳 / 山高: 1,000m’라고 하였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불칸디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불칸디오름, 火長兀(화장울)’로 표기되어 있다. 佛은 ‘불>불’의 음가자 표기, 火는 ‘불(火 불 화<훈몽·초, 하:15>)>불’의 훈독자 표기, 吞은 ‘툰>탄’의 음가자 표기, 燒는 ‘불투-(값간도 투디 아니ㅎ며=曾不焚燒ㅎ며<농엄, 9:108>. 불에 투 죽은 거시라(火燒死)<증무원, 3:42>’의 관형사형 ‘불툰’ 또는 이의 제주도 방언 ‘불칸’의 훈독자 표기, 大는 ‘대’의 유사음 ‘데·디’의 음가자 표기, 竹은 ‘대’의 유사음 ‘데’의 훈가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불튼장오리·불칸장오리’는 ‘불에 탄 장오리·불탄 장오리’의 뜻이고, ‘불탄데>불탄데’ 또는 ‘불칸디>불칸디’는 ‘불에 탄 곳·불탄 곳’(불이 나서 탄 곳)의 제주도 방언이다. 예전에 큰 화재가 나서 오름 전체가 타버린 곳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볼 때 후대에 붙인 이름인지 이른 시기부터 유래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 중기에도 이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어스싱이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발 1,172m의 오름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御乘生(어승생), 어승생악, 御乘生岳(어승생악), 어승생오름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오름은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목, 산천’과 18세기 말 <탐라도>(가칭), 1709년 <탐라지도>,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御乘生岳(어승생악: 어스싱이오름)’, 이익태의 《지영록》에 ‘御乘生(어승생: 어스싱이)’, 《탐라순력도》에 ‘御乘生(어승생: 어스싱이), 御乘岳(어승악: 어스싱이오름)’,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御乘峯(어승봉: 어스 이오름)’,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에 ‘御乘岳(어승악: 어스 이오름), オスソムオルム(어스솜오름)’, 《증보 탐라지》(산천)에 ‘御乘生峰(어승생봉: 어스 이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스승이, 어스싱이’라고 한다. 御乘生(어승생)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의 “어스싱이오름”은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그 봉우리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백 보나 된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이 오름 아래에서 임금 이 타는 말이 낡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한다(御乘生岳, 在州南二十五里. 其嶺有池, 周百步. 諺傳 此岳之下, 出御乘馬, 故名).”는 설명과 같이 한자의 뜻 그대로 임금 이 타는 말(御乘馬)이 낡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면 음독자로 ‘어승생’의 표기라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부르는 ‘어스승이, 어스싱이’ 등을 고려하면 음가자의 결합 표기라 할 수 있다. 석주명(1947)은 ‘어스솜’의 몽골식 지명으로, 이은상(1936)은 ‘올시심’(神聖의 뜻)의 뜻으로 보았다. 필자도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지만, 그 뜻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과제로 남겨 둔다. 다만 ‘어스싱이·어스승이’라는 음성과 ‘어리목’의 ‘어리’라는 음성은 현재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御乘生岳(어승생악)이라는 표기가 어승마가 난 곳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설명은 믿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御乘生’이라는 표기가 ‘어스싱이’의 음가자 결합 표기라면 나중에 한자 차용 표기에 이끌려 어승마가 난 곳이라는 설명이 생겼을 수가 있다.

‘어스싱이오름’ 꼭대기에는 일제강점기 말에 일제가 뚫은 땅굴이 있고, 이 땅굴

입구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진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진지를 ‘제주 어승생 악 일제 동굴진지’라는 이름으로 국가 등록 문화재 제307호로 지정되어 있다.

방에오름

① 방에오름

한라산 백록담의 서남벽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오름을 아울러 ‘방에오름’(윗방에오름, 방에오름, 알방에오름)이라 해왔다. 그러나 ‘방에오름’은 이 세 오름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오름(표고 1,600m)에 굽부리(분화구)가 꽤 있어서 ‘방에’(방아의 제주방언)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위쪽에 있는 오름을 편의상 ‘윗방에오름’(또는 윗방에오름), 그 아래쪽에 있는 오름을 편의상 ‘알방에오름’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알방에오름’은 편의상 부른 것에 불과하고, ‘검은서덕오름’이라는 본디 이름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여 지형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오름들은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동홍동 산간과 토평동 산간 경계에 있다. 백록담 쪽에서 남서쪽으로 세 개의 오름이 연이어 솟아 있는데, 위 오름을 ‘윗방에오름·윗방에오름(표고 1,747m)’, 가운데 오름을 ‘방에오름(표고 1,700m)’, 아래 오름을 ‘검은서덕오름(표고 1,585m)’이라고 부른다.

방에오름은 <탐라지도>(1709년)와 <제주삼읍전도>(1872년), <대정군지도>(1872년) 등에 ‘砒岳(침약: 방에오름)’으로 표기되었다. 국립지리원 발행 1대 5천 지형도에는 ‘방에오름’과 ‘윗방에오름(윗방에오름)’, ‘알방에오름’으로 표기되었고, 민간에서는 ‘방에오름·방에오름’이라 하고 있다. 한자 표기 砒(침)은 ‘방하(砒 방하돌 침<유합·철장사본>, 방하돌 침<신합, 상:24>)>방아’의 제주도 방언 ‘방에·방에’의 훈독자 표기이고, 岳(약)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세 개의 오름 중 가운데에 있는 오름이 ‘방아(제주방언은 방에)’와 같이 야트막하게 꽤 있다는 데서 ‘방에오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방에오름, 윗방아오름, 알방아오름’, <한라산국립



방애오름과 윗방애오름, 검은서덕오름

공원지도>에는 ‘웃방애오름, 上礪岳(상년악) / 방애오름, 中礪岳(중년악) / 알방애오름, 下礪岳(하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1대 5천 지형도에 ‘방애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윗방애오름’으로, 1대 5천 지형도에 ‘윗방아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방애오름’으로, 1대 5천 지형도에 ‘알방아오름’으로 표기된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알방애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름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방아오름’, 어떤 것은 ‘방애오름’으로 표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방하오름’이라고도 부르는데, ‘방하’는 ‘방아’의 옛말이므로 ‘방애오름’과 같은 말이 된다.

② 윗방에오름

표고 1,700m 방에오름 위쪽에 있는 표고 1,747m의 오름을 ‘윗방에오름’ 또는 ‘윗방에오름’이라고 부른다.

이 오름은 우낙기의 《제주도: 대한지지 1》에 ‘古山名: 왕장서울 / 現山名: 王子立岳 / 山高: 1,811m’로 표기된 오름이 아닌가 한다.

③ 검은서덕오름

표고 1,585m의 오름, 곧 방에오름(표고 1,700m) 아래쪽에 있는 오름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에 따라 ‘검은서덕오름’ 또는 ‘검은설덕오름’이라고도 부르고, ‘오름’을 줄여서 ‘검은설덕·검은서덕’이라고도 부른다. ‘설덕>서덕’은 현대 표준어 ‘서덜’과 ‘돌서덜’, 북한말 ‘돌서덕’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으로, 돌이 많은 곳 또는 바위가 삐죽삐죽 많이 솟아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이 ‘검은서덕오름’은 우낙기의 《제주도: 대한지지 1》에도 ‘古山名: 거문서덕 / 現山名: 黑石峯 / 山高: 1,623m’라고 하였다.

윗세오름

윗세오름은 한라산 서북벽 서남쪽으로 연이어 서 있는 세 개의 오름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으로, 고유 지명이 아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간, 서귀포시 서호동 산간, 서귀포시 영남동 산간 경계에 있는, 해발 1,741m, 1,712m, 1,701m의 세 개의 오름을 아울러 이른다. 이 오름들을 구체적으로 일컬을 때는 ‘큰오름(붉은오름), 셋오름(누운오름), 작은오름(새끼오름)’ 등으로 부른다. ‘큰오름(붉은오름)’과 ‘셋오름(누운오름)’ 사이 북쪽에 ‘윗세오름 대피소’가 있다. ‘윗세오름’ 또는 ‘윗세오름’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1대 5천 지형도에는 ‘윗세오름, 윗새오름’으로 표기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한글로 ‘윗세오름’으로 쓰고 한자나 중국어로 ‘威勢山岳/威勢山岳’으로 표기해 있다. ‘윗세오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한자 표기나 중국어



윗세오름과 한라산

표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를 통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① 큰오름·붉은오름

표고 1,741m의 오름으로, 윗세오름 대피소 동남쪽에 있고, 오름 전체가 붉은 송이로 덮여 있다. 이 오름 굽부리(분화구)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서귀포시 서호동, 영남동 등 세 개 마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② 셋오름·누운오름

표고 1,712m의 오름으로, 윗세오름 대피소 남서쪽에 있다. 윗세오름의 가운데 있는 오름이라는에서 '윗세오름'의 '셋오름'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나지막하게 누워 있는 듯하다고 해서 '누운오름'이라고도 한다.

③ 족은오름·새끼오름

표고 1,701m의 오름으로, '윗세오름'의 맨 아래쪽에 있는 오름이다. '윗세오름'의 가장 작은 오름이라는 데서 '족은오름' 또는 '새끼오름' 등으로 불려왔다. 지금은 등반객이 올라가서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이 되어 있다.

장구목·장구목오름

한라산 북벽 바로 북서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해발 1,697m의 오름이다. 용진굴과 용진각대피소 바로 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장구목오름'은 이 오름과 북서쪽에 있는 '큰두레왓오름' 사이가 마치 '장고>장구'의 '목'과 같이 가늘고 잘록하게 되어 있는 목이라는 데서 '장고목>장구목'이라 부르게 되고, 그 '장고목>장구목'을 끼고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장고목오름>장구목오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장고목'을 長鼓項(장고항: 장고목의 한자 차용 표기)으로 표기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도 '장구목오름'을 그냥 '장구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장구목'과 '장구목오름'은 지리적 위치가 약간 다르다.

왕관릉·왕관바위

한라산 북벽 바로 북동쪽에 있는 바위를 이른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1,667m의 오름이다. 용진각대피소 바로 동남쪽에 있다. 오늘날 지도에는 지도에 따라 '왕관릉, 왕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오름은 1709년의 <탐라지도>와 1899년의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 등에 '九峯岩(구봉암: 아홉봉바위)'으로 표기하였는데, 九峯(구봉)은 '아홉봉' 또는 '아홉봉우리'의 훈독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岩(암)은 '바위'의 훈독자 표기이다. 바위 봉우리 아홉 개가 솟아 있는데 그 형상이 왕관과 같아서 나중에 '왕관바위'라 불렀던 것이고, 그 일대의 능선이 마치 왕관(王冠)과 같이 솟아 있다는 데서 王冠稜(왕관릉)이라 한 것이다.

붉은도[--또]

한라산 북벽 북쪽, 왕관릉(왕관바위)와 ‘장구목오름’ 능선 사이를 예로부터 ‘붉은도[--또]’라고 불렀다. 화산폭발에 따라 붉은 용암이 솟아나와 흐른 뒤에 그대로 굳어서 붉은빛을 띤 바위와 돌, 송이 따위가 널려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또는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의 하나인 〈백록담(白鹿潭)〉 그림을 보면, ‘붉은도’는 한자를 빌려 紅梁(홍량)으로 표기하였다.

어름통

한라산 북벽 아래쪽의 ‘붉은도[--또]’ 서쪽과 서북쪽 골짜기에 ‘어름통’이 있었다. 예로부터 ‘어름’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곳이라는 데서 ‘어름통’이라 불려왔다.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또는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의 하나인 〈백록담(白鹿潭)〉 그림을 보면, ‘어름통’은 한자를 빌려 水桶(빙통)으로 표기하였다.

들선바위·들선돌

한라산 왕관릉(왕관바위) 북동쪽에 있는 바위언덕을 이르는 지명으로, 〈제주삼읍전도〉와 〈제주지도〉 등에는 ‘九峯岩(구봉암: 아홉봉바위)’ 아래쪽에 入先岩(입선암)으로 표기되고,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또는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의 하나인 〈백록담(白鹿潭)〉과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을 보면, 入先石(입선석)으로 표기되었다. 入先岩(입선암)은 ‘들선바위(들선바위)’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入先石(입선석)은 ‘들선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곧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이 굳은 바윗덩어리가 서 있는데, 지붕과 같이 들려서 덮여 있는 바위 또는 돌이라는 데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삼각봉

장구목오름 바로 북동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해발 1,510m의 오름이다. 1703년의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과 1709년의 〈탐라지

도> 등을 보면 이 오름을 烟臺(연대)라 표기하고, 1872년의 <제주지도>에는 古烟台(고연대), 1899년의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는 烟台(연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은상이 쓴 <탐라기행 한라산>에는 蔦頭峰(연두봉), 大蔦頭峰(대연두봉), 小蔦頭峰(소연두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볼 때 18세기 초반까지 이곳에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망보는 곳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대오름>연디오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오름에는 큰 봉우리(해발 1,503m)와 작은 봉우리(해발 1,495m)가 있는데, 각각은 ‘큰연디오름’, ‘죽은연디오름’이라 불렸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은 주로 ‘삼각봉’이라 한다. 오름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라는 데서 ‘삼각봉’이라 한 것이다.

두레왓·두레왓오름

① 큰두레왓, 큰두레왓오름

장구목오름 바로 북서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발 1,631m의 오름이다. 이 오름 바로 남서쪽에는 ‘민대加里洞山’이 있고, 남동쪽에는 ‘삼각봉’이 있다. 보통 ‘큰두레왓’으로 부르는데, 현대 지도에도 ‘큰두레왓, 큰두레발, 大斗里峰(대두리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703년의 <탐라순력도>와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斗里嶺(두리여: 두리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표기되었으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大斗里(대두라: 큰두리의 한자 차용 표기)’, 1899년의 <제주지도>에는 斗里峯(두리봉: 두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죽은두레왓’과 아울러서 ‘두리오름’이라 부르거나 구분해서 ‘큰두리’ 또는 ‘큰두리오름’ 정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두리’는 소리가 ‘두레’로 변하고, ‘여’는 ‘왓’이라는 어휘로 대체되어, 오늘날은 ‘큰두레’ 또는 ‘큰두레왓’이라 부르고 있다.

② 죽은두레왓·죽은두레왓오름

‘큰두레왓오름’ 바로 서북쪽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제주시 해안동과 노형동 경계에 있는 해발 1,343m의 오름이다. 현대 지도에는 ‘작은두레왓, 작은둘레밭, 小豆里峰(소두리봉)’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중반의 <제주삼읍전도>에 小斗里(소두리: 죽은두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표기되고, 1899년의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小斗里峯(소두리봉: 죽은두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크게 ‘두리오름’에 속하고, 구분할 때는 ‘죽은두리’ 또는 ‘죽은두리오름’으로 불렸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가 변하여 ‘죽은두레’가 되고, 여기에 ‘왓’이라는 어휘를 덧붙여 ‘죽은두레왓’ 또는 ‘죽은두레왓오름’이라 하고 있다. 어차피 오름 이름을 제주 방언으로 쓸 것이면 ‘작은두레왓’보다 ‘죽은두레왓’ 또는 ‘죽은두레왓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촛대봉(-峰)·민대가리오름

‘장구목오름’서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645m의 오름을 이른다. 만세동산 북동쪽에 있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촛대봉’이라 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2)에는 ‘민오름, 敏岳(민악)’이라 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2003)에는 ‘민대가리동산, 亥頭明(해두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亥頭明(해두명)은 민간에 전하는 ‘돛트명’(돛이 드나드는 틈)이라는 지명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인데, ‘민대가리동산’에 대응시킨 것은 잘못이다.

만수동산·만세동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606.2m의 오름 또는 동산을 이른다. 한라산 어리목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사제비동산’이 나타나는데 이 ‘사제비동산’ 위쪽에 있는 것이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지도>(1899) 등에는 晩水同山(만수동산)으로 표기되고,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

반)에는 萬水同山(만수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만수동산, 만세동산’이라고 하는데, ‘만세’는 ‘만수’의 잘못으로 보인다. 晩水(만수)와 萬水(만수)는 ‘만수’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同山(동산)은 ‘동산’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나지막한 언덕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오름에 걸맞은 말인지 의문이다. 한편 ‘망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소를 모는 테우리들이 여기에 올라 망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만세동산’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만세동산, 만수동산, 萬水童山, 萬歲同山/萬水童山, 萬歲同山’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용진굴, 용진굴물

한라산 왕관바위 가까이에 움쭙 팬 골짜기를 이른다. 옛 지도인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龍眞洞(용진동: 용진굴)으로 표기된 것으로 ‘용진굴’이라 하다가 나중에 ‘용진굴’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골에 용진각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용진각대피소이다. 이 대피소 가까이에 있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용진굴물’이라 한다. 이것을 봉래천(蓬萊泉)이라고도 한다.

막은다리, 웃막은다리, 알막은다리, 웃막은다리계곡

‘막은다리’는 한라산 장구목오름 북쪽, 용진굴 북서쪽에 있는 바위절벽 앞쪽을 이르는 말이다. 높은 바위 절벽이 앞으로 가로 막고 있는 곳이라는 데서 ‘막은다리’라 부르고, 동쪽 지역을 ‘큰막은다리’, 서쪽 지역을 ‘족은막을다리’라고 불렀다. <제주삼읍도총지도>를 보면, ‘큰막은다리’를 한자를 빌려 大馬斤多里(대마근다리)로 쓰고, ‘족은막은다리’를 한자를 빌려 小馬斤多里(소마근다리)로 써 놓았다.

한편 위쪽에 있는 ‘막은다리’라는 데서 ‘웃막은다리’, 아래쪽에 있는 ‘막은다리’라는 데서 ‘알막은다리’라고도 한다.

진므르, 게에미목·게염지목·개미목

한라산 장구목오름 북쪽, 큰막은다리과 작은막은다리 사이에 길게 남북으로 늘어진 마루를 ‘진므르’ 또는 ‘진므를’이라 불러왔다. 또한 왕관릉의 용진굴 북동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마루도 ‘진므르’ 또는 ‘진므를’이라 불러왔다.

왕관릉의 용진굴 북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마루가 끝나는 곳과 시작하는 곳을 마치 개미의 목과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게에미목’ 또는 ‘게염지목’이라 해왔는데, 요즘에는 주로 ‘개미목’이라 하고 있다. 이 ‘개미목’ 사이의 등성이(마루)를 ‘게에미등’ 또는 ‘게염지등’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개미등’이라 하고 있다.

탐라계곡을 건너 개미목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개미목도’라고도 한다. 해발 약 850m 지점으로, 관음사 등반로에 있는데, 이곳을 거쳐 개미목과 용진굴에 이른다.

〈제주삼읍도총지도〉를 보면, ‘진므를’은 한자를 빌려 長旨(장지)로 쓰고, ‘게염지목’은 한자를 빌려 蟻項(의항)으로 썼다.

어외·어위

‘어외’ 또는 ‘어위’는 가파른 절벽이나 낭떠러지 따위로 이루어진 곳을 이르는 제주 방언 가운데 하나이다. 한라산 백록담 장구목오름 동북쪽에서 서북쪽 일대까지는 가파른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이루는데, 이곳에 ‘논성어외>논싱어외, 민덕어외>문덕어외, 고량지어위, 대난어외’ 등으로 불러왔다. 〈제주삼읍도총지도〉를 보면, ‘논성어외>논싱어외’는 한자를 빌려 論星於外(논성어외)로 쓰고, ‘민덕어외>문덕어외’는 文德於外(문덕어외)로 쓰고, ‘고량지어위’는 高良之於外(고량지어외)로 쓰고, ‘대난어외’는 大亂於外(대난어외)로 써 놓았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 구지도에는 ‘고량지어위’는 한자를 빌려 高良智於外(고량지어외)로 쓰고, ‘대난어외’는 竹生於外(죽생어외)로 써 놓았다.

돛트멍, 임술툇이멩이, 돛이멩이

‘큰두레왓오름’과 ‘민대가리오름’ 사이의 골짜기를 사람에 따라서 ‘돛트멍’ 또는 ‘임술툇이멩이’ 등으로 불러왔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 신지도에는 壬戌猪額(임술저액)으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임술툇이멩이’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壬戌頭(임술두)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임술이멩이’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산벌른내

한라산 ‘웃방에오름’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영천천(靈泉川)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신벌계곡, 영천천(靈泉川)’ 등으로 표기했는데, ‘신벌계곡’은 ‘산벌른계곡(溪谷)’의 잘못으로 보인다. ‘산벌른내’는 ‘한라산을 쪼갬 내’라는 뜻의 제주방언으로, ‘산[山]+벌른[分]+내[川]’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곧 ‘산’은 한라산을 이르고, ‘벌른’은 ‘쪼개다, 나누다’의 뜻을 가진 제주 방언 ‘벌르다’의 관형사형이다. 지도에 따라 ‘산벌른내, 山開川(산개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유어인 ‘산벌른내’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무수내

‘윗세오름’ 일대와 ‘큰두레왓오름’ 뒤쪽 일대에서 발원하여 ‘족은두레왓오름’ 일대에서 합류하여 어리목을 지나 광령리를 거쳐 외도동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제주시와 애월읍의 경계를 이루는 내이기도 하다. 이 내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무수내’이고, 하나는 ‘뱃도그내’이다. 모두 예로부터 불려오는 이름이다. 대개 상류는 ‘무수내’라고 하고, 중·하류는 ‘뱃도그내’라 하였다. 한자 차용 표기도 제각각이다.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는 都近川(도근천: 도그내)이라 쓰고, 일명 水精川(수정천: 수정내), 朝貢川(조공내)라 하고, 하류는 都近浦

(도근포: 도그넷개)라 한다고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에는 朝貢川(조공천: 조공내)이라 쓰고 일명 水精川(수정천, 수정내), 都近川(도근천: 도그내)이라 하고 하류는 朝貢浦(조공포: 조공개)라 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책에 無愁川(무수천: 무수내)을 들고, 朝貢川(조공천: 조공내)의 상류라 했다. 결국 모두 하나의 내인데, 별칭이 여러 개 있는 셈이다. 그런데 都近川(도근천)을 朝貢川(조공천)으로 표기한 것은 하나의 소리가 변한 것을 차자표기로 쓴 것으로 보인다. 水精川(수정천)은 고려 시대에 외도동에 있었던 水精寺(수정사)라는 절과 이 절 일대에 있었던 ‘수정마을’과 관련되어 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水精川은 ‘도그내’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외도동을 흐르는 내는 일찍부터 ‘도그내’라 불려왔고, 이것을 한자차용 표기로 나타낸 것이 都近川이다. 이 ‘도그내’는 하류에서 두 갈래로 흐르는데, 제주성 안에서 볼 때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밖도그내’라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안도그내’라 했다. ‘밖도그내’는 한자차용 표기로 外都近川(외도근천)이라 썼고, ‘안도그내’는 內都近川(내도근천)이라 썼다. 나중에 세 번째 글자인 近을 생략하여 쓴 것이 外都川과 內都川이다. 이 내의 상류는 일찍부터 ‘무수내’라 불렸고, 이를 한자 차용표기로 쓴 것이 無愁川이다. 그런데 1709년의 <탐라지도>에는 無愁川(무수천)과 到骨川(도골천)이 나오는데, 到骨川은 都近川(도근천), 朝貢川(조공천)과 같은 이표기이다.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到骨川(도골천)과 水鐵川(수철천)으로 표기되었는데, 水鐵川(수철천: 무쇠내)은 無愁川과 같은 이 표기이다. 10년 전의 1대 5천 지형도에도 이 내의 중·하류에는 外都川(외도천)과 都近川(도근천)으로 표기되고, 외도천 상류의 일부는 ‘어리목계곡’, 일부는 ‘무수천’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곧 광령리 일대의 내도 ‘무수천’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어리목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내의 상류는 ‘어리목계곡’이라 하고, 중류를 ‘광령천, 光令川’이라 했다. 이는 광령리를 지나고 있다는 데서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에 만들어진 1대 5천 지형도에도 ‘광령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도천’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이제는 ‘광령천’으로 표기되고 있다.

5.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지명

챗망오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354.9m의 오름을 이른다. ‘사제비동산’ 서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에 盖山岳(개산악),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乾松岳(건송악: 무른소낭오름)으로 표기됐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망체오름’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망체오름, 챗망오름, 川望岳(천망악: 챗망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챗망오름’이라 한다. ‘챗망’과 ‘망체’는 소리를 앞뒤로 바꾼 것일 뿐이다. ‘챗망’은 ‘체의 테두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한자로 川望岳(천망악)을 쓴다면 한글의 경우 ‘망체오름’보다 ‘챗망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제비동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425.8m의 오름을 이른다. 주변의 묘 비석에 표기된 ‘鳥接(조접)은 ‘새접이→새접이’는 ‘새저비’ 또는 ‘새재비’ 정도의 음성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1995:2권.232)에서는 ‘새잡이(새매)’를 닮은 형상인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사제비동산’으로 표기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사제비동산, 寺祭碑岳(사제비악), 鳥接岳(조접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로는 ‘사제비동산’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나, 한자 표기는 문제가 있다.

이스렁오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352.6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伊土郎岳(이사랑악: 이스랑오름)으로 표기되고, <제주삼

읍전도>(1872)에 伊士良岳(이사량악: 이스랑오름)으로 표기되었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어스렁오름'으로 표기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이스렁오름, 어슬렁오름, 伊士良岳(이사량악)'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이스렁오름'이라고 한다. 伊士郎(이사랑)은 옛말 '이스랑'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伊는 '이'의 음가자, 士는 '스(士 豆스 사, 선비 스<신합, 상:17>)>사'의 음가자 표기, 郎은 '랑'의 음가자 표기다. 伊士良(이사량)의 良도 음이 '랑'이지만 유사음 '랑'의 음가자 표기이다(필자는 良이 郎을 옮기는 과정에서 ㅍ를 뺀 것으로 본다). '이스랑'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특별한 뜻을 가진 어휘로 보인다. '이스렁'은 '이스랑'의 변음으로 보이며, '어슬랑'은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제주도(1997)의 '애월읍' 오름 분포 현황에, '이스렁오름'과 '어스렁오름'은 인접해 있는 다른 오름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스랑' 또는 '이스렁'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이름이다. 지도마다 '이스렁오름, 이슬렁오름, 어슬렁오름, 어스렁오름'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통일된 하나의 표기가 필요하다. 옛 표기를 고려하고, 한자로 쓸 때 伊士良岳(이사량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렁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볼레오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해발 1,774m의 오름을 이른다. 이원진의 <탐라지>(제영)에 이용된 김치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浦涯嶽(포에악: 볼레오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甁羅岳(블라악: 볼레오름)', <제주삼읍전도>에 '甫羅岳(보라악: 볼레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鋪羅岳(포라악: 볼레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자 표기 浦涯嶽·甁羅岳·甫羅岳·鋪羅岳 등은 우리말 '볼레오름·볼레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볼레오름'으로 표기되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볼레오름, 佛來岳(블래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래 '볼레오름·볼레오름'으로 불렸는데, 오름 가까이에 있는 존자암(尊子庵)을 고려하여 '볼레오름'을 '볼래오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한자로 佛來岳(블래악)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

로 소리가 ‘불래오름’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음가자 결합 표기로 佛來岳(불래악)으로 쓸 수는 있으나, 이를 부처가 와서 정좌한 오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래오름’으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ㄷ레오름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해발 938.8m의 오름을 이른다. 99번의 1100도로에서 영실 휴게소로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있다. 옛 지도는 물론 1대5천 지형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다래오름, 月羅峰(월라봉)’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ㄷ레오름’이라 한다. ‘ㄷ레·ㄷ래’는 ‘다래’의 제주 방언으로, 이 오름에 ‘ㄷ레낭·ㄷ래낭(다래나무)’이 많다는 데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ㄷ레오름’이나 오늘날의 글자를 고려하여 ‘도레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세성제오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해발 1,053.1m, 1,112.8m, 1,142.5m의 세 오름을 이른다. 1100도로인 99번 도롯가에 있는 1100고지 휴게소 바로 뒤쪽(방위상으로는 서쪽)에 나란히 있는 오름을 이른다. 1대5천 지형도에는 가운데 오름에 ‘삼형제오름’이라 표기했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가운데 오름에 ‘삼형제오름, 三兄弟岳(삼형제악)’으로 표기하거나 ‘삼형제죽은오름, 下三兄弟岳(하삼형제악)’, ‘삼형제셋오름, 中三兄弟岳(중삼형제악)’, ‘삼형제큰오름, 上三兄弟岳(상삼형제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보통 ‘세성제오름’이라 하고, 구분할 때는 ‘세성제큰오름’, ‘세성제셋오름’, ‘세성제죽은오름’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윗세오름’과 대비해서 ‘알세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알세오름’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오름을 ‘세성제오름’이라 하고, 위쪽에 있는 세 오름을 ‘윗세오름’이라 하여 구분할 뿐이다. ‘세성제큰오름’ 바로 동쪽이 1,000고지이고 1100도로가 지나간다. 이곳에 1,100고지 휴게소와 탐라각, 그리고 고상돈기념비, 백록담기념비, 백록의 전설비 등이 세워져 있다.

‘세성제오름’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경계가 지나간다. 그러므로 ‘세성제큰오름’과 ‘세성제셋오름’ 일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하고 ‘세성제셋오름’ 일부와 ‘세성제족은오름’ 일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속하지 않는다. ‘족은오름’, ‘셋오름’과 같이 제주 방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형제’도 제주방언으로 써서 ‘세성제오름’ 또는 ‘세성제큰오름, 세성제셋오름, 세성제족은오름’ 등으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살핀오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076.3m의 오름을 이른다. ‘붉은오름’ 아래쪽(방위상 남동쪽), ‘세성제큰오름’ 위쪽(방위상 북쪽)에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2003)에는 ‘살핀오름, 薩品岳(살품악)’으로 표기하였다. ‘살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삼별초 항쟁 당시에 김통정 장군 휘하의 병사들이 이 오름에 올라 주변 지역의 동정을 살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하나 믿을 수가 없어 보인다. 한글 표기가 ‘살핀오름’이라면 한자 표기 薩品岳/薩品岳(살품악)은 문제가 있다.

붉은오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1,061m의 오름을 이른다. 1,000도로 휴게소 뒤쪽에 있는 ‘세성제오름’ 위쪽(방위상 북쪽)에 있는 오름이다. 1대5천 지형도에는 ‘붉은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붉은오름, 赤岳(적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仏近岳(붉은악: 붉은오름)’으로, <제주삼읍전도>에는 ‘佛近岳(불근악: 붉은오름)’으로,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赤岳(적악: 붉은오름)’으로, 《증보 탐라지》에는 ‘赤岳(적악), 붉은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赤(적)은 ‘불근(赤불근 적<신합, 상:57>)>붉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佛近(불근)과 仏近(불근)은 ‘불근>붉은’의 현실음 ‘불근’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악)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한자

표기 赤岳(적악)·佛近岳·仏近岳(불근악)은 모두 ‘붉은오름>붉은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름의 붉은 송이로 덮여 있어서 나무가 많이 없고 풀이 많이 없을 때 유난히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화산 폭발의 흔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다.

넛새오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해발 804m의 오름을 이른다. ‘츠나오름(천아오름)’ 동남쪽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이다. 다른 지도에서는 표기를 확인할 수 없고 한라산 국립공원 지도에 ‘넛새오름, 納賽岳/納賽岳(납새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내와 내 사이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넛새오름’이라 한 것이다. ‘어스싱이오름(어승생악)’ 위쪽에서 발원한 ‘외도천’ 줄기와 ‘붉은오름’ 쪽에서 발원한 ‘외도천’ 줄기가 ‘넛새오름’ 바로 북서쪽에서 합류하는데, 이 오름은 두 줄기 사이에 있다. 한자 표기 納賽岳/納賽岳(납새악)은 문제가 있다.

골머리오름

제주시 연동 ‘어스싱이오름(어승생악)’ 동쪽 ‘아흔아홉골[九九谷]’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골머리’는 ‘아흔아홉골’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제일 서북쪽 부분으로 표고 704m이고, ‘골머리오름’은 ‘아흔아홉골’의 위쪽 머리에 있는 오름으로 표고 850m이다. ‘골머리오름’바로 서쪽 능선 아래쪽에 석굴암(石窟庵)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등반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 오름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김정호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 담수계 《증보 탐라지》(산천) 등에 洞山(동산: 골머리), <탐라지도>(1709)에 谷頭(곡두: 골머리),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骨頭(골두: 골머리) 등으로 표기하였다. 洞과 谷은 ‘골’(洞 골 동<백련·동경, 21>, 峒 밋골 동 俗稱山峒 通作洞<훈몽·초, 상:2>/谷 골 곡<훈몽·초, 상:2>)의 훈독자 표기로, ‘아흔아홉골’[九十九洞/九九谷]을 이른다. 骨은 ‘골’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되’의 제주도 방언 ‘미’ 또는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頭는 ‘마리(頭마리<훈몽-초, 상:13>>머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谷頭(곡두)와 骨頭(골두)는 ‘골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洞山(동산)’은 ‘골미’ 또는 ‘골머리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골머리’는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의 “‘골미’는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무릇 아흔아홉골이다(洞山, 在州南二十五里, 凡九十九洞).” 김정호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의 “‘골미’는 제주 남쪽 25리에 있다. 무릇 아흔아홉골이다(洞山, 在州南二十五里, 凡九十九谷).”는 설명과 같이 ‘골[谷]의 머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아흔아홉골’은 이익태의 《지영록》에서 御乘生後洞(어승생후동: 어스성이 뒷골)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아흔아홉골/九九谷’으로 표기되어 있다.

걸쇄오름

제주시 연동 ‘노루손이오름’ 남동쪽, ‘골머리오름’ 북동쪽에 있는 표고 733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 서쪽에는 충혼묘지와 충혼탑이 있고 북쪽에는 제주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전도>(1872)에 傑始岳(걸시악: 걸시오름), <제주지도>(1872)에 傑始岳(걸시악: 걸시오름),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傑時岳(걸시악: 걸시오름), 주변의 묘비에 傑豺岳(걸시악: 걸시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5,000분 1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걸쇠오름, 걸시오름, 傑豕岳(걸시악), 杰豕岳(걸시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傑始·傑時·傑始·傑豺·傑豕·杰豕(걸시) 등은 모두 ‘걸시’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걸쇄(걸쇠-걸쇄)’이고,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걸시’는 ‘걸쇠’의 옛말 ‘걸쇠>걸쇄>걸새(쇠 걸쇠는 門關을 열오져 ㅎ낫다(鐵鎖欲開關)<두해-초, 11:50>. 쇠 걸쇄는 門關을 열오져 ㅎ낫다(鐵鎖欲開關)<두해-중, 11:50>. 金了錦 걸새<동해, 상:35>. 金了 걸새 료<왜해, 상:32>.’의 제주도 방언이다. 傑始岳·傑時岳·傑始岳·傑豺岳(걸시악) 등은 모두 ‘걸시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름의 형태가 ‘걸쇠’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제주 방언으로 ‘걸쇄오름’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능하오름·능화오름

제주시 오등동 남쪽에 있는 표고 973m의 오름을 이른다. 관음사 등산로의 탐라 계곡대피소 서쪽 언덕에 있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菱花峯(능화봉: 능화오름)으로 표기되었다. 오늘날 지도에는 ‘능하오름, 능화오름, 菱花岳(능화악)’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능하오름, 능하름’이라고도 한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능하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응하오름, 菱花岳(능화악)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자 표기 菱花(능화)는 ‘능화’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菱花(능화)는 ‘마름꽃’을 이르는데, 제주도 방언으로는 ‘말망쉬’라 한다. 지형이 菱花(능화)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능하오름’은 ‘능화오름’의 변음이며, 다시 ‘능하름’으로 줄어서 실현되기도 한다.

흙붉은오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1,380.7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대동지지》(권12, 제주, 산수), 〈제주삼읍전도〉 등에 ‘赤岳(적악: 붉은오름)’,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일제강점기의 지도 등에 ‘土赤岳(토적악: 흙붉은오름)’, 《증보 탐라지》(산천)에 ‘土赤岳(토적악: 흙붉은오름), 주붉은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土는 ‘흙’의 훈독자 표기, 赤은 ‘붉-’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붉은>붉은’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土赤岳은 ‘흙붉은오름>흙붉은오름’, 赤岳은 ‘붉은오름>붉은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흙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증보 탐라지》(산천)에 나오는 ‘주붉은오름’의 ‘주’는 잘못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흙붉은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흙붉은오름, 赤岳(적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돌오름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해발 1,278.5m의 오름을 이른다. 한라산 기슭의 ‘흙붉은

오름' 동쪽에 있다. 이 오름은 이형상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와 <탐라지도> (1709),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지도>(1872) 등에 申山岳(신산악: 신산오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 石岳(석악: 돌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의 지도에는 '돌오름, 石岳(석악)'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신선오름, 돌오름'이라고 한다. 申은 '신'의 음가자 표기인데, 神의 뜻으로 보인다. 山은 '산'의 음가자 표기인데, '서다' [立]의 관형사형 '선' 또는 제주도 방언 '사다' [立]의 관형사형 '산'으로 보인다.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신산오름'이나 '신선오름'은 모두 '신이 선[立] 오름'이라는 뜻이다. 오름 정상에 큰 바위가 서 있어서 마치 신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신산오름, 신선오름'이라 하였고, 그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돌오름'이라고도 하였다. 申山岳(신산악: 신산오름) 위쪽은 舊香木田(구향목전: <제주지도>)인데, 舊香木田(구향목전)은 제주 방언 '구상남밭·구상남밭'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舊(구)는 '구'의 음가자 표기, 香(향)은 '향'의 제주도 방언 '상'의 음가자 표기, 木(목)은 '나무'의 제주도 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 田은 '밭'의 제주도 방언 '밭'의 혼독자 표기이다. '구상남·구상남'은 '구상나무'의 제주도 방언이다.

성널오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경계에 있는 해발 1,215.2m의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과 《탐라지》(정의현, 산천),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城板岳(성판악: 성널오름)', 《탐라순력도》(<산장구마>)와 <탐라지도>, <제주삼읍전도> 등에 '成板岳(성판악: 성널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성널오름, 城板岳(성판악)'으로 표기하였다. 城(성)은 '성>성'의 음독자 표기, 成(성)은 '성'의 음가자 표기, 板(판)은 '널'의 혼독자 표기이다. 산의 지세가 성에 널을 세워놓은 것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石壁如城板故名.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한다. '성널오름' 동쪽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거쳐 남원으로 흘러가는 내 상류를 '松木堂川(송목당천: 솔남당내)', 하류를 '義貴川(의귀천: 웃귀내)'(이상

《탐라순력도》〈산장구마〉이라 하였다. 한편 하류는 ‘火等枝川’(부등지천: 부등짓내)《신증동국여지승람》, 火等川(부등천: 부등짓내)《제주삼읍도총지도》, 不等之川(부등지천: 부등짓내)《대동여지도》으로도 표기되었다.

어후오름

제주시 교래리 남서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표고 1,014m의 오름이다. ‘불칸데오름·불칸디오름’ 바로 남쪽에 있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魚岳(어악: 어후름·어후름)’, 〈증보 탐라지〉에 ‘御後岳(어후악: 어후오름, 어후리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후름, 어후오름’이라 한다. 魚와 御는 ‘어’의 음가자 표기, 後는 ‘후’의 음가자 표기이다. 魚岳(어악)은 ‘어후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御候岳(어후악)은 ‘어후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어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어후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어후오름, 御后岳·御後岳(어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성진이오름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남서쪽에 있는 표고 701m의 오름을 이른다. ‘구오리오름(개워리오름)’ 바로 위쪽(방위상으로 서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星珍岳(성진악: 성진이오름)’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성진이오름, 성진이턱’이라고 한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성진이오름, 星辰岳(성진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星珍과 成辰은 ‘성진이’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혹자는 사람 이름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星을 훈독자로 보아 ‘별진오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민간에서 그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ㄱ오리오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발 743m의 오름을 이른다.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남쪽에 있는 오름으로, 세 개의 봉우리(표고 740m의 ‘큰ㄱ오리’와 표고 661m의 ‘셋ㄱ오리’, 표고 650m의 ‘죽은ㄱ오리’)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에는 KBS 제주방송총국과 MBC 제주문화방송의 방송중계탑이 세워져 있다. 이 오름은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김정호 <대동여지도>(제주) 등에 表岳(표악: 글워리오름, 이형상 《탐라순력도》 <한라장축>과 <산장구마>)에 竝五里·竝五里岳(병오리·병오리악: ㄱ오리·ㄱ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1872)에 竝岳·並岳(병악: ㄱ오리오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 犬月岳(견월악), 《증보 탐라지》(산천)에 ‘犬月岳(견월악)/개월오름, 개월오름’, 주변의 묘비에 ‘秋月峰(추월봉: ㄱ워리오름), 犬月岳(견월악: 개워리오름), 大開月伊(대개월이: 큰개월이), 開月伊峰(개월이봉: 개월이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개월오름, 犬月岳(견월악)’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개오리오름, 가오리오름, 개워리오름, 개월오름’ 등으로 부르고 있다. 表(표)는 ‘글워리’의 훈가자 표기, 竝·并·並(병)은 ‘꺠’[竝]의 훈독자 표기, 五里는 ‘오리’ 또는 ‘을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꺠’은 모음 ‘오’와 결합하여 ‘글오>ㄱ오(王羲之之後엔 百代옛法을 닮 글올고(王後誰竝百代則)<두해·초, 16:21>.)’로 변한다. 秋(추)는 ‘ㄱ옹>ㄱ을’의 훈가자 표기, 月(월)은 둘째 음절 ‘을’의 유사음 ‘월’의 음가자 표기, 犬은 ‘개’의 훈가자 표기, 月은 ‘월’의 음가자 표기, 岳(악)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이른 시기 표기인 竝五里(병오리) 또는 竝五里岳(병오리악)을 고려하면 ‘ㄱ오리오름>ㄱ오리오름’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并岳·並岳·竝岳(병악)은 모두 竝五里岳에서 五里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ㄱ오리오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음운변동을 초래하여 ‘개워리오름’으로 부르게 되고 이것을 한자차용 표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秋月岳(추월악)·犬月岳(견월악)·開月岳(개월악) 등으로까지 표기되면서 원래의 이름과 멀어져 버렸다. 竝岳·并岳(병악) 등의 표기를 중시한다면 竝(병)을 훈독자로 보고, ‘글오리오름’, 즉 ‘글른·ㄱ른’[竝] 오름, 곧 두 오름이 나란히 누워있는 쌍둥이 오름으로

볼 수도 있다. 주봉은 가오리 머리, 나머지 두 봉우리는 가오리 꼬리와 닮았다는 데서 ‘가오리오름’이라고도 한다(한글학회, 1986:513; 김종철, 1995:3권.11)는 것은 소리와 지형을 대비시킨 억지 해석이다. ‘ㄱ오리>가오리’는 제주도 방언에서 ‘개오리’라고도 한다.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는 데서 ‘개월오름’이라고 한다(진성기, 1960:40; 오성찬, 1992:184)는 것도 억지 해석 또는 잘못된 한자 표기인 犬月岳(견월악)에서 비롯된 민간어원설이다. 1대 5천 지형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지도 등에 ‘개월오름, 犬月岳(견월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고오리오름’ 또는 ‘개워리오름’ 정도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논궤오름·눈궤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시네리]에 있는, 표고 841m(북봉)와 838m(남봉), 750m(동봉)의 세 개의 봉우리와, 세 봉우리 사이에 표고 785m의 분화구를 거느리고 있는 오름이다. 수악계곡(水岳溪谷)과 수악교(水岳橋) 위쪽에 있다. 이 오름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전도>(1872), 일제강점기의 지도 등에 論古岳(논고악: 논궤오름), <정의군지도>(1872)에 論古里(논고리: 논궤(-오름)),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 臥櫃岳(와궤악: 논궤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논고악, 論古岳(논고악)’으로 표기하였다. 論古岳(논고악)은 ‘논궤오름’, 論古里(논고리)는 ‘논궤’, 臥櫃岳(와궤악)은 ‘논궤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論(논)은 ‘논’의 음가자 표기로, ‘누운’의 제주도 방언 ‘눈’의 변음이다. 臥(와)는 ‘누운’의 제주도 방언 ‘눈’의 훈독자 표기이다. 古(고)는 바위굴의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 ‘궤’를 ‘괴’로 인식하고 ‘괴’의 일부분인 ‘고’를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다. 古里(고리)는 ‘궤’의 음가자 표기로, 古(고)는 ‘고’, 里(리)는 ‘궤’의 이중모음 ‘웨’의 부음 ‘ㅣ’의 음가자 표기이다. 櫃(궤)는 ‘궤’의 음가자 표기이다. ‘궤’는 땅속으로 들어간 바위굴 따위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岳(악)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논궤오름’ 또는 ‘눈궤오름’의 ‘논궤’ 또는 ‘눈궤’는 누워있는 ‘궤’(바위 굴)라는 뜻이다.

보리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표고 740m의 오름을 일컫는다. ‘논궤오름·논궤오름’은 바로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牟岳(모악: 보리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保狸岳(보리악: 보리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保狸岳(보리악)’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보리오름, 保狸岳(보리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牟岳(모악)·保狸岳(보리악)은 모두 ‘보리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牟는 ‘보리’(麥來 보리 립 麴 보리 모 俗呼大麥<훈몽-초, 상:12> / 牟 보리 모 (大麥))의 훈가자 표기, 保狸는 ‘보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보리’가 麥·牟[보리]의 뜻으로 쓰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른 시기부터 ‘보리오름’으로 불렸다.

물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해발 820m의 오름을 이른다. 성판악 휴게소 바로 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이 오름은 《남사록》(권3)과 이원진의 《탐라지》(정의현, 산천), 《정의읍지》(《정의지도》) 등에 水頂岳(수정악: 물이맹이오름?),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水岳(수악: 물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水峯(수봉: 물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岳(악)과 峰(봉)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水頂(수정)은 ‘물덩바기’(頂 덩바기 덩 頭上顛<훈몽-초, 상:13>)의 제주도 방언 ‘물이맹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맹이’는 ‘이마’의 제주도 방언이다. ‘물이맹이>물이맹이’는 ‘물오름’의 옛 이름으로 보인다. 水岳(수악)·水峰(수봉)은 모두 ‘물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물오름’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고이는 화구호도 없고 물도 없다. 일종의 ‘물이 없는 오름’[無水岳]인 셈이다. 지금 오름 정상에 중계탑 등이 들어서 있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물오름’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물오름, 水岳(수악)’으로 표기하였다.

탐라골

① 동탐라골(東耽羅-)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 대피소, 장구목과 삼각봉·개미등 동쪽을 흘러서 능하오름 동북쪽의 탐라계곡에서 합쳐지는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동탐라골, 탐라계곡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② 서탐라골(西耽羅-)·개미목계곡

장구목·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등 서쪽을 흘러서 능하오름 동북쪽의 탐라계곡에서 합쳐지는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서탐라골, 개미목계곡, 개미계곡, 蟻項溪谷(의항계곡)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③ 탐라계곡(耽羅溪谷)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 대피소, 장구목과 삼각봉·개미등 동쪽을 흐르는 동탐라골과 장구목·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등 서쪽을 흐르는 서탐라골이 능하오름 동북쪽에서 합쳐지는데, 여기서부터 탐라계곡이라 한다.

④ 한내

탐라계곡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용담동 쪽으로 흘러내리는 내를 예로부터 ‘한내’라 부르고, 한자를 빌려 大川(대천)으로 써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漢川(한천)으로도 쓰고 있다.

아흔아홉골[-꼴]

어스성이오름(어승생악) 동북쪽 일대의 골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아흔아홉골, 구곡(九九谷)’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대가 수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수악계곡(水岳溪谷)

사라오름 남쪽과 동남쪽에서 발원하여 ‘보리오름’ 서쪽에서 합류하여 5·16도로의 수악교(水岳橋)를 지나서 ‘물오름[水岳]’ 동쪽으로 흘러가는 내에 있는 계곡으로, ‘물오름’ 곧 ‘水岳(수악: 해발 474.3m)은 북쪽에 있는 계곡을 이른다. 水岳(수악)은 ‘물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어리목계곡

쫓대봉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큰두레왓과 작은두레왓 남쪽을 지나 어리목으로 흘러가는 계곡을 이른다. 지도에 따라 어리목계곡, 무수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대 5천 지형도에는 어리목계곡과 함께, 光令川(광령천), 外都川(외도천), 무수천(-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어리목’은 ‘어림’(어름[氷]의 변음)에 ‘목’이 덧붙은 말로 보인다. 19세기 말의 《탐라지》를 보면, 氷潭(빙담: 어름소)의 표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례천(新禮川)

한라산 ‘사라오름’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보리오름’ 서쪽에서 합류하고 5·16도로의 수악교(水岳橋)와 수악계곡(水岳溪谷)을 거쳐 남원읍 신례리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1대 5천 지형도에는 이 내의 상류에 ‘新禮川(신례천)’, 중류에 ‘하효돈내(下孝敦-)’, 새기내, 만지내, 하류에 ‘新禮川(신례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狐村川(호촌천)으로 표기되었는데, 오늘날 지도는 ‘신례천’ 또는 ‘하례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狐村川은 ‘여수믄을내’의 한자 차용 표기로, 신례리와 하례리의 옛 이름인 狐村(호촌: 여수믄을→나중에는 禮村으로 바꿈)을 지나는 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狐村川(호촌천) 하류는 狐村浦(호촌포)라 했는데, 지금은 ‘망쟁이개, 망쟁이개맷’

등으로 불린다.

하효돈내(下孝敦-)

신례천의 중류로, 하례2리 위쪽에서 흐르는 내를 이른다. ⇒ 신례천.

새기내

신례천의 중류로, 신례1리 만지동 위쪽에서 흐르는 내를 이른다. 신례천의 하류도 '새기내'라고 하는데, 이는 '새기내'와 변음 관계를 이루고 있다. ⇒ 신례천.

만지내

신례천의 중류로, 신례1리 만지동과 만지넷도 일대를 흐르는 내를 이른다. ⇒ 신례천.

영천천(靈泉川)

한라산 '웃방에오름' 동쪽과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법호촌 제주학생야영장 북서쪽에서 두 내가 합류하여 상호동과 토평동 사이를 흐르는 내를 이른다. 서귀포시 상호동의 영천오름(靈川岳)과 '칠오름' 사이에서 효돈천으로 합류한다. 옛 지도와 문헌에도 靈泉川·靈泉川(영천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효돈천(孝敦川)

서귀포시 상호동 선돌(立石, 立石洞) 북서쪽과 북동쪽에서 발원하여 선돌 남쪽에서 하류하고 상호동으로 흘러가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경계를 이루는 내를 이른다. 상호동 영천오름과 '칠오름' 사이에서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탐라지도> (1709년)에는 靈泉川(영천천)으로 표기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1대 5만 지형도에서 부터 孝敦川(효돈천)으로 표기되었다.

선녀폭포(仙女瀑布)·천녀폭포(天女瀑布)

선녀폭포는 천녀폭포라고도 하는데, 어스 이오름(어승생악/御乘生岳)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폭포를 이른다. 어스 이오름 바로 동남쪽에 있는 ‘죽은두레왓오름’ 서북쪽에서 발원한 조그만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어스 이오름 동쪽과 아흔아홉골 서쪽 및 천왕사 서쪽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간다. 이 골짜기는 북쪽으로 흘러 ‘도그내(지도에는 도근천/都近川으로 표기됨.)’로 흘러든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도그내’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다.

구린굴(-窟)

한라산 등반로 중 하나인 관음사코스 가까이에 있는 굴이다.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안내소에서 관음사코스를 따라 약 1시간가량 걸어가면 볼 수 있다. 한라산 등반로인 관음사 등반로를 따라 약 1.2km를 걸어간 곳의 오른쪽 계곡 상류 쪽에 입구가 있다. 지금은 철망으로 함몰 입구를 둘러쳤기 때문에 등반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오등동에 속한다. 평굴 위쪽에 있다. 입구가 5곳인데, 모두 천장이 함몰되어 형성된 것이다. 제1 입구에서 제5 입구까지의 구간은 영구 암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제5 입구 구간부터 얇은 동굴수가 흐르고 바닥에 점토와 구아노가 쌓여 있다. 일부 구간에는 석축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굴은 부분적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막장부 광장에는 얇은 연못이 있어, 동굴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다. 동굴은 대개 샷갓형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기공, 소규모 연못, 용암 선반, 용암 폭포, 아아용암, 용암 주석 등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의 대형 천연 동굴 중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것이어서 지형과 지질 연구에도 중요한 굴이다. 일찍부터 ‘구린굴’이라 불렸는데, ‘구린’은 동굴 따위가 험한 곳을 이룰 때 사용하는 말이다. 곧 울퉁불퉁하게 발달해 있는 데다, 여러 곳이 함몰되어 있어서 험한 굴이라는 데서 ‘구

린굴'이라 했다.

윗상괘·웃상괘

장구목오름(해발 1,696m) 남서사면의 구상나무 숲에 있는 바위굴을 이른다. '괘'는 그리 깊지 않은 '바위굴' 따위를 이르는 제주 방언이다. 위에 있는 구상나무 숲에 있는 '괘'(바위굴)라는 데서 '윗상괘' 또는 '웃상괘'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이 구상나무를 뜻한다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전에 마소를 먹이던 사람과 약초를 캐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평굴

평굴(平窟)은 한라산 등반로 중 하나인 관음사코스가 가까이 있는 굴이다. 국립공원 관음사지구안내소에서 관음사 코스를 따라 약 50분가량 걸어가면 볼 수 있다. 관음사 등반로를 따라 900여 미터를 간 지점에서 다시 서쪽으로 160m 정도 떨어진 숲속에 입구가 있다. 주변 지평이 평탄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평평한 지형에 발달한 굴이라는 데서 보통 '평굴'이라 불러왔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오동동에 속한다. 구린굴 아래쪽에 있다. 동굴이 숲속에 있는 데다 박명부의 형성 범위가 작아 동굴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다. 동굴 바닥은 점토가 쌓여 있고, 입구 오른쪽에는 구아노가 많이 쌓여 있다. 동굴 천장은 낮은 편이고, 가지굴이 발달해 있다. 동굴의 일부 구간은 매우 복잡하고 2~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2곳에 동굴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용암 선반, 용암 폭포, 용암 주석, 용암 단구, 낙반 지형, 아아 용암 등이 산재해 있고, 동굴 산호, 용암 종유, 용암 유석, 규산 종유 등이 부분적으로 발달해 있다.

통괘

왕관릉(왕관바위) 동쪽에 있는 괘를 이른다.

평궤

한라산 등반로 중 지금 출입제한구역인 돈내코 등반로 중간에 있는 궤로, 이 궤 가까이에 대피소가 있다. 이 대피소를 ‘평궤대피소’라 한다. ‘평궤’는 지도에 따라 ‘평궤, 평괴, 平壤(평괴)’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평궤’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존자암(尊者庵)

블레오름 앞에 있는 옛 암자를 이른다.

석굴암(石窟庵)

아흔아홉굴에 있는 암자를 이른다.

소백록담(小白鹿潭)

한라산 동능 동북쪽 숲속인 해발 1600고지에서 발견된 소를 이른다. 1997년 6월에 제민일보 취재팀의 일원이었던 서재철 사진 기자가 처음으로 확인하여 보고 하면서 알려졌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움푹 팬 분화구에 신비의 화구호수가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제민일보 보고에 의하면, 분화구의 깊이는 남서쪽이 가장 깊어 약 500m나 되고, 동남쪽은 100m, 북벽은 약 60m로 남북쪽이 길어 마치 계란처럼 형성됐다고 했다. 분화구 주변에는 구상나무, 고채목 등 비교적 고산식물들이 짙어 들어찬 원시림지대였다. 화구 호수는 전체가 약 5백 평 정도이고, 호수의 남북 길이가 60m, 동서 직경이 40m 정도 된다고 했다. 북쪽 호수 가운데는 자그마한 섬처럼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이 호수가 처음 발견되어 보고할 때 한라산 소백록담이라 하면서 소백록담이 이름으로 굳어졌다.

사제비샘·사제비약수(一藥水)

사제비동산(사제비오름) 바로 동쪽의 어리목 등반길에 있는 샘을 이른다. 한라산

등산길 중 하나인 어리목길의 중간 정도에 있는 샘으로,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 중 하나이다. 사제비동산(사제비오름) 가까이에 있는 샘이라는 데서 ‘사제비샘’ 또는 ‘사제비약수’, ‘사제비동산약수’, ‘사제비동산물’ 등으로 부른다.

오름샘·오름약수(一藥水)

윗세오름의 가운데 오름(해발 1,711m) 북쪽 골짜기에 있는 샘을 이른다. 보통 ‘오름샘’ 또는 ‘오름약수’라 하고 있다.

노로세미·노로샘

윗세오름(해발 1,711m)의 가운데 셋오름·누운오름 남쪽의 영실 등산길에 있는 샘을 이른다. 한라산 등산길 중 하나인 영실 등산길의 끝인 윗세오름 대피소 아래쪽에 있는 샘으로,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 중 하나이다. ‘노로·노루’가 자주 이용하는 샘이라는 데서 ‘노로세미·노로샘’이라 부른다.

원점비물

제주시 오라2동 능하오름 남쪽의 서탐라골 줄기에 있는 물로, 개미등 서쪽에 있다.

어리목세미

어리목 광장 어귀에 있는 샘물을 이른다. 어리목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는 샘물 중 하나이다. ‘어리목’에 있는 샘물이라는 데서 ‘어리목세미’이라 한 것이다.

어승생저수지(御乘生貯水池)·한밭저수지(一貯水池)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차를 타고 ‘신비의 도로’를 지나는 ‘신비로(99번 도로)’를 따라 ‘천왕사’ 입구를 조금 지난 곳에 있는 저수지를 이른다. 바로 남쪽에는 ‘어스 이오름’(보통 지도에는 ‘어승생악’으로 표기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스 이’를 한자

로 쓴 ‘御乘生(어승생)’을 따서 ‘어승생저수지’라 부르고 표기하고 있다(한라산국립공원 지도). 그러나 국립지리원 발행의 1대 5천 지형도와 이 저수지 입구에는 ‘한밭저수지(一貯水池)’로 표기되어 있다. ‘한밭’의 ‘한’은 ‘큰[大]’에 대응하는 고유어에 ‘밭’은 어간형을 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곧 크고 밝은 저수지라는 데서 새로 명명한 이름이 ‘한밭저수지’이다.

흑괘물

한내(漢川) 발원지의 용진굴 계곡이 흘러나가는 개미목 남동사면에 있는 토굴을 ‘흑괘(흑괘)’라 하는데, 이 굴 아래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흑괘물’이라 한다.

약다리목

성널오름 서남쪽에 있는 목을 이른다.

어리목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어리목’을 ‘御里牧(어리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적당한 한자가 아니다. ‘어리’의 뜻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목’은 ‘출입구, 입구, 어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고유어다. 그러므로 한자 牧(목)에 대응시킬 수가 없다. 억지로 음차(音借) 표기라고 하면 모르지만, 18세기 말의 《탐라지》를 보면 氷潭(빙담: 어름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볼 때 ‘어리’는 ‘어름[氷]의 변음으로 보인다.

진달래왓·진달래밭

성판악 등산길 중 진달래밭대피소 일대에 진달래가 많이 자라는 곳을 이른다. 진달래가 많이 자라는 밭이라는 데서 ‘진달래왓/진달래밭’이라 부른다. 성판악휴게소에서 이곳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고, 이곳에서 한라산 정상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속밭

성판악휴게소에서 성판악 등산길을 따라 약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나타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40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면 등반로 쉽터가 나온다. ‘속’은 ‘쭈’을 이르는 방언이고, ‘밭’은 ‘밭’을 이르는 방언이다. 이 일대에 쭈이 많이 자란다고 해서 ‘속밭’이라 부르는데, 요즘은 생태계의 변화로 쭈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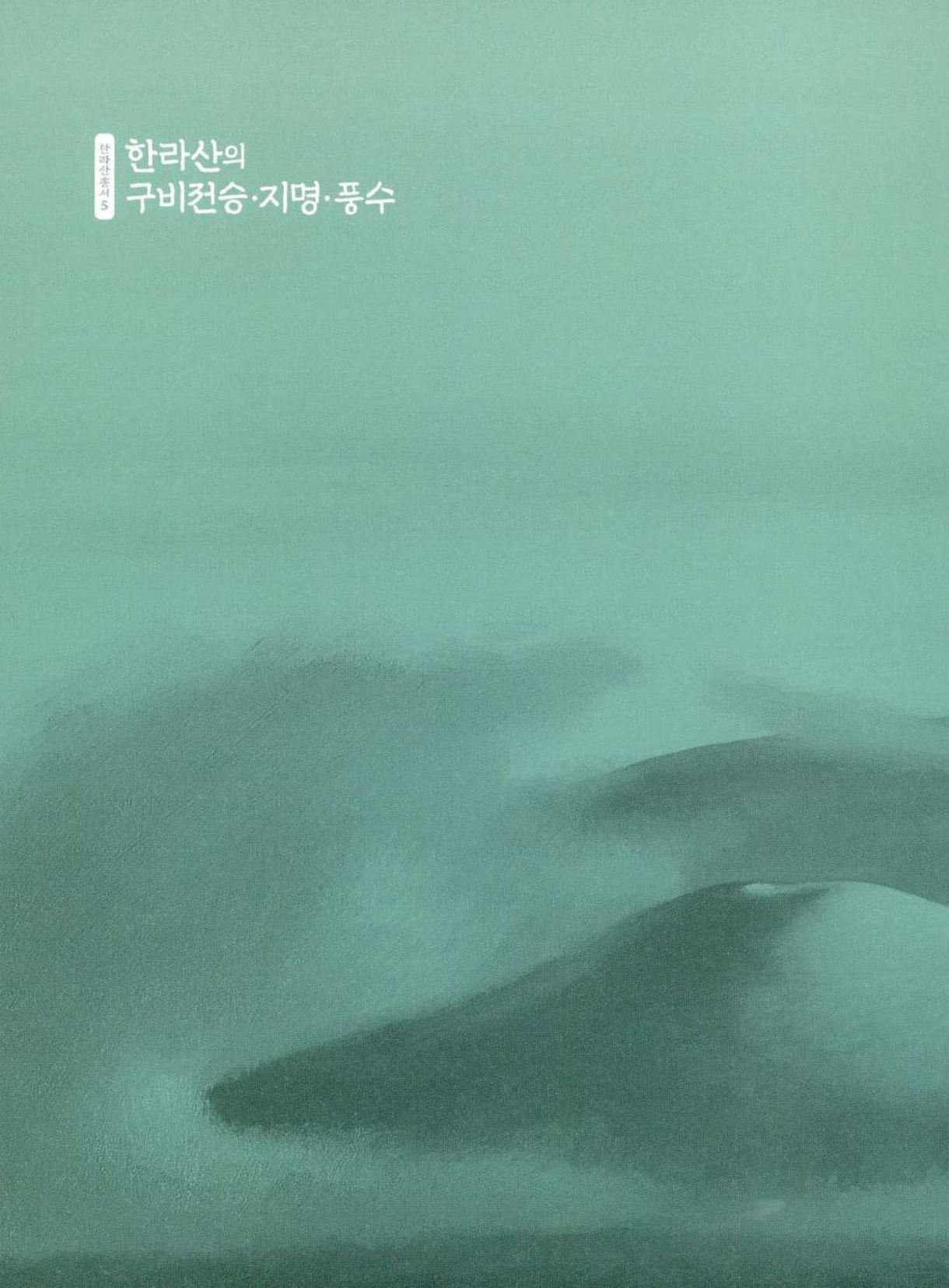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에는 ‘石坡(석파), ソッパー’로 표기되어 있다.

구상남밭·구상남밭

‘윗세오름’ 대피소 일대와 ‘진달래밭’ 대피소 위쪽 일대를 이른다. ‘구상남’ 또는 ‘구상남’은 ‘구상나무’의 제주 방언이다. 옛 지도인 《탐라순력도》에는 舊香木田(구향목전: 구상남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구상남밭·구상남밭’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한라산
홍서 S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제 3 장

한라산의 풍수



여 백

1. 한라산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 풍수의 관념적 특성

한라산과 오름에 의지한 지모관(地母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리를 내세운 《주역(周易)》은 우주대자연의 변화와 근원적 이치를 밝히는 근본학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일찍이 당대(唐代)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인걸지령(人傑地靈)”¹⁾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뛰어난 인물은 신령한 땅의 기운을 타고 난다.”라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풍수의 핵심인 인간과 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풍수에서 땅의 이치는 곧 우리 인체가 순환하는 기혈(氣血)의 이치와 같다. 산이 가면 물이 따르고, 물이 가면 산이 따르듯이 산과 물은 상호 유기적인 음양의 관계로서 부부의 유정한 도리와 같으며 풍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사진 3-1. 제주 풍수의 상징인 한라산

1) 관련 원문…物華天寶 龍光射牛斗之墟 人傑地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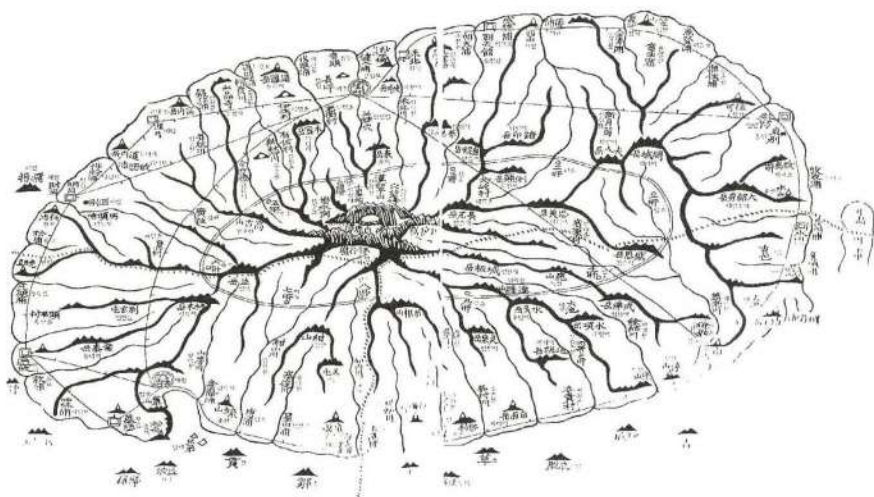


그림 3-1. 한라산으로부터 이어진 제주의 지맥²⁾

풍수에 있어서 한라산과 오름의 존재는 제주의 풍수적 토반을 이루는 근간이다. 한라산과 오름에 대한 이해는 곧 제주의 풍수를 이해하고 제주 풍수의 진면목을 바라보는 지름길이다. 제주 풍수의 근간(根幹)인 한라산은 영험한 기운을 품고 바다가운데 우뚝 솟아있다. 한라산이 품은 오름의 실체를 알 때 제주의 풍수는 비로소 제주의 큰 생명력으로 다가온다. 한라산이 품고 있는 오름의 자락마다 술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피어난 제주민의 삶과 숨결이 살아있고 한라산을 품은 오름과 연관되어 독특한 제주의 풍수 문화를 이루게 했다.

제주 풍수의 구심점은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한라산의 품, 즉 한라산의 자락에서 태어나 오름을 기대어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가 오름의

2) 그림 출처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락에 묻힌다는 제주 특유의 오름과 연계한 풍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선조들은 영험한 기맥(氣脈)의 발원지인 한라산을 종산으로 삼아 한라산의 지기가 용출하는 오름 곳곳에 뼈를 묻고 삶의 터전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라산과 오름은 체(體)와 용(用)의 관계이며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존재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을 모태(母胎)인 어머니로 비유하자면, 제주인은 어머니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세상을 떠나면 제주민의 육체는 다시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치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이 포근하고 따스한 곳으로서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세월 따라 사람이 늙어 가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과 오름은 바로 정신적인 요람이요 고향이기도 하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하는 자연의 순환 계통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종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한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토속 신앙적 사상이 근간이 된 풍수지리는 토속 신앙인 대지모(大地母) 사상과 역(易)의 이론인 중국의 음양오행설이 결합하여 입지(立地)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음과 양의 결합체로서 자연으로부터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 속에서 잉태된 것이며 일생 양기(陽氣)를 바탕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육신이 늙고 병들어 가면 어느덧 양기가 쇠퇴하게 되고 결국 생(生)이 다하게 되어 음(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주에서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을 모태인 어머니 산으로 비교하자면, 어머니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듯이 세상을 떠나면 제주민의 육체는 다시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치이다. 이 말은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과 통한다.

만물을 길러내는 것은 흙이며 만물의 자양분도 모두 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라



사진 3-2. 오름을 품은 한라산

산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제주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를 양육하는 곳이다.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이 포근하고 따스한 곳으로서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사람이 늙으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으로서 살아 있을 때 아무리 천 리 타향에 나가 살더라도 결국 늙어서 생을 마감할 때쯤이면 고향을 그리고 또는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향은 곧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은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뜬구름 같은 세상에서 슬한 시비를 안고 살다가 늙어 기(氣)가 다하면 한라산의 품에 있는 어느 오름의 한 자락에 말없이 묻히게 되는 것이다.

지모관(地母觀)과 설화

① 오름에 얹힌 설문대할망의 설화

설화적으로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전설의 여신(女神)인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소가 누워 머리를 든 형국인 와우형(臥牛形)의 우도(牛島)에서 치마폭에 흙을 싸고 가다가 떨어뜨린 흙이 오름이 되었다고 했다. 설화 속의 '설문대할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거녀(巨女)였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전승된다. 주



사진 3-3. 월라산에서 바라본 한라산

요 내용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의 지귀도(地歸島)에 디더서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는 것 등이다. 예로부터 제주민들은 옥황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으며, 모진 시련과 혹독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섬의 숙명을 상상의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의 힘에 의지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소망이 마음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고 그 오름의 자락에 영원히 뼈를 묻을 소중한 땅을 인격과 동일한 체(體)로 인식하고 그들의 뿌리로 생각한 것이라 본다. 그것은 바로 제주민의 마음속에 땅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자연합일(自然合一) 의식과 더불어 땅이 영원한 어머니의 품이라는 지모관이 자리했기 때문이라 본다.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인격화로 승화시킨 이면에는 제주인 특유의 지리관(地理觀)이 자리하고 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 주변의 섬까지 지맥을 연결하여 본 풍수 의식이 깔려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② 제주의 풍수 전설에 나타난 윤리성

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와 혹은 인간과 자연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된 의지나 그에 상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인 한계의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전설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라는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착시키며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러한 증거물의 하나로 자연물이나 역사적 사건의 인물 혹은 특정한 사건 등이 존재한다면 전설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한다. 전설은 광의적(廣義的)인 시각으로 볼 때 중심적인 전승자의 역할이 바로 민중이라는 사실이다. 제주도에는 이러한 성격의 전설이 널리 퍼져 있으며 내륙의 전설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으로 제주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자연과 관련된 전설, 둘째로는 역사와 관련된 전설, 세 번째로는 신앙에 관련된 전설이다. 그중에서 특히 두 번째의 역사 전설로 분류될 수 있는 호종단(胡



사진 3-4. 제주 풍수 전설의 모체인 한라산

宗旦), 즉 일명 ‘고종달’형 전설을 들 수 있다. 호종단이 등장하는 전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풍수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반면 당시의 제주민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방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대변이나 하듯이 지형 또는 지명마다 얹힌 전설에 보면 중국의 풍수사(風水師)인 호종단이 자주 등장한다.

제주의 풍수 전설에 담긴 내용의 주류는 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삶에 대한 제주민들의 염원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호종단이 제주에 들어와서 지맥을 끊어서 제주도에는 큰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전설의 내용으로 볼 때 원래 이상향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난세를 극복해나갈 걸출한 인물을 기대하려고 하는 민중의 갈망의식(渴望意識) 속에서 출발한 상대적인 형상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위한 그들만의 위안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호종단의 전설에서 이러한 관념이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王侯之地)라는 풍수학적 상징화와 형상화를 통해 제주만의 자구적(自救的)인 자존의식을 볼 수 있고, 더불어 제주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불모지(不毛地)로서의 제주에 대한 현실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제주도 풍수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



사진 3-5. 호종단의 풍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용머리해안과 차귀도

첫째, 제주도는 지세가 좋아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王侯之地)였다. 둘째, 이에 중국의 황제가 지리서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내용을 발단으로 상대적으로 중국을 등장시켜 제주도를 하나의 국가 단위로 인식하게 한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황제는 마침내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난 풍수의 달인을 제주에 급파하게 되는 과정이다. 넷째, 제주에 도착한 풍수사는 제주도의 명혈이 이어지는 곳곳의 지맥을 끊어 나간다. 다섯째, 그 과정에서 한라산신(漢拏山神)의 방해로 인해 계획한 대로 모든 혈을 뜨지는 못했지만, 명혈로 이어진 주요 지맥은 끊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제주에서는 왕이 나지 않았으며 땅의 혈맥에 속하는 샘물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대략적인 고종달형(호종단) 풍수 전설의 주류이다.

제주의 풍수 전설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내용은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을 중시하고 선악의 귀결로 인한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대표되는 윤리성이다. 특히 제주의 풍수 전설의 특징은 전통적인 풍수 이론에 인륜의 도덕을 담고 있으며, 역행을 배제하고 순리에 따라 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을 갖추어야 하늘이 스스로 도와 명당을 내린다는 점이다. 온갖 만물이 의지하여 사는 땅은 하늘의 도(道)와 인륜의 도덕이 담겨 있어 삶의 정신적인 지주로 상징되었다. 대체적으로 제주 풍수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개인이나



사진 3-6. 천륜과 인륜을 중시한 제주의 음택지

가문에 관련된 풍수적 전설이 있는가 하면 집단적인 삶의 형태인 마을의 안녕과 번영 혹은 퇴락과 쇠퇴에 관한 전설이 있다. 더 나아가 범위의 주체가 국한된 지역을 벗어나 국가로 확장되면서 한 나라의 명운(命運)과 관계된 영고쇠락(榮枯衰落) 또는 도읍지 선정 등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는 전설도 있다. 제주에서 풍수와 관련된 전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집단의 형태인 마을과 전체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이어져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장소멸(生長消滅)의 자연이치가 공존하는 무상(無常)의 만남과 헤어짐이 잘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삶의 형태가 풍수의 윤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에 역행하고 위배되는 행위는 결국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스스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덕을 베풀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마음을 다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감응(感應)을 받아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주에서의 풍수적 윤리는 명당(明堂)은 절대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과(因果)에 따라 얻어지는 상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통 풍수에 있어서도 풍수의 윤리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풍수의 목적이 결코 부귀발복(富貴發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穴)을 찾으려면 찾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을 내세워 명혈(明穴)을 찾으려면 잘 찾지 못하는 것이 고금의 진리이다. 평소에 덕을 쌓고 남을 위해 선업(善業)을 지은 사람은 하늘의 이치가 공평한지라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티끌을 보지 못하고 이욕(利慾)의 마음으로 발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의 성정을 파악하면 그 묘처(妙處)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니 자연과 합일(合一)하는 마음부터 길러야 함이 옳다고 본다.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여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려는 마음이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교류하여 그 혜택을 상호 교감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늘날 풍수학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책임일 것이다. 예로부터 ‘참된 혈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

여 덕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제주 풍수 전설에 나오는 풍수적 윤리성은 성격상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맥이 같다고 본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관념이고 개인의 허욕을 경계하고 있는 데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대조화성(大調和性)을 의미하며,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三才思想)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라산과 연계된 제주 풍수의 내재성(內在性)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과 소응(所應)

① 동기감응론

서구의 석학들도 과학적으로 동양의 기학(氣學)과 사람의 혼백,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1960년 미국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윌라드 리비(Willard libby) 박사는 14종의 방사성 탄소를 인체에서 발견하여 동양의 풍수 지리학에서 말하는 친자감응론(親子感應論) 혹은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좋은 선례의 하나가 되었다. 대기 중에 있는 기운을 공기(空氣)라 하고, 태양을 위주로 하늘에 유행하는 기운을 천기(天氣)라 하며, 땅속을 흐르는 기운을 지기(地氣)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운을 고루 흡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몸 안의 기(氣)를 인기(人氣)라 하는 것이다.

<동기감응론>은 예로부터 묘지의 길흉에 따라 자손들이 화복(禍福)의 영향을 받



사진 3-7. 효(孝)와 소응의식이 내재된 제주의 음택지

는다고 하는, 이른바 조상과 자손은 동질의 기(氣)를 받는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현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인자(因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땅에 잘 모신 조상의 체백(體魄)은 좋은 기(氣)를 발산하여 그 음덕(蔭德)이 자손들에게 전해져 부귀발복(富貴發福)하고 누대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조상의 유골을 생기가 흐르지 않는 좋지 않은 땅에 모시면 나쁜 기운이 발산되어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와 많은 재화(災禍)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기가 왕성한 좋은 땅에 모시면 체백의 인자(因子)도 같이 왕성하여 동질의 인자를 가진 후손에게 동기감응을 일으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상과 자손과의 사이에 유행하는 이 에너지가 마치 주파수처럼 상호 감응하여 그 접합의 결과에 따라 길흉이 나타나게 된다.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운이 흘러와 모이는 살아 있는 양명한 땅을 말한다.

풍수의 목적은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인 효(孝)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 학문으로서 자신의 뿌리가 되는 조상을 편안히 모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발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간 본연의 선성(善性)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효(孝)의 사상에 근본한 조상숭배(祖上崇拜), 보본반시(報本反始)에 입각한 것이며 더불어 조상의 선영(先塋)을 좋은 땅에 잘 모셔 자손의 번영과 창달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음택(陰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효(孝) 사상에서 출발하여 동기감응의 원리로 돌아가신 조상을 산천 정기가 모이는 좋은 땅에 편안히 모시므로써 돌아가신 부모 또는 조상의 기(氣)가 후손에게 잘 전달되게 자연과학의 이치에 맞추어 길흉을 살피고 연구하는 근본 학문이다. 조상과 자손 간의 상호 좋은 기가 교감된다면 그 작용력은 응당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손의 번영과 행복은 물론 건강한 삶을 향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풍수지리의 심오한 진리는 효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로 삼아왔다.

② 제주 풍수의 소응의식(所應意識)

풍수의 이치는 이념적으로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통문화에 입각하여 민속적 차원으로 볼 때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효를 바탕으로 한 조상숭배 사상이 내부 깊숙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민간에 뿌리 박힌 전통 풍수설은 예로부터 지맥을 따라 인간사의 모든 길흉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속신(俗信)처럼 하나의 민간신앙으로 뿌리를 내려왔다. 그것은 바로 풍수 신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을 고르려는 적지사상(的地思想)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풍수 지리학이 원래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삼국 시대 이래로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민간 속에 하나의 신앙처럼 뿌리 깊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에 뿌리내린 전래의 풍수는 화복의 영향을 증시킨 발복 풍수가 주류를 이루었다. 땅을 써서 잘 되고 못 되었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속신(俗信)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들이 번창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는 집안이 쇠패하여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모든 길흉화복(吉凶禍福)의 결과가 대체로 조상의 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조상의 유체를 지기가 왕성한 길지(吉地)에 모셔 묘를 잘 써서 가문이 번창했다든지 혹은 문중에서 여러 명의 군수나 장관이 나왔다는



사진 3-8. 소응의식이 잘 나타난 제주의 음택 풍수

지, 뛰어난 문장가나 호걸이 나왔다는 등 하는 것이 모두 풍수의 적지(的地)를 골라 그에 따른 영향을 입어 복을 누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풍수의 실증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풍수에서는 소응(所應)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주 풍수에서도 소응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소응의식은 대체로 묘지풍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제주의 소응의식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음택지 뿐만 아니라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 풍수에 나타난 소응의식 이면에는 효(孝)와 덕(德)을 중시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수의 목적은 결코 부귀와 발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을 찾으려면 찾기가 힘든 것이다. 참된 혈은 하늘에서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풍수 형국론에 기인하여 알려진 명당이 있는데, 6대 음택혈과 6대 양택혈을 말한다. 이 6대 명혈은 풍수적 이치와 더불어 제주인들의 효와 덕을 중시한 인과적(因果的)인 소응관(所應觀)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③ 소응(所應)과 6대 명혈(名穴)

[제주의 6대 양택혈(陽宅穴)과 음택혈(陰宅穴)]

예로부터 제주에는 형국론(形局論)을 중심으로 비롯된 전설적 명혈이 많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6대 음택혈’과 ‘6대 양택혈’이다. 특히 음택혈중 4대 명혈지는 해발 1,200m 이상에 있는 고산혈(高山穴)로서 혈성(穴星)이 대개 산머리에 많이 맺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지사(地師)들조차 정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금장지(禁葬地)로 알려진 명혈지를 포함하여 음택의 10대 명혈로 보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해온 것은 뫓자리와 집터로 알려진 ‘양·음택 6대 명당지’라 할 수 있다. 소응의식이 수반된 6대 명혈지는 생전에 덕을 많이 쌓아야 얻을 수 있다는 풍수적 윤리가 점철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과

의 윤리성을 담고 있다. 하늘과 땅이 내린 명당의 기운을 타면 자손에게 발복의 소
응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명당은 주인
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바로 효와 덕을 중심으로 인류의 도덕에 근거한
선악의 판단 기준과 가치가 작용한 ‘소응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 6대 음택혈

제1혈 사라혈(紗羅穴)

6대 음택혈의 ‘제1혈’은 신(神)이 내린 명혈지(明穴地)로 손꼽히는 「사라혈」이다.
「사라악」은 한라산의 영험한 기운을 이어받아 곳곳에 지맥을 이어주는 생동하는
용(龍)이다. 산의 형국이 마치 힘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
逐蛙形)의 형상으로 천지의 기운을 품은 기운이 빼어난 곳이다. 사라악과 성판악은
동쪽의 지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맥이다. 동쪽의 주요 지맥은 한라산에서 출맥하
여 반드시 사라악을 거치면서 각 지역으로 힘찬 기운이 나간다. 그만큼 제주의 지



사진 3-9. 사라악 산정호수 (사진: 강인권)

맥을 이야기할 때 사라악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풍수에서 말하는 하늘이 감추고 땅이 감춘다는 전설적인 명혈지이다. 지세와 경관 모두 빼어난 곳으로서 예로부터 풍수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풍수학적인 입장에서 혈장(穴場)이 높으면 안산의 위치가 멀어야 좋고, 혈장이 낮으면 안산은 가까워야 한다. 혈처(穴處)와 안산은 서로 응기하고 마치 서로 마주보며 서로 절을 하는 듯 또는 손을 마주 잡는 형상을 해야 좋다. 안산이 너무 짧거나 긴 것은 불안하여 안산으로 적합하지 않다. 옛말에 '주위의 만 가지 좋은 산의 형상이 있을지라도 가까이서 혈장을 안아주는 안산보다 못하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안산은 혈장의 앞에 위치하고 마치 선비의 책상이나 인간의 밥상과 같아야 하고 적당하게 높낮이가 이루어져 편안해야 한다. 「사라악」은 이러한 풍수적 명당 요소를 비록 높은 곳이지만 모두 구비하고 있는 이름이다.

제2혈 의항혈(蟻項穴)

개미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속칭 「개여목」이라고 하는 제2「의항혈」은 「역두형(逆頭形)」으로 남근(男根)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



사진 3-10. 장구목에서 바라본 개여목 지경

하는 대장군의 형국인 「장군솔군형(將軍率軍形)」과 죽은 땡을 벽에 걸어 놓은 형국인 「사치괘벽형(死雉掛壁形)」으로도 본다. 「개여목」은 한라산에서 이어진 맥이 개미의 머리에 해당하는 「삼각봉」으로 흘러내려 이어진 지맥의 한 부분이며 잘록 가느다래진 부분에 기운이 잠시 머문 곳이다. 높이 솟은 바위나 돌이 필(筆)이나 규홀(圭筭)처럼 높이 솟아 있으면 이를 하늘의 기둥에 해당하는 천주(天柱)라고 한다. 이러한 형상은 청명한 기운을 안겨주는 이른바 귀(貴)와 부(富)를 불러일으키고, 천지의 이치에 밝은 청수(淸秀)한 선비를 배출하는 정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솔개의 머리 모양 같기도 한 「삼각봉」은 「개여목」으로 강한 기운을 이어주고 받쳐주는 현무(玄武)이자 귀봉사(貴峰砂)의 역할을 한다.

제3혈 영실혈(靈室穴)

‘제3혈’은 중국 주자(朱子)의 부친이 묻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영실혈(靈室穴)」로 영실 계곡 위쪽의 「주친몰리」 서쪽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평평한 평지



사진 3-11.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영실 일대 (사진: 강인권)

로 성현이 날 자리라고 하는데 지세가 마치 아침에 봉황새가 울어대는 형국인 「봉황조일형(鳳鳴朝日形)」의 지세를 간직한 곳이다. 한라산의 백록담은 주위가 광활하여 천고의 세월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던 신령한 제주의 조산(祖山)격인 종산(宗山)이다. 한라산 서남 방향으로 가파르게 흘러내린 영실은 영기(靈氣)를 품은 절애(絶崖)의 수직 암벽과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고 하는 기암괴석이 불꽃처럼 타오르듯 필봉의 정기를 안은 채 살아 움직이듯 신묘한 변화를 연출한다. 《제주도실기(濟州道實記)》에 제주의 지리와 하천을 소개한 장(章)에 다음의 언급이 보인다.

「본도(本島)는 백두산맥(白頭山脈)으로 종출(從出)하여 조선반도남해상(朝鮮半島南海上)에 개재(介在)하여 중앙에 6785(해발1,950m) 고산(高山)이 돌립(突立)하고 사방(四方)이 평원광막(平原廣漠)한대 경위도(經緯度)는 동경 126도 30분, 북위(北緯) 33도 20분에 당(當)한다.」

「영실」의 유·무형적 상징성은 풍수적인 각도뿐만 아니라 제주의 신화와 설화적인 요소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상징성만을 가지고도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시사(示唆)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감춘 명혈(明穴)의 전설을 한 번쯤 마음속에 새겨볼 것이다.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다음의 언급이 보인다.

10리를 걸어와서 영실에 이르니,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怪石)들이 웅장하고 위엄있게 뻗뻗이 늘어서 있는데, 모두가 부처의 형상이며, 백이나 천 단위로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기가 바로 천불암(千佛巖) 또는 오백 장군이라고 하는 곳이니 산남(山南)에 비하면 더욱 기괴하고 장엄하다.³⁾

3) 行十里許，至靈室，高頂深壑，頭頭怪石，森列雄威，亦總是佛形，其數不但以百千計焉，即名千佛巖，亦所謂五百將軍也。

이처럼 한라산의 영실이 지니고 있는 기묘한 경관과 풍수적 상징성은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심안(心眼)을 줄 수 있는 명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제4혈 해두명(亥頭明)

‘제4혈’은 「해두명」으로 한라산 서쪽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마치 돼지머리 형상인 저두형(猪頭形)의 지세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일명 ‘돌두명’이라고도 불린다. 6대 음택혈(陰宅穴) 중 4대 혈처(穴處)가 모두 해발 1,200m 이상에 있음을 보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모든 오름을 망라하여 혈성(穴星)이 대개 산머리에 많이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름의 분화구(噴火口) 안쪽 또는 바깥 부분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육지의 산세와는 달리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 기생화산(寄生火山)의 지질적인 특징이나 형세(形勢)에 기인한 제주 특유의 풍수적 지세관(地勢觀)



사진 3-12. 윗세오름에서 본 한라산의 서쪽 능선 일대

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풍수는 대개 형기론(形氣論)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는데 사실 상 산의 형세(形勢)와 청탁(淸濁)은 풍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돼지머리 형상인 「해두명」 또한 풍수적 물형에서 기인하였는데 동물의 형상인 경우 그 해당 부위의 특징에 따라 기운의 강약이 따른다. 「해두명」은 전설적인 제주의 명혈(明穴)이며 그 정확한 혈처(穴處)의 위치는 아직도 찾지 못한 채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을 뿐이다.

제5혈 반득전(蟠得田)

‘제5혈’은 「반득전」으로 남원읍 「위귀리(웃귀)」와 「한남리」 지경에 위치한 산으로 마치 누런 뱀이 숲에서 나온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의 형국으로 일명 ‘반디기왓’이라고 하는 곳이다. 한라산에서 종출(從出)한 기운이 남원의 「민오름」에 힘차게 들어온 양명(陽明)한 기운이 충만한 땅이다. 「민오름」은 바로 「반득전」을 후탁(後托)하고 있는 현무(玄武)이다. 오성(五星)의 산형(山形)으로 달처럼 둥근 금형(金形)의 「민오름」이 원만하고 부드럽게 「반득이왓」을 감싸며 좌우로 길게 용호(龍虎)가 포옹하듯 호



사진 3-13. 반득전과 민오름

중(護從)하며 아늑한 지세를 만들어주었다. 「반득전」 안에 들어오면 마치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 용맥(龍脈)의 입수(入首)가 분명하고 청룡과 백호가 힘차게 환포(環抱)하면서 파도치듯 생동하는 기운을 머물게 한다. 조화로운 주변의 공간 배치로 인해 안정된 국세가 형성된 이곳은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선묘(先墓)가 있다. 전저고저(前低高低)의 지세에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을 가일층 안겨주는 곳이다.

제6혈 반화전(蟠花田)

‘제6혈’은 「반화전」으로 한림읍 누운오름 서쪽 방향으로 일명 ‘별진왓’으로 불리는 곳인데 소 1만 마리를 기르는 부자가 날 형세인 「서우독만(西牛犢萬)」으로 본다. 풍수적 형국이 마치 선인이 글을 읽는 형상인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또는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는 「옥녀단좌형(玉女端坐形)」의 산세를 지닌 곳이다.

이처럼 6대 음택혈(陰宅穴)과 6대 양택혈(陽宅穴)은 모두 <형국론(形局論)>의 입장에서 풍수적 해석을 하고 있고 제주의 풍수는 형기풍수(形氣風水)에 기초한 <형국



사진 3-14. 누운오름 일대

론>을 떠나서 말할 수 없다. 일찍이 제주의 지세와 형국에 대해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은 자신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또 말하길 산의 형국이 동쪽은 말, 서쪽은 곡식, 남쪽은 부처, 북쪽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 근거가 없는 말이고 오직 형국설(形局說)로써 유추하여 논할 수 있는데 산세가 구부러졌다가 펴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하는 형세가 분주히 달리는 말과 같고, 가파른 바위와 층층 벽이 뻗뻗하게 늘어서서 공읍(拱揖)하는 것이 부처와 같으며, 평평하고 광활한 것이 산만하게 갈라진 곡식과 유사하고, 북을 향해 껴안은 듯한 산세가 곱고 수려한 것이 사람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말은 동쪽에서 생산되고 불당은 남쪽에 모였으며 곡식은 서쪽에 잘되고 인물은 북쪽에 많을뿐더러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각별하다.⁴⁾

6대 명월이 지닌 풍수적 가치는 풍수적 요소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심미적 의식을 제공하고 제주가 지닌 독특한 산형과 지세를 가지고 21세기 새로운 관광 테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하겠다.

■ 6대 양택혈

제1혈 구아낭(狗兒囊)

제주의 6대 양택혈 중 '제1혈'은 형국이 마치 어미개가 새끼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면서 품에 안고있는 형상으로 소위「개젓고리형」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곳은 신제주 연동 도청 남쪽 일대로 알려진 일명 「구아낭」이라고 하는 곳이다. 연동의 동남쪽에

4) 又曰山之形局，東馬，南佛，西穀，北人。是皆無稽之論，惟以形局之說，彷彿想像則其屈伸高低勢若奔馳，似於馬，危嚴層壁，森列拱揖，同乎佛，平鋪廣遠，散漫離披，類乎穀，拱抱向北，妍美秀麗疑於人，故馬產於東，佛萃於南，穀宜於西，人傑多於北而向國之誠。



사진 3-15. 민오름에서 바라본 제주시 연동(좌)와 무악천보지하(戊岳千步之下)제주시민오름(우)

위치한 속칭 민오름(戊岳)은 형세가 어미개(母)의 형국이고 제주 MBC방송국의 동쪽에 있는 속칭 ‘개새끼’ 오름(가사지악(可沙只岳))은 새끼강아지의 형상으로 이 일대가 개의 젖 주머니에 비교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별칭이 생겨났는데 「구아낭」 외에 「구유낭(狗乳囊)」, 「귀아낭(貴兒囊)」, 「귀여낭(貴如囊)」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풍수적으로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만석군(萬石君)이 나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전해져 명당의 명당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이곳을 「귀낭동(貴囊洞)」으로도 불렀다.

현재까지 이곳은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사들 사이에서는 종종 「무악천보지하(戊岳千步之下)」라 하여 연동에 위치한 ‘남조순오름’ 동쪽 옆이면서 「민오름」 북쪽 아래쪽으로 천 걸음 정도 내려온 지점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지사들이 「구아낭」의 명혈지를 찾기 위해 온갖 정성과 열을 다 쏟았던 곳으로 만약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19대까지 급제하고 24대까지 부귀하고 발복하는 땅이라고 하니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 하는 본능의 표출이기도 하다. 태어남은 숙명이지만 땅은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기를 얻어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산천이 수려하면 뛰어난 인물이 나고 지령이 빼어나지 못하면 영준한 인걸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주의 풍수에서 음택은 물론 양택도 지세에 의한 형국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양의 수치를 방위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는 이기론

적(理氣論的) 풍수보다는 형세에 근거하여 길흉(吉凶)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형기학적 풍수론이 지배적이었다.

제2형 여호네(호천(狐川))/여온천(如溫川)/여온내

양택(陽宅)의 '제2형'은 지형(地形)의 고저(高低)가 없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 큰 신흥천(新興川)이 완만하고 평이(平易)한 곳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속칭 「여호내」라고 전해지는 「호천(狐川)」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예온천(禮溫川)」으로 불리며 양반들이 거주해온 「유양촌」이다. 발복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 「서남각」에 집터를 삼으면 발복한다는 풍수사들의 설에 따라 집터를 쓰니 나중에 호남까지 이름난 갑부가 태어났다는 등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옥토(沃土) 마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신흥2리는 신흥천이 마을의 양쪽에서 포근하게 감싸 안고 흘러가다가 마을 아래에서 합수하는 곳으로 지기가 양명한 곳이고 기운이 살아있는 곳이다. 합수된 안쪽에 마을이 위치하여 마을은 생기가 발현하고 지세가 완만하게 전저후고형(前低後高形)으로 양택(陽宅)의 길지(吉地)에 자리하고 있다. 「신흥천」이 청룡수(靑龍水)와 백호수(白虎水)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형국이 지형적으로 호형(狐形)과 비슷하지만 원래 지명(地名)은 양쪽 내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평하고 순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온순하다 하여 온천동(溫川洞) 또는 여



사진 3-16. 신흥천 전경

온천(如溫川)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풍수적 해석으로 말하면 신흥2리는 물형적(物形的) 요소와 양택의 명당지(明堂地)라고도 할 수 있는 뛰어난 지세로 인해 지명 속에는 여러 가지 풍수적 깊은 의미가 스며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마을의 고유지명과 유래에 대해 마을복지회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안내표지판의 내용이다.

「조선조 숙종 32년(서기 1706년) 설촌 당시부터 지금의 신흥2리를 여온내와 온천동으로 불려왔다. 두 개의 하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평하고 순하게 흘러가므로 양쪽 내가 다 온순하다는 의미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한자표기에 따라 「여온천」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후 서기 1902년 이 마을의 여러 동네가 변창하라는 뜻으로 신흥리(新興里)로 바뀌 부르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른다.」

풍수에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땅의 기운이 머물고 머물지 않는 것은 오로지 물의 흐름과 용맥(龍脈)의 변화에 있다. 「여호내」가 양택의 명지로 양명한 기운이 충만한 것은 지세에 의한 물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물의 본성은 동적이고 유동하며 흘러가는 것이나 안정된 지세를 만나면 잠시 쉬어가듯이 물도 평정을 이루며 물이 모이게 되며 동시에 기운도 머물며 흠어지지 않는다. 물이 머문 듯 흘러가야지 머물기만 하고 흐르지 못한다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는 형상이니 물이 썩기 마련이다. 썩은 물은 혼탁한 기운을 방출하고 생기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흐르면서 모이고 모이면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진정한 풍수에서의 임수(臨水)라고 할 수 있다. 신흥2리 「여호내」의 지세적인 특징은 높고 낮음이 없는 평이하고 완만한 곳에 물이 감싸 안으며 흘러가기 때문에 기운이 생동하는 양명한 기운이 이곳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풍수에서 물은 인체의 혈액과 같으며 기혈(氣血)이 원활하게 흐를 때 사람이 건강하듯이 산천의 대지도 산과 물이 조화로우면 기운이 충만한 것이다. 산과 물의 유기적인 관계는 풍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3혈 배염바리(사반형(蛇盤形))

‘제3혈’은 속칭 「배염바리」 집터로 유명한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한 「사반(蛇盤)」으로 마치 뱀이 몸을 둥그렇게 칭칭 감고 꼬리를 틀고 사려 있는 형상이다. 맞은편 동남쪽으로 ‘군메오름’이 물에서 팔딱 뛰어나온 개구리의 형세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때 「배염바리」 집터에 오므리고 사려 있는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날름 단숨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힘찬 기세로 볼 수 있다. 이 집터에 관한 발복의 이야기는 몇 대 동안은 큰 부를 누리다가 마당에 큰 돌이 튀어나오면 발복이 끊긴다고 어느 풍수의 신안(神眼)이 자손들에게 알려주었다 한다. 그러므로 돌이 나오면 이사를 갈 것을 알려 주었고 그대로 살 경우 오히려 큰 해가 닥친다고 했으며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알려 주었다고 한다. 돌이 튀어나와 발복이 끊긴 지금은 한 때 발복하여 번영을 누리던 이 집터도 밭으로 변해 콩,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을 뿐 쓸쓸히 세인의 관심 밖에 무상한 세월의 바람을 맞고 있을 뿐이다.

풍수의 형국론(形局論)은 대개 주객의 관계로서 상대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호랑이의 형국에는 반대편에 반드시 고깃덩어리처럼 생긴 안산이 있어야 하고 뱀처럼 생긴 형국에는 쥐의 형세나 개구리의 형세를 지닌 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형세에 따라 혈(穴)을 위치를 찾거나 취하는 것이지만 형기론 풍수라고 하여 모두가 다 물형론에 의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형세를 중심으로 작국을 취하지만



사진 3-17. 밭으로 변한 배염바리 집터

이기론적(理氣論的)인 요소를 조화시켜 음양의 변화를 추산하는 것이다. 「배염바리」 집터가 있는 「창천」은 「군산」과 「감산」이 개구리의 형상으로 조산과 안산으로 호종하고 후맥(後脈)은 「대병악」, 「소병악」, 「더데오름」, 「맑은오름」, 「거린오름」, 「북오름」 등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천지의 이치는 공평한 법이라 영원한 명당은 없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세도 변화하고 모든 물상(物象)은 변해가는 것이기에 세상에 고정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발복의 기간이 장단은 있지만 지기의 성쇠는 필연적인 것이다.

제4혈 한다니(한교(漢橋))

-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중천대교형(中天大橋形)

‘제4혈’은 한림읍 귀덕의 「신흥리(新興里)」에 있는 속칭 「한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의 지세를 맑은 밤하늘에 오작교(烏鵲橋)가 놓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는 형세에 기인하여 「중천대교형(中天大橋形)」이라고 말한다.

「한다니」의 지세에 의해 발복이 되면 만호(萬戶)의 집을 지을만한 큰 땅을 소유하는 부자가 나는 땅이라고 하여 ‘만호지(萬戶之地)’라고 불리는 곳이다. 다만 덕을 쌓지 않고 속세의 욕심을 가득 안고 얻게 된다면 하늘과 땅의 엄연한 이치에 따라



사진 3-18. 밭으로 변한 한다니 집터

그 쓰임을 올바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선(善)과 덕(德)을 중시한 풍수의 인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당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처럼 이것은 생전에 덕을 쌓은 사람만이 좋은 길지(吉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길지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며 적선(積善)과 음덕(陰德)의 조화로 스스로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여 소응(所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제주의 「6대 명당」은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의 도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욕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다니」의 지세는 한라산에서 뻗어 나온 맥이 서쪽의 여러 오름을 거쳐 흘러오다가 주변의 「초낭오름」, 「누운오름」, 「어도오름」 등으로 이어진다. 백호맥(白虎脈)인 「어도오름」이 「한다니」를 호위하며 따르고 청룡맥(靑龍脈)인 「초낭오름」이 호위하며 받쳐주고 있다. 전방으로는 바다 위 「비양도」가 안산이 되어 이곳 「한다니」의 지세를 받쳐주고 있다. 대체로 평이하고 완만한 지세에 위치한 「대림리」와 「귀덕리」 방면으로 밝은 기운이 가득하고 「한림천」이 청룡수(靑龍水)로 감싸며 나가 풍수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제5혈 의귀(의귀)

반득전(幣得田) 지맥을 이어받은 합수처(合水處)

‘제5혈’은 남원읍 「의귀(衣貴)」라고 하는 명혈지는 선조와 그들의 집터를 쓴 경주 김씨(慶州金氏) 가문인 김만일(金萬鎰)이다.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 돌아온 「김만일」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마축(馬畜)사업에 전력하게 되었는데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육마(育馬)사업이 번창하던 중 국력이 쇠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자 국난을 구하기 위해 조정에 필마(匹馬)를 헌상하여 그 공로로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되었고 이에 높은 벼슬인 「가선대부(嘉善大夫)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總府總管) 금위중질(禁衛中秩)」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와 「종일품(從一品) 승정대부(崇政大夫)」를 제수받는 등 제주 출신으로 최대의 영예를 누리며 명성을 떨쳤다.



사진 3-19.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집터

선대(先代)의 유덕(有德)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도 계속하여 감목관(監牧官)의 벼슬을 받았는데 「경주김씨」 종문(宗門)에서 83명이 대대로 「감목관직」을 물려받았다. 의귀(尉귀)의 지명은 군마(軍馬)와 양마(養馬)를 조정에 헌납하자 영조(英祖)임금(서기 1752년)은 후손들에게 옷 한 벌을 내려 이때부터 임금으로부터 ‘어의(御衣)’를 받은 마을이라고 하여 「의귀」, 즉 「의귀리(衣貴里)」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 한다. 이처럼 제주의 목축과 관련된 산장(山場)의 역사는 「현마공신 김만일」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 「김만일」에 대해 《제주선현지(濟州先賢誌)》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김만일(金萬鎰)」의 본관(本貫)은 경주(慶州), 자(字)는 중림(重臨)이다. 입도조(入島祖) 김검룡(金儉龍)의 7세손으로 명종(明宗) 5년(1550) 7월 정의현(旌義縣)에서 출생하였다. 제주의 경주김씨(慶州金氏) 가문을 중흥(中興)시켜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찍 문과(文科)에 오른 「김만일」은 타고난 성품이 출중하고 명석하여 도량이 넓었다. 선조(宣祖) 15년(1582), 순천부(順天府)에 있는 방답진(防踏鎭) 첨제절사(僉制節使)가 되어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목축사업에 뜻을 두어 선대로부터 내려온 마축(馬畜)의 개량번식에 전념하는 등 생업에 힘썼다.

이곳이 바로 6대 음택혈의 하나인 「반디기왓」인데 이곳에 선조의 묘를 써서 발복한 가문이 「반디기왓」에서 이어진 맥을 그대로 받은 「옷귀」에 집터를 잡았다고 한다. 이곳은 속칭 ‘옷귀’로 알려진 「의귀(衣貴)」인데 동쪽의 주맥에서 한 가닥 떨어져 나온 지맥이 바로 「반디기왓」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집 앞을 흐르는 하천이 반대편에서 물이 들어와 집터 양쪽으로 감싸 안고 합수하여 나아가니 자손이 번창하고 이름을 크게 날릴 형국이라고 보았다.

제6혈 어도(於道)「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

‘제6혈’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에 위치한 「어도(於道)」라고 전해지는 곳이다. 지세가 마치 봉황새가 둥지로 돌아오는 형세인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의 명지이다. 육지로부터 구산(求山) 차 제주에 내려온 개안(開眼)된 풍수의 신안(神眼)이 찾은 명혈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의 지명은 원래 ‘어도(於道)’라고 불리어 졌다가 지세에 맞지 않는 지명이라 큰 인물도 나지 않고 농민들의 생활도 힘들고 병질이 끊이 없



사진 3-20. 봉황이 둥지로 돌아오는 형국인 어도오름과 봉성리

어 마을의 이름을 고치자는데 전 향원(鄕員)이 동의하여 주민총회를 거치게 되었고 현재의 「봉성(鳳城)」으로 이명(里名)하게 된 것이다. 지형·지세에 맞는 마을 이름을 가져야 이웃 마을에 뒤지지 않고 발전하게 된다는 풍수적 믿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을의 후봉(後峰)인 「어도오름」이 봉황새의 형국과 같고 또 성(城)처럼 마을을 굳게 호위하듯 둘러쳐 있으므로 봉성(鳳城)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옥봉귀소형」의 지맥을 탄 이 오름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 15대 이상 자손이 발복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봉성리의 진산(鎭山)인 「어도오름」은 마을을 서북풍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어서 포근한 지세를 자랑하고 있다.

「어도오름」은 「봉성리」의 후산이며 서북풍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오름이다. 땅이 밝고 높지 않으며 포근한 지세를 자랑하는 「어도오름」은 「봉성리」를 중심으로 「어음리」, 「귀덕리」, 「대림리」, 「구물리」 등의 주변 마을에 안산과 조산의 역할을 하며 풍수적 공간배치를 조화롭게 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출맥한 용맥이 「바리메」, 「북돌아진오름」, 「새별오름」, 「이달봉」 등과 만나면서 여러 분기맥(分岐脈)을 형성하며 흘러가다가 그중 한 맥이 이곳 「봉성리 어도오름」으로 흘러내렸다. 「어도오름」이 봉성리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오름 아랫마을 쪽으로 마르지 않는 못이 빼어난 수기(水氣)를 자랑하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구물리」와 「봉성리」 사이로 「금성천」이 청룡수(靑龍水)가 되어 반대편에서 돌아오는 회류수(回流水)가 되어 흘러오고 외청룡인 「과오름」이 조산으로 조용한다. 마을로 들어온 「어도오름」의 맥은 고개를 돌려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으로 들어오고 동남방으로 종산(宗山)인 한라산과 크고 작은 오름이 만조백관처럼 마을을 환하게 조림하여 비친다.

금장지(禁場地)에 표출된 공동체적 의식

① 금장 문화

예로부터 금계(禁誡)라고도 할 수 있는 금장지는 일정한 장소에 장사를 금하는 금장신앙(禁葬信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에 입장을 금하는 원칙으로 만약 금장을 어겼을 경우 그 자손들이 재앙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금장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들이 줄지에 병에 걸리거나 가뭄으로 인한 한재(旱災), 흉작(凶作), 수재(水災), 풍재(風災), 화재(火災), 파산(破産), 패가망신(敗家亡身) 등을 당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 ‘금장지’라고 하는 것은 ‘금장지’ 자체가 지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명당지(明堂地)이다. 이것은 이미 그 명지에 타인의 묘(墓)가 들어서 있는데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하게 되면 고인의 존엄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자손의 발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로 내려오는 지맥의 혈에다 묘를 쓰면 개인은 발복하나 오히려 마을의 안녕을 깨고 원인 모를 재앙을 마을에 안겨준다고 믿어 금장신앙이 생겼으며 제주는 물론이고 육지에서도 금장신앙의 관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특히 마을을 보호하는 맥이 내려온 곳을 금장지로 정했고, 이미 뿔자리로 터를 잡은 타인의 묘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의식이었으며 일정한 구역



사진 3-21. 금장지의 산방산(좌)과 금장지의 군산(우)

내에 묘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망자의 존엄성을 모독하거나 자손의 번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조선 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금장을 법으로 정하여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다. 예전(禮典)편을 보면,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장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전(刑典)편에는 금장(禁葬)을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벌칙 규정까지 있다. 제주에서는 마을의 맥이 앞산에 있어서 만약 그 맥을 뺏자리로 사용하게 되면 그 마을이 천지신명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다고 믿어 금장지로 정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영달과 번영보다는 공동의 개념인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풍수신앙이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지던 고려(高麗)나 조선조(朝鮮朝)에 나온 하나의 금장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묘지 풍수를 중심으로 한 생활 의식이 처세적인 관념으로 구체적으로 표출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풍수의 목적이 지맥을 통하여 흐르는 생기를 받아 그 복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살아 있는 지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



사진 3-22.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 형국인 금장지의 별도봉

라서 개인이나 가문,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받아야 할 생기를 어떤 대상이 방해하거나 가로채는 것을 좋아할 리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 금장신양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주의 금장지

제주에서 금장지로 불리는 곳은 제주시에 소재한 별도봉의 명당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투구형(套鉤形)의 산방산이 대표적이다. 또한 마라도와 가파도는 ‘척후병형(賊候兵形)’, 제주 휴양소 뒤편에 있는 복진이모루는 ‘복병형(伏兵形)’으로 늘 중국을 넘보는 형국이다. 예로부터 왕이 태어날 왕후지(王侯之地)였던 군산(軍山)은 중국에서 지맥을 끊으러 파견 나온 호종단에 의해 맥이 끊겼다는 전설이 있다. 서귀포시와 안덕면의 경계선이며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하여 마치 산의 형상이 진을 친 듯한 군막형(軍幕形)의 군산은 산정의 봉우리 1,000평이 ‘재앙지(災殃地)’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마치 멀리서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유두(乳頭)처럼 커다란 암석 두 개가 우뚝 버티고 서 있어서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으로 관망하면 이곳은 마치 두 선인이 밝은 달을 바라보는 형국인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의 명당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곳을 입장(入葬)을 금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 3-23. 산방산(좌)과 군산 정상부(우)



사진 3-24.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 형국인 금장지의 별도봉

‘산담’에 표출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

육지의 묘(墓)와 달리 제주도는 묘 주위에 담을 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오름은 분화구 안쪽 또는 오름의 사면에서 묘지군(墓地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묘지의 담장인 산담은 음택풍수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여기에는 풍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 첫 번째로 제주도는 땅속에 석질이 많은 관계



사진 3-25. 묘역과 어울린 정물오름(좌)과 제주의 산담과 묘역(우)

로 토질이 얇아 대개 땅의 기운이 지표면에 가까이 흐르는 뜬 혈로 이루어져 천광을 깊게 파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배토장(培土葬)의 형식이 가미된 장법(葬法)을 어느 정도 취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묘지는 혈장을 보호하는 선익(蟬翼)이나 용호(龍虎)의 형성이 육지의 산형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혈에 모인 기운이 팔요풍(八曜風), 즉 바람에 노출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방법으로 산담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담의 크기와 높이로 집안의 지위를 은연중 나타내거나 목축으로 인한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풍수학적 견해로 볼 때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지세에 기인한 제주 선인들의 자연관과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관념적인 형태로 효의 정신에서 출발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을 들 수 있다. 먼저 산담의 형태는 사각형과 원형이 있는데 대부분 사다리꼴로 된 사각형의 산담이다. 산담은 제주 상례 절차의 하나이며, 장례 당일날 행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다른 날 길일을 택일하여 행하기도 한다. 산담의 목적은 묘지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묘역의 넓이와 산담의 크기로 집안의 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별초 때에는 산담 안과 산담 밖의 1m 정도의 외곽도 함께 별초한다. 산담의 한 모퉁이에 절개된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문(神門)'이라 하여, 망자가 산담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테면 묘는 망자의 집이요, 신문은 망자가 출입하는 문이요, 산담은 망자가 머무는 집의 울타리에 비교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제주민들이 조상에 대한 효 사상에서 기인했다고 보며, 산자와 죽은 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을 분리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살고 죽는 일은 우주 순환의 일정한 반복이며 순리이다. 살아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죽어 땅 아래서 휴식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생각한 생사일여관이 제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름에 묻히려는 귀소본능(歸巢本能) 의식

제주의 오름은 제주민에게 있어서 삶의 젖줄이며 큰 의지처이다. 섬 특유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름은 그들을 거센 바람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인 위안과 해탈을 안겨주는 등지이자 보금자리이다. 오름을 진산(鎭山)으로 삼아 마을 대부분이 오름을 뒤에 의지한 채 들어서 있다. 팔방(八方)에서 불어오는 살풍(殺風)을 안정시키고 섬 특유의 허한 지세를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한다.

오랜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오름은 늘 제주민에게 희망의 대상이자 삶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오름과 오름 사이로 사계절이 오가는 중에 오름은 안정과 위안을 형성해주는 삶의 등불이었다. 들녘에 점점이 배치되어 입체적 원망성을 제공해 주는 오름은 그 자체로 심미의 대상이며 예술품이다. 입체적 공간미와 원근의 극치를 안겨주는 오름은 그들에게 이상향처럼 다가왔다. 오름의 자락과 오름의 등성이에는 제주민의 삶이 농축되어 있으며 선조들의 땀과 해학이 오름마다 절절히 배어 있다. 오름의 자양분을 먹고 오름의 품에 삶의 고단함을 풀어 놓으며 삶의 의지를 불태워 왔다. 오름 그 자체가 제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몸과 수족에 비유되었으니 목숨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그 오름의 품에 묻히기를 희구하였던 것이다. 오름은 마을에 기운을 모아 주고 허한 부분을 막아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해 주기도 하지만 한라산으로부터 출맥(出脈)한 지기(地氣)



사진 3-26. 오름이 품은 묘역 전경

가 잘 모이는 오름의 곳곳에 뼈를 묻는 망자의 고향이기도 했다.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오름은 방위에 따라 현무(玄武)인 후산(後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안산(案山)이 되기도 하며 청룡과 백호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제주 풍수에 있어서 오름은 제주 풍수를 이루는 일등 공신이 된다.

이처럼 제주민들에게는 ‘오름에서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라는 의식이 저변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본래 살았던 서식처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원래의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귀소본능(歸巢本能), 혹은 회귀본능(回歸本能)이라고도 한다. 기타 동물이나 어류(魚類)가 원래 살았던 집의 방향을 알고 돌아오는 성질을 귀소성(歸巢性)이라고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귀소본능(歸巢本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진 3-27. 맥(脈)을 따라 들어선 묘역

사실 풍수는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학문이다.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삶을 지향하는 음양의 순리론(順理論)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생장 소멸한다. 땅은 순환하는 인체의 기혈처럼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큰 생명체이다.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제주민은 대자연이며 지모(地母)인 한라산과 오름의 품 안에서 순환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민의 풍수관은 결코 부귀발복(富貴發福)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물론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을 찾으려면 찾기도 힘든 것이다. 오름이 몸살을 앓으면 제주민도 더불어 몸살이 나는 것이다. 제주민은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았으며 대지모(大地母) 사상을 위주로 하여 한라산을 낳아 길러 준 어머니로 보았다. 그 품 안인 오름을 사이에 두고 사는 인간을 자식으로 간주하여 애지중지한 것이다. 제주민은 오름에서 태어나 결국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의 따스한 품을 잃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오름이 파괴될 때 우리도 함께 절멸(絶滅)한다는 이치와 통한다. 그러므로 태어나 돌아가 마지막 누울 자리는 바로 오름인 것이며 제주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귀소본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라산으로부터 이어진 지맥과 이에 따른 단혈(斷穴) 전설

풍수에서 명당이란 산천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땅이다. 명당이 많은 곳에는 단혈(斷穴)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명당은 지리적 조건에 의하지만, 압승(壓勝)이나 단혈은 길흉화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주의 산천에 대해 풍수학적으로 구전되어온 전설이 많다. 특히 그것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용의 주류는 제주의 지리가 매우 뛰어나 지맥에 힘이 있고 당당하여 도처에 생혈(生穴)이 맺히는 명당이 많아 장차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될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려하여 땅의 기운이 흐르는 맥(脈)을 미리 끊어서 인재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단혈’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지세가 좋다고 알려졌으니 명당과 관련하여 단혈에 대한 전설이 많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주에는 호종단과 관련된 전설이 많은데, 호종단은 제주의 지맥을 잘랐다는 중국의 지관을 말한다. 이야기의 핵심은 중국 송나라의 황제가 풍수지리서를 살



사진 3-28. 하도 철새도래지와 지미봉(좌)과 꾀고리오름 기슭에 있는 샘물(우)

피다가 탐라국의 지세가 보통이 아님을 간파하고 후에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단혈에 능한 호종단을 탐라국으로 급파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도착한 호종단은 제주도 동쪽 종달리(終達里)에 도착하여 차례대로 혈을 뜨며 지맥을 끊어 갔는데, 한라산신의 방해로 모든 혈을 다 뜨지는 못하고 귀로에 올랐다가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전해진다. 비록 호종단이 제주의 혈을 다 뜨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하여 제주에는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설의 주요 내용이다.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인 풍수사가 제주에 내려와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맥을 끊었다는 호종단의 풍수 전설은 일반적으로 조선 초 명나라의 풍수사 서사호(徐師昊)가 단천(端川)에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다 하여 지맥을 끊었다는 전설과 임진왜란 당시 중국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李如宋)이 조선 땅 곳곳의 맥을 잘랐다는 전설보다도 몇백 년이나 앞선 12세기 초의 일인 것이다. 탐라국이었던 제주도는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고려 왕조가 탐라국을 고려로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풍수 침략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전설 속에 나오는 호종단은 중국인임이 확실하나 지맥을 끊어 인물이 나오지 않게 한 풍수 침략의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 고려 왕조라고 보는 맥락도 의미 있는 추론이다. 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호종단은 중국 송나라의 복주(福州) 사람으로서 일찍이 중국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으며 상선(商船)을 따라 고려에 들어왔다고 한다. 호종단은 비보진압술(裨補鎮壓術)의 하나인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나 예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예종이 죽고 나자 고려사의 사관(史官)은 예종이 지나치게 호종단의 풍수설에 빠졌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예종(睿宗)에 이어 인종(仁宗) 때도 호종단은 ‘기거사인(起居舍人)’의 직책으로 왕의 측근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고려사에는 호종단의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호종단과 제주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전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호종단(胡宗旦)의 지압설(地壓說)

일설에 의하면, 고려 제16대 예종(睿宗) 때 중국 송(宋)나라의 황제가 지리서를 살피다가 당시 탐라국의 지리가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형국의 기운이 생동하며 맥(脈)의 기세가 힘차고 당당하여 장차 이 지기(地氣)를 받게 된다면 나라를 이끌 왕은 물론 걸출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송나라 왕은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풍수와 잡예(雜藝)에 조예가 깊고 특히 압승술(壓勝術), 즉 단혈(斷穴)에 뛰어난 복주(福州) 사람 호종단(구전으로는 고종달(高宗旦)로 통합)으로 하여금 탐라국으로 들어가서 인재가 나올 만한 땅의 맥을 모두 끊어버리도록 지시하였다. 호종단은 왕의 명을 받고 제주의 들어오자마자 즉시 갖고 온 지리서(地理書)를 바탕으로 명당의 생혈(生穴)을 찾아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땅의 맥을 차례로 끊어나갔다. 찾은 맥의 생혈에 침을 꽂아 가면서 땅기운이 흐르지



사진 3-29. 단산 능선 사이로 보이는 산방산

못하게 산천의 정기를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일설에 의하면 동쪽은 지금의 구좌읍(舊左邑) 종달리(終達里)로 추정된다.

호종단이 홍로(洪爐)지경에 이르자, 지리서에 적힌 대로 물기운이 빼어난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지맥을 찾으려고 그 주위를 수없이 오가며 돌아다니고 있을 즈음 마침 그 주변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이때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움을 청하길 “저곳에 있는 물 한 그릇만 떠다가 소길마(소의 집바구니) 아래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아도 절대로 모른다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 버렸다.

농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노인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사정에 자신의 점심 그릇인 행기(烹그릇)에 샘물을 가득히 담아 부탁한대로 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지리서를 펴든 호종단이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다가와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 어디냐고 묻자, 농부는 조금 전 노인의 애절한 부탁도 있고 해서 처음 듣는 지명이라고 말했다. 호종단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며 한참 동안 지리서를 몇 번이고 검토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 주위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순간 샘물을 떠다 놓은 그릇에서 그 백발노인이 나와 농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백발노인이 바로 수신(水神)이었던 것이며 지리서에 나타난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맥은 바로 소길마 밑에 놓인 물그릇이었던 것이다. 수신은 가까스로 밭 가는 농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게 되니 호종단은 결국 홍리 지경의 지맥을 끊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종단은 이 지역에서 비록 ‘단혈’에는 실패하였지만 계속하여 서쪽으로 나가면서 곳곳의 지맥을 끊어 나가다가 산방산 부근인 지금의 안덕면(安德面) 사계리(沙溪里) 지경에 이르렀다. 이곳의 지맥은 지리서에 장차 왕이 태어날 왕후지(王侯之地)로 되어 있었다. 호종단이 둘러보니 그곳은 바로 용머리였다. 이에 호종단은

가차 없이 용의 잔등을 끊어버렸다. 그 끊은 자리에서 붉은 선혈이 솟아나자 그는 더욱 힘을 내어 용의 잔등을 토막토막 끊어 나갔다. 이윽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잔등같이 한참 동안이나 꿈틀거리던 땅이 신음 소리를 내다가 그치자, 그 잔등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을 붉게 물들였고 이로 인해서 결국 탐라에는 나라를 이끌 왕도, 어떤 용감한 장수도, 출중한 학자나 인재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인물이 나올 지맥을 거의 다 끊어버리고 송나라를 향해 귀로(歸路)에 올랐던 호종단은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 부근에서 한라산신의 노여움을 받아 결국 태풍을 만나게 되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탐라의 수호신이 독수리로 화(化)하여 호종단의 횡포에 보복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이 영렬(英烈)함을 숭경(崇敬)하여 차귀당(遮歸堂)을 건립하고 제사를 올려 호종단이 ‘돌아감을 막다’라는 한자어인 ‘차귀(遮歸)’를 붙여 ‘차귀도’라고 붙였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구전되고 있는 호종단의 ‘단혈’에 관한 전설이다. 내용 중에서 홍로(洪爐) 지경은 지금의 서귀포시 서홍동(西洪洞)으로, 그곳 샘물의 이름이 지장천(智藏泉)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구 표석(標石)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려(高麗) 예종(睿宗)(서기 1110년) 때 송나라에서는 탐라에 인재가 태어난다는 풍문이 떠돌아 송나라 조정에서는 압승지술(壓勝之術)이 능한 호종단(胡宗旦)에게 탐라에 가서 십삼혈(十三穴)을 모두 막으라고 명하였다. 호종단이 처음 지금의 「남원읍 의귀리」를 경유하여 홍로지경(洪爐之境)⁵⁾에 있는 샘을 찾아 나섰다. 호종단이 홍로에 닿기 전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점심 그릇인 행기에 물을 가득히 담아 소 짐바구니 속에 감추면서 “만일 누가 와서 이 물을 찾더라도 모른다고 해주세요.” 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윽고 호

5) 홍로(洪爐)지경은 지금의 서귀포시 서홍동(西洪洞)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 샘물의 이름이 지장천(智藏泉)이다. 지세의 형상이 용(龍)의 머리와 비슷하여 「용머리」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지금도 마치 용의 잔등과 꼬리가 잘린 듯한 형상이 남아있다.

종단이 나타나 농부에게 물었으나 농부는 모른다고 했다. 호종단은 근처를 헤매면서 물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으므로 탄식하며 자기의 술서(術書)를 찢어 버리고 돌아가 버리자 농부는 백발노인이 시킨 대로 감춰두었던 물을 갖다 부으니 거기서 맑은 물이 흘러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물은 지혜롭게 감추어졌다고 하여 「지장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장천이 있는 서흥동의 지세는 풍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청룡과 백호가 좌우를 감싸고 현무가 견고하게 후탁하고 있어 그사이에 마을이 있고 지장천으로 득수(得水)하니 생기가 가득하고 양명한 곳이 되어 속세 속의 선경을 자아내는 듯하다. 지장천은 서흥동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중요한 샘이며 동시에 역사성과 문화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곳이기에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형상이 용머리라 불리는 용머리해안에는 지금도 마치 잔등과 꼬리가 잘린 듯한 형상의 지형이 남아 있다.

제주도는 지질의 특성상 샘이 드물 뿐 아니라 예로부터 물을 위주로 경작하는 논의 귀하였다. 때문에 제주민들은 언제나 물이 부족해 식수난(食水難)을 겪어야 했



사진 3-30. 지장천 전경(좌)과 지장천 전경(우)



사진 3-31. 호종단이혈을 끓였다는 용머리해안

다. 풍수에서 땅과 물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수맥은 곧 땅의 기운과 연결된다. 물이 흐르지 않거나 수맥이 끊기면 땅에 살아 있는 기운이 흐르지 않는데, 물은 기(氣)의 경계이며 동시에 기혈(氣血)과 핏줄의 역할을 한다. 산이 가는 곳은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은 산이 따른다. 산과 물이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땅은 곧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한다. 지리적 환경은 곧 물의 어려움을 수반하였기 때문에 주식(主食)은 대체적으로 조나 보리 혹은 감자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쌀이 귀하여 당시에는 쌀밥을 구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덧붙여 탐관오리들의 득세와 외세의 침탈은 제주민들의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척박한 조건에서 삶을 영위했던 제주민들이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관은 제주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섬이라는 한계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리적 특수성 외에 풍토적인 상황과 역사적 불모성조차도 제주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에게 형상화 내지는 상징화의 산물로 그들만의 독특한 관념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식은 풍토적인 지리사상과 관련되어 숙성되었는데, 그중 자연 전설의 대표적인 것들이 ‘호종단(胡宗壇)형 전설’을 위시하여 ‘성산일출봉 전설’, ‘아흔아홉골 전설’ 등이다.

여기에서 풍수 전설의 주류를 이루는 호종단(高宗壇)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자. ‘호종단(高宗壇) 전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마다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중국 송나라 왕 혹은 진시황은 제주가 왕후지지임을 알고 후환이 있을까봐 걱정을 한다. 먼저 결출한 인결들이 나지 못하도록 급히 ‘압승’과 ‘단혈’에 능한 풍수사 호종단(高宗壇)을 탐라국(제주)에 파견한다. 호종단은 제주에 들어와서 동쪽부터 서쪽을 향해 뛰어난 인물이 나올 왕기(王氣)가 서린 여러 곳의 지맥과 수맥을 끊어 버렸는데, 그 결과 제주에는 출중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되고, 지맥을 이어주는 샘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중심적인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호종단(高宗壇) 전설’은 제주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설로 파생되어 구전으로 유포되어 왔다.

이상의 전설에서 의미하듯 풍수학적으로 지맥(地脈)을 끊으려 한 ‘호종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산천의 땅과 물을 사람의 몸에 기혈(氣血)이 순환하는 이치와 동일시하여 중시한 선조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고장에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거나 솟지 못하면 생기(生氣)가 맺히지 못하는 땅의 조건임을 암시한 풍수관이 깔려 있으며, 물이 귀했던 당시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전설이기도 하다. 또 제주에 널리 전해져오는 대다수의 풍수 전설이 불모지에 쌓아 올린 제주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전설의 이면에는 제주인 특유의 민중의식도 더불어 찾아볼 수 있다.

샘과 관련한 풍수 전설

① 물·바람·땅의 조화 추구

예로부터 물과 산의 조화를 치산치수(治山治水)의 큰 덕목으로 내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생명체로 보는 ‘자연생명관’이라 할 수 있다.

산에서 발하는 생동하는 기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맥(龍脈)을 타고 내려간다. 힘차게 흘러가다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되어 기운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사진 3-32. 입산봉 분화구 안의 연지(蓮池)(좌)와 선흘 꽃자왈 습지(우)

바로 이러한 지점이 곧 양택의 좋은 길지가 되거나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명당이 되는 것이다. 《지리오결(地理五訣)》에서 물은 산의 혈맥에 비유되어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귀신과 같다고 했다. 지기(地氣)는 고저기복(高低起伏)의 변화를 거듭해야 생기가 발현하는데 기운이 그치는 곳은 반드시 물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풍수의 고전으로 읽히는 《금낭경(錦囊經)》에도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이르면 머문다(氣乘風則散, 界水則止).’라고 했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기운이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존재 그 자체이며 생물체와는 절대적인 관계이다. 인간의 몸은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은 생태계에 있어서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풍수학에서 양택의 좋은 집터나 음택의 좋은 명당도 물과 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이 가면 물이 따르고 물이 가면 산이 따라야 한다. 물은 기운의 경계를 짓는 곳이 된다. 산과 물이 균형을 이룬 지역은 명당을 이루나 주위에 감싸주는 산이 없이 탁 트인 큰 강이나 바닷가 가까이에서는 명당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바닷가나 큰 강가에서도 명당이 얼마든지 나온다. 그것은 주변에 좋은 산이 있어서 물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걸러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풍수의 고전

인 《금낭경》에서 “풍수의 법은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바람을 감추는 것은 그다음이다(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고 했다.

따라서 물과 관련한 제주의 풍수 전설은 지맥과 혈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물은 지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도의 풍수 전설에서 지맥을 끊으려 한 호종단의 이야기는 그 당시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사는 고장에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기가 맺히지 못하는 땅의 조건을 암시하는 물과 관련된 전설이다. 제주의 풍수 전설에 물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의 전설이 대표적이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은 장수가 태어났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중국 황실(皇室)에까지 알려지자 두려운 마음에 중국에서는 제주도의 지맥을 끊기 위하여 풍수사를 급파한다. 중국으로부터 급파된 압승술의 달인인 호종단과 관련하여 수맥(水脈)을 숨긴 전설이 있는데, 그중 잘 알려진 ‘거سن샘이’와 ‘노단샘이’에 얽힌 샘물의 전설이다. 이 샘물은 표선면(表善面) 토산리(兔山里)의 위아래 마을 사이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말한다.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흘러 ‘거سن샘이’



사진 3-33. 거سن새미 표석(좌)과 전설이 깃든 거سن새미(우)

라 하고, 한 줄기는 바다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샘물이라는 뜻에서 ‘노단샘이’라고 한다.

전설상에 ‘종달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胡宗壇)이 수혈(水穴)을 모두 끊어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다행히 이 마을의 ‘거슨샘이’와 ‘노단샘이’만은 수혈(水穴)을 숨겨서 지금도 솟고 있다고 한다.



사진 3-34. 맑은 물이 샘솟는 노단새미

4. 한라산과 오름의 지세로 본 비보(裨補)·압승(壓勝)의 풍수관

한 고을이나 부락의 지형·지세가 불길하여 기의 응집(凝集)이 부족하거나 허(虛)한 상태라 해도 이미 주거 집단의 생활 터전이 형성된 곳은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풍수설은 좋은 길지를 다른 곳에 구해서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형의 부족한 요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력(地力), 즉 땅힘을 보충하는 등의 비보(裨補)나 불길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풍수상의 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압승(壓勝)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서 주변 땅의 형세가 지니고 있는 지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보와 압승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발전되어 왔다. 압승은 너무 강한 땅의 기운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다. 비보의 관념은 풍수학뿐만 아니라 고대 원시인들이 어떤 영력을 지님으로써 약한 힘을 강하게 하고자 한 차력신앙(借力信仰)이나 주부(呪符)신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보·압승의 대표적인 방법은 진호(鎮護)를 위한 풍수탑(風水塔)과 보허(補虛)를 위한



사진 3-35. 골왓방사탑 전경(좌)과 인성리의 방사탑(우)

조산(造山)과 방살위호(方殺衛護)를 위한 압승물(壓勝物)을 말한다. 비보 풍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허한 곳에 인위적으로 만든 조산이나 서낭당, 선돌의 방법으로, 사람과 관련한 남근석(男根石)이나 여근석(女根石), 득수(得水)의 유무와 관련한 비보수(裨補樹), 지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풍수적 지명(地名)의 작명, 장승, 현판 등도 비보 풍수의 한 방법에 포함된다.

사탑비보론(寺塔裨補論)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보론(裨補論)은 통일신라시대 말엽 선승인 도선대사에 의해 체계화를 이루어 발전했으며, 주요 목적은 산천의 형국이 허하거나 부족한 곳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절과 탑을 세워 생기가 돌고 기운이 모이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산천의 기운이 흩어져 달아나는 곳에 탑을 세워 기운이 새지 않고 멈추게 하여 생기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은 주위의 형세가 풍수에서 말하는 사신사(四神砂), 즉 청룡(靑龍: 왼쪽의 산), 백호(白虎: 오른쪽의 산), 주작(朱雀), 현무(玄武)가 당판(堂板)을 중심으로 일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동쪽으로는 감싸며 흐르는 물이 유유히 나가고 남쪽에는 기운이 머물게 하는 경계인 연못이 임하고, 서쪽에는 기운의 조화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큰길이 감싸듯 나가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등을 받치듯 안정되고 어머니 품 것처럼 편안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명당이 된다고



사진 3-36. 용의 형상인 용두암(龍頭岩, 좌)과 어머니가 애기를 업은 형상(우)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당 방위 쪽으로 허하게 보이면 그것을 나무나 돌 또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지형지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쪽에 흐르는 물줄기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아홉 그루 심는다든가, 혹은 남쪽에 연못이나 물을 얻지 못하면 오동나무 일곱 그루를 심어 대체하는데, 그러면 생기가 모이는 좋은 땅이 되므로 재난이 없이 번창하며 행복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 도선 대사의 이 사탑비보론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개경 등의 한 나라의 수도를 결정하는 도읍풍수는 물론 건축물에 해당하는 집터, 사찰, 정자, 마을, 서원 등의 입지를 포함하여 인위적인 정원의 조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지형이나 지세의 결함이 있는 곳에 인위적인 조산이나 제방을 축조하거나 숲을 조성하기도 하고, 생기가 흐르는 지맥을 차단시키거나 손상시킨 건축물 등을 헐어내기도 했는데 이것을 풍수에서는 양택 또는 양기풍수라 하는 것이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비보진압(裨補鎮壓)을 중시한 풍수로 전 국토의 명당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불교와 호국의 두 가지 관점이 중시되어 이른바 호국적 성격을 띤 불교 풍수가 유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려 신종(神宗) 원년(1197년)에 설치된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으로, 이 관청에서 그 일을 별도로 관장했다고 한다.



사진 3-37. 용의 형상인 용두암(龍頭岩, 좌)과 어머니가 애기를 업은 형상(우)

제주에서 비보압승에 관한 일화를 든다면, 발복(發福)의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식산봉 언저리에 있는 장군석(將軍石)을 부숴 버린 전설과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에 얽힌 슬픈 전설이 있다. 또한 흥협한 기운을 안고 있다는 단산의 주변 마을에서는 일명 ‘박쥐오름’쪽이 풍수적으로 허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을 침범하는 액을 막기 위해 산과 마을 중간에 4개의 ‘거옥대’, 즉 방사탑(防邪塔)을 쌓았다고 한다. 또한 인성리 마을과 그 반대쪽에 위치한 사계리 마을에서도 방사탑을 쌓아 단산의 흥협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보압승(壓勝)에 관한 풍수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풍수이론 자체가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명당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진 3-38. 방사탑과 단산

사람이 거의 없듯이 산천 지리의 좋고 나쁨을 떠나 땅의 생리에 맞추어 인위적인 보완과 이완이 필요할 뿐이다. 허실은 분명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강하면 누르고 설기(泄氣)시키며 약하면 보충하고 키우는 상대적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명당은 허실을 따져서 보완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천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명당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땅도 생리에 맞게 보완해 가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제주의 방사탑(防邪塔)과 돌담

제주에서 비보의 형태는 돌과 관련한 방사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허한 곳을 막아 비보(裨補)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에서 보아 그 허(虛)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치 산용(山龍), 즉 산 능선의 형태로 높고 낮게 쌓은 돌담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동시에 방사탑을 2~3m의 높이로 쌓아 허한 곳으로 침입하는 살풍을 막아주고 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외부에 다른 섬이나 가까이 조산과 안산이 없는 곳이면 대체로 방사탑을 위시하여 돌담을 겹겹으로 쌓아둔 곳이 많다. 돌담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친 것은 바람막이가 없는 허한 해안에서 불어 닥치는 강한 해풍으로부터



사진 3-39. 무릉리의 방사탑(좌)과 해안의 돌담 전경(우)



사진 3-40. 신흥리 바닷가에 위치한 방사탑

터 살풍을 걸러주는 역할로 삼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선인들이 풍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 본다.

오름은 마을의 진산(鎭山)

풍수에서 말하는 내룡(來龍)의 맥절(脈節)이 이어진 곳으로 묘지 뒤에 높게 솟은 산을 말하며, 주산(主山) 또는 후산(後山)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마을이나 묘지에는 이러한 산이 있다. 마을의 경우는 이 주산이 마을을 수호하여 준다고 하여 진산(鎭山)이라고 한다. 진산은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는 마음에서 풍수적으로 허(虛)한 부분을 막아 주는 기능도 함께 했다고 본다. 풍수의 고전으로 꼽는 《장경(葬經)》에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氣乘風則散).”고 했다. 마을을 휘감고 있는 생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이 쇠퇴한다고 보는 선인들의 지혜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리의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제주도는 장축이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약 70도(度) 정도 기울어진 (N70E) 달걀 모양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부속도서(附屬島嶼)로 유인도(有人島) 8개, 무인도(無人島) 54개로 모두 62개 섬을 거느리고 있는 섬이다. 등고선(等高線)으로 보면 1,950m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심원(同心圓)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



사진 3-41. 고근산 전경

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연상케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주거지가 해안선을 따라 바다에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바람에 노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남쪽 모슬포 지역이 바람이 가장 강하다. 바람은 혹독하나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지리적으로 태풍의 진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잦은 태풍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제주민은 바람의 침입이 용이해 허한 곳을 풍수적으로 보완하는 장풍(藏風)의 생활 문화가 싹텄다. 그러한 영향은 생활의 주거지인 양택, 돌담, 남동향의 묘지 등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기후는 겨울이 혹 따뜻하고, 여름이 혹 서늘하나 일기 변화가 많아 바람과 공기는 따뜻한 것 같으나, 사람에게게는 매우 몹서리날 만큼 날카롭고 사람의 의식(衣食)에 알맞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나기 쉽고, 더욱이 운무(雲霧)가 항

상 음침하게 가리우고, 하늘이 맑게 갠 날이 적으므로 거기에 대하여 질풍과 괴이한 비가 솟구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어서 찌는 듯이 덥고 축축하므로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또 땅에는 벌레들이 많음에 더욱이 파리와 모기가 심하고, 무릇 지내와 개미와 지렁이 따위의 여러 가지 우글거리는 벌레들이 겨울이 모두 지남에도 죽지 아니하여 매우 견디기 어렵다….

…氣候 冬或溫 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 而着人甚尖利 人衣食難故 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 晡少開霽 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又地多蟲類 蠅蚊尤甚 與凡蜈蚣等 諸雜蠹雷之物 皆經冬不死 甚爲難堪….

이처럼 척박했던 땅에 사계절의 기후마저 불규칙하였고 잦은 태풍과 더불어 겨울의 서북풍과 매서운 바람은 건축의 양식과 주거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오름은 기(氣)의 흠어짐과 바람을 막는 장풍(藏風)의 역할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지켜 주는 진산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돌과 관련한 풍수 전설

대체적으로 제주도의 풍수 전설 내용은 지관(地官)과 관련한 이야기, 금장에 관한 이야기, 지형과 지맥에 관한 이야기, 묘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축을 이룬다. 돌을 쌓거나 세워서 허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사(防邪)의 기능이 주된 목적이지만, 때로는 주변의 험한 지형지물에 의해 조화로운 기운을 파괴하는 살기를 감추거나 흉험한 기운을 막았던 예가 돌과 관련하여 나오는 풍수전설이 있다. 전통적으로 대개 풍수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지형에 압승과 비보의 한 형태로 사찰이나 탑, 인조산(가산), 돌무덤, 장승, 선돌, 솟대 등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것은 음택인 묘지 풍수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주거하는 양택(집터)과 마을과 같은 집단이나 양기(陽基: 마을, 도시) 풍수가 주축이 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압



사진 3-42. 날카로운 도끼의 형상인 도치돌(좌)과 미륵의 형상인 미륵돌

승은 너무 강한 땅의 기운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가산(假山)에 대해 “흙을 쌓아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으니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가 설기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가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가산은 산이나 지형지물이 허하고 부족한 곳의 지세(地勢)적 결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裨補)의 형태로 생겨난 것이다. 가산은 선돌이나 장승, 돌무더기, 당산(堂山), 솟대, 탑(塔), 동수(洞藪), 당간(幢竿)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징물들은 예로부터 마을을 흉년이나 재앙, 괴질이나 전염병 등 모든 재해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방위적으로 허한 곳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氣)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여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였다. 산천과 관련된 비보의 방법으로는 풍수 도참설(圖讖說)을 근거로 국가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군왕의 장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찰에 위치시키기도 했다.

마을이나 읍에 비보의 방법으로 지맥이나 수구(水口)가 허한 곳을 보충하기 위해 세우기도 했으며,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찰의 앞이나 입구에 세워 사찰 내의 청정한 의미와 존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렵이나 혹은 농경과 관련하여 땅의 경계표 역할을 했으며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역병

(疫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길한 일 등 재앙의 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문(城門)을 지키는 상징적 수호 역할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당시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하여 득남을 바라고 생활의 풍요를 기원하는 일명 기자(祈子)의 상징으로 선돌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선돌은 마을마다 안녕을 기원하고 희망을 바라는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제사신앙이 함께 수반되어 있다. 또한 그에 관한 특이한 전설이나 영험한 이야기 등을 지니고 있어 마을주민들에겐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대상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상황과 기능에 따라 선돌의 축조 목적을 오랜 원시사회의 정령숭배(精靈崇拜) 사상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선돌의 외형적인 모양이 마치 남성(男性)의 생식기(生殖器)와 비슷한 데서 연유하여 당시 고대 원시사회에서 생식기는 풍요와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비교되었으므로, 하나의 신앙의 대상물로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선돌을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선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의인화(擬人化) 또는 신격화되면서 기자암(祈子岩)이나 수호신(守護神) 같은 역할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돌이 세워지는 장소는 대체로 평지인 마을의 어귀가 대부분이고, 곳에 따라 지리적 특성으로 간혹 구릉 위나 비탈에 세워진 것이 발



사진 3-43. 골앗마을 방사탑(좌)과 무릉리 방사탑(우)

견되기도 한다.

풍수의 형태로 선돌이 이용된 것은 마을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수호하는 방사(放邪)의 기능을 지니는 한편,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돌을 쌓아 조화로운 기운을 유지하려는 비보의 목적과 동시에 마을에 침입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풍수의 대표적 형태로 돌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마을 어귀나 밭의 한 가운데에 돌로 쌓은 원통형 돌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사기(邪氣)와 악(惡)을 막아내고 마을을 편안하게 하려는 방사(防邪)의 풍습으로서 이것을 제주에서는 방사탑(防邪塔)이라고 부른다. 육지의 마을 어귀에 있는 솟대나 장승과 같은 것에 해당된다. 또한 신흥리에는 유일하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방사탑을 볼 수 있는데, 방사탑은 예로부터 사악한 것들을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불러준다고 하여 제주민에게는 속신(俗信)처럼 인식되었다.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서남쪽과 동북쪽은 이귀문(裏鬼門)과 귀문(鬼門)의 방위로 기운이 설기되는 방향인데, 동북방은 부정과 악이 들어온다고 믿어 집 뒤편에 복숭아나무들을 심어 사악한 기운과 액을 막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돌과 관련된 방사탑은 제주도 전체의 액을 막는 상징이 되었다. 이에 제주 사람들은 방사탑을 ‘답’ 또는 ‘거옥대’라고도 부른다.

제주는 지질 구조상 특히 돌이 많은 곳으로서 그 많은 돌을 치우고 흙이 적은 경작지를 일구고 가꾸어야 하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삶의 한 형태로 변화시킨 돌 문화를 보면서 제주민들의 자연풍수관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돌과 관련한 전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천석(朝天石)의 풍수 전설

원래 조천관은 조천리의 옛 지명으로서 부산(釜山)과 인천(仁川)을 포함하여 3관(三館) 중의 하나로 당시 제주목(濟州牧)의 출입 항구였는데, 조천석(朝天石)은 이 선



사진 3-44. 조천의 연북정

창가에 있는 아주 큰 바위를 말한다. 원래 조천관이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유래된 것인데 배들이 정박할 때 이 바위에다 닻줄을 걸어서 매곤 하였다.

어느 때인가 중국으로부터 이름난 지관이 와서 이곳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서 “저 큰 바위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감추시오. 만약에 바위를 감추지 않으면 이곳 조천에는 성품이 불량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니, 이 바위를 감추게 되면 훌륭한 인물이 대대로 끊이지 않게 될 것이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당시 조천면 관내에 있는 9개 리(里)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城)을 쌓게 하였고, 아울러 이 조천석을 흙으로 덮어 매우고는 크고 둥글게 높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는 이곳에 정자(亭子)를 지어 쌍벽정(雙壁亭)이라 했다가 후에 연군(戀君)의 의미를 붙여 연북정(戀北亭)이라 고쳤다. 이렇게 조천석을 감추고 그곳에 정자를 지은 후로는 조천에서는 삼대 문학이 나왔는가 하면 현감(縣監)이나 군수(郡守)를 비롯해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 수없이 배출되었으

며, 만호(萬戶)의 큰 부자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풍수에서 명당의 기운이나 흉험한 기운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차단하거나 제압하는 압승술의 한 방법으로, 동네 앞이나 주변에 흉한 형상의 지형지물이 있으면 살기가 되어 불리하니 풍수상의 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압승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대림 선돌에 얹힌 풍수 전설

바닷가를 돌다 보면 제주의 마을마다 돌을 쌓아 만들어놓은 방사탑을 볼 수 있다. 한림읍 대림리와 수원리 경계선 넓은 들에는 하나의 큰 바윗돌이 우뚝 서 있다. 원래 이 선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곳에 서 있는 높은 바위라고 한다. 그 형상이 마치 돌이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선돌 또



사진 3-45. 대림선돌

는 입석(立石)이라 부르는데, 그 뿌리가 어찌나 깊은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현재 대림리의 옛 명칭은 이 돌의 형상으로 인하여 ‘입석리’라 불렸다. 풍수에서 말하는 대림리의 마을 형세가 서쪽 방향이 비어있는 듯한 허한 형국이므로 풍수적 비보의 방법을 동원하여 마을의 조화로운 기운을 유지하고 좋은 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선돌 위에 다시 많은 돌을 올려놓아 풍수의 용어로 사(砂), 즉 지형지물의 보완을 꾀하려고 하였다.

전설에는 수원리 쪽에서 선돌을 바라볼 때 형세가 마치 닭의 볏 모양이라 마을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원리에는 힘센 장사들을 모아서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해 선돌 위에 쌓은 돌들을 모두 떨어뜨려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대림리 사람들이 알고서 선돌 위에다 다시 돌을 올려놓곤 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림리의 지세가 마치 배의 형상을 닮아 이 선돌을 이용하여 배의 돛대 역할을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돌 위에는 큰 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의 큰 돌들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작은 돌들만이 남아 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풍수에 능한 한 지관이 대림리의 지세에 대해 한마디 농담을 남기고는 홀연히 가 버렸다. 그의 말인즉슨 “지세로 보아 이곳 대림리는 선돌이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성(城)을 쌓게 되면 마을이 흥성하겠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선돌 쪽으로 모여들어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관 말대로 선돌이 있는 방향으로 성을 쌓자 오히려 마을이 번성하기는 커녕 반대로 망해가기 시작했다. 그곳엔 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림리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지관에게 속았음을 알고 쌓은 성을 모두 허물어 버렸는데 이렇게 하여 지금은 그 형태만 조금씩 남아 있을 뿐이다. 이유는 대림리의 지세가 풍수의 물형(物形)으로 배의 형상인데 배가 가는 곳에 성을 쌓아 뱃길을 막아 버린 형국이니 행주형(行舟形)의 대림리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

오늘날의 화순리(和順里) 「번내」는 원래 「동동네」와 「서동네」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마을 분포로 볼 때, 「동동네」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의 「동하동」이고, 「서동네」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의 「서상동」의 위치로 보여진다. 동양의 오행학(五行學)으로 볼 때 학문과 관계된 「동동네」는 목성(木星)으로 정신을 주관하고, 무(武)와 관계된 「서동네」는 오행상 금성(金星)으로 물질을 주관한다. 정신적인 것은 학문과 관계가 있고 물질적인 것은 기계나 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하였고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했으며 기계나 무기는 대체로 서양에서 발전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필자는 이 설화가 우리 선조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음양오행론」의 토대와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압승(裨補壓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위의 이름은 형상에 따라 서로 유리한 입장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는 것이기에 오행을 근거로 정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의 설화(說話)에 대해 《화순리지(和順里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날부터 동동네는 양반촌(兩班村)으로 학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반면에 서동네에는 신분이 낮고 학식과 지혜가



사진 3-46. 사근두리 전경(좌)과 사근두리에 있는 무반석(우)



사진 3-47. 유반석에서 바라본 산방산과 사근드리(좌)와 월라봉에 기슭에 자리한 유반석(우)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천하장사라 할 만큼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러다 보니 동동네의 사람들은 늘 서동네의 힘 센 장사들에게 놀려지내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동네 양씨 댁에 관상과 지리에 신안(神眼)을 가진 적객(謫客) 한 사람이 들어와 묵게 되었다. 이 풍수사는 며칠을 묵는 동안 동동네 사람들과 서동네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어쩌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반(儒班)들이 무반(武班)들한테 꿈쩍 못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마을 이곳저곳의 지세를 살펴 보았다. 하루는 밤이 들어 바닷가에 서서 마을을 둘러보다가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동동네 황개천 언덕에 있는 커다란 바위와 서동네 「사근드리」 동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서로 불빛을 토해내며 정기싸움을 하는데 동동네 바위의 정기가 서동네 바위에 밀려 그 빛을 잃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튿날 그 풍수사는 묵고 있던 집 주인 양씨(梁氏)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유무반석(儒武班石) 각동서(各東西) 용호쟁투(龍

虎爭鬪) 대치중(對峙中)”이라는 말을 흘렸다. 이 말을 들은 양씨는 심상치 않은 말임을 감지하고 객(客)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그러자 객은 마을의 동쪽 지명과 서쪽 지명을 물었다. 양씨는 동쪽은 「돛배남도르」라 하고 서쪽은 「사근도리」라 부른다고 대답했다. 지명을 들은 객은 동쪽에 있는 바위는 유반석이요, 서쪽에 있는 바위는 무반석으로 유반석의 형상이 마치 무반석에게 절하며 항복하는 형상이라고 풀이해 주었다. 이 바위들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 한 무반석이 강하며 유반석은 맥을 못 쓰게 된다고 하였다. 양씨는 궁리 끝에 동네에 가장 힘이 센 홍(洪)장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음을 생각해 냈다. 본디 동동네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지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바위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알고 홍(洪)장사를 꼬드겨서 반드시 「무반석」을 넘어뜨리고자 꾀를 내었다. 양씨(梁氏)는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어느 날 양씨 문중(門中)에 초상(初喪)이 났다. 마침 장지가 사근다리 부근이어서 홍(洪)장사에게 찾아가 장례를 같이 치러줄 것을 부탁하여 꽤히 승낙을 얻어놓았다.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르자 양씨는 홍(洪)장사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홍장사가 술이 거나해지자 「사근도리」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자네가 힘이 장사면 얼마나 장사여? 아무리 장사라도 저 사근다리 위 바위야 눕힐 수가 없겠지?”라고 격장지계(激獎之計)⁶⁾를 폈다. 이에 발끈한 홍장사는 그래도 힘으로야 대정현 일대에서 자자한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정도의 바위야 간단히 무너뜨리겠다고 호언하고 나섰다. 양씨는 이때를 놓칠세라 홍장사에게 술내기를 제안했다. 그러자 홍장사도 꽤히 응낙하여 무반석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지렛목을 만들어 무반석 아래 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바위를 밀어재끼며 용을 쓰자 과연 그 커다란 바위가 뿌지직하고 부러져 넘어졌다. 순간 바위가 서 있던 땅속에서 청비둘기 한 마리가 힘차게 날개를 펴덕이며 하늘 위로 날아올라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서동

6) 상대 장수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

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무반석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소문대로 무반석이 넘어져 있었다. 분노한 이들은 무반석을 넘어뜨린 복수로 동쪽의 황개천 유반석을 넘어뜨리자고 물려갔다. 유반석을 무너뜨리고자 있는 힘을 다 쏟아 보았으나 넘어질 듯 넘어질 듯하면서도 넘어뜨리지 못했다. 지금도 유반석 아래에는 서 동네 사람들이 지렛목을 떠받쳤던 자리에 받침이 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황개천 언덕의 유반석은 사근다리 동산에 누워 있는 무반석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

강초관(姜哨官)물

이 전설은 돌에 관한 풍수 전설이지만 돌과 관련한 혈(穴)에 대한 이야기이다. 혈은 인간이 태어난 모태(母胎)에 비유되며 나무에서는 열매와 같다. 혈을 찾고 판별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아무 곳이나 혈이 맺히지 않는다. 혈(穴)의 수량 또한 그다지 많지 않으며, 혈을 찾는 일은 묘지풍수의 핵심이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며, 용맥(龍脈)의 흐름으로 보면 생동하는 기운이 결실이 되는 하나의 생명



사진 3-48. 강초관물이 있던 자리

체로 볼 수 있다.

북제주군(北濟州郡) 조천읍(朝天邑) 신촌리(新村里) 동수동(東水洞) 입구에 ‘강초관물’이라는 샘이 있다. 본래부터 있었던 물은 아니라 물이 나기 전에는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벌판이었다고 한다. 오래전에 신촌리에 강초관(姜哨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상의 상(喪)을 당하여 지리에 밝은 지관(地官)을 청해 구산(求山)을 다녔다 한다. 며칠째 구산을 하다가 마침 혈 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샘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지관은 혈점(穴点)을 골라 그 자리에 광(曠)을 파고 장(葬)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광을 팔 때 돌이 나오더라도 그 돌을 파내지 말고 알 게 물어야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장날(葬日)에 일꾼들이 광중을 파기 시작했는데 상주(喪主)인 강초관은 잠시 일이 있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 일꾼들이 광중을 파고들어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 막혀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일꾼들은 광중이 너무 얇아 막힌 돌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돌은 쉽게 흔들려버렸다. 일꾼들이 막 돌을 파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이었다. 순간 그 자리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그 용맥의 정기였던 것이다. 혈이 손상을 입었으니 더 이상 그곳에 장사지낼 의미가 없어서 장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여기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나 지금의 못이 되었다. 이곳에 묘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강초관’이었으므로, 그 샘물 이름을 ‘강초관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내용으로 볼 때, 이곳의 혈은 깊지 않고 얇게 맺힌 배토혈(培土穴)의 한 부류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토장은 천광(穿曠)작업을 하여 광중(曠中)을 만들지 않고 땅을 얇게 파거나 그대로 땅 위에 시신을 안장하여 그 위에 참흙을 쌓아 봉분(封墳)을 하여 배토장(培土葬)하는 것을 말한다. 배토장은 지기(地氣)가 땅 위로 뜨는 혈이 있을 때 이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땅을 잘못 건드려 혈을 다치게 한 돌과 관련한 풍수 전설이다.

5. 제주 풍수의 모체(母體)인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 관계

제주 생명의 상징 한라산

한국의 지세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아 물줄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한반도의 상징적인 백두대간은 지맥에 뿌리를 두고 연결되어 있는 땅의 흐름이며, 역사적 의미가 깊게 새겨져 있는 한반도의 정신적인 뿌리이기도 하다. 산과 물의 이치를 중시하는 풍수학 고찰에 있어서 한반도 지맥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 산줄기의 흐름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척추와 같은 대맥의 큰 줄기가 남해를 건너 정점을 이룬 곳이 바로 제주도이며 한라산이다. 풍수에서 형기(形氣)의 실체는 천지라는 음양이 겹으로 드러난 것으로서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기(氣)로 대변될 수 있으며, 산천지세를 토대로 지기(地氣)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겹으로 드러난 산의 형세를 보고 그 안에 작용하는 기운의 세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라산 백록담 일대는 밝고 화려한 기운의 결정체인 화성(火星)의 기운을 품고 있는 염정성(廉貞星)의 산체이다. 화성(火星)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산봉우리가 첨예한 모습의 산체이다. 신선봉과 그 일대는 산체가 뾰족하고 높고 가파른 절벽과 돌무더기,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이 나열된 모습으로 화성의 산체이다. 화형산(火形山)의 기운이 맑고 청명하면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나 예술가, 선각자 등의 출중한 인물이 나온다. 이처럼 화형(火形)의 산체는 매우 가파르고 무리를 이룬 첨예(尖銳)한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필봉(筆峰)과 같다. 목형산(木形山)과 화형산(火形山)의 기세가 비슷하여 모두 필봉의 성정을 띠고 있어서 자칫 혼돈할 수 있지만 목형산은 토(土)를 중심으로 곧게 일어나 정봉(頂峰)이 원활하며 기상이 청수(淸秀)하지만, 화산(火山)은 예리한 불꽃의 기상을 안고 가파르고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띠고 있는



사진 3-49. 운무에 쌓인 한라산 백록담(좌)과 진달래와 어울린 한라산(우)

한라산의 백록담과 남벽 일대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영주(瀛洲)라 불리며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심원(深遠)하게 뻗어 내려온 대맥(大脈)의 귀결지(歸結地)이다.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길게 떨어져 발복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복이 오래 간다고 했다. 동·서의 맥은 제주도의 최장축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의 중심 맥을 위주로 동서 방향으로 100여 개의 기생 화산(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 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이다. 인체에 비교한다면 하나의 살아 있는 거대한 몸체이다. 기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며 제주 생명의 근원이다. 하늘에는 365일이 있고, 사람에게도 365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에 12시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12경락이 있다. 하늘에 5운 6기의 변화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5장 6부가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에게엔 눈과 귀가 있다. 하늘에 24절후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24초(焦)가 있고, 사시(四時)의 계절이 있으며 사람에게도 사지(四肢)가 있다. 땅에 초목과 흙과 돌이 있고, 사람에게엔 털과 힘줄과 뼈마디가 있다. 사람의 상반신을 천기(天氣)라 하고 사람의 하반신을 지기(地氣)라 하며 사람은 천지간(天地間)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소천지(小天地)라 한다.

자연의 원리가 인간과 그대로 부합되듯이 한라산이란 거대한 생명의 몸체는 제

주의 모든 원류이자 그 자체이다. 풍수에서 땅의 이치는 곧 우리 인체가 순환하는 기혈(氣血)의 이치이다. 또한, 산과 물은 풍수지리학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체이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산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산과 물은 짝이요, 부부간의 유정한 사이가 된다. 산은 음(陰)인 아내요, 물은 양(陽)인 남편이 된다. 산과 물은 한 쌍의 음양이 되므로 산과 물이 배합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산과 물이 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태고(太古)부터 이어온 제주민의 삶은 영원한 대순환의 생명체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종산(宗山)인 한라산을 자연과학적인 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한라산이 품고 있는 자연 생명체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라산의 생명과 직결된 곳곳의 지맥을 파괴(破壤)의 무지로부터 막고 영원히 하나뿐인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풍수적 지혜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풍수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현시점에서 경제의 논리에만 치우쳐 개발이란 명목으로 중산간, 해안, 오름 등 어느 곳 성한 곳 없이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한라산이 일으키는 힘찬 지맥들이 어리석은 난개발의 그릇된 시각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제주에 있어서 풍수적 지혜란 바로 풍수관의 재정립을 통하여 한라산이란 거대한 생명체를 인체의 순환에 비교한 제주의 자연풍수관에 옮겨 제주 생명의 상징인 한라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사진 3-50. 한라산 백록담과 주변 전경

또한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모든 뼈에는 뼈마디가 있고 구멍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라산에도 만 갈래 천 갈래의 산줄기와 물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서로 얹히고 어떤 것은 안으로 뭉쳐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밖으로 나타나 있다.

인간의 신체에도 무수한 백해구공(百骸九空)이 있듯이 한라산에도 각기 수많은 형태의 자연적 생태 변화가 있다. 이것은 오름과 서로 얹히고설켜어 상호 대립과 통일을 이루면서 연관 작용을 하고 있다. 제주민은 한라산의 큰 품에 존재하기에 물밖을 나가면 자연히 제주의 푸른 산과 물을 그리워한다. 정신이 황폐할 때 우리는 그 자연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위안하고 수양하는 이치와 같다. 한라산을 생명의 모체로 삼고 있는 제주도는 복된 땅이다. 그 복된 땅이라 함은 바로 영험한 지세(地勢)적 특징을 가진 한라산과 오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종산(宗山)인 한라산의 역할

한라산과 오름은 본래 하나이지만 체용(體用)의 관계로 볼 때 상호 불가분의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영주산(瀛洲山), 즉 한라산은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신령한 한민족의 3대 영산(靈



사진 3-51. 눈 덮인 한라산(좌)과 작은드레왓과 Y계곡(우)

山)으로 여겨 왔다. 변화무쌍한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 수많은 설화와 전설은 물론 《고려사(高麗史)》(1451, 문종1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530, 중종25년)이나 작자 미상의 《영주지(瀛洲誌)》(고려 말엽~이조 초엽), 김정(金淨, 1486~1521)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이 새로 편성한 《탐라기년(耽羅紀年)》, 이원진(李元鎭, 1594~?)의 《탐라지(耽羅志)》,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 등 기타 역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약 천여 리를 사이에 두고 남쪽 바다에 돌기한 국내 최대의 섬이며 동서가 약 400리, 남북이 약 200리로 지형이 둥그스름하고 길어서 마치 달갈의 형상과 같다. 한라산맥이 높고 낮게 혹은 일어나고 엎드린 듯한 고저기복(高低起伏)이 출중하여 풍경이 아름답고 지맥이 잘 발달한 곳이다. 높이 1,950m로써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화산 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신비한 영산(靈山)이며, 산정(山頂)이 높고 빼어난 곳이다. 산 전체에 우거진 숲과 기이한 형상의 암석과 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영주산(瀛州山)이라고도 일컫는다. 이외에도 시대에 따라 한라산의 명칭은 부악(釜岳), 선산(仙山), 진산(鎭山), 여장군(女將軍), 단산(單山), 부라산(浮羅山), 원교산(圓嶠山), 무두악(無頭岳), 두무산(頭無山), 봉래산(蓬萊山), 혈망봉(穴望峰), 조선부산(朝鮮富山), 하늘산 등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이름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기록은 《남사록(南槎錄)》에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지(地誌)에, 한라산은 주(州)의 남쪽 20리에 있으니 그 한라(漢拏)라고 부르는 것은 운한(雲漢)을 끌어당길 만하다. 한 가지 두무악(頭無岳)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두무악이라고 산이 이어진 것이 하나가 아니며, 봉우리마다 모두 못이 있어 물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이다. 한 가지 원산(圓山)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형상이 높이 부풀고 둥글기 때문이다….

… 地誌 漢拏山在州南二十里, 其曰漢拏, 以雲漢可拏引也. 一云頭無岳, 以其峰峰皆平也. 一云豆毛岳, 以山之連絡者非一, 而峰頭皆有池, 似貯水器也, 一云圓以山形穹隆而圓也….

특히 육지의 풍광과는 달리 독특한 천연미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동경 126도 08분~120도 58분, 북위 33도 06분~34도 00분에 위치하여 어머니의 모태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368여 개의 오름을 안은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섬이다. 목포까지는 약 88리요, 부산까지 약 1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제주도는 예로부터 절해고도(絶海孤島)의 타원형(橢圓形)의 섬으로 서쪽으로 중국의 상해까지 약 200리 정도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 장기현(長崎縣)의 오도(五島)까지 약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동해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세는 대체로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고, 부락은 주로 경작 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해안 지대에 많이 들어서 있다.

충암(靚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다음의 내용이 보인다.

한라산 절정에 올라 창망한 바다를 사면으로 둘러보며 ‘남극노인성’을 굽어보고 (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니 다만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

…登漢拏絕頂, 四顧滄溟俯, 觀南極老人(老星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峴則仁壽之祥, 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

예로부터 한라산 백록담은 남극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고 전해 왔다. 서양 별자리로 보면 노인성은 용골자리인 ‘카노푸스(CanPus)’라는

별로 남극 부근에서 뜨는 별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제주도 남쪽 수평선 근처에 서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천체에서 노인성은 북반구의 큰개자리에 있는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다. 지름이 태양의 약 65배이고, 밝기는 태양의 약 1만 4천 배이며 거리로는 약 180광년에 위치한다고 한다. 노인성은 수성(壽星) 혹은 노성(老星)이라고도 하며, 서귀진(西歸鎭)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지맥의 모체에 해당되는 종산인 한라산을 오름을 품에 안은 어미닭으로 비교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분포해 있는 오름들을 병아리로 간주한다. 한라산과 오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제주의 풍수는 한라산과 오름을 떼어 놓고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의 풍수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오름이 주요 지맥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방으로 뻗어 나갔는데, 그 기본 등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동서장축(東西長軸)을 중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라산의 독특한 지세가 오름으로 연결되어 그 사이를 돌고 휘감으며 흐르는 주요 하천들이 생명의 핏줄기를 형성하고 동시에 지맥의 경계를 가르며 주위 사방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간다. 한라산의 역할은 제주 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산의



사진 3-52. 한라산과 산벌른내

역할이다. 먼저 간단히 종산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풍수에서는 원류가 되는 시원적(始原的)인 산을 태조산(太祖山)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을 태조산으로 본다. 그 풍수적 지세가 곤륜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고는 하나 백두산은 중국의 산세를 벗어나 독창적인 지세를 구축하고 전개하므로 한반도의 시원(始原)이 되는 조산(祖山) 또는 조종산(祖宗山)으로 삼는다. 백두산을 조산으로 삼으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뻗은 한반도의 명산들을 소조산(小祖山) 혹은 종산(宗山) 등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조산에서 뻗어 나와 다시 맥을 형성한 산을 소조산 혹은 종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산은 혈에서 가장 멀고 높은 산이며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근원의 산을 지칭한다. 태조산의 형국이 힘 있고 산체가 수려하면 큰 대지를 이루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혈을 맺게 된다. 만약 태조산이 험준하고 가파르면 중조산까지 많은 산맥을 거치며 깎이고 다듬어져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양명한 기운이 모여 대개 멀리서 혈을 맺게 된다. 혈장(穴場)으로부터 태조산은 멀어야 좋다. 태조산의 산형은 자태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 보여야 하며 항상 상서로운 운무가 쌓여 있어야 상격이라 했다. 백두산은 대표적인 조산의 형상이므로 백두의 정기가 뻗어내려 한라산으로 다시 돌출한 것이다. 한라산과 백두산은 체와 용의 관계이므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그 영험한 백두의 정기가 다시 종산인 한라에서 빛을 발하니 한라산이야말로 태조산에서 가장 멀리 변화의 과정을 거쳐 다시 바다를 지나 바다 가운데 신령한 기운을 일으키며 돌기한 영산(靈山)이다.

한라산의 산세(山勢)

예로부터 영주(瀛洲)라 불리는 제주의 한라산은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심원(深遠)하게 뻗어 내려온 대맥(大脈)의 귀결지(歸結地)이다. 그 힘 솟는 지맥이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기에 한라산은 제주 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이다.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사진 3-53. 노루오름과 한라산

길게 떨어져 발북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북이 오래간다고 했다. 동·서의 맥은 제주의 최장축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라산의 중심 맥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100여 개의 오름이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에 대해 이중환의 《택리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마이산 서쪽과 북쪽에서 뻗은 두 지맥은 진잠과 만경에서 그치고, 그곳에서 가장 긴 것은 노령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 서북쪽 두 지맥이 부안·무안을 지난 다음에 흩어져서 서해 북판의 여러 섬이 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긴 것은 동쪽으로 가서 담양 추월산과 광주 무등산이 되었고, 추월산과 무등산 맥이 다시 서쪽으로 내리 뻗어 영암의 월출산이 되었다. 월출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흘러 광양 백운산에서 그쳤는데, 구불구불한 산맥이 ‘갈 지자(之字)’ 모양과 같다. 월출산의 한 맥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해남현 관두리를 지난 후에, 남해 북판의 여러 섬이 되었고, 바닷길 천 리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되었다….

…馬耳西北二枝止鎮岑萬頃其最長者自蘆嶺分三脈西北二枝由扶安務安而散作西海中諸島其最長者東去爲潭陽秋月山光州無等山秋月無等又西行爲靈巖月出山自月出又東行止於光陽白雲山山脈之屈曲如之字形而月出一枝別爲南行由海南縣?頭里爲南海中諸島渡海千里爲濟州漢拏山….

처럼 제주도 한라산은 태조산인 백두에서 심원(深遠)하여 줄기차게 흘러 내려온 대맥(대맥)으로서 바다를 지나 그 힘 솟는 지맥이 종산(宗山)인 한라산에서 맺혀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다. 한라산의 품에 안긴 오름들을 중심으로 그 사이 사이로 크고 작은 하천이 기운의 경계를 짓는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무수천(無愁川), 명문천(屏門川), 창고천(倉庫川), 금성천(錦城川), 한천(漢川), 신례천(新禮川), 옹포천(壟浦川), 연외천(淵外川), 강정천(江汀川), 효돈천(孝敦川), 천미천(川尾川) 등을 사이에 끼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살아 꿈틀거리듯 기맥(氣



사진 3-54. 신비로운 자태와 영험한 기운을 품은 한라산

脈)을 형성하며 제주의 산천 곳곳에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두산을 조종산으로 삼고 있는 한라산은 크게 두 가지 맥으로 구분한다. 그 주요 맥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첫 번째 산세는 종산인 한라산을 최고봉으로 하고 동쪽으로 사라악을 중심으로 성판악에 이어지면서 줄기차게 동쪽 오름의 맥을 타고 성산일출봉까지 내달아 우도에서 맺는다. 두 번째 맥은 서쪽 영실과 남성대 위쪽에서 어승생 쪽으로 나뉘어 뻗어 나갔는데 영실 쪽으로 이어진 맥은 그중 한 갈래가 서남쪽인 산방산으로 떨어지고 또 한 갈래는 노루오름을 타고 서북쪽인 한림(翰林)과 한경(翰京) 방면으로 이어져 나갔다. 어승생 쪽으로 분기한 맥은 다시 분기하면서 산심봉(山心峰), 즉 일명 산새미오름으로 이어져 내려갔다.

주도 지세에 대해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편저한 《남사록(南槎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임자순(林子順)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 의하면 섬이 나라의 정남에 있어서 한라산이 그 가운데 있고, 좌우의 날개를 펴서 일자(一字)와 같이 가로 퍼져 있는데 제주 일진(一鎭)은 북쪽에 있어서 바다에 임하고 바로 두무악과 서로 대하였고 정의현은 좌익의 남쪽에 있고…

… 林子順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峙其中, 張左右翼, 如一字橫鋪, 濟州一鎭在北而際海, 正興頭無岳相對(頭無漢拏別名), 旌義縣在左翼之南…

한 제주도 풍수의 고전으로 익히 알려진 《과영주산세지(過瀛州山勢誌)》에 제주의 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영주산, 즉 한라산은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의 형국으로 주위 사방이 높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아 있는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려 조종산(祖宗山)인 백두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다. 동쪽의 지세는 미인의 눈썹 같아 벼슬하지 않아도 번성하고, 서쪽 산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에 관한 일을 하면 크게 이룬다 했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상과 같아 날아서 먹이를 얻지 않으면 앉아서 굶는다 했다. 북쪽의 지세는 호랑이의 머리 형국으로 천 리에 있는 먹이를 얻는데 성공한다.”

이 밖에도 《영주완형시(瀛州畹形詩)》, 《제주도산록(濟州島山錄)》, 《탁옥정도식(琢玉亭圖式)》 등에서 제주도의 산세를 논하고 있다. 또한 충암의 《제주풍토록》에 영실 존자암(尊者庵)에 대한 지세를 언급하고 있으며, 청음의 《남사록》에서도 한라산의 산세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수록하고 있다.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는 한라산의 이모저모와 영실의 존자암(尊者庵), 특히 수행굴(修行窟)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과영주산세지(過瀛洲山勢誌)에 나타난 지세

《과영주산세지》는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조선조(朝鮮朝) 때 구산(求山)의 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금의 뒤통자를 찾아 나섰던 어지관(御地官)이 탐라의 지리를 두루 살펴보고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의 산세에 대해서는 풍수사(風水師)마다 보는 입장에 따라 지상(地相)이나 산세(山勢)에 대한 소견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 지관들의 입장은, 한라산은 백두산에서 발원(發源)한 조종산으로서 백두산에 대한 안산(案山)의 역할을 하는데 용세(龍勢)가 짧고 크기가 작아 장군세(將軍勢)는 아니고 다만 양생부육(養生扶育)의 수준으로 제주도는 부지런해야 번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두산으로부터 박환(剝換)의 과정을 거치며 줄기차고도 심원하게 이어져 온 맥이 바다 건너 명산(名山)으로 다시 돌기(突起)한 것은 한라산 자체로만 보면 맥이 짧다 할 것이나 결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조종산은 태조산



사진 3-55. 한라산 전경

으로부터 멀수록 좋고 용세를 타고 많은 변화의 과정을 타고 내려왔기에 한라산은 땅기운이 용출하는 신령한 땅이라 할 수 있다. 동·서의 맥(脈)이 길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고 안나는 것은 세월을 안고 기다려야지 단정하지는 못한다.

다음은 제주의 산세에 대해 《과영주산세지》에 나타난 일부 내용이다.

영주산을 본 바로는,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와 같다. 주위 사방이 높이 바라보이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은 듯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렸다.

고개를 돌려 테조산인 백두를 돌아보는 형국이다

동쪽의 지세는 아미형을 닮아, 풍류에 의탁해도 가업을 이룬다.

서쪽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에 관한 일을 하면 대성한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국이니, 날아야 먹이를 먹고 앉아 있으면 굶는다.
북쪽의 지세는 호랑이 머리와 같아, 천 리의 먹이를 얻는 데 성공한다….

瀛州山之所見, 若白鶴之青鷹. 周四方而高瞻, 若將軍之獨坐.
頭向西而尾東, 回顧祖而的實. 東發跡而蛾眉, 遊瑩業而成家.
西山形而倉庫, 近土業而大成. 南角勢之鷹鳥, 飛得食而坐飢.
北角勢之虎頭, 千里食之成功….

돼지와 뱀의 머리 모양이 귀하고, 금반형(쟁반형)의 형국이 귀하다. 와혈(窩穴),
점혈(鉗穴)이 불리하고, 유혈(乳穴), 돌혈(突穴)이 대길하다.
조산(祖山)을 바라보는 맥이 가장 좋고, 과협맥(過峽脈)이 그 다음이다.

猪蛇頭而爲貴, 金盤玉而爲貴. 窩鉗穴而不利, 乳突穴而大吉.
回祖脈而上吉, 過峽脈而爲次.

오름마다 오목한 분화구가 있으니,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
남북이 서로 배반하는 상이니, 본받고 공경하지 않으면 시비가 많다.

峰峰峰而皆凹, 小男子而多女.
反相背而南北, 不孝悌而哮.

금반(金盤)은 주옥과 같으니, 금성(金星), 토성(土星)이 가장 길이다.
혈성(穴星)이 산머리에 있으니, 모든 곳이 집이 된다.

金盤竝於珠玉, 金土星而爲上. 穴星在於山頭, 是四海之爲家.

맥의 일어남이 일정하지 않으니 재능은 있으나 공(功)은 없다.
동쪽산이 서쪽산을 배반하니, 붕당(朋黨)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왼쪽이 산을 향하면 우측이 배반하니, 가족과 친척이 화합하지 못한다.

脈踊躍而散齊, 善手才之無功.
東背山而西背, 朋黨人之不久.
左向山而右背, 六親戚而不合

오름의 외형이 예쁜 아미(蛾眉)와 같아, 아첨하는 미인이 매우 많다.

山丘懾而蛾眉, 蛾媚人而甚多.

사방의 기슭이 높구나. 매서운 바람이 일 년 내내 있네.
한라산 주위가 제각기 모양이 달라, 섬의 바람이 재난이 된다.
위에는 은하수가 응하고, 산골짜기의 흐름은 일정치 않다.
해와 달이 섬 가운데를 관통하니, 고난 속에 밝음이 많다.
노인성이 조립하니, 상하가 화목하고 노인을 존경한다.
삼성(參星)이 한라산에 비추니,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존귀하다.
팔국성(八國星)이 멀리 있으니, 어려움이 먼저 오고 뒤에 도움을 받는다.

四方角而嗟峨, 烈狂風而四時. 擎四面而異體, 島中風而爲難.
銀河水之上應, 山谷過而不均. 日月貫於島中, 知明多於暗事.
老人星之照對, 上下睦之爲尊. 參星照於擎山, 三鄉府於爲尊.
八國星於遐遠, 先急害而後助

산체가 오목하고 골이 깊으니, 승(僧)이 아닌 무속이 창궐한다.
 동쪽의 지맥은 소가죽 같아, 사방이 우마(牛馬)로 가득하다.
 서쪽의 지맥은 검(劍)이나 창과 같아, 능히 무인(武人)이 많이 난다.
 남쪽의 지맥은 필봉(筆峰)이 연이어져 크고 작은 학자가 연이어 나온다.
 산북의 맥은 범이나 표범과 같아, 천 리의 먹이도 조석(朝夕)으로 먹는다.
 남북의 날개가 짧으니, 발복(發福)도 빠르지만 실패도 빠르다.
 한라산은 대맥(大脈)의 끝이니 장손보다 막내가 대길한다.

岳體凹而岩谷，非僧巫而賤名。山東脈則牛皮，滿四澤而牛馬。
 山西脈則劍戟，能武士之多出。山南脈則連筆，大小文而連出。
 山北脈則虎豹，千里食之朝夕。南北翼而地峽，速吞福而速敗。
 漢拏山則季山，每季方而大吉。

큰 바다에 돛배가 떠 있는 형상이니, 안산을 정하지 못하는구나.
 흰구름 사이에 가을달 형상이니, 반드시 쌍성(雙星)에서 향(向)을 구하라.
 우충혈(羽鯉穴)이 삼백이니, 만리안(萬里案)이 보이지 않는다.
 모충혈(毛鯉穴)이 삼백이니, 응대함이 없으면 두렵도다.
 어충혈(魚鯉穴)이 삼백이니, 물이 없으면 꺼리도다.
 산봉(山峰)이 다한 산에 물이 없으면, 종손(宗孫)에서 제사가 끝난다.

大海洋一葉舟，向案處之無定。白雲間之秋月，必求向於雙星。
 羽鯉穴而三百，萬里案而不見。毛鯉穴而三百，無應對之可畏。
 鱗魚鯉而三百，無水澤之可忌。窮山峰之盡水，覆宗孫之絕祀。



사진 3-56.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

6. 한라산으로부터 이어진 제주의 풍수적 지맥(地脈)

지맥의 개념

생기가 흐르는 땅속의 통로를 지맥이라고 하는데, 지맥이란 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맥, 즉 용맥(龍脈)을 타고 땅속으로 흘러 통하는 기(氣)의 통로를 말한다. 결코 맥이 외형적인 산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유통하는 정기(精氣), 즉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지맥은 고저를 이루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풍수에서 보통 용신(龍身)의 지세에 따라 음양의 생기가 유동(流動)하는 것이 마치 인체의 맥락에서 기혈이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기의 운행이란 측면에서 ‘맥’이라고 한 것이다.

제주 풍수의 모체(母體)는 한라산이며, 모체인 한라산과 오름은 체용(體用)의 관계이다. 사방에 산재한 오름과 관련하여 한라산의 산세를 알 수 있고 오름마다 생



사진 3-57. 좌보미오름의 능선



사진 3-58. 새별오름, 이달봉으로 이어지는 오름의 맥

기를 타는 길지(吉地)와 제주민의 애환과 이상이 서려 있다. 제주의 선조들은 한라산과 오름의 상호 유기적(有機的)인 지맥을 이용하여 양택과 음택을 가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안녕과 번영을 꿈꾸었다. 또한 오름은 제주인의 삶 속에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오름마다 우마를 방목하며 생활의 근거로 삼았다. 지역을 구분하는 데 오름이나 물길이 이용되었고 최후의 안식처로서 제주인의 뼈를 묻는 묘역이 오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맥을 이어주는 용맥(龍脈)의 역할

① 오름은 지맥을 잇는 도체(導體)

제주인이 생각하는 오름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지 않고 봉우리가 둥글게 봉긋 솟아 있는 형태를 지칭하며, 산체의 산록 상에서 만들어진 날낱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小火山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진 3-59. 따라비오름의 분화구 지맥 능선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서는 오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름이 있되 모두 외따로 떨어져 우뚝하나 머리가 없이 활처럼 휘었으며 (모두 고립되어 있고, 우뚝 솟진 않았고, 또한 머리가 벗겨졌다), 돌아 감싸 안은 듯한 형세는 없고, 오로지 큰 봉우리가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 시야를 가릴 뿐이다… 또 산 봉우리의 정상은 반드시 오목하여 오목한 가마솥과 같고 진흙물을 이루어 고여 있는데, 봉우리마다 그러하므로 머리 없는 두무악(頭無岳)이라 한다…

雖或有丘巒 而皆孤擲隆頽(孤而不聳, 隆而又頽), 无廻擁之勢, 唯見巨岳, 屹然當中, 而已其視…又山峰之頂, 必凹如, 陷成泥罅, 峰峰皆然故, 謂之頭無岳…

이처럼 오름의 독특한 이미지는 제주만의 특징이다. 풍수에서 “한치라도 높으면 산이요, 한치라도 낮으면 물이다.”라 했다. 제주 지맥을 잇는 통로는 단연 오름이다. 제주의 고지도에 나타난 지맥의 분포를 보더라도 오름의 배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길게 뻗어 나갔다. 특히 동서를 기본 축으로 가장 길게 맥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 풍수에 있어서 오름은 전기(電氣)를 통하는 도체에 비교될 수 있는데 오름의 파괴는 곧 전선의 동력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② 제주의 지맥

제주의 지맥은 예로부터 한라산을 종산(宗山)으로 삼아 첫 번째 맥은 동쪽의 사라악을 중심으로 성판악으로 이어져 궤팡이오름, 거문오름, 붉은오름, 소록산, 대륙산, 따라비, 모지악, 영주산으로 이어져 천미천(川尾川)을 만나 일시 멈추었다가 남산봉에 이른다. 주맥(主脈)은 계속하여 은월봉, 두산봉, 지미봉, 식산봉, 소수산봉, 대수



그림 3-2. 제주삼읍전도

산봉을 거느리며 성산일출봉을 거쳐 우도까지 뻗어 나간다. 동쪽의 주맥인 성판악에서 우도로 이어지는 본 맥의 중심선에서 다시 좌우 두 줄기로 크게 나누어져 한 줄기는 동남쪽 남원읍 수망리를 거쳐 ‘반득이왓’으로 흘러내리고, 또 한 줄기는 동북쪽의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조인납으로 흘러내린다.

두 번째 맥은 서쪽의 영실로 뻗어 나가 그중 한 갈래가 법정악, 녹하지오름, 왕이메를 거쳐 군산, 월라산, 산방산으로 이어진다. 또 한 갈래는 죽은대비오름, 왕이메, 원물오름, 거린오름으로 이어져 지맥이 덕수 방향으로 잠시 약해졌다가 물을 만나 지세를 회복하고 산방산에 임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단산, 금산이오름, 송악산, 가파도, 마라도로 흘러내린다. 또 한 갈래는 한대오름, 빈네오름, 폭낭오름, 괴오름을 거쳐 어음 방면인 새별오름, 이달오름, 정물오름, 금악, 가마오름, 새신오름, 저지악 등으로 이어져 한림과 한경 방면인 고산의 당오름, 수월봉을 거쳐 차귀도로 내려



그림 3-3. 《태옥정도식》에 나타난 '조인납'(좌)과 《태옥정도식》에 나타난 '장전' 지경(우)

간다. 다시 한 갈래는 어승생 서쪽으로 삼형제오름, 노루오름, 바리메, 노꼬메, 과오름, 알오름으로 이어져 애월 납읍, 고내 방면과 금덕, 하귀 쪽으로 내려간다. 다시 한 갈래는 어승생 서쪽 삼형제오름으로 흘러내려 붉은오름, 천아오름, 산세미오름을 거쳐 애월 광령 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남성대 위쪽 어승생 방향으로 떨어진 용세를 고려하여 서쪽은 크게 세 갈래의 지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맥이 주변으로 이어 내려간다고 보는 설이 지배적이다.

제주의 지맥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은 오름과 오름을 사이로 크고 작은 하천을 경계로 한라산의 용맥이 싹틔듯처럼 서로 교용하면서 산천의 조화를 이루며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오름을 중심으로 지맥이 연결되어 마을마다 하나의 의지처로서 마을을 호위하고 지켜주는 진산으로 삼았으며, 정신적인 지주이자 살아서는 생업의 젖줄이었고 생을 마치면 돌아가 뼈를 묻을 영원의 쉼터였다. 오름은 바로 독특한 제주의 풍수관을 이룬 모체가 되었으며 오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성 위에서 길들여진 절대적 가치를 중시한 풍수신앙을 형성했다. 오름의 특성마다 제주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철학이 농축되어 있으며 산수 방위를 이용한 제주 특유의 전통 지리관이 잘 나타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주의 대표적 지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맥: 한라산을 종산으로 동쪽의 사라악을 중심으로 성판악→괘땡이오름→거문오름→붉은오름→소록산→대록산→따라비→모지악→영주산→남산봉으로 이어진다.

제2맥: 한라산을 종산으로 높은오름→문석이→동거문→백악이→좌보미→손자봉→용눈이→은월봉→두산봉→지미봉→식산봉→소수산봉→대수산봉→성산일출봉→우도로 이어진다.

제3맥: 동쪽의 주맥인 성판악을 중심으로 분기되어 한줄기는 동남쪽 수망리를 거쳐 반득이왓으로 이어진다.

제4맥: 성판악에서 분기된 다른 한줄기는 다시 동북쪽의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조인납으로 흘러내린다.

제5맥: 종산인 한라산에서 영실을 중심으로 뻗어나가 그중 한 갈래가 법정악→녹하지오름→왕이메오름→군산→월라봉→산방산으로 이어진다.

제6맥: 영실에서 뻗어나간 또 한 갈래는 죽은대비오름→왕이메→감낭오름→원물오름→북오름→거린오름→산방산→단산→금산이오름→송악산→가파도→마라도로 흘러내린다. 그중 한 맥은 넘계오름과 모슬봉으로 이어진다.

제7맥: 영실에서 분기된 또 한 갈래는 한대오름→빈네오름→폭낭오름→괴오름→돛박이오름을 거쳐 감낭오름→원물오름으로 이어지고 다시 당오름→정물오름으로 이어져 금악→가마오름→새신오름→저지악→한림과 한경방면인 고산의 당오름→수월봉을 거쳐 차귀도로 이어진다.

제8맥: 종산인 한라산에서 어승생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삼형제오름→노루오름→노꼬메→바리메→새별오름→이달오름→누운오름→금악오름→선소오름→갯거리오름→밝은오름(상명)→느지리오름→정월오름으로 흘러내리고, 다른 한 맥은 바리메에서 어도오름과 과오름으로 이어지고, 또 한 맥은 노꼬메에서 궤물오름, 거문덕이오름, 수산봉으로 이어져 애월 납읍과 고내방면 그리고 유수암, 소길, 장전, 수산, 고성, 하귀 쪽으로 흘러간다.

제9맥: 종산인 한라산에서 어승생을 중심으로 분기한 또 한 갈래가 서쪽 삼형 제오름→붉은오름→천아오름→산세미오름→극락오름을 거쳐 애월 광령 쪽으로 이어진다.

고지도(古地圖)와 오름의 지맥

옛 지명 등 제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한라장축(漢拏壯囑)〉은 1702년 당시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제주목사가 제주도 전역을 순력하면서 화공(畵工)을 시켜 그린 지도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그림 형태로 나타낸 도서로서 마을의 지명과 물흐름 등의 표기가 비교적 정확하다.

조선 중기 때의 문신 이형상 목사의 저서로는 제주도 인문지리서인 《남환박물(南宦博物)》등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주도과 주변 도서 및 바다 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읍지(邑誌)와는 달리 실지를 관찰하고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에 관한



그림 3-4. 한라장축

지도에서 <여지도(輿地圖)> 중 6책 속에 들어 있는 <제주도도(濟州道圖)>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1698~1703년에 제작된 것으로 가로 29.2cm, 세로 19.2cm이다. 그밖에 한라산과 주요 오름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13호인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1428년(조선 성종 13)에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등이 있다. 제주도 지도의 시초에 관해 학자들은 1002년(고려 목종 5년)에 제주도의 화산 폭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전공지의 작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摠圖)>의 <제주지도(濟州地圖)>, 1800년대에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청구도(靑邱圖)>, <동여도(東輿圖)> 등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 제주의 지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7. 한라산과 오름의 풍수적 상징성

설화에 나타난 오름의 인격화

제주민들은 오름의 형상에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 상징화했다. 오름마다 오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다. 그러한 오름은 어느덧 그들이 붙여넣은 생명체가 되어 그들의 소망을 싣고 비상의 날갯짓을 했다. 척박했던 곳에서 온갖 질곡의 한숨을 오름의 자락에 묻으며 아픔과 한을 달랬다. 오름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늘 안식과 위안을 제공해 주었다. 오름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다. 그 사연 속에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역력히 배어 있다. 그 오름들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고단한 삶을 풀어 주는 의지의 대상이었다. 오름에 얹힌 술한 설화와 전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들 자신의 피상의 존재이자 자화상이었다. 오름은 제주민에게 피안(彼岸)의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영원한 그들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인식되었다.



사진 3-60.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송악산(좌)과 대륙산 사면에서 본 동쪽의 오름군(우)

오름을 중시한 자연풍수관

풍수의 근본 원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합일이며 심오한 자연미학을 담고 있는 일종의 자연과학이다. 또한 자연심미학이라 말할 수 있고 유무(有無)의 형상을

음양 이론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산천 대지와 입체적 조감을 통하여 자연과의 통일을 꾀하는 학문이다. 제주민들의 오름을 통한 생활의 조화와 통일은 제주의 환경에 어울리는 제주적인 ‘자연풍수관’에서 출발하였다.

오름에서 나와 오름으로 돌아가는 제주민들은 오름의 자락을 일구며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오름에 방목한 우마를 식용으로도 이용하며, 그들이 배설한 분비물은 거름이 되어 제주민에게 생활의 젖줄이 되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오름이 받아 저장하고 마을마다 생명수를 제공하였으며, 나무와 풀과 약초를 생산하여 제주민의 삶을 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제주민은 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오름을 신성시하였으며, 오름에 대한 생명관이 특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선견과 소중함을 알았던 지혜의 발단이기도 하며,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고 오름을 통해 삶을 연결하고자 한 제주적인 자연풍수관이 앞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름의 역할은 실제로 마을마다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제공하고 있고, 계절마다 불규칙한 바람에 의해 기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기의 순환을 조화롭게 하여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오름의 파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더불어 자연과학인 풍수학적 지혜를 살려 제주도의 마지막 생명체인 오름을 대하는 도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제주의 오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의 풍수(風水)에 있어서 오름의 존재는 제주의 풍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오름에 대한 이해는 곧 제주의 풍수를 바라보는 지름길이다. 제주 풍수의 구심점은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한라산의 품, 즉 한라산의 자락에서 태어나 오름을 기대어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가 오름의 자락에 묻힌다는 제주인 특유의 오름풍수관을 안고 있다. 의지처(依支處)로서 오름을 통한 삶의 형태가 제주의 전통풍수관으로 이어졌으며 제주의 선조들은 영험한

기맥(氣脈)의 발원지인 한라산을 종산(宗山)으로 삼고 한라산의 지기(地氣)가 용출하는 오름 곳곳에 뼈를 묻고 삶의 터전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2) 한라산과 오름은 체(體)와 용(用)의 관계이다.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을 모태(母胎)인 어머니로 비교하자면, 제주인은 어머니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세상을 떠나면 제주민의 육체는 다시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치이다.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곳으로서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사람이 늙으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 한라산과 오름은 바로 이러한 곳이다.

(3) 제주의 오름은 제주인에게 있어서 삶의 젖줄이며 큰 의지처(依支處)이다. 섬 특유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름은 그들을 거센 바람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인 위안과 해탈을 안겨주는 등지이자 보금자리이다. 또한 오름은 마을을 호위하는 진산(鎭山)으로 삼아 제주 마을 대부분이 오름을 뒤에 의지한 채 들어서 있다. 팔방(八方)에서 불어오는 살풍(殺風)을 안정시키고 섬 특유의 허(虛)한 지세를 보완해주는 비보(裨補)풍수의 작용을 한다.

(4) 오름은 마을에 기운을 모아주고 허한 부분을 막아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해주기도 하지만 한라산으로부터 출맥(出脈)한 지기(地氣)가 잘 모이는 오름의 곳곳에 뼈를 묻는 망자의 고향이기도 했다.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을 막론하고 오름은 방위에 따라 현무(玄武)인 후산(後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안산(案山)이 되기도 하고 청룡과 백호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제주 풍수에 있어서 오름은 제주 풍수를 이루는 일등 공신이 된다.

오름의 풍수적 상징성

오름은 마을마다 진산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정신의 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특히 오름들은 색채의 아름다움과 공간 배치의 조화성, 음양오행의 형체론적 역(易)의 이치를 담고 있으며 조형미와 변화의 창출성이 빼어날 뿐 아니라 상호 보완성의 지맥도 안고 있다. 제주도의 오름은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주의 오름은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오행(五行)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성정을 표현한 오체(五體)를 형태별로 구분한다면 목형(木形), 화형(火形), 토형(土形), 금형(金形), 수형(水形)이다. 오름마다 오행의 형태로 조형미를 이루며, 색채의 상호 배합과 미끈한 곡선미를 나타내므로 오름의 곡선은 제주미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 또한 오름은 제주 선조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으며, 오름마다 말과 소를 방목하는 한편 지역을 구분하는 데 물길이나 오름이 주로 이용되었다. 오름을 중심으로 제주민들의 뼈를 묻는 묘역이 형성되었는데, 서북풍을 막아 주는 진산으로 삼아 대개 명당의 혈처(穴處)를 찾아 동쪽이나 남쪽에 좌향이 들어섰고 둔지봉이나 높은오름, 동거문이오름은 사방에 망자들의 이상향인 양 무덤들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사진 3-61. 군산에서 본 율라봉과 산방산(좌)과 대록산 기슭에서 바라본 따라비오름(우)



사진 3-62. 대록산 기슭에서 바라본 따라비오름

오름의 풍수적 산형

제주 오름이 안고 있는 진정한 상징은 곡선미와 원형이 가져다주는 부드러움이다. 사각(四角)과 직선은 제주도의 지형에 부적합한 배합이 된다. 요즘 상징성과는 멀게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도 오로지 지형과 마을의 정서적 분위기를 무시한 채 딱딱한 직각의 형태나 직선의 도로들이 좌로 우로 관통되고 있으니 생각해 볼 일이다.

① 목형산(木形山)의 의미와 성정

목성(木星)의 산형은 원활하고 하늘을 향하여 곧게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이고, 필봉의 기세이며 곧은 성격으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산의 정상부는 화형산(火形山)처럼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첨예(尖銳)하지는 않으나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 있게 솟아올라 간 모습이다. 제주의 오름은 바라보는 각도(角度)에 따라 형상이 수시로 변



사진 3-63. 문필봉의 큰노꼬메오름(좌)과 서귀포 보목동의 섯섬(우)

한다. 오름의 형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오성(五星)이 결정된다. 산의 형태가 모두 오성의 모양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성이 변화하는 산의 형태를 아홉 가지 형태인 구성(九星)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탐랑(貪狼)과 좌보(左輔)는 목산(木山)의 변형을 의미한다. 목형산(木形山)의 성격은 곧고 대체로 맑고 귀한 것을 주재한다. 이러한 산의 정기를 받게 되면 문인, 학자 등 청고(淸高)하고 귀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 산의 성격은 곧고 불쑥 솟는 형국으로 힘이 따르며 산의 중간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지 용(龍)이 많이 퍼지는 편이다. 제주의 경우 노꼬메오름, 둔지봉, 섯섬 등이 목형(木形)의 좋은 예이다. 대개 인물의 형국은 오성(五星)으로 분류한 산형에서 목형(木形)과 화형(火形)에 속한다.

② 화형산(火形山)의 의미와 성정

화성(火星)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산봉우리가 첨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산체이다. 화형산(火形山)이 맑고 청명하면 재능 있는 화가나 예술가가 나온다. 화형(火形)의 산체는 산세가 매우 가파르고 무리를 이룬 첨예(尖銳)한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필봉과 같다. 목형산(木形山)과 화형산의 기세가 비슷하여 모두 필봉의 성정을 띠고 있어서 자칫 혼동할 수



사진 3-64. 문필봉의 큰노꼬메오름

있지만 목형산은 토(土)를 중심으로 곧게 일어나 정봉(頂峰)이 원활하며 기상이 청수하지만, 화산(火山)은 예리한 불꽃의 기상을 안고 가파르고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다. 대체로 화형산은 기운이 흩어져 있으므로 혈(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실속은 없다. 산의 성격은 건조하며 섬세하고 날카로운 면을 지닌다. 제주의 경우 화산의 형상을 한 오름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산체의 일부분을 놓고 볼 때 한라산의 백록담 주변이나 왕관바위, 삼각봉, 성산일출봉 등에서 화형(火形)의 성정을 찾아 볼 수 있다. 육지의 경우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나 도봉산 등이 좋은 예이다.

③ 토형산(土形山)의 의미와 성정

토성(土星)은 가운데가 편편한 모습으로 일자문성(一字文星)의 모습을 말한다. 산의 윗부분이 지붕이나 평상처럼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 토형산(土形山)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목(木)·화(火)·금(金)·수(水)의 네 가지 성격을 모두 포용하는 기질을 갖는다. 토(土)는 오행에서 만물을 포용하고 기르는 성정을 대표하며 대체적으로 토형(土形)의 산은 기운이 충만하고 후중하여 왕후장상이 나오고 오복(五福)을 겸비한다. 또한 산의 형태가 마치 일자(一字)와 같기도 하여 일자문성이라



사진 3-65. 토형(土形)의 좌보미오름(좌)과 모라이악(우)

고도 부르며 균형감과 안정감을 지닌 편안한 산이다. 산의 성격은 후중하다. 제주
의 오름에서는 기상이 후덕한 토형의 산체를 많이 볼 수 있다. 토형의 오름은 대체
로 금형(金形)의 둥근 사면을 토대로 위쪽이 평평한 형태를 하고 있다. 바라보는 각
도에 따라 오성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대체로 산의 성정이 두텁고 부드러운 지세가
특징이다. 토의 성정은 만물을 양육하는 자양분이며 만물을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다. 대체로 길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혈(穴)을 맺는 곳이 비교적 이마(額), 코
(鼻), 귀(耳), 배(腹), 꼬리(尾) 등에 있다고 본다. 뿔은 감각이 둔한 곳이므로 좋지 않다.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제주시에 있는 민오름, 도너리오름, 넓게
오름, 돌오름 등은 대표적인 토성체(土星體)이다.

④ 금형산(金形山)의 의미와 성정

금성(金星)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풍부하며 마치 종 또는 가마솥의 뚜껑 모양과
흡사하다. 혹은 철모나 바가지줄을 얹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레하니 들판에 곡식을 많
이 쌓아 둔 상이다. 다른 말로 부봉사(富峰砂)라고도 하며 산에 청명한 기운이 감돌
면 큰 사업가나 기업가, 총신, 부장 등이 나온다. 산의 성격은 둥글고 원만하며 밝고
맑은 편이다. 몸체의 주위가 풍만하고 정결하며 목형산(木形山)처럼 산의 가치가 여



사진 3-66. 금형(金形)의 이달봉(좌)과 정물오름(우)

리 갈래로 많이 퍼져 나가는 편이다. 금성의 낮은 산체는 여인의 예쁜 눈썹처럼 아미형(蛾眉形), 중간 산체는 떠오르는 달의 형상으로 반월형(半月形), 둥글고 높이 솟은 것은 노적거리 형상으로 부봉형(富峯形)에 속한다. 대체로 날짐승의 형상으로 대개 혈이 맺는 곳이 주로 날개(翼)와 벼슬(冠), 생식기(窩) 쪽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의 오름에서는 금형의 산체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 정물오름, 산방산, 괴살메오름, 거문덕이오름 등이 금형의 성정을 지니고 있는 오름이다.

⑤ 수형산(水形山)의 의미와 성정

수성(水星)은 파도치는 모습 또는 물이 넘실대며 유유히 흐르는 모양으로 된 산을 말한다. 산의 기세가 큰 굴곡이 없는 반면, 마치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듯 또는 파도치듯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진행해 가는 모습이며 산의 기운이 청명하면 선비나 학자 등이 나온다. 수성의 산체는 대부분 육지의 산세에 편중되어 있다. 제주의 경우는 한라산의 완만한 능선 또는 지세가 고저기복을 이루어 마을로 내려오는 동산에서 일부분 수형(水形)의 기세를 볼 수 있다. 수형의 산체는 대체로 뱀이나 용(龍)의 형상으로 穴이 맺히는 곳이 보통 코(鼻), 이마(額), 귀(耳), 복부(腹), 꼬리(尾)나 머리



사진 3-67. 한라산과 절물오름(좌)과 수형(水形)의 육지 산세(우)

(頭) 부분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형(蛇形)은 입에 강한 독이 있으므로 흉하다고 간주한다.

오름의 풍수적 형상화

■ 제주의 초가(草家)와 돌문화

제주 초가의 전형은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지붕은 띠풀(제주에서는 ‘새’라고 함)로 덮은 다음 띠풀을 꼬아서 만든 밧줄로 바둑판처럼 단단히 동여매어 지은 것이다. 특히 바람 많은 제주 섬에서 바람과 싸워 온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담겨 있는 제주 초가에는 오름을 기대고 살아온 제주민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오행의 체(體)



사진 3-68. 제주의 초가집(좌)과 해안의 돌담(우)

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제주 오름은 특히 둥그런 원형의 곡선미가 지배적이다. 또한 제주의 오름들은 포근하게 다가오는 반월형(半月形)의 오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 초가의 원형은 오름의 형상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집의 울타리는 물론 해안이나 밭 등에 높고 낮게 고저기복(高低起伏)의 형상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돌담은 풍수학적인 산의 능선, 즉 용세를 형상화했거나 오름의 등성이가 고저를 이루며 출렁이는 듯한 형상의 곡선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8. 한라산이 품은 제주 오름의 풍수적 가치

거문오름/서검은이/거문악(巨文岳)

- 구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구룡농주형(九龍弄珠形)의 형국
- 용(龍)과 봉황(鳳凰)의 기운이 스며있는 상징의 오름
- 구름 속에 달이 숨은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의 형국
- 구름 속에 여의주를 드리운 운중여의형(雲中如意形)의 형국

거문오름은 아홉 마리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구룡농주형(九龍弄珠形)의 형국이며, 용(龍)과 봉황(鳳凰)의 기운이 스며있는 상징의 오름이기도 하다. 또는 구름 속에 달이 숨은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과 구름 속에 여의주를 드리운 운중여의형(雲中如意形)의 형국이기도 하다. 길상(吉祥)을 나타내는 사령(四靈)은 용(龍), 봉황(鳳凰),



사진 3-69. 한라산과 어울린 오름들



사진 3-70. 거문오름에서 바라본 동쪽의 오름군

기린(麒麟), 귀(龜)를 말하는데, 상서로운 기운을 품고 있는 거문오름은 그중 용과 봉황의 기운이 스며있는 상징의 오름이며 한라산에서 이어진 출렁이는 내룡(來龍)을 따라 흘러온 영기(靈氣)가 맺힌 곳이다. 동쪽의 오름을 바라보며 주위의 부대오름, 부소오름, 골채오름, 조천민오름, 우진제비오름, 가메옥, 알바매기오름, 옷바매기오름, 거진오름, 거슨새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체오름, 송당민오름 등이 호위하는 가운데 구룡이 모여 신령한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다. 지세의 변화가 무쌍하여 보는 방위와 각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오름이다. 마치 구름 속에서 구룡(九龍)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듯 전후좌우로 봉우리가 기복을 이루며 능선을 타고 에워싸니 문득 서 있는 곳이 속세와는 차단되어 고상한 은자(隱者)가 깃들어 살 듯한 분위기다. 그 가운데로 여의주 격인 알 오름이 봉긋하게 솟아 전후좌우로 골짜기를 형성하고 깊은 숲을 형성하며 심원(深遠)의 발원처를 형성한다. 높고 낮게 이어진 깊은 골짜기는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 신비한 변화를 자랑하고 오고 감을 무색하게 하듯이 도무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다. 거문오름에 들어서면 마치 그 옛날 중국의 삼국시대 蜀(촉)의 제갈공명이 돌

을 쌓아 진(陣)을 만든 미로(迷路)의 팔진도(八陣圖)에 빠진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고저기복(高低起伏)의 장엄한 출렁임은 속인(俗人)의 안목으로는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니 과연 거문오름은 태고(太古)의 비경을 간직한 신령한 신(神)의 오름으로 부를 만하다. 지세를 살피면 서남쪽에서 지기를 받아 북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종산인 한라산을 바라보며 북동쪽으로 꼬리를 내린 형상이다. 하나의 오름이지만 능선의 바깥쪽으로 사방팔방 수없이 가지를 뻗어 내려간 형국이 멀리서 보면 마치 큰 거미가 기어가는 듯하고, 여러 개의 봉우리가 거미줄처럼 얹혀 구름이 여의주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구슬을 꿰맨 형상이기도 하다. 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동으로 내려오다가 고개를 돌려 서북쪽으로 흘러가 종당에는 덕천, 선흘, 대천, 송당 등을 거쳐 동쪽으로 구불구불 구곡수(九曲水)를 이루며 내려간다. 분화구 안의 알오름은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을 구성하는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능히 바람을 감추고 생동하는 기운이 강하게 모이는 곳이라 사찰이나 기도처로는 적당한 지세를 갖추고 있다.

거문오름의 영험한 기운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보내주고 있지만 특히 외륜(外輪)의 남쪽 방향과 동남쪽 방향 기슭 곳곳에 유택이 들어서 있다. 거문오름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이든 이곳의 기운을 타면 화려한 관직이나 문장학사가 나오고 누대(累代)로 발복할 수 있는 터인지라 맥이 장구하여 오래오래 번창해 갈 명당대지라 할 수 있다. 거문오름을 두루 편답하노라면 보는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읽을 수 있다. 구름 속에 달이 숨은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의 형국, 구름 속에 반달이 보이는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의 형국, 구름이 여의주를 가지고 희롱하는 구룡농주형(九龍弄珠形)의 형국 등 거문오름을 화려하게 장식(裝飾)하는 풍수적 형국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거문오름은 동쪽의 땅 기운을 갈무리하는 영험한 곳으로 이 속에는 자연, 역사, 인문,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오름이다. 특히 제주도적인 땅의 성정을 파악하는데 풍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지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태적인 측면의 식물학적·지리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로, 각 방면에 공동의 학술적 연구가 지속 요구되는 신비를 머금은 생명의 보고(寶庫)로서 제주의 또 다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사라악(紗羅岳)/사라오름

- 신이 내린 천장지비(天藏地秘)의 명혈지(明穴地)
-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의 형국
- 동쪽 지맥을 이어주는 오름의 전설

흰 구름 오가는 산정(山頂)에서 허심한 마음으로 시간의 역사를 반조해 보았는가. 고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유월의 짙은 녹음을 사이로 저 장엄한 옥반형(玉盤形)의 사라악 산정호수에 투영된 산 그림자에 마음을 놓아 보았는가. 그렇다. 사라악의 품에 세상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 몸을 맡기어 고요히 마음을 관조하노라면 선계(仙界)의 청학(靑鶴)이 날갯짓 하는 듯 물외(物外)의 세계를 소요하는 우리는 어느새 적송자(赤松子)가 되어 시공을 넘나들고 있음을 자득한다.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인간의 홍망성쇠와 부귀빈천이 풍수의 이치에 의한 길지의 선택 여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산과 물이 조화된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명당



사진 3-71. 사라오름 분화구 전경(좌)과 성판악과 어울린 사라오름(우)

택지를 찾아 삶의 터전을 가꾸며 후손 대대로 번영의 길을 추구하고자 했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은 산천의 수려한 기상과 산천의 둔탁한 기상에 의해 잘 나고 못난 사람이 나온다는 뜻인데, 사라악은 풍수를 논하는 지사들에게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상의 땅이기도 했다. 제주의 동쪽 지맥을 알려면 먼저 사라악을 느껴야 한다. 사라악은 '제1음택명혈지'이기에 앞서 동쪽 오름의 전설적인 존재로서 힘차게 박동하는 동쪽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생동하는 기운을 호흡기관인 성판악이 받아들여 마음껏 대자연의 기운을 호흡하며 동쪽의 곳곳으로 지맥을 일으켜 땅의 기운을 순환시킨다. 예전의 어느 지관들은 한라산의 산세가 백 리가 채 안 되어 인물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백두산을 태조산(太祖山)으로 삼으면 그 주장은 억지임이 틀림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주도는 기운이 생동하는 영험한 대맥이 월출산을 이어 바다 건너 뻗어졌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후지(王侯之地)였다. 중국에서 보낸 풍수의 달인 호종단(胡宗旦)이 지맥을 끊으려 한 전설을 보더라도 제주도는 어느 곳에 비교되지 않는 명혈대지임을 잘 입증해주는 풍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라악은 풍수를 논하는 지사들에게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상의 땅이기도 했다. 사라악은 오기(五氣)가 고루 모이는 땅으로 예부터 현인 군자가 많이 나 하늘이 점찍어 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감추는 오복지지(五福之地)로 덕이 없는 자는 일찌감치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사라악은 한라산의 동북 중간에 있는 허리 부분으로써 형세는 기운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의 형국으로 볼 수 있으며 조안격(朝案格)인 성판악은 오히려 살찐 개구리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일찍이 장상(將相)의 땅으로 점지된 이곳은 후덕한 자가 서쪽을 의지해 바라보면 천지의 비밀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제주의 동쪽 주맥은 사라봉에서 성판악으로 다시 조인납(助仁納)을 거쳐 우도(牛島)로 지맥이 형성되는, 그중 사라악에서 첫 번째로 큰 명혈이 뿜히니 어찌 이곳을 지나치지 않은 지사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한 명혈지가 아닌 것이다. 정신을 키우는 상징적인 명혈지로 제주의 생동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다. 해발

1,200m 이상에 4대 명혈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섬의 제주가 아니다. 한라의 영봉(靈峰)이 뿜어내는 유장한 기운이 백두에서 심원하게 이어진 보혈(寶穴)의 큰 땅임을 자부해야 한다.

불래오름/불래산(佛來山)

- 봉황이 알을 품은 봉소포란형(鳳巢包卵形)의 형국
- 큰 기운 품고 세속 잊은 청허(淸虛)한 풍경지(風景地)
- 수려한 산세에 아늑한 지세로 명혈(明穴)을 품은 곳

불가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불래오름은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중문동에 속하나 제주시와의 접경에 위치하여 북동쪽 사면의 일부는 애월읍과 경계가 된다. 지세적인 특징은 한라산의 산줄기인 용맥을 타고 둥근 풍수의 오성산형체로 금형인 부봉(富峰)과 필봉의 기세인 목형(木形)의 형태로 넓은 평원에 우뚝 솟은 형상이다. 높고 가파른 듯 보이나 비교적 평평한 등성마루로 이루어져 북서쪽으로 입을 벌린 말굽형 오름이다. 이 오름에 올라서면 수려한 산세에 아늑한 지세로 형성된 명혈(明穴)을 감추고 있는 산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기운의 경계를 가르는 물의 방향이 하나는 북



사진 3-72. 영실 등산로에서 바라본 불래오름(좌)과 불래오름 전경(우)

서쪽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남서쪽으로 흘러내려 법정악의 계곡을 이루며 ‘큰내’로 들어간다. 풍수지리의 물형(物形)으로는 마치 봉황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봉소포란형(鳳巢包卵形)의 형국이다. 주변의 깊은 골짜기는 속세와 차단된 듯하고 가파른 기암절벽과 가파른 조도(鳥道)의 낭떠러지가 마치 병풍을 둘러친 듯 펼쳐져 있다. 그 사이로 이어지는 청허한 풍경은 세속의 일과는 무관한 듯 대자연의 절주인 무상의 이치를 안고 세월을 타고 있는 듯 보인다. 산정의 주봉이 풍후하고 넉넉하여 금형(金形)의 형태로 미끈하게 넘는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반면 머리는 독수리가 비상을 준비하듯 날랜 모습을 하고 있다. 풍수의 작국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에서 현무의 방향에 명당의 국세가 전개된다. 이곳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는 영실계곡을 거쳐 온 복류천(伏流川)으로서 주작인 남쪽의 용맥을 타고 유연하게 흘러간다. 산의 정상부에 올라서면 영실계곡의 오백나한이 시야를 사로잡고 깊은 숲속 남서면 쪽엔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용출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예로부터 스님들이 수양의 도량으로 삼던 청정한 정기가 서린 존자암의 절터가 자리하고 있다. 한라산을 나한산(拿漢山)으로 삼는다면 절터의 조건이 잘 부합된 요지로 알려져 있다. 왼쪽의 청룡 지세는 출렁이듯 꿈틀대며 산허리를 따라 내려오며 안쪽으로 감싸려는 듯하고 우측의 백호 지세는 청룡의 지세와 입을 맞추려는 듯 호응하는 기세로 감싸고 들어와 빼어난 기운을 안겨주고 있는 곳이다. 국세를 호위하는 경계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절벽과 절벽이 마치 얼굴을 마주 보고 호응하는 듯 정답을 나누며 벗하는 형국이다.

어승생(御乘生)/어승생악(御乘生岳)

- 힘찬 기운을 뿜어내는 생명의 용출지(湧出地)
- 상제가 타고 하늘을 달리는 궁마어천형(宮馬御天形)의 형국
- 하늘의 말이 노니는 천마유주형(天馬遊駐形)의 형국



사진 3-73. 어승생오름(좌)과 눈 덮인 어승생악(우)

한라산의 서북쪽을 의지하여 당찬 산세를 자랑하는 어승생은 북쪽을 이어지는 지맥과 수원(水源)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오름이다. 풍수에서 생동하는 산줄기인 용맥은 물이 가면 산이 따르고 산이 가면 물이 따라야 한다. 어승생은 산세가 중후하고 위용을 갖추어 오름의 정상부인 동쪽 등성마루에 서면 마치 천마(天馬)의 안장에 올라 세상을 관조하는 느낌이 든다. 천지의 비밀을 감춘 듯이 깊은 계곡은 좌우로 구불구불 이어지고 높고 낮게 출렁이듯 기복을 타고 힘차게 흘러내리는 그 형상은 마치 용(龍)이 조화를 부리고 꿈틀대며 활개 치는 듯하다. 양명한 어승생의 땅기운은 힘차게 흘러내리는 용맥이 때론 좁아지고 꺾이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 흘러내린다. 그것은 바로 산맥이 진행하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승생은 지세의 변화가 출중하여 마치 상서로운 용(龍)이 풍운조화를 부리는 듯 그 시작과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산세의 변화가 출중한 어승생은 영남(瀛南)의 제일지(第一地)로서 손색이 없는 명혈대지이다. 풍수적으로 명혈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어승생은 그 웅장한 몸체를 자랑하는 듯 산체의 기상이 호방하고 당당하다. ‘아흔아홉골’의 비경과 어울리며 물의 발원지를 품고 있는 어승생은 동북쪽으로는 도근천의 상류부를 끼고 있고, 서남쪽은 외도천의 상류부인 어리목이 자리한다. 그 사이로 장엄한 물줄기는 구곡(九曲)의 신비를 안고 줄기차게 북록(北麓)의 일대를 안고 달려간다. 예로부터 어승생은 높은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이 산정에 내린 명혈대지로 알려져

있다. 산세의 변화가 위아래로 나열한 듯하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두루 갖추니 이곳의 정기를 받으면 무관과 문관이 연이어 함께 나오는 땅이라고 했다. 또한 땅이 생동하고 양명하여 어승생의 지기를 타면 부귀의 가지와 잎이 무성하듯이 자손 대대로 번성한다고 했다. 산이 오묘하여 하늘이 감추고 땅이 감추는 천장지비(天藏地秘)의 땅이므로 혈처(穴處)가 혹은 위에 있고 혹은 아래에 맺혀 풍수사들까지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승생의 기운을 얻으려면 덕을 쌓은 집안만이 하늘이 용사(用事)를 내린다고 했으며 마음을 다하고 치성을 다해야 이곳의 혈(穴)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산체의 위쪽은 대개 와혈(窩穴)이요, 아랫부분은 대개 겸혈(鉗穴)이 맺히니 상하로 혈처가 분명히 나뉜다고 했다. 같은 기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니 발복이 장구하고, 동남쪽의 형상은 선인(仙人)이 산정에 거꾸로 선 듯하고, 서북쪽의 산록인 허리 부분과 정강이 부분은 산세의 형상이 마치 8만 신하가 도열하여 엎드린 듯하다. 맥상이 좌우로 감싸듯 감아 돌고 주변의 높은 태을(太乙)의 정봉(頂峰)들이 호응하여 첩첩히 호위하고, 서북쪽 산록 아래로 한라산이 어승생을 높이 받친 듯한 형상이 전개되니 마치 상제나 임금의 말을 타고 높이 하늘을 달리는 궁마어천형(宮馬御天形)이나 천마유주형(天馬遊駐形)의 물형(物形)이 이루어진다. 제주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용출지(湧出地)인 어승생은 청정한 기운을 제주시에 보내주는 오름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자 신령한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명분으로 한 난 개발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붉은오름/적악(赤岳)

- 장군이 전쟁에 나가는 장군출진형(將軍出進形)의 형국
- 애월(涯月) 방향으로 지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오름
- 삼별초(三別抄)의 항몽정신(抗蒙精神)이 서려 있는 곳



사진 3-74. 어승생에서 바라본 붉은오름(좌)과 붉은오름 전경(우)

붉은오름은 향파두리 남동쪽에 위치하여 김통정(金通精) 장군에 대한 전설과 함께 삼별초(三別抄)가 최후로 항전했다가 전멸하여 피로 물든 산으로 이름난 곳이다. 행정구역상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속하며 붉은오름의 남쪽에는 삼형제오름이 가까워서 호위하고 있다.

지세적인 특징은 오름의 왼쪽에 출렁이듯 높고 낮게 기복(起伏)을 이루며 호응하는 노루오름이 있고, 계곡을 끼고 흘러내린 남쪽 사면은 지세의 변화가 비교적 가파른 편이다. 굴부리가 패인 북쪽 사면 방향으로 멀리 비양도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적인 아름다움을 안겨준다. 북쪽에서 붉은오름을 보면 마치 쌍태봉의 형태로 다가온다. 붉은오름의 오른쪽으로 감싸며 돌아온 백호줄기는 한라산의 북쪽 용맥을 타고 내려온 산줄기가 어승생악에서 기운을 다시 한번 응집한 다음 천아오름으로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리다가 다시 김수(金須) 장군이 진(陣)을 쳤다는 ‘김수못(金須池)’과 ‘김수분묘(金須墳墓)’가 있는 산새미오름을 거쳐 노꼬메오름으로 연결된다. 이 오름의 서쪽과 동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특히 동쪽의 계곡이 크고 깊어 동서 양쪽 계곡은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천아오름 근처에서 합수(合水)하여 외도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풍수적인 작국의 형세로 보아 붉은오름의 지세는 환포되어 마치 궁궐터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붉은오름으로 이어진 지맥(地脈)은 계속하여 향파두리(缸坡頭里)를 중심으로 고성리 아래쪽

에 있는 파군봉을 거쳐 해안에 위치한 ‘군항포’까지 지맥이 연결된다. 위쪽의 거문
덕이오름을 안산으로 삼으면, 항파두리에서 조망했을 때 마치 장군이 수많은 군사
를 호령하는 형국인 장군출진형(將軍出進形)의 물형(物形)이 성립된다. 삼별초 항쟁
의 정신이 서려 있는 오름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름이며 풍수
적으로도 애월읍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맥을 연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동수악(東水岳)과 논고악(論古岳)

- 산정 물빛에 투영된 쌍태봉(雙台峯)과 삼태봉(三台峯)

물과 산이 조화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동수악과 논고악은 산빛 고운 자
태로 세류에 찌든 인간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이곳은 산과 물이 부부의
유정을 이루는 곳이다. 풍수지리학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과학



사진 3-75. 동수악 전경

이다. 산천대지에 흐르는 기(氣)의 특성을 아는 것은 풍수를 연구하는 근본이 된다. 땅의 발원인 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지리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풍수에서 물을 얻지 못한 산은 재산이 없는 것과 같고 물은 얻었으나 산을 얻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 생기를 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왜 산으로 가는가. 산을 오를수록 산은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심연의 화두만 남긴 채 더욱 미궁에 빠트린다. 서중천(西中川)으로 빠지는 계곡의 하천을 끼고 동수악으로 향하는 중에 잠시 빼어난 비경에 몸을 맡기노라니 청량한 곡풍(谷風)이 마음에 일각(一覺)을 던진다. 이곳은 정녕 선인이 백학을 타고 노니는 선유동(仙遊洞)일까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기암괴석 사이로 맑은 물줄기 흘러내리고 숲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기슭 곳곳에 피어 있는 산꽃들의 향기가 세외지정(世外之情)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동수악의 산정 분화구 안쪽 사면에 몇 기의 묘가 편안히 자리하고 있다. 화구호 맞은편 서남쪽에 다정한 두 형제의 모습으로 둥근 금형(金形)인 부봉(富峰)과 목형(木形)인 문필(文筆)의 봉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 사이로 둥근 대야 모양의 옥반형(玉盤形) 화구호(火口湖)가 보기 좋게 물빛을 띠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압권을 장식하는 부분이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세 봉우리의 삼태봉으로 이루어진 정기 서린 논고악은 풍수의 오성산형체(五星山形體)인 둥근 금형(金形)과 필봉의 기세인 목형(木形)의 겸체(兼體)로 북동 방향으로 개구(開口)되어 동쪽 사면이 비교적 가파른 지세를 안고 있다. 정상부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웅장한 동쪽 오름의 맹주인 성판악이 무인(武人)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의 형국으로 바로 눈앞에 펼쳐져 위엄 있게 버티고 있다. 일찍이 오름 나그네로 오름에서 살다 오름으로 돌아간 고(故) 김종철(金鐘喆) 선생님도 논고악의 산정에 올라 정원 나무 그늘에 앉아 선비들이 고금의 선현을 논하였을지도 할 만큼 고아한 정취가 감도는 곳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곳이다. 동수악과 논고악은 사라악에서 성판악으로 다시 성판악에서 이어져 분기하는 동쪽 지맥의 중요한 허리부분으로써 산과 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뛰어난 곳으로 주목할 만하다.

사려니오름

- 치유와 명상의 숲인 ‘사려니숲길’의 본신
- 대아적인 마음으로 관조하여 본성을 자득하는 곳
- 청아(清雅)한 산정(山頂)에 잠긴 고요한 기운

사려니오름은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름다운 숲길의 본신(本身)에 해당하며 대아적인 마음으로 관조하여 본성을 자득하게 하는 오름이다. 청아한 산정에 잠긴 고요한 기운을 느끼며 호연지기(浩然之氣)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름의 주변은 아름다운 숲길이 이루어져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인 ‘웰-빙’의 원형을 추구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사려니오름은 머че오름, 넙거리오름과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위치한 지점도 삼각좌(三角座)를 이루고 있다. 숲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이치를 느끼고 명상과 기공(氣功)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숲속에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⁷⁾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숲길을 걸으며 동화와 같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чат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약 15km의 숲길을 말한다. 해발고도 500~600m 높이에 있는 사려니숲길은 완만한 평탄지형으로 주변에는 물чат오름, 말чат오름, 궤팽이오름, 마은이오름, 거린오름, 사려니오름이 있다. 사려니오름의 산정에 올라 주변 지세를 살펴보면 서남 방향으로 넙거리오름, 녀시오름, 고이오름, 칠오름, 생길이오름, 제지기오름, 쇠섬

7) 1943년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이 처음으로 발표한 말인데, 식물이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도 이루어진다. 이에 여러 상품에 피톤치드의 효능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사진 3-76. 금형(金形)의 사려니오름(좌)과 울창한 숲의 사려니오름 산책로(우)

등이 조림하고 서북 방향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성판악, 영천악, 미악산이 뒤에서 받쳐주고 조산과 안산으로 조화를 이룬다. 동북 방향으로는 물오름, 붉은오름 등이 호위하고 동남 방향으로 머제오름, 거린오름, 마은이오름, 민오름 등이 호종한다. 한라산에서 힘차게 흘러내린 맥(脈)이 사라오름, 성널오름, 논고악을 거쳐 검은오름으로 이어져 이곳 사려니오름으로 들어왔다. 산정에서 북쪽을 의지하고 좌정(坐定)하면 산줄기는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물은 왼쪽으로 흘러오는 풍수적 음양지세를 이루고 주변의 오름이 문무백관이 호위한 것처럼 서로 감싸고 사귀는 안정된 지세를 이룬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는 학문이기에 사려니오름이 주는 풍수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사려니오름을 생태의 숲으로 지정했듯이 제주 전역이 이와 같은 맥락(脈絡)으로 생태환경이 잘 조성된 친환경적 자연마을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괘팽이오름/셋괘팽이/셋괘팽이/괘팽이

- 삼태봉(三台峰)에 서린 고운 자태
- 산정(山頂)에 아름다운 옥반형(玉盤形)의 화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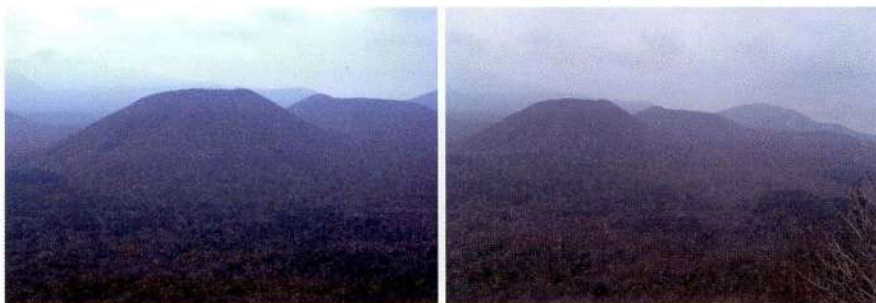


사진 3-77. 물참오름에서 바라본 궤평이오름 전경

한라대맥을 타고 장엄하고 신령한 한라산의 품에 다가갈수록 싱그러운 초목의 내음과 청초한 야생화의 향기가 잊힌 우리의 꿈과 그리움을 되살려내고 있다. 그 오름의 자락마다 약동하는 기운이 동벽(東壁) 한라산의 위쪽을 향해 올라갈수록 태고의 위용을 드러내고 마치 파도가 출렁이듯 기복을 거듭하며 확연한 생명의 몸짓으로 산천의 변화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오름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바람을 맞으며 동쪽의 지맥을 따라 궤평이오름에 이르기까지 동쪽 산하를 장식하고 있는 숲한 오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생명력을 절실하게 실감한다. 종산인 한라산의 백록담으로부터 발원한 동쪽의 기맥이 동북의 허리이다. 1대 명혈이 맺힌 사라악에서 성널오름으로 크게 뭉쳐 그 기운이 다시 두 가닥으로 벌어지면서 한 줄기는 동남쪽의 남원을 수망리를 거쳐 음택의 5대 명혈지로 알려진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의 반듯이얹으로 흘러내리고, 다른 한 줄기는 일명 ‘개남물’로써 조산(朝山)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동북쪽의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조인남 쪽으로 이어져 와우형(臥牛形)인 우도에서 그 유원한 기운을 그친다. 이제 그 중간인 궤평이오름에 들어서서 천미천의 지류를 가로질러 능선으로 향하다가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살짝 고개를 들면 한눈에 보아도 반달 모양인 금형(金形)으로 다가오는 궤평이·셋궤평이·셋궤평이오름이 마치 다정한 세 자매가 어깨를 나란히 한 듯 사이좋게 이어져

삼태봉(三台峰)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고운 여인의 자태로 유혹하듯 손짓하는 세 봉우리는 산정의 화구호에서도 둥그런 원형의 옥반형(玉盤形)을 이루어 지친 산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궤평이오름은 여느 오름과는 달리 능선이나 분화구 또는 외사면에 묘지군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오름의 외사면이 굴곡이나 기복이 없이 반듯하게 경사만 이루어져 있는데 풍수에서 중시하는 물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괴평이오름의 북동쪽의 아래에서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다. 계곡을 가로질러 살짝 올라가면 평평하고 봉긋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곳은 물줄기의 변화가 굽이굽이 감싸 안고 기운의 경계를 이루는 사이에 있는 복판으로 양명한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역시 묘역이 자리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오름은 분화구 안쪽에 또는 오름의 사면에 묘역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묘지의 담장인 산담은 음택풍수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땅속에 석질이 많은 관계로 토질이 얇은 제주에서는 대개 땅의 기운이 지표면 가까이 뜬 혈(穴)로 이루어져 천광을 깊게 파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배토장(培土葬)의 형식이 가미된 장법을 어느 정도 취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묘지는 혈장을 보호하는 선익(蟬翼)이나 용호(龍虎)의 형성이 육지의 산형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혈에 모인 기운이 팔요풍(八曜風) 즉, 바람에 노출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방법으로써 산담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담의 크기와 높이로 집안의 지위를 은연중 나타내거나 목축으로 인한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풍수학적 견해로 볼 때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지세에서 기인한 제주 선인들의 자연관과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чат오름/검은오름/수성악(水城岳)

- 하늘의 기운 담은 옥반형(玉盤形)의 산정호수
- 지맥의 경계를 이루며 사려니숲길을 품은 산체
- 힘찬 산룡(山龍)의 변화로 주변에 생기(生氣) 전달

물чат오름은 ‘사려니숲길’을 이루고 있는 오름으로 서북 사면의 지세는 비교적 완만하고 동남 사면은 경사가 급하다. 조천읍, 남원읍, 표선면 등 3개 읍면의 경계선이 마주치는 곳으로 산정 분화구에는 아름다운 분화구 못을 이루고 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화구호(火口湖)는 수량(水量)이 많아 바람이 일 때는 넘실거린다.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힘찬 맥(脈)의 한 줄기가 흙붉은오름을 거쳐 어후오름으로 이어지고 다시 궤팽이오름과 물오름으로 흘러내려 이곳 물чат오름으로 이어졌다. 그중 한 줄기는 다시 마은이오름, 거린오름을 거쳐 사려니오름과 남원의 민오름 방향으로 흘러가며 지맥을 이어준다. 서북 방향으로 궤팽이오름, 넓거리오름, 물장울이 호종하고, 서남 방향으로 종산(宗山)인 한라산을 비롯하여 사라악, 논고악이 공간의 조화를 이루며 조림(照臨)하고, 동북과 동쪽으로 붉은오름, 검은이오름, 칠팔오름, 구두리오름, 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등이 조안(朝案)을 이루며 호종하고 있다. 물чат오



사진 3-78. 물чат오름 산정호수(좌)와 선계(仙界)를 연상하게 하는 산정호수(우)

름은 사려니오름과 더불어 ‘사려니숲길’을 이루고 있는 주요 오름이다. 물참오름은 많은 사람이 생명의 숲인 이곳 사려 숲길을 올 때 경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동쪽 사면은 두 팔을 벌린 듯이 굽부리가 패어있고 사면에 따라 산릉의 변화가 있는 산체이다. 이곳에 들어오면 속세를 벗어나 선계(仙界)에 들어온 느낌을 받는다. 바람에 스쳐 일렁이는 물을 바라보며 잠시 세상의 시비를 잊을만한 곳이다.

미악산(米岳山)/솔오름/미악(米岳)

- 서귀포시를 마주하고 있는 목형(木形)의 우아한 자태
- 독봉의 형태로 한라산과 어울린 기운찬 모습
- 밝은 기운 서린 쌍봉(雙峰)의 유정(有情)한 상징
- 한라산 남쪽에서 발원한 물줄기의 합수처(合水處)

미악산은 서귀포시를 내다보며 독봉(獨峯)의 형태로 한라산과 어울려 우아한 자태와 위용 넘치는 모습으로 위치한 오름이다. 밝은 기운이 서린 동북과 서남의 두 봉우리는 유정한 모습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라산 남쪽에서 발원한 대부분의 물줄기가 합수를 이루는 곳이기에 기운의 경계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오름이다. 남쪽 사



사진 3-79. 목형(木形)의 미악산(좌)과 한라산과 어울린 미악산(우)

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름의 동쪽 기슭을 끼고 흐르는 계곡은 일명 ‘정술내’라고 하는 보목천의 상류에 해당되는데,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흐르다가 상효천과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또한 한라산 남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름의 서쪽 기슭에서 합류하여 서흥동과 동흥동의 경계를 가르며 해안 쪽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한라산 남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방애오름을 거쳐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미악산 북쪽 기슭을 흐르는 효돈천 계곡과 합류하여 많은 물줄기와 만나며 남원읍과 서귀포시 기운의 경계를 가르며 바다로 들어간다. 미악산은 산과 물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풍수의 이치를 자아내는 곳이다. 물과 산룡(山龍)이 만나 변화를 즐기는 가운데 오름의 북쪽으로 산이 벌어진 틈이라는 의미의 일명 ‘산벌른내’는 미악산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비경이라 할 만하다. 솔오름 정상부에서 서귀포시를 바라볼 때 제지기오름, 섯섬, 문섬, 범섬이 바다에 조안으로 떠 있고, 영천악, 칩오름, 삼매봉, 각시바우오름, 고군산, 월산봉 등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뒤쪽으로는 험한 한라산의 남벽이 가깝게 후탁하고 ‘산벌른내’를 중심으로 천혜의 비경을 자연 병풍에 담아 둘러친 듯하다. 미악산은 남쪽의 물줄기를 모으고 분기(分岐)시키며 기운의 경계를 가르는 오름이며 쌍봉의 정기를 품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남쪽에 맥을 이어주는 신(神)이 선물한 중요한 보배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정상부에 철탑이 세워져 있지만, 더 이상은 인위적인 개발과 시설물 설치로 서귀포시로 들어가는 맥을 차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아리오름/용와리오름/용와이악(龍臥伊岳)

- 누운 용(龍)이 물을 마시는 와룡음수형(臥龍飲水形)의 형국
- 행기소(幸器沼) 품고 있는 영기(靈氣) 띤 산체(山體)
- 용(龍)의 변화가 무쌍(無雙)한 금형(金形)의 풍만한 몸체



사진 3-80. 금형(金形)의 영아리오름(좌)과 영아리오름 산정호수(우)

영아리오름은 북쪽 기슭을 끼고 동쪽과 서쪽으로 계곡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수기(水氣)가 빼어난 오름이다. 둥근 대야 모양의 옥반형(玉盤形) 분화구 안에 호반(湖畔)을 안고 있는데, 용의 남서쪽 기슭에 자리한 예쁜 습지인 산정호수는 바람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며 속세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선정(禪定)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요한 곳이다. 영아리오름 남쪽 정상부는 여인의 눈썹 같은 아미형(蛾眉形)인 둥근 모양으로 어여쁘게 솟아있고 정상부는 돌무더기가 붉은 기운을 띤 흙 위에 배열되어 있어 밝은 기운을 자랑하고 있다. 변화가 출중한 오름이며 고요함의 정취를 안겨주는 세외도원(世外桃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오름이다. 서북의 용맥은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남서쪽으로 돌무더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사면이 비교적 가파르다. 동남으로 어오름이 호위하며 따르고 몸체가 북쪽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용기된 지세를 안고 있다. 북쪽 봉우리와 서쪽 봉우리가 쌍봉(雙峰)을 이루며 서북으로 몸체가 휘어져 있다. 지세가 완만하면서도 방위에 따라 변화를 이루며 주변 오름의 주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주봉은 동북으로 힘차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영아리오름은 주변의 마북이오름, 어오름, 하늬북이오름, 이돈이오름과 더불어 공간적인 조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강한 땅 기운을 형성한다. 천리(天理)는 곧 인도(人道)와 부합된다. 용(龍)의 변화가 무쌍하듯이 우주 삼라만상은 변화가 헤아릴 수 없이 막측(莫測)하여 인생의 필연과 우연, 기회와 인연 등의 착종(錯綜)

관계를 헤아리는 일은 산세를 헤아리는 것처럼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는 근본적인 자연학문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절물오름/단하봉(丹霞峯)/단라악(丹羅岳)

- 절물오름의 정기로 솟아난 천혜의 약수(藥水) ‘절물’
- 산룡(山龍)의 변화가 무쌍한 쌍태봉(雙台峯)의 정기(精氣)
- 양쪽으로 물결치듯 흐르는 능선이 품은 원형분화구
- 여인이 금잔(金盞)을 안은 옥녀금반형(玉女金盤形)의 형국

절물오름은 쌍봉(雙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물을 품은 주봉이 큰대나오름, 동남쪽 방향에 이어진 것을 죽은대나오름이라 부른다. 산줄기의 변화가 무쌍한 가운데 쌍태봉(雙台峯)의 정기가 천혜의 약수인 ‘절물’을 만들어낸다. 양쪽으로 물결치듯 흐르는 능선이 허리에 품은 원형분화구와 죽은대나오름의 살짝 패인 분화구 같은 형태는 마치 2개의 분화구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영기(靈氣) 서린 산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최고의 물맛을 자랑하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해주고 산과 물이 어울



사진 3-81. 민오름에서 바라본 절물오름(좌)과 둥근 금형의 절물오름 주봉(우)

리고 양명한 기운이 서리니 음양의 이치에 부합하는 오름이다. 절물오름의 주봉인 전망대에서 좌정(坐定)하면 동쪽으로 이어진 오름의 끝부분에는 멀리 성산일출봉이 조용하고 서남 방향으로 개오리오름과 종산인 한라산이 받쳐주고 있다. 서북 방향으로 제주시와 관탈섬, 비양도가 조림하고 동쪽과 동북쪽으로 봉개 민오름, 지그리오름, 바농오름이 조안(朝案)으로 호위하며 따르고 있다. 절물오름으로 이어진 지맥은 종산인 한라산에서 힘차게 내려온 땅 기운이 물장울과 찰손장오름 방향을 거쳐 테역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진이오름을 거쳐 개오리오름으로 이어져 이곳 절물오름으로 들어왔다. 절물오름으로 들어온 맥은 그중 한 줄기가 다시 봉개 민오름, 큰지그리오름, 죽은지그리오름, 바농오름, 피꼬리오름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 줄기는 절물오름에서 민오름을 거쳐 늑서리오름, 큰방애오름, 죽은방애오름, 부대오름, 거문오름으로 이어져 간다. 오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약수암(藥水庵)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름의 주변이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휴일이면 많은 사람이 삼림욕을 즐기고 산책하러 오는 곳이다. 절물오름에서 제1횡단도로로 이어진 삼나무 숲도로는 아름다운 숲길로 잘 알려져 있다. 절물오름의 한 줄기는 거친오름을 거쳐 일명 ‘안새미’와 ‘뱃새미’인 명도오름(형제봉)으로 이어지고 다시 열안지오름을 거쳐 고냉이숲으로 이어진다. 오성(五星)의 산형(山形)으로 보름달 같은 둥근 금형(金形)을 이루고 있는 절물오름은 맞은편 봉개 민오름의 산정에서 바라보면 전체적인 능선이 물결치듯 부드럽게 기복하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수형(水形)에 가깝고 풍수적 물형으로는 여인이 양손으로 금잔을 받쳐 든 옥녀금반형(玉女金盤形)의 형국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생태적 휴식공간인 절물오름은 밝고 큰 기운을 제공하는 소중한 오름이며 생기(生氣)를 전달해주는 소중한 오름으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노꼬메큰오름/녹고악(鹿古岳)/鹿高岳(녹고악)

- 서부지역 오름의 상징적인 존재
- 뱀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는 황사청와형(黃蛇聽蛙形)의 형국
- 문기(文氣)가 뻗어난 목형(木形)의 문필봉(文筆峯) 형국

서부지역 오름의 맹주격(盟主格)으로 전설적인 노꼬메큰오름의 산세는 음양의 이치를 품고 있는 뻗어난 오름이다. 꿈틀거리듯 향진하는 행룡(行龍)의 변화가 마치 누런 뱀이 몸체를 구부려 머리를 들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는 황사청와형(黃蛇聽蛙形)의 형국을 방불케 한다. 상서로운 기운이 어린 윤택한 능선을 따라 흐르는 청룡의 가지가 힘차게 남쪽으로 뻗어내려 가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하더니 다시 서쪽으로 향진(向進)하면서 북서쪽으로 힘차게 흘러내린다. 서남쪽으로 작은바리메오름, 큰바리메오름, 다래오름, 폭낭오름, 왕이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이 멀리서 가까이서 호위하며 따르며 노꼬메오름을 감싸고 있다. 수세(水勢)는 힘차게 왼쪽으로 돌아 서북으로 흘러가며 기운의 경계를 가른다. 동남쪽으로 노루오름이 외성(外城)을 아주 길게 휘감고 있다. 노꼬메큰오름은 조산(朝山)들이 팔방(八方)에서 조용하는 형상이 마치 천군만마(千軍萬馬)를 거느린 기운찬 장수의 모습과



사진 3-82. 노꼬메큰오름(좌)과 피라미드 형상의 노꼬메오름(우)



사진 3-83. 문필봉의 노꼬메오름

문무백관에 둘러싸여 조회(朝會)를 받는 임금의 모습처럼 당당하다. 동북으로 노꼬메죽은오름이 백호를 대신하고 있고 노꼬메죽은오름 중간에 분맥(分脈)된 계곡 사이로 백호수(白虎水)가 길고 유연하게 기운의 경계를 가르며 힘차게 보좌하며 나간다. 동남쪽으로 가파른 사면을 이루고 있는 노꼬메큰오름은 북쪽과 남쪽에 두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노꼬메큰오름의 한 맥은 서북쪽 아래로 급하게 흘러내리면서 포근하고 나지막한 궤물오름으로 지맥이 이어지다가 알오름과 거문덕이오름을 지나 수산봉까지 이어져 내린다.

풍수적 오성(五星)의 산체는 문기(文氣)가 빼어난 목형(木形)의 문필봉 형국이며 솟아오른 기세가 자못 당당하고 주변의 산세를 압도한다. 오성의 변화를 안고 있는 노꼬메오름은 애월읍 방향으로 이어진 문필의 정기로 인해 교육과 공직에 관계된 인물을 많이 배출하며 특히 그 기상이 침예하고 곧아 경찰공무원도 많이 내는 산의 형태이다. 풍수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노꼬메오름은 한라산에서 출맥한 기운이 힘찬 용맥을 따라 고저기복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필봉(筆鋒)의 기상으로 우뚝 솟아 서쪽의 지맥을 충전하여주는 기운이 강한 오름이다. 북으로 머리를 들고 서남으로 돌면서 서쪽으로 향진하다가 서북으로 꼬리를 길게 내렸다. 주봉에서 한라산을 뒤로하고 좌향을 하면 좌룡(左龍)인 청룡이 길게 힘차게 감싸며 안쪽으로

포옹하듯 기운을 이어나간다. 동남 방향으로 종산인 한라산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
 는 가운데 노루오름과 삼형제오름이 호위하고 남쪽으로는 한대오름, 다래오름, 죽
 은바리메, 큰바리메,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오름, 빈네오름, 서영아리오름
 등이 호응한다. 동북으로는 어승생, 천아오름이 호응하고 북으로 노꼬메족은오름,
 산새미, 고내봉이 호응하고 서쪽으로 비양도가 멀리 바다 위에서 호응한다. 노꼬메
 오름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의 모든 오름이 응대하며 청고한 정기를 서쪽과 서북의
 「애월」 방향으로 생동하는 지기를 전달한다. 서쪽으로 개구된 노꼬메큰오름은 산
 세가 왼쪽으로 휘감아 돌아온 좌선용(左旋龍)에 우측으로 물이 휘감아 돌아온 우
 선수(右旋水)의 지세이다. 청룡이 길게 감으며 환포하고 백호가 강하게 궤물오름으
 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북동의 노꼬메족은오름이 백호의 줄기를 보충하고 보좌함
 으로서 그 위세를 더하고 있다. 노꼬메오름은 소길리, 장전리, 하가리, 상가리, 납읍,
 용흥리 등 애월 방면에 정기를 불어 넣어주는 풍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름이며
 문필의 정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름이 지니고 있는 가치만큼 노꼬메오름과
 주변은 신개념의 웰빙코스로 각광받을 것이며 자연과 인문이 호흡하는 풍수와 생
 태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꼬메족은오름 하단부에 공적인 시
 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며 애월로 이어지는 청수한 기상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대로 물려줄 천혜의 자연을 공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
 로 더 이상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9. 한라산의 산세와 오름을 통한 제주의 형기론 풍수

제주 곳곳의 풍수적 물형(物形)

물형론(物形論)은 산천의 형세와 모양에 의해 그 속에 내재된 기운이 상통한다는 설(說)으로써 산세가 웅장하고 생동하듯 활달하면 땅속의 기운도 왕성하다는 것이다. 산세가 평평하거나 고저기복(高低起伏)하고 좌곡우곡(左曲右曲)의 굴곡 없이 완만하게 뻗었다면 그 땅속의 기운도 쇠약한 것으로 본다. 그 지기가 살아 움직이는 산세를 사람이나 짐승, 새 등의 모양에 비교하여 이치에 부합한 곳을 찾고, 그에 따른 길흉을 인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산형을 살피기 위해서는 형기론(形氣論)과 이기론(理氣論)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형국론에서는 좌정(坐定)한 형국과 사(砂)의 대응을 중시한다. 예컨대, 와우형(臥牛形)이면 소가 누워 곡초를 먹는 형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곡초형에 속하는 안대(案對)가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기론은 오성체(五星體)로 나누어 물형을 정한다. 먼저 목성(木星)과 화성(火星)의 형국에 속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형태로서 혈을 맺는 곳이 주로 심장(心), 단전 부위(臍), 음부(陰) 등이다. 두 번째로 토성(土星)의 형국은 대체로 길짐승의 형상인데 혈을 맺는 곳이 주로 이마(額), 코(鼻), 귀(耳), 배(腹), 꼬리(尾) 등에 있다고 본다. 뿔은 감각이 둔한 곳이므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금성(金星)의 형국은 짐승의 형상으로 혈이 주로 날개(翼)와 벼슬(冠), 생식기(窩) 쪽에 맺는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 수성체(水星體)의 형국은 대체로 뱀이나 용의 형상으로 주로 꼬리(尾)나 머리(頭) 부분, 코(鼻), 이마(額), 귀(耳), 배(腹) 등에 혈이 맺힌다고 본다. 그러나 입에는 강한 독이 있으므로 흉하다고 간주한다.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으로 본 제주도의 오름과 그 외 지형에 관한 형국을 대략 소개해 본다.

●식산봉(食山峰) :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 ●우도(牛島) : 와우형(臥牛形) ●영실(靈室)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지미봉(地尾峰) : 옥토망월형(玉鞦望月形) ●체악(體岳: 체오름) : 쌍유형(雙乳形) ●의항(蟻項: 개미목) : 사치괘벽형(死稚掛壁形) ●동거문악(東巨門岳: 동거문이) : 목난반개형(木蘭半開形), 괘종형(掛鍾形)마리장군형(幕裡將軍形), 척지금차형(擲地金隰形), 문합괘량사형(聞蛤掛樑蛇形) ●서거문악(西巨門岳: 서거문이) : 반룡희주형(盤龍戲珠形) ●서우봉(犀牛峰) :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함덕(咸德) : 비룡대강형(飛龍大江形) ●둔지봉(屯地峰) :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 와룡기두망해주형(臥龍起頭望海珠形),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조천(朝天) : 청조포란형(靑鳥抱卵形), 비룡팔해망복주형(飛龍八海望伏珠) ●조인납(助仁納) : 해하농주형(海蝦弄珠形) ●어도봉(於道峰: 어도오름) :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 ●구물니(龜沒泥) : 황사청와형(黃蛇聽蛙形) ●장악(獐岳: 노루오름) : 월촉낙지형(月燭落地形), 탐낭출지형(貪狼出地形), 문장희필형(文章筆形), 완용농주형(○龍弄珠形), 선인탄금형(仙人彈琴形), 귀룡농주형(歸龍弄珠形),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초월임정형(初月臨汀形), 비봉포란형(飛鳳抱卵形) ●어승봉(御乘峰: 어승생) : 환귀소형(還歸巢形), 국마어천형(國馬御天形) ●군산(軍山) :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 와우하순형(臥牛下脣形), 선인격고형(仙人擊鼓形), 옥녀등공형(玉女登空形), 관자형(官字形), 보검괘벽형(寶劍掛壁形) ●무악(戊岳: 민오름) : 비아부수형(飛鵝赴水形) ●족건대비(足蹇大妃: 조근대비) : 금차형(金隰形) ●모슬봉(毛瑟峰) : 해어농주형(海魚弄珠形),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단산(簞山) :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 ●대정남문(大靜南門) :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대정북문(大靜北門) : 황사포와형(黃蛇抱蛙形) ●차귀도(遮歸島) : 선인기국형(仙人碁局形), 금차괘벽형(金隰掛壁形), 금차척지형(金隰擲地形), 상산사분문형(上山蛇糞門形) ●산방산(山房山) : 옥촉조천형(玉燭照天形), 사치괘벽형(死稚掛壁形),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유수암(流水岩) 위쪽 : 비조탁목형(飛鳥啄木形), 소자형(小字形) ●장전(長田) : 선인기국형(仙人碁局形), 목란반개형(木蘭半開形) ●광령리(光令里) : 복룡형(伏龍形) ●대정남성악(大

靜南星岳)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무악(武岳) : 현조타란형(玄鳥墮卵形) ●별진
 전(別陣田: 별진왓) : 황룡토운형(黃龍吐雲形), 목란반개형(木蘭半開形), 서우망월형
 (犀牛望月形) ●천아악(天娥岳: 천아오름) : 천녀등공형(天女登空形) ●고내악(高內
 岳: 고내봉) :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 ●녹하지오름 : 유어봉수형(遊魚逢水形), 주
 사마적형(蛛絲馬跡形) ●고성(古城) 서남쪽 : 만궁형(彎弓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
 形) ●세오름(삼형제 오름) : 삼선회주형(三仙回舟形) ●금덕(今德) 위쪽 : 주사마적
 형(蛛絲馬跡形) ●금덕 아래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곽지(郭支) 서북쪽 : 운중
 반월형(雲中半月形) ●조천(組天)·함덕(咸德) 사이 : 노승배불형(老僧拜佛形) ●안
 덕 소병악(小竝岳) : 부귀쌍전지 ●안덕 대병악(大竝岳)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하귀 과군봉(破軍峰) : 육서하전형(六鼠下田形) ●모슬봉(毛瑟峰) 동남쪽 : 장군
 대좌형(將軍大坐形), 서쪽 : 해하농주형(海蝦弄珠形),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대
 정 가시악(加時岳) :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 ●대정(大靜) 방면 : 아독고모형(兒憤
 顧母形),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대정 북쪽 : 황사포와형(黃蛇抱蛙形) ●한경면
 조소악(鳥巢岳) : 옥봉귀소형(玉峰歸巢形) ●한경면 가마오름(釜岳) : 낙타어보형
 (駱駝御寶形) ●원수악(元水岳: 원물오름) 남쪽 : 영웅대좌형(英雄大坐形) ●월라산
 (月羅山) 서쪽 : 옥대패인형(玉帶佩印形) ●군산(軍山) 북쪽 : 보검괘벽형(寶劍掛壁
 形) ●군산 서북쪽 :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 ●군산 동쪽 : 선인격고형(仙人擊鼓
 形) ●모슬봉(毛瑟峰) 서북 : 황사축서형(黃蛇逐鼠形) ●어승봉(御乘峰) : 부아규어
 형(浮鵝窺魚形) ●성판악(城板岳) : 문장주필형(文章走筆形) ●수망리(水望里) : 복
 룡농주형(伏龍弄珠形) ●백악산(百藥山) 남쪽 : 쌍동강서형(雙童講書形) ●송당고
 악(松堂高岳) 서북쪽 아래 : 비조탁목형(飛鳥啄木形) ●서거문악(西巨門岳) 아래 :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 ●독자봉(獨子峰) : 월후종성형(月後從星形) ●모구악(母
 狗岳) 아래 :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교래(橋來) 위쪽 : 사해장군형(四海將軍形)
 ●교래(橋來) : 황홍형(黃虹形) ●표선경(表善境) :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황룡부
 주형(黃龍負舟形),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달산봉(達山峰) 아래 : 금반옥대형(金

盤玉帶形), 금구도수형(金龜倒水形) ●대정(大靜) 가시악(加時岳) 동쪽 : 선인채연형(仙人採蓮形), 면궁형(眠弓形) ●토산봉(兔山峰) 북쪽 : 규녀배두형(閨女拜斗形) ●지미봉(地尾峰) : 옥로괘벽형(玉爐掛壁形) ●하도리(下道里) : 구사축와형(九蛇逐蛙形), 옥녀채연형(玉女採蓮形),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손자봉(孫子峰) 북쪽 : 옥낭괘벽형(玉囊掛壁形) ●월랑봉(月郎峰) 아래 :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월랑봉(月郎峰) 위쪽 : 황사괘랑형(黃蛇掛樑形) ●소수산봉(小水山峰) 서쪽 : 반월형(半月形) ●교래(橋來) 위쪽 :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교래(橋來) 서쪽 : 목란반개형(木蘭半開形) ●물장오리(水長兀) 아래 : 사해장군형(四海將軍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영심기암(靈室奇巖) 아래 : 명선포지형(鳴蟬抱枝形) ●비치악(飛雉岳) 주변 : 무녀배두형(巫女拜斗形) ●거린오름(傑人岳) 중간 :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 ●성불악(成佛岳) 아래 : 유녀배두형(遊女拜斗形) ●신흥리 지경(新興境) : 노사출림형(老蛇出林形) ●한동리(漢東里) 지경(地境) : 현조괘벽형(玄鳥掛壁形) ●신평리(新豐里) 지경 : 주사마적형(蛛絲馬跡形), 옥자형(玉子形) ●가시악(加時岳) :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선인기좌형(仙人起坐形) ●표선(表善) 달산봉(達山峰) : 문장투필형(文章投筆形) ●광령(光令) 위쪽 :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운중복월형(雲中伏月形) ●광령(光令) 아래 : 복호형(伏虎形) ●광령(光令) : 연화도수형(蓮花倒水形) 등

지명(地名)과 풍수

한국의 풍토 산하 어디를 막론하고 땅이름에 관한 풍수지리설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지형 자체가 어느 동물이나 물체와 비슷하여 그러한 땅이름이 저절로 생긴 곳도 많지만, 어느 곳 이름은 풍수 사상과 연결 지어 짓기도 하고, 어떤 땅이름은 그와 관련하여 고치기도 했다.

지명에는 역사와 민속과 고사(故事) 그리고 지형이며 지표며 어떤 자연의 현상, 인간의 현상까지도 그 이름 속에 숨 쉬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많은 파괴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행정 구역을 합치고 떼고 할 때마다 지명을 별반 죄책감 없



사진 3-84. 동쪽 지맥의 주류를 이루는 동쪽의 오름들

이 파괴하고 하는 실정이다.

예로부터 제주민들에 의해 불리던 오름의 이름이 제각기 있다. 그 후 한자 표기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일제 행정부에 의해 한자로 표기된 것이 있다. 일본에 의해 표기된 한자는 풍수의 의미가 내포된 선대의 지명을 살렸다기보다는 대개 소리 나는 음(音)을 따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한자 표기를 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선대의 지관들이나 마을마다 상지술(相地術)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풍수적 형국을 살펴 유래된 지명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풍수에 관련된 오름의 대략적인 지명들이다.

물형(物形)과 관련된 오름들

견월악(犬月岳), 검은오름(琴岳), 남짓은오름(南朝峰, 木啄岳), 누운오름(臥岳), 도들오름(道頭峰), 불칸디오름(火長兀, 藏月伊), 가사오름(何沙岳), 봉개오름(奉蓋岳), 새미오름

(紗帽岳), 열안지오름(列雁地岳), 어승생(御乘峰), 오드싱오름(梧登峰, 梧鳳岳), 왕관릉(王冠稜), 칠오름·칠오름(葛岳, 七岳), 꼬꼬리오름(鶯岳), 돛배오름(楸岳, 丁岳), 서우봉(犀牛峰), 알밤오름(下栗岳), 개오름(狗岳), 구두리오름(狗頭岳), 칠팔오름, 달산봉(達山峰), 매표오름, 모지오름(母地岳), 뽕곶오름(鳳歸岳), 갑선이오름(甲蟬岳), 쇠오름·소소름(牛岳), 영아리(靈娥岳), 좌보미(左輔岳), 가세오름(袈裟峰, 加沙峰), 염통오름, 가마오름(釜岳), 새신오름(鳥巢岳), 널개오름(板浦岳), 노꼬물오름(水月峰), 한경면 당오름(堂山峰), 마종아·마중오름(馬踪岳), 저지악(楮旨岳), 이계오름(二鷄岳), 마오름(馬岳), 갯거리오름(狗尾岳), 누운오름(臥岳), 문도지오름, 한림 붉은오름(明月岳), 정월오름(正月岳), 궁대오름(弓帶岳), 독자봉(獨子峰), 통오름, 뒤굽은이(後曲岳), 모구리오름(母狗岳), 식산봉(食山峰), 유건에오름(伊近岳), 왕뽕(大王山), 거린오름(○岳), 군산·군메오름(軍山), 넓게오름(廣蟹岳), 월라봉(月羅峰), 개오름(戌岳), 단산(簾山), 영아리오름(龍臥伊岳), 왕이메(王岳·臥牛岳), 과오름·와오름(臥牛峰), 괴오름(猫岳), 노꼬메(鹿狗岳), 누운오름(臥岳·老恩峰), 도래오름(月峰), 바굼지오름(破軍峰), 바리메(發伊岳·鉢山), 빈네오름(○岳), 사제비오름(鳥接), 새별오름(新星岳·鳥飛岳), 삼형제오름·세오름(三兄弟峯), 알오름(卵岳), 천아오름(天娥岳), 쇠머리오름(牛頭岳), 거미오름·동검은이(東巨文岳), 괴살메(猫山), 돌오름(猪岳), 둔지오름(屯地岳), 뒤굽은이(後曲岳), 북오름(鼓岳), 비치미(飛雉岳), 샷갓오름(笠山峰), 성불오름(成佛岳), 손지오름(孫子峰), 아부오름·앞오름(阿父岳), 아진오름(坐岳), 어대오름(御帶岳), 용눈이오름(龍臥岳), 윤드리오름(隱月峰), 체오름(體岳·箕岳), 거린오름(巨人岳·○岳), 이승이오름(狸升岳), 겉세오름(桀瑞岳), 고이오름·고리오름(高伊岳), 녀시오름(曉녀岳), 성널오름(城板岳), 돈두미오름(敦頭岳), 모슬개오름(募瑟峰·彈琴峰), 보름이오름(望月峰), 각시바우오름(角首岩), 구산봉(狗山峰), 활오름(弓岳), 도라미(月羅山), 방애오름(○岳), 베릿내오름(星川峰), 삼매봉(三梅峰), 쌀오름·술오름(米岳), 오백장군오름·영실(千佛峰·靈室), 우보오름(牛步岳) 등.

10. 한라산이 품은 오름의 묘지풍수(墓地風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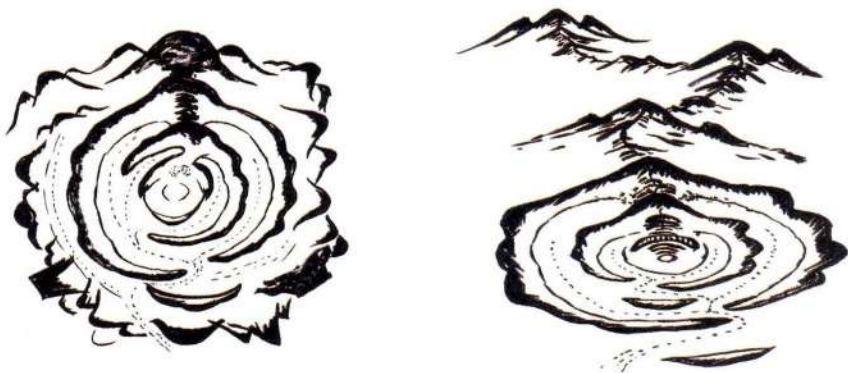


그림 3-5. 명당국세도

■ 제주의 묘지(墓地) 풍수

일반적으로 풍수라고 하면 양택(陽宅)보다 음택(陰宅)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예로부터 집터를 보는 양기(陽基)보다 묘지(墓地)를 보는 음택을 더 중시했기 때문인데,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살은 썩어 없어지지만 유골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 뼈에서 발하는 정기가 동기감응(同氣感應)에 의해 자손들의 화복(禍福)에 영향을 준다는 데서 더욱 음택을 소중히 여긴 것으로 본다. 효의 개념에서 출발한 묘지 풍수는 조상의 유해를 좋은 땅에 모심으로써 소응(所應)을 얻으려는 것인데, 그러한 집념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묘지 풍수관의 특징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혈족 관계의 문화가 한국의 묘지 풍수신앙을 한층 더 중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땅에 조상을 편안히 모시면 후손이 편안하고,

조상을 흉지(凶地)에 모시면 후손 역시 불안한 이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기후의 특성상 바람이 많고 특히 사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대개 서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거나 피하여 묘를 썼다. 물론 풍수적 지리의 이 점에 따라 방향과 관계없이 좌향(坐向)을 한 묘들도 많으나 대개 마을의 공동 묘역 등은 남동쪽으로 들어선 곳이 많다. 풍수에서 바람을 타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장풍(藏風)의 요소를 중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의 지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름에 의지하여 묘를 쓰고자 했으며 좌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허한 부분을 산담 또는 오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보완하고자 했다. 제주도 명당지는 대개 입도조(入道祖)의 묘역이 들어선 곳이 많다. 또한 제주의 묘지 풍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효와 덕을 쌓은 사람만이 좋은 길지를 얻게 된다는 관념이 강했고 그에 따른 선악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응의식(所應意識)이 깊게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묘지 풍수는 형기론(形氣論)을 중심으로 지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풍수의 이치에 맞으면 평지, 산 아래, 산 중턱, 산머리 등 할 것 없이 모두 묘를 썼다.

11. 제주 풍수의 자연환경 접근과 가치

오름의 ‘풍수적 생명관(生命觀)’ 정립

우리가 사는 제주도는 하나의 자연 생명체이다. 제주도를 생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제주적인 풍수이며 오름의 ‘풍수적 생명관’ 정립에 초석이 된다. 오름은 제주다운 최후의 모습이며, 제주를 지켜주는 최후의 생명체이다. 다시 말해 한라산은 체(體)요, 오름은 용(用)이다. 사람의 몸에 365개의 혈이 있고 제주도의 오름도 368여 개다. 한라산은 몸체요, 오름은 인체의 혈이다. 산줄기는 뼈대요, 사방으로 뻗어 내려간 하천은 핏줄이다. 백록담은 두뇌요, 산록은 허리 부분이며, 성판악은 심장이요, 어승생은 위장이며 영실(靈室)은 기운을 다스리는 폐장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아흔아홉골’은 척추에 해당하고 윗세오름은 어깨이며, 중산간은 복부와 허벅지이고, 해안선은 손과 발에 비유할 수 있다.



사진 3-85. 한라산이 품은 사라악과 성판악

역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여름의 계절이 온다.(履霜堅氷至)’라는 말이 있다. 외진 곳이라도 지리의 성정에 따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도 있지만 오고 감이 일정한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지금 이 순간 손과 발인 해안의 구조선이 본형(本形)을 잃어 가고 허리가 사방으로 잘려나가며 복부와 허벅지가 파헤쳐지고 있다. 잘리고 망가진 몸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능만큼은 돌아오지 않는다. 제주의 선민들은 오름을 제주의 생명체로 여겼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의 생명 활동과 연관하여 오름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의 풍수적 보전과 관리

■ 자연 풍수관에 대한 도민 의식의 전환

자연 풍수관을 통하여 368여 개나 되는 각자의 오름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할



사진 3-86. 제주 지맥의 원천 한라산 백록담

때 그 오름의 역할은 무한대의 비상을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주민의 삶 속에 오름이 오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오름이 가진 생명의 실체를 파악할 때 오름은 최고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에 있어서 청정 이미지의 제주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자연 풍수관이 제주에 뿌리내릴 때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은 제주의 미래에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안겨 줄 것이다.

■ 풍수관 정립으로 난개발 억제

《노자(老子)》제3장에 ‘불견가욕(不見可欲)’이란 말이 있다. 즉,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 말은 욕심낼 것만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자본의 파괴와 인간의 파괴, 나아가서는 자연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자연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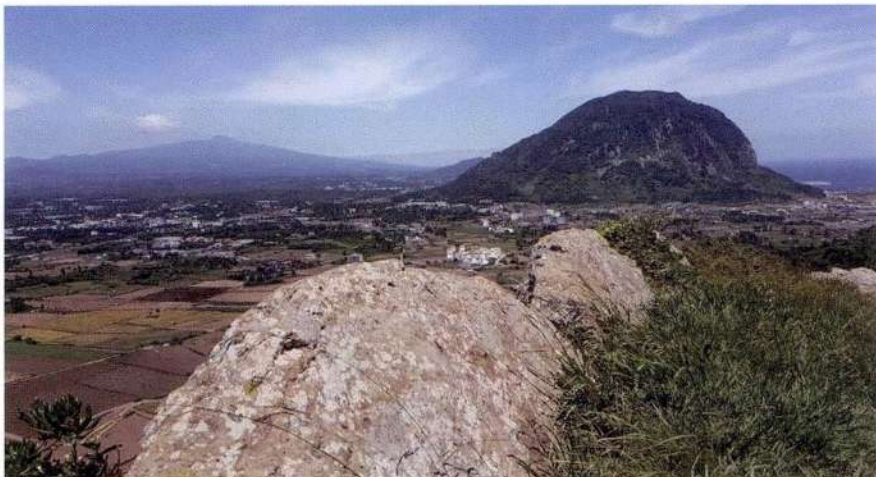


사진 3-87. 단산 정상부에서 바라본 산방산과 한라산

우리는 노자의 ‘허(虛)’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호는 노자가 말한 ‘허’에서 출발하여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 늘 여지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가장 큰 명제는 오름의 보호와 이미 개발로 인해 파괴된 원초적인 오름의 생명력과 중산간의 생태적 환경을 복원하는 일이다.

■ 풍수적 조화를 중시한 친환경적 개발

풍수의 근본은 자연과의 합일이다. 땅 자체를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입체적인 조화성을 중시한다. 자연물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지 않는다. 대립과 통일의 균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참여를 동일시한다. 중산간은 제주 환경의 중심점이며 구심점 역할을 한다. 풍수적으로 맥을 이어주는 중산간이 마구 파괴되고 있다. 제주의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이제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물의 근원지인 중산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며 유락업소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땅의 넓이가 한정된 섬인데 왜 그렇게 도로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도로로 인하여 마을의 지맥이 거의 끊겨 나가고 있다. 도로가 인간에게 교통의 편리만 보존해야 할 지역도 여지없이 허리가 관통되는가 하면 그 주변이 아파트 지역 아니면 새로운 상업 단지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연환경에 적합한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의 바다도 병이 들어가고 있다. 무슨 백화 현상이니 적조 현상이니 매스컴마다 들먹인다. 지금 제주도 바다는 온전한 곳이 없다. 해안의 동네마다 무분별하게 방파제를 만들어 해류의 작용을 막고 물의 순환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기혈(氣血)이 살아 움직이는 땅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적 지혜를 발휘하여 조화로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풍수와 관련한 관광 명소 발굴

태조산인 백두산으로부터 유원하게 흘러온 대맥(大脈)의 기운이 바다 건너 한라산으로 다시 일어나 생동하는 영험한 땅이 된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의 중심을 이루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동서 방향으로 장축(長軸)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거미줄처럼 지맥이 사방으로 이어져 오름을 통한 기혈(氣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오름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풍경은 신비하고 영험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관이다. 이러한 공간미의 예술성을 풍수와 연결한다면 더욱 그 가치가 살아날 것이다.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결과만 안겨 줄 것이다. 제주의 가치인 그 특유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지닌 오름을 자연 풍수관과 연결하여 관광 상품을 창조해 낸다면 제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오름들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오름의 실체를 모를 때 오름은 그저 오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오름의 실체를 알 때 그 오름은 최고의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름에는 제주의 풍수가



사진 3-88. 한라산 남벽

그대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풍수의 파노라마가 전개된다. 풍수와 관련한 전설과 풍수에 얽힌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오름을 통하여 원망성과 자연 공간미를 조망하고 풍수적 설명을 병행하여 제주의 오름을 설명한다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제주의 자연을 통한 풍수적 관광 개발은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참가치를 느끼게 하고 유형과 무형의 관념적 생태 관광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12. 맺음말

제주 풍수는 전통풍수지리에 바탕을 두고 제주 특유의 지리적 상황과 융합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한라산과 오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잉태된 지모관(地母觀)이 기본 골격을 이루면서 풍수와 관련된 설화와 전설이 많이 전해져 왔다. 그 속에는 제주 풍수의 내재성과 소응의식(所應意識), 선악의 결과에 따른 인과적 풍수윤리성이 점철되어 있다. 특히 제주에 전해오는 전설적인 명혈지로 알려진 양택과 음택 ‘6대 명혈지’에는 오름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민의 풍수적 이상향이 잘 배어 있다. 또한 금장지(禁葬地)에 나타난 윤리 의식 속엔 개인보다는 마을의 공동체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념도 찾아볼 수 있다. 단혈과 관련한 호종단의 풍수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불모지였던 당시의 척박한 상황을 벗어나 정신적인 보상을 위해 현실에 중점을 두고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의 도래를 꿈꾸며 가상의 인물을 형상화해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의식이 깔려 있다.

제주 풍수의 모체인 한라산과 오름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맺어진 지맥을 알 수 있다. 오름은 지맥을 이어주는 도체(導體)에 해당하므로 오름의 이해는 곧 제주 풍수를 이해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특히 오름을 귀중한 생명체로 상징화하여 인격과 동일시한 자연 풍수관이 잘 나타나 있다. 오름의 풍수적 산형을 통하여 입체적 공간의 조화를 중시한 제주 특유의 자연심미관(自然審美觀)을 지세의 풍수적 형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주에 산포된 많은 명혈지가 대부분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에 의해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 풍수의 지배적인 저류(底流)는 자연의 이치에 역류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연 풍수관으로 양·음택의 관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땅을 모태로 삼는 지모관은 오름을 진산으로 삼아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고 신성시하는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풍수의 윤리성을 앞세워 선악의 귀결로 나타나는 인과적 소응(所應)을 중시한

풍수 문화가 깊게 깔려 있음을 제주 풍수에 관한 설화나 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는 다른 기후의 특성과 풍토적인 요소로 인해 서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남동쪽을 선호했으며, 대개 마을의 공동 묘역이 남동쪽 내지는 장풍득수지(藏風得水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방위와 관계없이 풍수의 점혈(點穴) 이치에 따라 선영의 묘를 쓴 곳도 많다.

설화에 나타난 오름의 인격화엔 제주민의 지리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 자연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제주의 묘지 풍수를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산담(墓壇)을 통하여 표출된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 오름의 품에 돌아가 오름의 품에 묻히려는 귀소본능(歸巢本能) 의식 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오름을 사람의 인체와 동일시하여 풍수적 사고를 접목시킨 자연 풍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세의 보완성을 고려한 제주의 돌담과 초가 그리고 비보(裨補)와 관련된 돌문화의 건축문화를 연계해서 제주적인 생활 풍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제주만의 독특한 기후·지형과 맞물려 생활 문화 곳곳에 스며 있으며, 특히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 한계의 허실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압승의 풍수관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흔적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가까운 예로 방사탑과 돌담 내지는 대개의 마을이 오름을 좌(坐)로 하거나 안산으로 삼아 설촌된 점들이다. 마을에 얹힌 설촌 유래나 오름의 지명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땅을 모체로 한 자연 풍수관이 제주민들의 생활 속에 농축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서 오름과 맺어진 섬 특유의 문화 속에서 배태된 제주민의 의식과 생활 풍수관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한라산이 품고 있는 오름은 더 이상 개발과 점유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살찌우는 젖줄로 인식돼야 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 속에서 피워낸 생활 풍수문화를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름을 하나의 자연 인격체로 중시했던 제주 선민들의 자연환경 의식을 교훈 삼아 자연환경관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연을 경외하고 중시한 제주민의 문화 속

에는 무엇보다도 한라산과 오름을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본 제주 선민들의 정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오름을 의지한 이면에는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을 중시한 제주민의 자연풍수관이 깊게 자리했음을 더불어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作者未詳, 《瀛州誌》.
- 沖庵 金淨, 《濟州風土錄》.
- 淸陰 金尙憲, 《南岳錄》.
- 葵窓 李健, 《濟州風土記》.
- 太湖 李元鎮, 《耽羅誌》.
- 心齋 金錫翼, 《耽羅紀年》.
- 李重煥, 《擇里志》.
- 秦聖麒, 《南國의 地名由來》, 濟州民俗研究所, 1975.
- 梁弘植·吳太用 共編, 《濟州鄉土記》.
- 《濟州島實記》, 濟州實跡研究所發行.
- 《濟州島山錄》.
- 〈過瀛州山勢誌〉.
- 〈瀛州旣形詩〉.
-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文化社, 1964.
-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4.
- 《地理正宗》.
- 金鍾喆,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1995.
-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오창명,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신영대, 《풍수지리학 원리》, 서울, 경덕출판사, 2004.
- 신영대, 《제주의 오름과 풍수》, 서울, 백산출판사, 2009.
- 金奉玉,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金奉玉, 《增補濟州通史》.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교육자료 29호), 신일인쇄사, 1976.

※ 기타 참고한 전통 고전음양지리서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경(撼龍經)〉, 〈착맥부(捉脈賦)〉, 〈청낭경(靑囊經)〉, 〈설심부(雪心賦)〉, 〈옥수경(玉髓經)〉, 〈양택삼요(陽宅三要)〉 등.

제5권 저자들

제1장 | 좌혜경

중앙대학교 문학박사(1992)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역임

《제주민요를 지키는 명창들》(2012), 《제주의 이야기 유산》(2018) 외 다수

제2장 |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제주도 이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I·Ⅲ)》(2007),

《일제강점기 제주 지명 문화 사전》(2020) 외 다수

제3장 | 신영대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주역, 풍수연구) 중문학박사

제주관광대학교 관광중국어과 학과장 / 교수

대한민국 역학대명인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대의원

《풍수지리학원리》(2003), 《명리학원리대전》(2004), 《제주의 이름과 풍수》(2009) 외 다수

한라산 풍서 5

한라산의
구비천승·
지명·풍수



9 791187 735547



94080

ISBN 979-11-977355-4-7
ISBN 979-11-968758-9-3 (세트)